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 연구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전 정

(戰錚, ZHAN ZHENG)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 연구

지도교수 구 본 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전정
(戰錚, ZHAN ZHENG)

전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0년 7월

위 원 장 김 종 철 (인)

부위원장 윤 여 탁 (인)

위 원 구 본 관 (인)

국 문 초 록

한국어 반의어는 어휘력의 확장에 큰 도움을 줌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고급 수준에 이르러서도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한국어 반의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반의어 사용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반의어의 정의, 성립 조건, 유형 및 특성을 설명하고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대조 분석을 진행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국어 반의어 목록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반의어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구축하였다.

Ⅱ장에서는 기존의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반의어의 정의, 성립 조건, 유형 및 특성을 재검토하여 체계를 제시한 다음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를 대조 분석하여 한국어 반의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을 선정하였으며 중국 내에서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실태, 즉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와 교사의 인식 및 학습자의 인식까지 고찰하였다.

Ⅲ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반의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Ⅱ장의 이론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총 5개 부분으로 구성한

다음 중국인 고급 학습자 81명과 한국어 모어 화자 47명을 연구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고급 수준에 이르러서도 한국어 반의어를 사용함에 있어 정확도가 비교적 낮고, 한국어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 그중에서도 동의성, 다의성, 형태적 유표성, 의미적 유표성, 어휘적 빈자리에 대해 비교적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후 점검 인터뷰를 통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 차이가 나타난 원인까지 보다 자세하게 규명하고자 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의 교수·학습 목표와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반의어 사용 양상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교육 내용을 기술하고, 효과적인 교수를 위해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에서 의식 고양 과제, 입력 처리, 의미 협상을 활용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Ⅴ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어교육에서 반의어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정 접두 한자어 반의어의 대조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는 반의어의 주요 특성인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를 대조 분석하여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을 선정하였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의어 사용 양상 및 사용 양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던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에 주목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주요어:** 한국어교육, 반의어, 중국인 학습자, 복합성, 불균형성, 대조 분석,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

* **학 번:** 2018-29090

차 례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8

2.1. 반의어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 9

2.2. 반의어에 대한 대조언어학적 연구 ····· 11

2.3. 반의어에 대한 한국어교육학적 연구 ····· 12

3. 연구 대상 및 방법 ····· 17

Ⅱ. 한국어 반의어 교육 연구를 위한 전제 ····· 19

1. 반의어의 정의 및 유형 ····· 19

1.1. 반의어의 정의 및 성립 조건 ····· 19

1.2. 반의어의 유형 ····· 24

1.2.1. 상보 반의어 ····· 27

1.2.2. 등급 반의어 ····· 31

1.2.3. 관계 반의어 ····· 34

2. 반의어의 특성 ····· 38

2.1. 복합성 ····· 39

2.1.1. 다중 비교 기준 ····· 39

2.1.2. 다의성 ····· 41

2.1.3. 동의성 ····· 46

2.2. 불균형성 ····· 48
2.2.1. 중화 ····· 48
2.2.2. 유표성 ····· 52
2.2.3. 어휘적 빈자리 ····· 59
3.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대조 분석 ····· 63
3.1. 중국어 반의어의 유형 및 대조 분석을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 · 63
3.1.1. 중국어 반의어의 유형 ····· 63
3.1.2.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 ····· 65
3.2. 한국어와 중국어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 70
3.2.1. 상보 반의어 복합성의 대조 분석 ····· 71
3.2.2. 상보 반의어 불균형성의 대조 분석 ····· 75
3.3. 한국어와 중국어 등급 반의어의 대조 분석 ····· 100
3.3.1. 등급 반의어 복합성의 대조 분석 ····· 100
3.3.2. 등급 반의어 불균형성의 대조 분석 ····· 115
3.4. 한국어와 중국어 관계 반의어의 대조 분석 ····· 116
3.4.1. 관계 반의어 복합성의 대조 분석 ····· 116
3.4.2. 관계 반의어 불균형성의 대조 분석 ····· 126
4. 중국 내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실태 ····· 140
4.1.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 분석 ····· 141
4.2. 반의어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 147
4.3. 반의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 149

Ⅲ.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의어 사용

양상 및 사용 양상 차이의 원인 분석 ····· 153
1. 조사 방법 및 절차 ····· 154
1.1. 조사 참여자 선정 ····· 154
1.2. 조사 도구 개발 ····· 155
1.2.1.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 ····· 157
1.2.2. 사후 점검 인터뷰 ····· 160
1.3. 조사 절차 ····· 160
2. 조사 결과 분석 ····· 161
2.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상보 반의어 사용 양상 분석 · 161
2.1.1. 상보 반의어 복합성의 사용 양상 분석 ····· 163
2.1.2. 상보 반의어 불균형성의 사용 양상 분석 ····· 166
2.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등급 반의어 사용 양상 분석 · 173
2.2.1. 등급 반의어 복합성의 사용 양상 분석 ····· 175
2.2.2. 등급 반의어 불균형성의 사용 양상 분석 ····· 179
2.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관계 반의어 사용 양상 분석 · 181
2.3.1. 관계 반의어 복합성의 사용 양상 분석 ····· 183
2.3.2. 관계 반의어 불균형성의 사용 양상 분석 ····· 187
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의어 사용 양상 차이의 원인 분석 ····· 193
3.1. 중국어 반의어의 간섭에서 기인한 차이 ····· 194
3.2. 한국어 반의어의 복합성, 불균형성 등 복잡성에서 기인한 차이 · 195
3.3.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부재에서 기인한 차이 ····· 197

3.4. 학습자 요인에서 기인한 차이 ····· 198

Ⅳ.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의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 ····· 201

1. 한국어 반의어의 교수·학습 목표 ····· 201

2.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내용 ····· 202

2.1. 상보 반의어의 교육 내용 ····· 203

2.2. 등급 반의어의 교육 내용 ····· 206

2.3. 관계 반의어의 교육 내용 ····· 208

2.4. 반의어 유형 차이의 교육 내용 ····· 212

3. 한국어 반의어의 교수·학습 방법 ····· 213

3.1.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의 필요성 ····· 214

3.2.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의 적용 ····· 217

3.2.1. 발견 단계: 의식 고양 과제 적용 ····· 217

3.2.2. 제시 단계: 입력 처리 적용 ····· 219

3.2.3. 생성 단계: 의미 협상 적용 ····· 221

Ⅴ. 결론 ····· 225

※참고문헌 ····· 229

※부록 ····· 237

※ABSTRACT ····· 259

표 차례

<표Ⅰ-1> 연구 방법 ····· 17
<표Ⅱ-1>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93쌍) ····· 69
<표Ⅱ-2>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상보 반의어 목록(44쌍) ····· 70
<표Ⅱ-3>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등급 반의어 목록(19쌍) ····· 100
<표Ⅱ-4>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계 반의어 목록(30쌍) ····· 116
<표Ⅱ-5>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와 중국에서 번역된 한국어 교재 ··· 141
<표Ⅱ-6> 고급 학습자들의 반의어 교육 내용 분석을 위해 선정한 한국어 교재 ····· 142
<표Ⅱ-7> 고급 학습자들의 반의어 교육 내용 분석 결과 ····· 142
<표Ⅱ-8> 반의어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양상 조사 결과 ····· 147
<표Ⅱ-9> 반의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양상 조사 결과 ····· 149
<표Ⅲ-1> 조사 참여자 정보 ····· 155
<표Ⅲ-2> 조사 도구 ····· 155
<표Ⅲ-3>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 예시 ····· 158
<표Ⅲ-4> 설문지 구성 ····· 159
<표Ⅲ-5> 조사 절차 ····· 161
<표Ⅲ-6> 상보 반의어 복합성 중 동의성의 사용 양상 ····· 163
<표Ⅲ-7> 상보 반의어 복합성 중 동의성의 사용 양상 분석 ····· 164
<표Ⅲ-8> 상보 반의어 복합성 중 다의성의 사용 양상 ····· 165
<표Ⅲ-9> 상보 반의어 복합성 중 다의성의 사용 양상 분석 ····· 165
<표Ⅲ-10> 상보 반의어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 ····· 167

<표Ⅲ-11> 상보 반의어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 분석 ····· 169
<표Ⅲ-12> 상보 반의어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 ····· 170
<표Ⅲ-13> 상보 반의어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 분석 ····· 171
<표Ⅲ-14> 상보 반의어 불균형성 중 어휘 공백에 의한 어휘적 빈자리의 사용 양상 ····· 172
<표Ⅲ-15> 상보 반의어 불균형성 중 어휘 공백에 의한 어휘적 빈자리의 사용 양상 분석 ····· 172
<표Ⅲ-16> 등급 반의어 복합성 중 동의성의 사용 양상 ····· 176
<표Ⅲ-17> 등급 반의어 복합성 중 동의성의 사용 양상 분석 ····· 176
<표Ⅲ-18> 등급 반의어 복합성 중 다의성의 사용 양상 ····· 177
<표Ⅲ-19> 등급 반의어 복합성 중 다의성의 사용 양상 분석 ····· 178
<표Ⅲ-20> 등급 반의어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 ····· 180
<표Ⅲ-21> 등급 반의어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 분석 ····· 180
<표Ⅲ-22> 관계 반의어 복합성 중 동의성의 사용 양상 ····· 184
<표Ⅲ-23> 관계 반의어 복합성 중 동의성의 사용 양상 분석 ····· 185
<표Ⅲ-24> 관계 반의어 복합성 중 다의성의 사용 양상 ····· 186
<표Ⅲ-25> 관계 반의어 복합성 중 다의성의 사용 양상 분석 ····· 186
<표Ⅲ-26> 관계 반의어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 ····· 188
<표Ⅲ-27> 관계 반의어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 분석 ····· 189
<표Ⅲ-28> 관계 반의어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 ····· 190
<표Ⅲ-29> 관계 반의어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 분석 ····· 191
<표Ⅲ-30> 관계 반의어 불균형성 중 어휘 공백에 의한 어휘적 빈자리의 사용 양상 ····· 192

<표Ⅲ-31> 관계 반의어 불균형성 중 어휘 공백에 의한 어휘적 빈자리의 사용 양상 분석 ····· 192
<표Ⅲ-3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의어 사용 양상 차이의 원인 ····· 199
<표Ⅳ-1>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의 교수·학습 목적과 목표 ····· 202
<표Ⅳ-2>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상보 반의어의 교육 내용 ····· 203
<표Ⅳ-3>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등급 반의어의 교육 내용 ····· 206
<표Ⅳ-4>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계 반의어의 교육 내용 ····· 209
<표Ⅳ-5>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유형 차이의 교육 내용 ····· 212
<표Ⅳ-6>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의 유형 ····· 215
<표Ⅳ-7>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 중 의식 고양 과제의 특징 ····· 217
<표Ⅳ-8>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 중 입력 처리의 특징 ····· 219
<표Ⅳ-9>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 중 의미 협상 모델 ····· 221

그림 차례

[그림Ⅱ-1] 순수 상보어와 정도 상보어의 의미 영역 분할 ····· 31
[그림Ⅱ-2] 서로 다른 의미 자질 비교 기준에 의한 가족 관계 ····· 40
[그림Ⅱ-3] 중화 가능성에 따른 유표성의 구조도 ····· 56
[그림Ⅱ-4] 중화 실현성에 따른 유표성의 구조도 ····· 56
[그림Ⅲ-1] 상보 반의어 복합성, 불균형성의 집단별 정확도 ····· 162
[그림Ⅲ-2] 상보 반의어 복합성의 집단별 정확도 ····· 163
[그림Ⅲ-3] 상보 반의어 불균형성의 집단별 정확도 ····· 167
[그림Ⅲ-4] 등급 반의어 복합성, 불균형성의 집단별 정확도 ····· 174
[그림Ⅲ-5] 등급 반의어 복합성의 집단별 정확도 ····· 175
[그림Ⅲ-6] 등급 반의어 불균형성의 집단별 정확도 ····· 179
[그림Ⅲ-7] 관계 반의어 복합성, 불균형성의 집단별 정확도 ····· 182
[그림Ⅲ-8] 관계 반의어 복합성의 집단별 정확도 ····· 183
[그림Ⅲ-9] 관계 반의어 불균형성의 집단별 정확도 ····· 188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단위는 문장도 담화도 아닌 단어이다. 외국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법이라기보다 어휘이다. 이는 우리가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어려움을 느꼈던 대부분 경우가 어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입증이 된다.[1)]

구본관(2011: 28)에서는 어휘는 모든 국어 활동의 기초 자원으로서 의사소통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결정하는 핵심 인지라고 하였다. 또한, 어휘는 언어에서 기초적인 의미 단위로서,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 하지만 어휘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본관 외(2014: 28)에 따르면 어휘는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속성을 가지는 것뿐 아니라 그 속에 다양한 문화와 사고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도 하다.

김광해(1993: 305)에서는 어휘는 기본적으로 한 언어의 실체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언어를 구성하는 음운, 형태, 통사 등 부문들 가

1) 김은혜(2017: 18)에 따르면 어휘는 언어습득의 시작이며 의사소통의 필수 도구이다. 학습자들은 단어들을 통해서 자모를 익힘으로, 언어학습의 첫걸음을 내디딘다. 말을 할 때 어휘의 습득은 출발점이고, 습득한 어휘를 바탕으로 두 어휘인 문장, 세 어휘인 문장으로 확장하여 말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의 언어 구사 능력이 습득한 단어 하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은 어휘가 효과적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박홍길(2002: 249)에 따르면 어휘는 언어의 이해와 표현에서 의미의 기본 요소로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의미 단위인 어휘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언어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의미를 주고받는 것이므로, 의미의 기초 단위가 되는 어휘는 언어 교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어휘를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운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언어를 완전히 습득한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어휘 부문이라고 하며 어휘력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어휘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형성하는 데 기본이 되며 어휘 교육은 한국어교육에서 기본적으로 교육해야 할 분야이다. 김광해(1993: 306)에서는 어휘력이라는 언어 능력을 '단어들의 집합인 어휘를 이해하거나 구사하는 일에 관한 언어 사용자의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어휘력을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으로 나누고 질적 능력에서 어휘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중 특별히 반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반의 관계가 어휘력의 질적 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

강수진(2011: 15)에 따르면 새로운 정보에 대한 학습은 정보를 이루는 구성요소 간의 관계 발견이며, 이러한 관계는 기존 지식체계의 구성 요소와 연합되고 통합되어 학습자의 내적인 인지구조의 변화를 일으킨다. 따라서 학습자의 어휘력 확장을 위해서 관련 없는 다수의 어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의미 관계가 있는 어휘 교육이 학습자의 기억과 산출에 효과적이다. 어휘의 의미 관계 교육에는 상·하위어, 다의어, 유의어, 반의어 교육 등이 있다. 학습자가 개개의 단

---

2) 김광해(1993: 306)에서는 어휘력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양적 능력
2. 질적 능력
   (1) 어휘소의 의미에 대한 이해
      ① 단일 어휘소의 의미(단어의 의미, 다의)
      ② 관용적 어휘소의 의미(숙어, 속담, 사자성어 등)
      ③ 단어의 다의성에 대한 이해
   (2) 어휘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① 유의 관계, 반의 관계
      ② 공기 관계

어를 학습할 경우 개별 단어의 의미를 습득하고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알아내어 기존의 지식정보체계 속에 연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어휘 관계로 어휘를 제시하게 되면 학습자는 더욱 쉽게 인지구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휘의 의미 관계 교육은 학습자의 어휘력 확장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어 학습자들의 어휘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교재에 제시된 단어 외에도 반의 관계를 이룬 반의어와 같은 의미상으로 관련된 단어를 교육하는 것은 학습자의 어휘력 확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한재영 외(2010: 79)에 따르면 세상 만물에 음양이 있듯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하나의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과 대립되는 짝을 생각하게 된다, 어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어휘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흔히 대립되는 의미를 가진 어휘를 통해 그 반대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음어, 다의어, 유의어보다 반의어가 인간의 의식 구조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도 한다. 하여 어휘를 학습할 때 반의어를 함께 학습하면 학습 효과가 몇 배로 커질 수 있다. 어떤 단어 X를 학습할 때 반의어 Y를 함께 학습하면, X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Y까지 함께 학습하는 부수적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데, 이는 X, Y 둘의 학습 시간을 짧게 할 뿐만 아니라 학습 효율도 높일 수 있다.

김광해(1993: 205)에서는 반의어가 대립적인 개념을 가진 어휘들의 묶음이므로 반의어 학습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어휘 습득 과정에서 어휘량을 손쉽게 늘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반의어들이 서로 관련어로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교육적인 효용성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서형(2013: 9)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문제를 분석하여 반의어 문제에 관

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는데 2003년의 7회 문제부터 2013년 30회 문제까지 문항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 반의어 관계 문항이 지속적으로 출제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김은혜(2012: 1)에 따르면 한국어 학습자는 각자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국어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추어 하나의 모국어 어휘 속에서도 어휘 자체가 지닌 본래의 의미와 더불어 삶 속의 개인적 체험과 문화·사회적 경험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가 가진 이러한 지식과 경험은 한국어 어휘를 사용할 때 한계를 보인다. 학습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관습과 문화에 따른 경험적 지식이 축적되어 있기에 한국인이 지닌 경험적 지식과 같은 의미 부류를 통해 상황을 인식한다고 판단할 수 없고 한국어 어휘가 가진 의미를 깊이 있게 느끼기 어려우며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각 나라 언어의 어휘 속에는 그 나라 언어의 문화적 특징이 들어있는데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반의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언어의 어감을 제대로 느끼고 그 언어와 관련된 표현 방법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반의어를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상반된 의미의 어휘를 알고 넘어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의어를 활용하여 수사적인 표현과 유머 등 언어 표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 한국인의 언어 습관과 사유 방식 및 언어 속에 담긴 문화적 배경까지 학습시켜 어휘력의 질적 능력을 확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착어인 한국어와 고립어인 중국어는 같은 한자 문화권에 속하여 형태적으로 한자어가 서로 같지만, 실제로 한국어 한자어는 언어적 필요성에 따라 자체적인 발달 과정을 거쳐 한국어 특유한 어휘체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한자어의 구조,

의미, 쓰임이 중국어와 비교할 때 일정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에서도 체현되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으로 인해 한국어 반의어가 중국어 반의어와 모두 일대 일의 대응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에서는 반의 관계를 이루는 반의어이지만 중국어에서는 형태적으로 같아도 반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고 반대로 중국어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의어이지만 한국어에서는 포함하는 의미 범위가 다르거나 표현 형태 및 쓰임이 변화되어 반의 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않거나 한국어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반의어 표현일 가능성이 있다.

(1) ㄱ. 관심(關心)↔무관심(無關心)
關心↔不關心
ㄴ. 정열적(情熱)↔미온적(微溫)
情熱↔冷淡
ㄷ. 개강(開講)↔종강(終講)
開講

예시(1ㄱ)는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형태적 유표성 차이의 예인데 한국어 '관심'의 반의어는 '관심이나 흥미가 없음'을 의미하는 '무관심'이지만 중국어에는 '무관심'이란 한자어가 제시되지 않고 '관심이나 흥미가 없음'을 의미하는 '不關心'이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 또는 그런 마음이나 주의'를 의미하는 '關心'과 반의어를 형성한다. (1ㄴ)는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의미적 유표성 차이의 예인데 한국어 '정열적'의 반의어는 '태도가 미적지근한 것'을 의미하는 '미온적'이지만 중국어에는 '미온적'이란 한자어가 제시되지 않고 '태도가 미적지근한 것'을 의미하는 '冷淡'이 '정열에 불타는 것'을 의미하는 '情熱'과 반의어를 형성한다. (1ㄷ)는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어휘적

빈자리 차이의 예인데 한국어 '개강'의 반의어는 '한 학기의 강의가 끝나거나 강의를 끝마침. 또는 한 학기의 마지막 강의'를 의미하는 '종강'이지만 중국어에는 '종강'이란 한자어가 제시되지 않고 '한 학기의 강의가 끝나거나 강의를 끝마침. 또는 한 학기의 마지막 강의'를 의미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으며 '강의나 강습 따위를 시작함'을 의미하는 '開講'만 존재한다. 이렇게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는 반의어의 불균형성으로 인해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러한 차이로 인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교육 현장에서는 반드시 한국어 반의어의 불균형성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반의어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 간의 차이가 교육된다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ㄱ. 핵가족(核家庭)≈소가족(小家庭)
대가족(大家庭)↔핵가족, 대가족(大家庭)↔소가족
大家庭↔小家庭
ㄴ. 개업(開業)↔폐업(廢業), 개업(開業)↔폐업(閉業)
開業↔廢業, 開業↔停業

예시(2ㄱ)는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동의성 차이의 예인데 한국어에서 '한 쌍의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하는 '소가족'과 '한 쌍의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하는 '핵가족'은 상대적 동의 관계이고 이들은 각각 '직계나 방계의 친족 및 노비 따위로 이루어진 가족. 가장권에 의하여 통제되며, 전근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가족 형태이다'를 의미하는 한국어 '대가족'과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중국어에는 '핵가족

'이란 한자어가 제시되지 않고 '한 쌍의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하는 '小家庭'이 '직계나 방계의 친족 및 노비 따위로 이루어진 가족. 가장권에 의하여 통제되며, 전근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가족 형태이다'를 의미하는 '大家庭'과 반의어를 형성한다. (2ㄴ)는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다의성 차이의 예인데 한국어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 그날의 영업을 시작함'을 의미하는 '개업'의 반의어는 '영업을 하지 않음, 그날의 영업을 끝냄'을 의미하는 '폐업(閉業)'이고, '영업을 처음 시작함'을 의미하는 '개업'의 반의어는 '직업이나 영업을 그만둠'을 의미하는 '폐업(廢業)'이다. 하지만 중국어에는 '폐업(閉業)'이란 한자어가 제시되지 않고 '직업이나 영업을 그만둠'을 의미하는 '廢業'이 '영업을 처음 시작함'을 의미하는 '開業'과 반의어를 형성하고 '영업을 하지 않음, 그날의 영업을 끝냄'을 의미하는 '停業'이 '영업을 하고 있음, 그날의 영업을 시작함'을 의미하는 '開業'과 반의어를 형성한다. 이렇게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는 반의어의 복합성으로 인해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러한 차이로 인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교육현장에서는 반드시 한국어 반의어의 복합성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반의어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 간의 차이가 교육된다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력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상술한 예시 외에도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가 사용에 있어 일치하는 않는 예가 많다. 따라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반의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 반드시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차이점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학습자들이 모국어에 의한 간섭으로 오류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며 부정적 전이를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전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반의어의 교육 내용을 설계하고 교수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입장에서 출발하여, 한국어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한국어 반의어의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기존의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반의어의 유형과 특성을 재검토하여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을 선정하고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대조 분석을 진행하며 중국 내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실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의어 사용 양상을 살피고 사용 양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3.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 내용을 고안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구축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는 그 연구 내용에 따라 국어학적 연구와 대조언어학적 연구, 그리고 한국어교육학적 연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어학적 연구는 주로 반의어의 정의, 반의어의 유형, 반의어의 의미 양상, 반의어의 의미 작용, 반의어의 어휘적 빈자리, 다의어의 대립적 의미 관계, 한자어 반의어의 형태적 구성과 의미 유형 및 불균형 분포, 중·근세 국어반의어의 변천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대조언어학적 연구에는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식 반의어 대조 연구,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 관계의 문장 실

현 양상 대조 연구,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 연상 비교 연구, 한국어와 중국어 위치 관계어의 의미 대조 연구, 한국어와 중국어 자기 반의어의 의미 양상 연구, 한·중 반의어의 다의 구조 대조 연구 등이 있다. 그리고 한국어교육학적 연구는 주로 한국어 반의어 교육의 실태, 한국어 교육용 반의어의 선정과 분류, 반의어의 교수 원리, 반의어의 교수 방법과 교수 모형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2.1. 반의어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먼저 반의어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김광해(1993)에서는 반대어를 의미 자질에 있어 반의와 대립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최호정(2013)에서는 반의어를 동일한 범주 내에서 그 뜻이 서로 정반대가 되는 관계를 지닌 말로, 모든 의미 자질이 동일하나 하나의 자질만이 이질적인 관계를 지닌 단어 쌍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승명(1977)에서는 상대어를 상관적 의미 관계, 대칭적 의미 관계, 모순적 의미 관계, 대조적 의미 관계 네 가지로 나누어 이들 관계어를 각각 대립어, 대칭어, 반대어, 대조어라고 하였고 강수진(2010)에서는 반의어의 의미 유형을 모순 대립에 의한 반의어, 반대 대립에 의한 반의어, 상호 의존적 상대 대립에 의한 반의어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중 모순 대립에 의한 반의어를 일반적 모순 대립과 논리적 모순 대립으로 세분하였고, 반대 대립에 의한 반의어를 양 극단적 반대 대립과 중심지향적 반대 대립으로 세분하였으며, 상호 의존적 상대 대립에 의한 반의어를 대칭적 상호 의존 대립, 이치적 상호 의존 대립, 다항적 상호 의존 대립, 순차적 상호 의존 대립으로 세분하였다. 또한 전수태(1997)에서는 상황 반의어와 부정 반의어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상황 반의어란 자극어 A에 대한 반의어가 서로 다른 맥락 상황

에 따라 A' 이외에 B', C'가 될 수 있는 반의어이고, 부정 반의어란 부정 접두어와 어기가 결합하여 형성한 부정의 뜻을 가진 반의어를 가리킨다. 뿐만 아니라 한자어 반의어에 대해 이사교(2014a)에서는 한자어 반의어의 형태적 구성을 독립어소형 한자어 반의어, 대립어소형 한자어 반의어, 부정어소형 한자어 반의어로 분류하였고 한자어 반의어의 의미 유형을 절대 반의어, 상대 반의어, 상관 반의어로 분류하였으며 상관 반의어를 다시 관계 반의어, 역동 반의어, 방향 반의어, 대응 반의어, 상황 반의어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한자어 반의어의 불균형 분포에 대해서는 사용 빈도의 불균형, 조어 능력의 불균형, 의미 분포의 불균형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다음 반의어의 의미 양상 및 의미 작용에 대해 임지룡(1989)에서는 대립어의 의미 양상을 극성, 중화, 유표성을 기준으로 고찰하였으며 대립어의 의미 작용을 어휘 습득, 어휘 연상 및 어휘 합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이사교(2014a)에서는 반의어의 불균형 현상을 중화 현상, 유표성과 무표성, 어휘적 빈자리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또한 김주보(1988)에서는 반의어의 어휘적 빈자리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반의어의 어휘적 빈자리란 반의 관계를 이루는 두 단어 중 한쪽만 존재하고 다른 한쪽이 결여된 상황을 가리킨다.

이어서 도재학(2011)에서는 다의어의 대립적 의미 관계에 대해 제시하였는데 다의어의 대립적 의미 관계를 상보적 대립 관계, 상관적 대립 관계, 상반적 대립 관계, 정도적 대립 관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다의어의 대립적 의미 관계의 발생 원인에 대해 밝혔는데 언어적 원인은 구성 요소의 의미 대립과 결합 요소의 의미 반영이고, 비언어적 원인은 화자의 관점 대립과 대상의 표리 대립 및 문화적 환경 조건이다.

마지막 전문규(2017)에서는 반의어 연구의 주요 방법론인 구조의미적 접근

법, 말뭉치 접근법, 화용적 접근법, 인지적 접근법을 제시하였고, 문장 내에서의 공존 양상과 상황 맥락 속에서의 작용 양상을 통해 상황적 반의어에 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중·근세 국어반의어의 변천을 규범적 반의어와 상황적 반의어로 나누어 밝혔는데 규범적 반의어를 다시 상보 반의어로 분류하였던 [-정도성]의 자질을 갖는 제1 반의어, 정도 반의어로 분류하였던 [+정도성]의 자질을 갖는 제2 반의어, 방향 반의어로 분류하였던 일항 반의어와 다르게 대립되는 단어가 집단을 형성한 다항 반의어인 제3 반의어로 세분하였다.

2.2. 반의어에 대한 대조언어학적 연구

먼저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식 반의어의 대조에 대해 최중식·장태원(2010)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한자어의 기본 특징을 각각 논술하였고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정 형태소 '無, 非, 不, 未'의 특징을 비교하였으며 한국어와 중국어 동형동의 단어와 부정 형태소의 결합 양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음 한·중 반의어 다의 구조의 대조에 대해 주설(2019)에서는 반의어의 다의 구조를 방향 반의어의 다의 구조, 정도 반의어의 다의 구조, 상보 반의어의 다의 구조 세 가지로 나누었고, 방향 반의어를 다시 수평 이동 반의어, 수직 이동 반의어, 수평 위치 반의어, 수직 위치 반의어, 정보 반의어를 다시 척도 반의어, 평가 반의어, 정감 반의어로 세분하여 한·중 반의어의 다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의미 양상과 문장 실현 양상에 대해 왕난난(2017)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자기 반의어의 의미 양상을 대조하였는데, 자기 반의어에서 관찰되는 대립적 의미를 방향적 대립, 척도적 대립, 상보적 대립으

로 나누었고, 방향적 대립을 다시 공간적 방향의 대립과 관계적 방향의 대립, 척도적 대립을 다시 양의 대립과 가치 평가의 대립으로 세분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자기 반의어의 의미 양상을 분석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 위치 관계어의 의미 대조에 대해 풍정정(2016)에서는 위치 관계어를 상하 위치 관계어, 전후 위치 관계어, 좌우 위치 관계어, 측위 위치 관계어, 내외와 표리 위치 관계어로 나누고 공간 의미와 의미 확장, 반의 구조 및 한국어와 중국어 위치 관계어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술하였다. 추엔웨이(2013)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 관계의 문장 실현 양상을 대조하였는데, 먼저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개념, 반의 관계의 개념, 반의어의 유형을 대조하였고, 다음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 관계의 문장 실현 양상을 12가지로 나누어 각각 대조하였다.

마지막 이사교(2014b)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연상을 비교하였는데, 반의어를 절대 반의어, 상대 반의어, 상관 반의어로 나누었고, 상관 반의어를 다시 관계 반의어, 대응 반의어, 상황 반의어로 세분하여 반의어의 연상을 비교하였다. 하여 결론을 내렸는데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연상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언어체계에 의한 차이, 사회 문화에 의한 차이, 한민족의 민족성에 의한 차이, 국가 정치 체계의 차이, 사회 현상에 의한 차이, 경제 발전 정도에 의한 차이 여섯 가지로 종합하였다.

2.3. 반의어에 대한 한국어교육학적 연구

먼저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용 반의어의 선정에 관해 김혜은(2007)에서는 품사별로 교육용 반의어 학습 목록을 선정하였으며 그중 초급용 단어는 982개이고 중급용 단어는 2111개이며 고급용 단어는 2872개이다. 그리고

문법 항목을 활용한 교육, 대화 전환 간 수업 구성, 문맥 전환 간 수업 구성 및 게임을 통해 반의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적용 단계가 초급과 중급에만 한정되고 고급 학습자에 대한 반의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한계점이다. 강수진(2011)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반의어 어휘 항목을 도합 2700개 선정하였고 교사의 반의어 교육 실태와 학습자의 반의어 학습 실태까지 분석하였는데, 중국, 일본, 미국, 태국, 러시아, 베트남, 스페인에서 온 초·중·고급 학습자 160명을 대상으로 학습자 오류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용 반의어를 분류하였는데, 의미적 특성에 따라 상보 반의어, 정도 반의어, 상관 관계 반의어로 분류하였고 상관 관계 반의어를 다시 역의 관계 반의어, 역동 관계 반의어, 등위 관계 반의어로 세분하였다. 형태적 특성에 따라서는 두 가지 반의 관계 형태소 구성 반의어와 네 가지 부정 형태소 첨가 구성 반의어로 세분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수 방법에 대해서는 의미적 특성과 형태적 특성으로 나누어 여러 가지 반의어 유형에 따라 각각 교수 방법과 교수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용 반의어의 분류 중 형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가 의미적 특성에 따른 분류처럼 모든 반의어를 포함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다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반의어의 교수 모형 설계에 관해 최유정(2013)에서는 반의어 교수 원리와 교수 목표, 교수 단계, 교수 방법 및 교수 평가를 포함한 교수 모형을 밝혔다. 하지만 반의어 교육에서 연어의 활용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아쉬웠다.

이어서 한국어 초·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반의어의 교육 방안에 관해 진탁(2017)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중심으로 한국어 초급 단계를 위한 반의어 제시 방안을 연구하였다. 형용사 반의어 54쌍와 동사 반의어 95쌍을 초급 반의어 어휘 목록으로 선정하였고, 연결어미 14개, 종결어미 13개, 전성어미 1개, 덩어리

표현 18개 총 46개의 문법 표현을 반의어 교육을 위한 문법 표현으로 선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초급 어휘 교육에서의 반의어 교육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명확한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밝히지 않았고 동사와 형용사를 중심으로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들만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 한계점이라고 생각한다. 중급 학습자를 위한 반의어 어휘 교육 방안에 관해 김지연(2011)에서는 반의어 교육의 필요성을 교사 30명과 중국, 베트남, 태국,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에서 온 학습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고 반의어 교육 방안과 중급 학습자를 위한 반의어 교수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반의어 학습의 효용성까지 검증하였다. 하지만 중급 학습자들만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생각한다. 최미옥(2019)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중심으로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 방안을 연구함에 있어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교육용 반의어와 대학교별 교재에 나타난 반의어를 비교 분석하였고 공통으로 나타난 교육용 반의어 목록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반의어 교수 모형과 교육 내용을 설계하였는데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또한 반의 현상을 중심으로 관용표현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에 관해 이경숙(2007)에서는 관용표현을 관용어, 연어, 속담, 사자성어 네 가지로 나누어 반의 관계의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교육용 학습 목록을 선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용표현의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그림을 통한 관용표현 교육과 노래를 통한 관용표현 교육 두 가지만 소개한 것이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규(2014)에서는 대립성의 의미적 확장을 통한 한국어 반의 표현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대립성의 의미적 확장을 다의성에 따른 의미적 확장, 부정성에 따른 의미적 확장, 문맥상에서의 의미적 확장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한국어 학습자의 반의어 교육 방안을 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

한 교육 방안과 광고매체를 활용한 교육 방안 두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의미적 확장을 통한 한국어 반의 표현의 교육 방안을 아주 체계적으로 구축하지 못한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방법에 관해 최호정(2013)에서는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방법을 유형별 반의어 교육 방법, 주제별 반의어 교육 방법, 통합적 반의어 교육 방법으로 나누고 유형별 반의어 교육 방법을 다시 상보 반의어 교수 방법, 정도 반의어 교수 방법, 관계 반의어 교수 방법으로 세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하지만 주제별 반의어 교육 방법과 통합적 반의어 교육 방법에서 방법만 언급하고 교수·학습 내용을 설계하지 않은 부분이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황종(2007)에서는 부정 접두 한자 반의어를 중심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을 연구함에 있어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 접두 한자 반의어를 '不, 否, 沒, 無, 未, 非, 反' 일곱 가지로 나누어 비교하면서 대조 분석을 진행하였고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반의어 교육 실태를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부정 접두 한자 반의어의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사전을 찾는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기, 형태별로 비교 대조해서 가르치기, 의미별로 비교 대조해서 가르치기, 쓰임별로 비교 대조해서 가르치기, 문맥을 통해서 가르치기 다섯 가지 교육 방법이 있다.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반의어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은 좋았지만, 부정 접두 한자 반의어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한 것이 한계점이다. 또한 서기선(2007)에서는 초등학교 국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나타나는 상대어의 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상대어 지도 방법을 연구하였는데 문제 파악하기→자료 분석하기→규칙 찾기→심화 보충하기→정리하기의 교수·학습 모형을 사용하였고 상대어 지도를 위해 어휘를 선정하였다. 가족 및 인간관계, 동작이나 행위, 느낌이나 감정, 천체나 시간,

지형 및 방향, 동식물에 관련된 어휘를 지도 대상에 따른 상대어로 분류하였고 공존과 보완 관계, 공존과 대등 관계, 단독과 연속 관계, 단독과 모순 관계인 어휘를 유형에 따른 상대어로 분류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대어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연상 낱말 놀이, 색깔 이용하기, 낱말 바꾸기, 십자말풀이, 짧은 글짓기, 상대어 찾기, 국어사전에서 찾아 쓰기, 속담·격언을 이용하기, 의미 지도 그리기, 의미 자질 분석하기, 상대어 기준 찾기 등 방법이 있다. 그러나 지도 방법은 다양하고 참신했지만,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여서 고급 학습자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것이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첫째, 국어학적 연구에서는 주로 반의어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다루었고 대조언어학적 연구에서는 주로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 중 한 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대조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한국어교육학적 연구에서는 주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동사와 형용사, 혹은 부정 반의어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과 교수 모형 및 교수·학습 방법을 분석하였다. 둘째, 대조언어학적 입장에서 반의어 유형과 특성, 즉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중심으로 중국어 반의어와 차이 있는 한국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한국어교육학적 입장에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 선정이 아직 되어있지 않으며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반의어 사용 양상에 대한 분석과 이에 적합한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학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반의어의 정의, 성립 조건, 유형 및 특성을 제시하고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을 선정한 다음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대조 분석을 진행하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의어 사용

양상 및 사용 양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반의어의 효과적인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고안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표Ⅰ-1> 연구 방법

단계	연구 내용	연구 자료 및 방법
Ⅱ장	- 반의어의 정의 및 성립 조건 정리	- 문헌 연구
	- 반의어의 유형 및 특성 귀납	- 문헌 연구
	-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 선정	- 문헌 연구
	-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 대조 분석	- 문헌 연구
	- 중국 내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실태 조사	- 교재 분석 - 교사의 인식 조사 - 학습자의 인식 조사
Ⅲ장	-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의어 사용 양상 및 사용 양상 차이의 원인 분석	-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설문지 조사 및 사후 점검 인터뷰 - 한국어 모어 화자 설문지 조사 및 사후 점검 인터뷰 - 통계분석
Ⅳ장	- 교육 내용 고안 및 교수·학습 방법 구축	- 결과 분석 및 문헌 연구

Ⅱ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 반의어에 대해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반의어의 정의, 성립 조건, 유형 및 특성을 정리하여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대조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의어 사용 양상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와 사후 점검 인터뷰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의어 사용 양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한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결과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반의어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한국어 반의어 교육 연구를 위한 전제

1. 반의어의 정의 및 유형

1.1. 반의어의 정의 및 정립 조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반의어를 '그 뜻이 서로 정반대되는 관계에 있는 말'이라고 정의하였는데, 한 쌍의 말 사이에 서로 공통되는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한 개의 의미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반의어의 예로는 '여자'와 '남자', '처녀'와 '총각', '위'와 '아래', '크다'와 '작다', '가다'와 '오다'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의어는 동의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되는데, 라이언스(Lyons, 1977: 286)에 따르면 반의어로 번역되는 'antonymy'란 단어는 19세기에 동의어 'synonymy'의 반대로 여겨지는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반의어가 의미의 동질성에 초점을 맞춘 동의어와 반대되는 표현으로서 의미의 이질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반의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antonymy'를 지칭함에 있어 '반대어'(허웅, 1983; 남기심, 1974; 김광해, 1993), '상대어'(이승명, 1973; 박선희, 1984; 김종택, 1992; 서기선; 2007), '대립어'(박정무, 1981; 김주보, 1988; 임지룡, 1988; 신희삼, 2004; 이광호, 2009), '반의어'(심재기, 1975; 강사민, 1980; 성열호, 1983; 정인수, 1991; 전수태, 1997; 최호정, 2013; 윤평현, 2013) 등이 사용되었다.[3)]

3) 허웅(1983: 154)에서는 두 말의 시니피에가 맞서게 되는 것을 반대어라고 정의하였고, 남기심(1974: 133)에서는 두 개의 낱말이 모든 의미 자질을 공통적으로 갖고 하나의 자질만이 상반될 때 두 낱말을 서로 반대어라고 정의하였으며, 김광해(1993: 206)에서는 의미 자질에 있어 반의와 대립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가지는 것을 반대어라고 정의하였다.

이승명(1973: 90)에서는 상대어란 반대어, 반의어, 반대말, 반어, 대어, 대의어 등 일체의 의미 상관관계를 포함하는 가장 폭넓은 술어라고 주장하였고, 반의어, 반대어 등이 포용하지 못했던 상관적 의미 관계, 대칭적 의미 관계, 모순적 의미 관계 및 대조적 의미 관계까지 포괄하는 술어라고 정의하였다. 박선희(1984: 15)에서는 상대어란 포괄적인 의미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규정하였고, 경우에 따라 부정어도 상대어에 포함한다고 하였다. 김종택(1992: 248)에서는 상대어를 의미적 대립 관계에 주목하여 대립어, 반대어 혹은 반의어라고도 하나, 본질적으로 모든 어휘는 어휘장 내에서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고, 또 상대되는 두 짝은 의미 특성에 있어서 동질성을 띠고 서로 맞서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립어나 반대어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동질성을 띠고 서로 맞서서 짝이 된다는 데 주목하여 상대어라고 정의하였다. 서기선(2007: 11)에서는 반의어 지도에서 사용해야 할 적절한 용어는 반의어, 반대어, 대립어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내포한 상대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하였다.

박정무(1981: 4)에서는 의미의 상반 관계와 계열 대립과 같은 특수한 배의성에 의한 대립 관계 모두를 포함하는 가장 일반적인 개념을 대립어로 보고 반의어를 포함하는 더욱 포괄적인 의미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규정하였다. 김주보(1988: 17)에서는 의미 대립어는 동일한 차원의 의미장에 속한 단어 쌍들이 단 하나의 의미 대립 축에 의하여 대립적 관계에 놓여 있는 의미 관계를 말한다고 주장하였다. 임지룡(1988: 13)에서는 유개념과 종개념을 통해 대립어를 설명하였다. 두 개념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한쪽 개념이 다른 쪽 개념보다 외연이 풍부하고 내포가 빈약할 경우 전자를 후자의 유개념이라 하는데, 대립어는 유개념으로 적절하고 이 경우 대립어는 의미의 대립 관계에서 핵심이 되는 이원 대립어를 뜻한다고 하였다. 신희삼(2004: 148)에서는 어휘적 언어군을 나눌 때 대립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광호(2009: 298)에서는 대립어를 일항 대립 쌍과 다항 대립 쌍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심재기(1975: 137)에서는 어휘적 측면의 대립일 경우 반의어라고 정의하였다. 강사민(1980: 32)에서는 두 개의 단어가 모든 의미 자질을 공통적으로 갖고 다만 한 자질만이 상반될 때 반의어라고 주장하였다. 성열호(1983: 17)에서는 상대어는 반의어, 대립어, 대칭어를 모두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반의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기 때문에 반의어라고 정의하였다. 정인수(1991: 168)에서는 반의어란 서로 양립 불능의 관계에 있

이밖에도 한국어 반의어를 지칭함에 있어 반어, 대의어, 대어, 대극어, 대칭어, 대조어, 모순어, 반대말, 짝말, 맞섬말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들이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사용되어왔다. 이처럼 반의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로 인해 용어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 '반의어'와 '대립어'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의어의 상대 개념으로써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반의어'를 용어로 통일하고 반의어를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의미를 가진 어휘 사이의 의미 관계, 즉 의미상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차이점을 통해 서로 대립을 이루는 어휘의 쌍으로 정의하고자 한다.[4)]

지만 하나의 상위 개념에 속하는 하위 개념들로 보고, 반의어로 되는 두 단어는 하나 이상의 의미 자질이 다르고 나머지의 의미 자질을 공유하는 경우, 상위 개념에 속하는 양립 불능인 하위 개념이 둘만 있는 경우, 동일한 관계에 놓이고 방향이 대립되는 경우, 그리고 같은 척도에서 유사한 정도의 거리와 방향이 대립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수태(1997: 51)에서는 동의어, 유의어에서처럼 '○의어'의 형식을 가진 반의어라는 용어가 형태적 유사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뜻이 같거나 비슷한 쪽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최호정(2013: 8)에서는 반의어를 동일한 범주 내에서 그 뜻이 서로 정반대가 되는 관계를 지닌 말로, 모든 의미 자질이 동일하나 하나의 자질만이 이질적인 관계를 지닌 단어 쌍이라고 정의하였다. 윤평현(2013: 126)에서는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를 반의 관계라고 하였다. 즉 반의 관계란 의미상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차이점을 통해 서로 대립을 이루는 단어의 쌍을 말하고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를 반의어라고 정의하였다.

4) 홍사만(2008: 80)에서는 반의어의 다항적 대립은 하의 관계의 공하위어 사이에 형성되는 반의 관계라고 하였다. 즉 공하위어가 되는 어휘들은 상위어의 특징을 공유하면서 상호 대조적인 대립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금속, 나무, 색채, 과일, 요일, 달, 시간, 길이, 계절, 방위의 하위 어장인 '금, 은, 구리, 쇠, 수은, 납', '소나무, 대나무, 참나무, 버드나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포도, 사과, 배, 감, 자두, 살구',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일월, 이월, 삼월, 사월, 오월, 유월, 칠월, 팔월, 구월, 시월, 십일월, 십이월', '초, 분, 시간, 일, 주, 월, 연', '밀리, 센티, 미터, 킬로미터', '봄, 여름, 가을, 겨울', '동, 서, 남, 북'을 다항적 반의어로 설정하였

지금까지 한국에서 반의어의 성립 조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남기심(1974: 164)에서는 두 어휘가 모든 의미 자질을 공통적으로 갖고, 다만 한 자질만이 상반될 때 반의어가 성립된다고 하였고 심재기(1975: 140)에서는 반의어는 동질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임지룡(1988: 16)에서는 반의어는 의미 자질에 있어서 동질성과 이질성의 역설적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을 때 성립된다고 하였고 김광해(1993: 204)에서는 반의 및 대립 관계는 기본적으로 그 의미 자질 상으로 동질성과 이질성이라는 양면성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된다고 하였다. 윤평현(2013: 128)에 따르면 반의 관계는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의미를 가진 어휘 사이의 의미 관계이며, 반의 관계는 두 어휘가 의미상 여러 가지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하나의 비교 기준이 다름으로 해서 성립된다.[5)]

다.

윤평현(2013: 137)에서는 단어 사이에 하나 이상의 대비적인 의미 성분을 가지고 있는 관계를 양립 불능 관계라고 정의하고 양립 불능 관계의 하위 유형을 이원 분류와 다원 분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양립 불능 관계의 이원 분류만 반의어에 해당하고 다원 분류는 양립 불능의 어휘 항목이 셋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여 반의어로 인식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상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차이점을 통해 서로 대립을 이루는 단어의 쌍만 반의어로 정의하고 다항적 대립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자 한다.

5) 남기심(1974: 164)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A, B, C, D를 공유하고 있는 두 어휘 중 한 어휘가 자질 E를 더 가진 데 대하여 다른 쪽이 자질 E'를 가졌을 경우, 즉 [A, B, C, D, E] X 대 [A, B, C, D, E'] Y일 때 이 두 어휘는 서로 반의어이다.

심재기(1975: 140)에 따르면 동질성의 조건은 두 가지인데 첫째, 동일한 언어 사회에서 심리학적으로 동시 연상이 가능한 한 쌍의 어휘, 즉 공존 쌍이어야 한다. 둘째, 연상된 공존 쌍은 논리학적으로 동일한 유개념, 즉 상위 개념에 묶일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는 한 쌍의 어휘들은 동위 개념, 즉 동일한 문법 범주를 가져야 한다. 이에 반해 이질성의 조건도 두 가지인데 첫째, 동위의 공존 쌍어들 간에 의미의 교착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 즉 교집합의 의미 영역이 발생되지 않고 의미적 배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그 의미적 배타성을 가장 명료하게 지정하는 대칭적 상반성을 가져야 한다. 대칭적 상반성에는 결여나 부정의 요소도

본 연구에서는 반의어의 성립 조건을 동질성과 이질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동질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첫째, 반의 관계인 두 어휘는 우선 동일한 의미 영역에 속해야 한다. 의미 영역이란 의미의 공통성에 따라서 나눈 한 부류의 어휘를 말하는데 의미 영역은 일정한 의미 성분을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는 의미상 여러 가지 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 영역에 속한다. '독수리'와 '부엉이'도 동물이며 조류라고 하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 영역에 속하며, '달리다, 뛰다, 걷다' 등도 신체를 사용하여 이동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 영역에 속한다. 이처럼 반의어는 동일한 의미 영역 안에 있어야 하며 이는 반의 관계인 두 어휘의 의미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다. 둘째, 반의 관계인 두 어휘는 동일한 어휘 범주에 있어야 한다. 동일한 어휘 범주는 반의 관계인 두 어휘의 품사와 형태를 규정한다. 예를 들어 '살다'와 '삶'의 반의어는 각각 '죽다'와 '죽음'인데, 이것은 반의어의

포함될 수 있다.

임지룡(1988: 16)에서는 많은 자질이 동일함으로써 의미상 근접성을 드러내며, 하나의 매개변수가 대립되는 양극을 지향함으로써 의미상 소원성을 드러내게 된다고 하였다.

김광해(1993: 204)에 따르면 반의 대립 관계인 어휘소 상호 간에는 동질성을 기반으로 의미상의 공통성과 하나의 매개변수를 따라 양극으로 대립되는 이질성이 존재하며 이런 성질을 가진 것이 바로 반의어라는 어휘소 쌍이라 하였다. 또한, 반의 관계에 있는 어휘소들은 그것의 의미를 결정하는 개념 부분, 즉 사물이나 세계를 인식하는 인간의 인식 패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이때 상황성이 반의어 쌍의 성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윤평현(2013: 128)에서는 반의어는 여러 가지 동질성 속에서 서로를 차별화하는 이질성 때문에 성립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총각'의 반의어가 '처녀'인 것은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비교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와 반대로 '총각'과 '부인'이 반의어가 될 수 없는 것은 두 단어가 '성'과 '결혼'이라는 두 개의 비교 기준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어휘 범주가 동일해야 함을 말해준다. '기쁘다'의 반의어로 '슬픔'이 될 수 없는 것은, 어휘 범주로서 품사가 상이하기 때문이며, 반대로 '슬프다'가 '기쁘다'의 반의어로 될 수 있는 것은 두 단어의 품사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반의 관계인 두 어휘는 동일 품사로서 단어의 문법적 형태도 동일해야 한다. '가볍다'의 반의어는 '무겁다'이고 '가벼운'의 반의어는 '무거운'이며, 과거시제 의문형 종결형태인 '갔느냐'의 반의어는 동일한 형태의 '왔느냐'이다. 이처럼 반의 관계인 두 어휘는 어휘 범주가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동질성 조건의 하나인 동일한 의미 영역에 속하는 어휘가 반의어가 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의미 특성 속에서도 서로가 대립되는 대조적 배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질성이다. 즉 두 어휘가 의미상 여러 가지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대립되는 차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들'과 '딸'은 '자식'이라는 동일한 의미 영역에 있지만 '성'에 의해서 배타적 반의 관계에 있으며, '길다'와 '짧다'는 '길이'라는 동일한 의미 영역에 있지만 '장단'에서 대조적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반의 관계에 있는 두 어휘는 대조적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2. 반의어의 유형

지금까지 한국에서 반의어의 유형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반의어를 적게는 두 가지에서 많게는 여섯 가지로 다양하게 분류하였다. 김주보(1988: 25)에서는 반의어를 이원 의미 대립어와 다원 의미 대립어 두 가지로 나누었고 이석주(1975), 정인수(1985), 전수태(1997), 윤평현(2013)은 반의어를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윤평현(2013: 129)에 따르면 반의어를 상보 반의어, 등급

반의어, 관계 반의어로 분류할 수 있다. 반의어를 네 가지로 분류하는 논의는 이승명(1973), 최재홍(1987), 임지룡(1988)이 있는데 임지룡(1988: 26)에서는 반의어를 상보 대립어, 반의 대립어, 정도 상보 대립어, 방향 대립어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남기심(1974), 박선희(1984)는 반의어를 다섯 가지, 성열호(1983)는 여섯 가지로 세분하였다.[6)]

---

6) 김주보(1988: 25)에서는 이원 의미 대립어를 다시 '남자↔여자'와 같은 상보 의미 대립어, '스승↔제자'와 같은 관계 의미 대립어, '동↔서'와 같은 방향 의미 대립어로 세분하였고, 다원 의미 대립어를 '고↔저'와 같은 정도 의미 대립어와 '기쁘다↔슬프다'와 같은 평가 의미 대립어로 세분하였다.

이석주(1975: 11)에서는 반의어를 '깊다↔얕다'와 같은 제1형의 별개의 단어, 부정어소형, 반의어, 피동, 사동, 시제, 존칭을 포함한 제2형의 접사와 결합한 반의어, '안-/못-'으로 구성된 제3형의 반의어로 분류하였다. 정인수(1985: 25)에서는 반의어를 이원 반의어, 관계 반의어, 등급 반의어 세 가지 유형으로 설정하였고 그중 이원 반의어는 '남자↔여자'와 같은 단순 이원 반의어, '개인↔단체'와 같은 종속 이원 반의어로 세분하였고, 관계 반의어는 '스승↔제자'와 같은 쌍방 관계, '감다↔뜨다'와 같은 역행 관계, '앞↔뒤'와 같은 위치 관계로 세분하였으며, 등급 반의어는 '크다↔작다'가 그 예이다. 전수태(1997: 56)에서는 반의어를 상보 반의어, 관계 반의어, 정도 반의어 세 가지로 분류하였고 상보 반의어를 다시 '남자↔여자'와 같은 단순 상보 반의어와 '개인↔단체'와 같은 종속 상보 반의어, 관계 반의어를 다시 '스승↔제자'와 같은 상관 관계 반의어, '감다↔뜨다'와 같은 역동 관계 반의어와 '상↔하'와 같은 위치 관계 반의어, 정도 반의어를 다시 '무겁다↔가볍다'와 같은 단순 정도 반의어와 '좋다↔나쁘다'와 같은 평가 정도 반의어로 세분하였다. 윤평현(2013: 129)에서는 반의어를 상보 반의어, 등급 반의어, 관계 반의어 세 가지로 분류하였고 관계 반의어를 다시 '위↔아래'와 같은 역의어, '가다↔오다'와 같은 역행어, '시작↔끝'과 같은 대척어, '양각↔음각'과 같은 대응어로 세분하였다. '살다↔죽다'는 상보 반의어이고 '높다↔낮다'는 등급 반의어이다.

이승명(1973: 92)에 따르면 대립어는 관계 대립과 다원 대립으로 나누는데 '부모'와 '자식'은 관계 대립어로서 상대를 전제로 한다. '빨강', '파랑', '주황'은 다원 대립어로서 연쇄적 존재이다. '높다'와 '낮다', '크다'와 '작다'는 대칭어이며 중간 항이 존재한다. '진실'과 '허위', '있다'와 '없다', '살다'와 '죽다'는 반대어로서 모순되는 반의어이다. '산'과 '바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상황적인 전제 하의 대조어이다. 최재홍(1987: 20)에서는 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반의어의 유형을 크게 상보 반의어, 등급 반의어, 관계 반의어 세 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중 상보 반의어를 다시 순수 상보어, 정도 상보어로 세분하고, 등급 반의어를 척도 반의어, 평가 반의어, 정감 반의어로 세분하며, 관계 반의어를 역의어, 역행어, 대척어, 대응어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립어를 모순어, 반대어, 상관어, 상대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모순어와 반의어는 중간치 유무에 의한 구분으로서 모순어는 '가짜↔진짜'와 같은 일반적 모순과 '신자↔불신자'와 같은 논리적 모순으로 세분하였고, 반대어는 '두껍다↔얇다'와 같은 양 극단적 반대와 '오른편↔왼편'과 같은 중심 지향적 반대로 세분하였다. 한편 상관어와 상대어는 상호 의존도에 의한 구분으로서 상관어를 '오르다↔내리다'와 같은 방향적 상관, '가로↔세로'와 같은 이치적 상관, '가지, 줄기, 잎, 뿌리'와 같은 다항적 상관, '동, 서, 남, 북'과 같은 계층적 상관으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상대어는 '밤↔낮'을 예로 들었다. 임지룡(1988: 26)에서는 대립어를 반의 대립어, 상보 대립어, 방향 대립어로 분류하였다. 그중 반의 대립어를 다시 '길다↔짧다'와 같은 척도 반의어, '좋다↔나쁘다'와 같은 평가 반의어, '덥다↔춥다'와 같은 정감 반의어로 세분하였고, 방향 대립어를 다시 '팔다↔사다'와 같은 역의어, '천당↔지옥'과 같은 대척어, '가다↔오다'와 같은 역동어, '외향적↔내성적'과 같은 대응어로 세분하였다. '살다↔죽다'는 상보 대립어이고 '깨끗하다↔더럽다'는 정도 상보 대립어이다.

남기심(1974: 135)에 따르면 '동물↔식물'은 무교착성의 선언 개념, 즉 서로 겹치지 않는 것, '스승↔제자'는 관계성의 상관 개념, 즉 상호 의존도가 큰 것, '바다↔육지'는 관계성의 상대 개념, 즉 상호 의존도가 작은 것, '유↔무'는 기준성의 모순 개념, 즉 중간자가 없는 것, '대↔소'는 기준성의 반대 개념, 즉 중간자가 있는 것으로 나누었다. 박선희(1984: 30)에서는 반의어를 '동물↔식물'을 양분 상대어, '금, 은, 구리, 동, 철, 아연'을 다분 상대어, '웃다↔울다'를 양극 상대어라 하고 역의 관계 상대어는 '어버이↔자식'과 같은 반대칭 관계, '결혼하다↔이혼하다'와 같은 대칭 관계, '좋아하다↔싫어하다'와 같은 비대칭 관계로 세분하였으며, 시간·공간·수량·족칭·신분에 해당하는 경우를 계열 관계의 상대어로 규명하였다.

성열호(1983: 28)에서는 '죽다↔살다'를 양분적 반의어, '금, 은, 구리, 납, 철'을 다분적 반의어, '크다↔작다'를 양극적 반의어, '어버이↔자식'을 상관적 반의어, '1월, 2월, 3월'을 계층적 반의어, '가다↔오다'를 왕복적 반의어로 분류하였다.

1.2.1. 상보 반의어(相補反義詞)

상보 반의어(相補反義詞)는 반의 관계에 있는 어떤 개념적 영역을 상호 배타적인 두 부분으로 철저히 양분하는 반의어를 말한다. 곧 반의 관계의 두 구획에서 한 쪽에 속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쪽에 속해야 한다. 예컨대 '남자'와 '여자'는 인간이라는 영역을 양분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남자이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여자가 아니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필연코 여자이다. 이처럼 상보 반의어는 한 단어의 긍정이 다른 단어의 부정을 함의한다. 상보 반의어에는 순수 상보어와 정도 상보어가 있다.

(3) ㄱ. 남성↔여성, 참↔거짓, 삶↔죽음, 미혼자↔기혼자, 도체↔부도체,
등식↔부등식, 생물↔무생물, 기명↔무기명, 성년↔미성년, 있다↔없다,
성공하다↔실패하다, 출석하다↔결석하다, 합격하다↔불합격하다,
복종하다↔불복종하다, 등록하다↔미등록하다
ㄴ. 깨끗하다↔더럽다, 옳다↔그르다, 맞다↔틀리다, 익다↔설다,
편하다↔편찮다, 안전하다↔위험하다, 순수하다↔불순하다,
성실하다↔불성실하다, 곧다↔굽다, 완전하다↔불완전하다,
정직하다↔부정직하다, 정확하다↔부정확하다, 확실하다↔불확실하다,
공평하다↔불공평하다, 가능하다↔불가능하다[7]

예시(3)는 상보 반의어의 예인데 (3ㄱ)는 순수 상보어이고 전부 명사류와 동사류 상보 반의어이다. (3ㄴ)는 정도 상보어이고 전부 형용사류 상보 반의어이다.

순수 상보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7) 예시(3)는 임지룡(1988: 26)을 참조하였다.

첫째, 순수 상보어는 한 어휘의 긍정과 다른 어휘의 부정 사이에 상호함의 관계가 성립된다. 즉 반의 관계인 두 어휘에서 한쪽의 긍정은 다른 쪽의 부정을 함의하고, 한쪽의 부정은 다른 쪽의 긍정을 함의한다.

(4) ㄱ. 김철수는 남자이다.
ㄴ. 김철수는 여자가 아니다.
ㄷ. 김수영은 여자이다.
ㄹ. 김수영은 남자가 아니다.[8)]

예문(4ㄱ)은 (4ㄴ)를 함의하고 그 역도 가능한 상호함의 관계이며 (4ㄷ)와 (4ㄹ)도 마찬가지다.

둘째, 순수 상보어는 반의 관계인 두 어휘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일어난다.

(5) ㄱ. *김철수는 남자이면서 여자이다.
ㄴ. *김철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9)]

예문(5ㄱ)와 (5ㄴ)에서 제시한 것처럼 순수 상보어는 동시에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들은 논리적 측면에서 모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순수 상보어는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고 비교 표현에도 사용할 수 없다.

---

8) 예문(4)은 임지룡(1988: 27)을 참조하였다.
9) 예문(5)은 윤평현(2013: 130)을 참조하였다.

(6) ㄱ. *김철수는 매우 남자이다.
ㄴ. *김철수는 박민수보다 더 남자이다.[10]

예문(6ㄱ)에서 제시한 것처럼 순수 상보어는 정도 부사 '매우'의 수식을 받을 수 없고 (6ㄴ)는 순수 상보어가 비교 표현과 함께 사용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넷째, 순수 상보어는 판단 대상과 관계없이 평가 기준이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적 개념이다. 예컨대 '남자'와 '여자'는 그 대상이 사람이면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고 '살다'와 '죽다'의 반의 관계는 어떤 시대와 지역에서도 뚜렷이 구별되는 절대적 사항이다.

정도 상보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정도 상보어는 순수 상보어와 마찬가지로 한 어휘의 긍정과 다른 어휘의 부정 사이에 상호함의 관계가 성립된다.

(7) ㄱ. 이 방은 깨끗하다.
ㄴ. 이 방은 더럽지 않다.
ㄷ. 이 방은 더럽다.
ㄹ. 이 방은 깨끗하지 않다.[11]

예문(7ㄱ)은 (7ㄴ)를 함의하고 그 역도 가능한 상호함의 관계이며 (7ㄷ)와 (7ㄹ)도 마찬가지다.

둘째, 정도 상보어는 순수 상보어와 마찬가지로 반의 관계인 두 어휘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일어난다.

---

10) 예문(6)은 윤평현(2013: 131)을 참조하였다.
11) 예문(7)은 임지룡(1988: 39)을 참조하였다.

(8) ㄱ. *이 방은 깨끗하면서 더럽다.
ㄴ. *이 방은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다.[12]

예문(8ㄱ)와 (8ㄴ)에서 제시한 것처럼 정도 상보어는 동시에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들은 논리적 측면에서 모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정도 상보어는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비교 표현에도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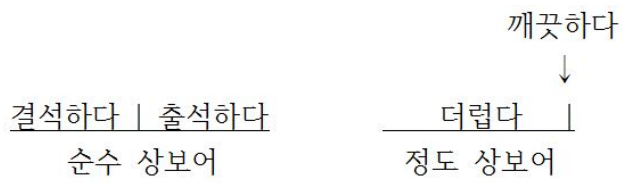
(9) ㄱ. 이 방은 매우 깨끗하다.
ㄴ. 이 방은 저 방보다 더 깨끗하다.[13]

예문(9ㄱ)에서 제시한 것처럼 정도 상보어는 정도 부사 '매우'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9ㄴ)에서 제시한 것처럼 비교 표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넷째, 정도 상보어는 순수 상보어와 모두 중립 지역을 갖지 않지만, 의미 영역을 분할하는 데 있어서 양의 차이가 있다. 즉 순수 상보어는 의미 영역을 똑같게 나누지만, 정도 상보어는 비대칭적이다. 이를 제시하면 [그림Ⅱ-1]과 같다. 순수 상보어 '결석하다'와 '출석하다'는 의미 영역을 1:1로 나누지만 정도 상보어 '깨끗하다'와 '더럽다'는 의미 영역을 분할하는 데 있어 '더럽다'가 적극적인 양을 지니는 데 비해 '깨끗하다'는 소극적인 양을 지니고 있다.[14]

---

12) 예문(8)은 임지룡(1988: 41)을 참조하였다.
13) 예문(9)은 윤평현(2013: 131)을 참조하였다.
14) 임지룡(1992: 166)에서는 극성이란 양극과 음극을 지향하는 반의어의 고유한 의미 특성을 말하는데, 양극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지만, 음극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다고 반의어의 극성에 대해 해석하였다. 반의어의 극성은 양의 측면에서 적극성과 소극성으로 대별되고



[그림Ⅱ-1] 순수 상보어와 정도 상보어의 의미 영역 분할

1.2.2. 등급 반의어(等級反義詞)

등급 반의어(等級反義詞)는 극과 극의 두 대립적 축을 상정하여 반의 관계를 이루는 두 어휘 사이에 등급의 정도가 존재할 수 있는 반의어를 말한다. 즉 두 어휘 사이에 중립 지역이 존재하므로 한쪽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다른 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길다'와 '짧다'를 예로 들면 '길다'를 부정한 '길지 않다'가 반드시 '짧다'를 의미하지 않고 반대로 '짧다'를 부정한 '짧지 않다'가 '길다'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길다'와 '짧다' 사이에는 덜 걸거나 덜 짧은 중립 지역이 존재한다. 등급 반의어에는 척도 반의어, 평가 반의어, 정감 반의어가 있다.

(10) 뜨겁다 - (따뜻하다) - (미지근하다) - (시원하다) - 차갑다[15]

질의 측면에서 긍정과 부정으로 대별된다. 예를 들어 등급 반의어 '길다↔짧다'에서 '길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짧다'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다. 정도 상보어 '깨끗하다↔더럽다'에서 '깨끗하다'는 긍정적이고 소극적이지만 '더럽다'는 부정적이고 적극적이다. '더럽다'가 적극성을 나타내고 '깨끗하다'가 소극성을 나타내는 것은 '더럽다'의 경우 무수한 정도를 가지지만, '깨끗하다'는 하나의 엄격한 점의 개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15) 예시(10)는 윤평현(2013: 132)을 참조하였다.

예시(10)는 등급 반의어가 존재한 중립 지역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는데 등급 반의어 '뜨겁다'와 '차갑다' 사이에는 덜 뜨겁거나 덜 차가운 중립 지역, 즉 따뜻하다, 미지근하다, 시원하다 등이 존재한다. '길다'와 '짧다' 사이에는 중립 지역을 가리키는 개념은 있지만, 그것을 지시하는 단어가 없는 데 반하여, '뜨겁다'와 '차갑다' 사이에는 중립 지역을 가리키는 개념이 어휘화되어 있다.

(11) ㄱ. 길다↔짧다, 높다↔낮다, 깊다↔얕다, 멀다↔가깝다, 넓다↔좁다, 굵다↔가늘다, 두껍다↔얇다, 크다↔작다, 많다↔적다, 무겁다↔가볍다, 빠르다↔느리다, 세다↔여리다, 밝다↔어둡다

ㄴ. 좋다↔나쁘다, 쉽다↔어렵다, 부지런하다↔게으르다, 선하다↔악하다, 영리하다↔우둔하다, 아름답다↔추하다, 유능하다↔무능하다, 부유하다↔가난하다

ㄷ. 덥다↔춥다, 뜨겁다↔차갑다, 달다↔쓰다, 기쁘다↔슬프다, 자랑스럽다↔수치스럽다, 유쾌하다↔불쾌하다[16]

예시(11)는 등급 반의어의 예인데 (11ㄱ)는 척도 반의어이고 이는 가치 중립적이며 대립의 양상을 자 혹은 저울 등 도구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측절할 수 있는 형용사류 등급 반의어이다. (11ㄴ)는 평가 반의어이고 이는 주관적인 평가를 나타내는데 보통 한쪽은 긍정적이고 다른 쪽은 부정적이어서 평가상의 양극 대립을 이루는 형용사류 등급 반의어이다. (11ㄷ)는 정감 반의어이고 이는 주관적 감정이나 감각 또는 주관적인 반응에 근거한 평가를 나타내는데 화자 자신의 주관적 및 개인적 판단에 의존되는 형용사류 등급 반의어이다.

등급 반의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6) 예시(11)는 임지룡(1988: 37)을 참조하였다.

첫째, 등급 반의어는 한 어휘의 긍정과 다른 어휘의 부정 사이에 일방 함의 관계가 성립된다. 즉 한쪽의 긍정은 다른 쪽의 부정을 함의하지만, 한쪽의 부정은 다른 쪽의 긍정을 함의하지 않는다.

(12) ㄱ. 우리 학교 운동장은 넓다.
ㄴ. 우리 학교 운동장은 좁지 않다.[17]

예문(12)에서 '우리 학교 운동장은 넓다'는 '우리 학교 운동장은 좁지 않다'를 함의할 수 하지만 '우리 학교 운동장은 좁지 않다'는 '우리 학교 운동장은 넓다'를 함의할 수 없다. 즉 (12ㄱ)와 (12ㄴ)는 일방 함의 관계이다.

둘째, 등급 반의어는 대립 쌍의 양극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 지역이 존재한다. 따라서 등급 반의어는 두 어휘를 동시에 부정해도 성립된다.

(13) 우리 학교 운동장은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다.[18]

예문(13)에서 '넓다'와 '좁다'를 동시에 부정할 수 있는 것은 '넓다'와 '좁다' 사이에 중립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셋째, 등급 반의어는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비교 표현에도 사용할 수 있다.

(14). ㄱ. 우리 학교 운동장은 매우 넓다.
ㄴ. 우리 학교 운동장은 이웃 학교 운동장보다 더 넓다.[19]

---

17) 예문(12)은 윤평현(2013: 132)을 참조하였다.
18) 예문(13)은 윤평현(2013: 132)을 참조하였다.
19) 예문(14)은 윤평현(2013: 133)을 참조하였다.

예문(14ㄱ)에서 제시한 것처럼 등급 반의어는 정도 부사 '매우'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14ㄴ)에서 제시한 것처럼 비교 표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넷째, 등급 반의어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양극을 지향할수록 대립의 강도가 강화된다.

다섯째, 등급 반의어는 평가의 기준이 상대적이다. 즉 '길이, 무게, 속도' 등과 같은 가변적인 속성의 정도에 적용되는 기준은 대상이나 장면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운동장이 넓다/좁다'와 '방이 넓다/좁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떤 공간의 넓고 좁음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무리 '큰 개구리'라 하더라도 '작은 코끼리'보다 실질적인 크기에서 더 클 수 없다. 이처럼 등급 반의어는 판단 대상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여섯째, 등급 반의어는 두 어휘 가운데서 한 어휘가 더 기본적이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있다. 공간의 면적을 중립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좁다'보다는 '넓다'를 사용한다. 이것은 의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운동장의 면적을 묻는 중립 질문으로 우리는 '운동장이 얼마나 넓으냐?'라고 말하지 '운동장이 얼마나 좁으냐?'라고 하지 않는다. 강의 수심을 알고자 할 때에도 '강이 얼마나 깊으냐?'라고 말하지 '강이 얼마나 얕으냐?'라고 하지 않는데, 이것은 '깊다'가 '얕다'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임을 말해준다.

1.2.3. 관계 반의어(關係反義詞)

관계 반의어(關係反義詞)는 두 어휘가 상대적 관계에 있고 의미상 대칭을 이

루며 상호 의존적으로 대립되고 대립 쌍을 이루고 있는 어휘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반의어를 말한다.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 두 단어 사이에는 X가 Y의 남편이면 Y가 X의 아내가 되는 상대적 관계가 있고 두 단어는 어떤 기준을 사이에 두고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다. '주다'와 '받다'도 마찬가지인데, 만일 X가 Y에게 A를 주면, Y는 X에게서 A를 받는 것이어서 '주다'와 '받다'는 상대적 관계 속에서 서로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의미 영역을 두 쪽으로 명쾌하게 단절하되 그 영역을 이루는 대상들이 관습이나 관념상 의존적인 것으로 드러날 때 관계 반의어가 성립된다. 관계 반의어에는 역의어, 역행어, 대척어, 대응어가 있다.

역의어는 어떤 축을 중심으로 한쪽의 방향을 다른 쪽에 대칭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두 어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 반의어이다. 역의 관계는 서로 대체될 수 있는 두 어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데 'X가 Y의 A이다=Y가 X의 B이다' 혹은 'X는 Y에게 Z를 A=Y는 X에게 Z를 B'와 같은 동치 관계가 성립될 때 A와 B는 역의 관계이다.

(15) ㄱ. 오른쪽↔왼쪽, 위↔아래, 앞↔뒤, 동쪽↔서쪽, 동북↔서남
ㄴ. 남편↔아내, 부모↔자식, 할아버지↔손자, 형↔동생, 신랑↔신부, 의사↔환자, 스승↔제자, 상관↔부하, 주인↔하인, 조상↔후손
ㄷ. 주다↔받다, 사다↔팔다, 가르치다↔배우다, 때리다↔맞다, 빌리다↔빌려주다[20]

예시(15)는 역의어의 예인데 (15ㄱ)는 공간적 위치 관계에서 대칭을 이루는 명사류 역의어이고 (15ㄴ)는 혈연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대칭을 이루는 명사류

20) 예시(15)는 윤평현(2013: 134)을 참조하였다.

역의어이며 (15ㄷ)는 행위의 방향 관계에서 대칭을 이루는 동사류 역의어이다.

역행어는 맞선 방향으로 행위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관계 반의어이다. 한 어휘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다른 어휘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두 어휘는 역행 관계이다.

(16) ㄱ. 가다↔오다, 열다↔닫다, 감다↔뜨다, 접다↔펴다, 오르다↔내리다,
상승하다↔하강하다, 전진하다↔후퇴하다, 입다↔벗다,
나타나다↔사라지다, 들어가다↔나오다, 올라가다↔내려오다
ㄴ. 늘다↔줄다, 팽창하다↔수축하다, 확장하다↔축소하다, 차다↔비다,
길어지다↔짧아지다, 넓어지다↔좁아지다, 강해지다↔약해지다,
올라가다↔내려가다, 향상되다↔악화되다[21]

예시(16)는 역행어의 예인데 (16ㄱ)는 행위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류 역행어이고 (16ㄴ)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류 역행어이다.

대척어는 방향의 양 극단을 나타내는 관계 반의어이다. 한 어휘는 어떤 방향의 축을 따라 한쪽의 극단을 나타내고 다른 어휘는 맞선 방향의 극단을 나타낼 때 이 두 어휘는 대척 관계이다.

(17) ㄱ. 꼭대기↔밑바닥, 출발선↔결승선, 지붕↔바닥, 남극대륙↔북극대륙
ㄴ. 시작↔끝, 출발하다↔도착하다
ㄷ. 요람↔무덤, 머리↔발끝, 하나↔열, 천당↔지옥, 우등생↔낙제생,
천재↔천치[22]

예시(17)는 대척어의 예인데 (17ㄱ)는 공간을 나타내는 대척어이고 (17ㄴ)는

21) 예시(16)는 윤평현(2013: 135)을 참조하였다.
22) 예시(17)는 윤평현(2013: 136)을 참조하였다.

시간을 나타내는 대척어이며 (17ㄷ)는 'X에서 Y까지'를 나타내는 대척어이다.

대응어는 어떤 균일한 표면이나 상태에서 방향이 역전된 관계 반의어이다. 표면에서 한쪽이 들어가고 다른 쪽이 나와 위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두 어휘는 대응 관계이다.

(18) 언덕↔구렁, 배사부↔향사부, 요↔철, 암나사↔수나사, 오목↔볼록,
두둑↔고랑, 양각↔음각, 외향적↔내향적[23]

예시(18)는 대응어의 예이다.

관계 반의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반의 관계를 이루는 한 어휘가 포함된 문장의 진술은 상대 반의어를 포함한 문장의 진술과 서로 관련을 맺게 된다.

(19) ㄱ. 이달은 허균의 스승이다.
ㄴ. 허균은 이달의 제자이다.[24]

예문(19)에서 제시한 것처럼 관계 반의어를 포함한 (19ㄱ)의 진술과 (19ㄴ)의 진술은 상관관계를 맺는다.

둘째, 관계 반의어는 정도 부사로 수식하는 표현이나 비교 표현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다.

(20) ㄱ. 나는 그에게 돈을 더 주었다.
ㄴ. 이달은 허균의 더 스승이 아니다.[25]

---

23) 예시(18)는 윤평현(2013: 136)을 참조하였다.
24) 예문(19)은 임지룡(1992: 164)을 참조하였다.

예문(20ㄱ)에서 관계 반의어를 수식하는 정도 부사나 비교 표현은 아주 자연스럽지만 (20ㄴ)에서 관계 반의어를 수식하는 정도 부사나 비교 표현은 아주 어색하다.

2. 반의어의 특성

지금까지 한국에서 반의어의 특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반의어의 복합성에 대해 윤평현(2013: 139)에서는 한 단어가 둘 이상의 반의어를 갖는 경우를 반의어의 복합성이라고 정의하였고 이를 복수의 비교 기준에 의한 대립과 다의적 해석에 의한 대립 두 가지로 나누어 해석하였다. 민현식 외(2019: 131)에서는 한 단어의 반의 관계가 의미 성분의 기준에 따라 복합적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반의어의 복합성은 두 가지 요인에 따라 설정되는데 하나는 한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 자질 기준에 따라 각각의 반의 관계를 이루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한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 지니는 다의성을 지니는 경우라고 하였다.

반의어의 불균형성에 대해 임지룡(1992: 169)에서는 중화와 유표성을 위주로 논의하였는데 중화란 특정한 환경에서 대립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현상이고 유표성이란 어떤 대립의 양극 사이에 비대칭적, 계층적인 관계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화를 중화의 환경과 중화의 양상으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유표성을 형태상의 유표성과 의미상의 유표성 두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이사교(2014a: 41)에서는 반의어로 구성되는 두 가지 개념을 한쪽은 많이 쓰이고 한쪽

25) 예문(20)은 임지룡(1992: 164)을 참조하였다.

은 적게 쓰이거나 아예 결여되는 현상을 반의어의 불균형성이라고 정의하였고 이를 중화 현상, 유표성과 무표성, 어휘적 빈자리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반의어의 특성을 복합성과 불균형성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복합성을 다시 다중 비교 기준, 다의성, 동의성, 불균형성을 다시 중화, 유표성, 어휘적 빈자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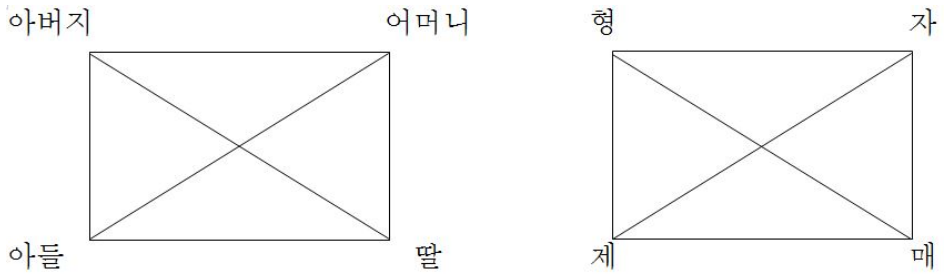
2.1. 복합성

반의어의 복합성이란 한 어휘의 반의 관계가 의미 성분의 기준에 따라 복합적이어서 한 어휘가 둘 이상의 반의어를 갖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이는 다중 비교 기준에 의한 반의어, 다의성에 의한 반의어, 동의성에 의한 반의어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2.1.1. 다중 비교 기준

다중 비교 기준에 의한 반의어란 한 어휘가 여러 개의 의미 자질 기준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어휘와 반의어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반의어는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반의어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은 여러 가지 공통성 속에서 [성별]이란 하나의 의미 자질 기준이 다름으로 하여 형성된 반의어이고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은 여러 가지 의미

적 속성이 공통적임에도 불구하고 [세대]라는 하나의 의미 자질이 다름으로 인하여 형성된 반의어이다. 마찬가지로 '형, 제, 자, 매'도 이와 같은 반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형'과 '자', '제'와 '매'는 [성별]이란 하나의 의미 자질 기준이 다름으로 하여 형성된 반의어이고 '형'과 '제', '자'와 '매'는 [나이]라는 의미 자질 기준에 의해 형성된 반의어이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Ⅱ-2]와 같다.[26]



[그림Ⅱ-2] 서로 다른 의미 자질 비교 기준에 의한 가족 관계

(21) ㄱ. 처녀: [+인간] [-남성] [+성숙] [-결혼]
ㄴ. 총각: [+인간] [+남성] [+성숙] [-결혼]
ㄷ. 부인: [+인간] [-남성] [+성숙] [+결혼][27]

예시(21)는 의미의 성분 분석을 통해 '처녀'의 반의어를 제시한 예인데 '처녀

26) 윤평현(2013: 137)에 따르면 단어 사이에 하나 이상의 대비적인 의미 성분을 가지고 있는 관계는 양립 불능 관계인데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은 여러 가지 공통성 속에서 [성별]과 [세대]라는 두 가지 의미 자질을 기준으로 비교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은 반의 관계가 아닌 양립 불능 관계이다. 마찬가지로 '형'과 '매', '제'와 '자'도 반의 관계가 아닌 양립 불능 관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단어가 의미상 여러 가지 공통성을 가지면서 하나의 비교 기준만 달라야 반의어로 인정하고자 한다.
27) 예시(21)는 윤평현(2013: 140)을 참조하였다.

'는 의미 자질의 비교 기준이 다름으로 반의어가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총각'이 될 수도 있다. '처녀'와 '총각'은 [성별]이란 비교 기준에서 대립적이고 '처녀'와 '부인'은 [결혼]이란 비교 기준에서 대립적이다. 즉 '처녀'는 다중 비교 기준에 의해 복수의 반의어 짝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한 단어는 둘 이상의 의미 자질의 비교 기준을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여러 개의 단어와 반의어를 형성할 수 있다.

2.1.2. 다의성

다의성에 의한 반의어란 한 어휘가 여러 개의 의미를 지님으로써 다의성을 갖게 될 때 다의적 의미 각각에 대응되는 반의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다의성이란 한 어휘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중심 의미를 토대로 하여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범위가 확장되어 생성된 주변 의미를 갖는 언어적 현상이다.[28]

---

28) 임지룡(1992: 213), 윤평현(2013: 153), 민현식 외(2019: 144)에서는 다의어의 생성 원인을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로 기술하였다.

첫째, 적용의 전이이다. 단어는 그것이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서 상이한 양상을 갖게 된다. 그 가운데 일부는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지만 어떤 것은 의미의 영속적 잔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그것들 사이의 간격이 벌어져 마침내 같은 단어의 다른 의미로 간주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적용의 적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적용의 전이를 통하여 기존 단어의 의미가 확장되어 간다.

둘째, 사회 환경의 특수화이다. 어떤 단어가 사회 환경에 따라 전문화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사회 환경의 특수화라고 한다. 사회가 전문화될수록 그 영역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의미를 일반적인 어휘로 나타내는 일이 늘게 되는데, 그 결과로 다의어가 생성된다.

셋째, 비유적 언어이다. 하나의 단어는 원래의 의미를 지닌 채 하나 이상의 비유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두 의미 사이에 혼란이 없으면 두 의미는 한 단어의 다의어로 공존한다. 이처럼 비유적 언어가 다의어를 만들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비유적 언어에는 사물의 유사성에 바탕을 둔 은유와 사물의 근접성에 바탕을 둔 환유가 있다.

(22) 길다↔짧다

길다: ① 머리카락, 수염 따위가 자라다.

② 잇닿아 있는 물체의 두 끝이 서로 멀다.

③ 이어지는 시간상의 한때에서 다른 때까지의 동안이 오래다.

④ 글이나 말 따위의 분량이 많다.

⑤ 소리, 한숨 따위가 오래 계속되다.

짧다: ① 잇닿아 있는 공간이나 물체의 두 끝의 사이가 가깝다.

② 이어지는 시간상의 한때에서 다른 때까지의 동안이 오래지 않다.

③ 글이나 말 따위의 길이가 얼마 안 되다, 또는 행동을 빠르게 하다.

예시(22)는 한 어휘의 여러 의미에 따른 반의어가 한 개인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길다'의 사전적 의미 중 '잇닿아 있는 물체의 두 끝이 서로 멀다'의 뜻을 나타낼 경우에는 '잇닿아 있는 공간이나 물체의 두 끝의 사이가 가깝다'의 뜻을 나타내는 '짧다'와 반의어를 형성하고, '이어지는 시간상의 한때에서 다른 때까지의 동안이 오래다'의 뜻을 나타낼 경우에는 '이어지는 시간상의 한때에서 다른 때까지의 동안이 오래지 않다'의 뜻을 나타내는 '짧다'와 반의어를 형성하며, '글이나 말 따위의 분량이 많다'의 뜻을 나타낼 경우에는 '글이나 말 따위의 길이가 얼마 안 되다, 또는 행동을 빠르게 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짧다'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넷째, 동음어의 재해석이다. 어원적으로 별개의 단어였던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음성이나 철자의 변화로 동음어가 될 수 있는데, 이때 두 단어의 의미에 어떤 관련성이 인정됨으로써 다의어로 재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음어의 재해석은 의미 해석의 과정에서 민간어원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외국어의 영향이다. 기존의 단어가 외국어의 의미를 차용함으로써 본래의 의미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외국어의 영향이라 한다. 본래의 의미와 외국어의 영향으로 생긴 의미가 공존하면서 기존의 단어는 다의성을 갖게 된다.

(23) 바르다↔떼다, 바르다↔지우다

바르다: ① 풀칠한 종이나 헝겊 따위를 다른 물건의 표면에 고루 붙이다.
② 차지게 이긴 흙 따위를 다른 물체의 표면에 고르게 덧붙이다.
③ 물이나 풀, 약, 화장품 따위를 물체의 표면에 문질러 묻히다.
④ 껍질을 벗기어 속에 들어 있는 알맹이를 집어내다.
⑤ 뼈다귀에 붙은 살을 걷거나 가시 따위를 추려 내다.
⑥ 겉으로 보기에 비뚤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다.
⑦ 말이나 행동 따위가 사회적인 규범이나 사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들어맞다.
⑧ 사실과 어긋남이 없다.
⑨ 그늘이 지지 아니하고 햇볕이 잘 들다.

지우다: ① 쓴 글씨나 그린 그림, 흔적 따위를 지우개나 천 따위로 보이지 않게 없애다.

떼다: ① 붙어 있거나 잇닿은 것을 떨어지게 하다.

예시(23)는 다의성을 가진 어휘에 대응하는 반의어가 한 개 이상인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바르다'의 사전적 의미 중 '풀칠한 종이나 헝겊 따위를 다른 물건의 표면에 고루 붙이다'의 뜻을 나타낼 경우에는 '붙어 있거나 잇닿은 것을 떨어지게 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떼다'와 반의어를 형성하고, '물이나 풀, 약 화장품 따위를 물체의 표면에 문질러 묻히다'의 뜻을 나타낼 경우에는 '쓴 글씨나 그린 그림, 흔적 따위를 지우개나 천 따위로 보이지 않게 없애다'의 뜻을 나타내는 '지우다'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24) 벗다↔입다, 벗다↔쓰다, 벗다↔차다, 벗다↔신다

벗다: ① 사람이 자기 몸 또는 몸의 일부에 착용한 물건을 몸에서 떼어 내다.
② 메거나 진 배낭이나 가방 따위를 몸에서 내려놓다.

③ 동물이 껍질, 허물, 털 따위를 갈다.
④ 의무나 책임 따위를 면하게 되다.
⑤ 누명이나 치욕 따위를 씻다.
⑥ 증오나 불신을 없애다.
⑦ 고통이나 괴로운 상태를 감당하지 않게 되다.
⑧ 사람이 어수룩하거나 미숙한 태도를 생활의 적응을 통하여 없애다.
⑨ 어떤 위치에서 물러나다.
⑩ 사람이나 동물의 살갗이 몸에서 떨어지다.
⑪ 사람의 어수룩함이나 미숙한 태도가 없어지다.
⑫ 덧붙은 때나 기미 따위가 없어지다.

입다: ① 옷을 몸에 꿰거나 두르다.
쓰다: ① 모자 따위를 머리에 얹어 덮다.
차다: ① 물건을 몸의 한 부분에 달아매거나 끼워서 지니다.
신다: ① 신, 버선, 양말 따위를 발에 꿰다.

예시(24)는 한 어휘의 서로 다른 대상에 따른 반의어가 한 개 이상인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벗다'의 사전적 의미 중 '사람이 자기 몸 또는 몸의 일부에 착용한 물건을 몸에서 떼어 내다'의 뜻을 나타낼 경우 대상이 옷이면 '옷을 몸에 꿰거나 두르다'의 뜻을 나타내는 '입다'와 반의어를 형성하고 대상이 모자이면 '모자 따위를 머리에 얹어 덮다'의 뜻을 나타내는 '쓰다'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그리고 대상이 시계이면 '물건을 몸의 한 부분에 달아매거나 끼워서 지니다'의 뜻을 나타내는 '차다'와 반의어를 형성하고 대상이 신이면 '신, 버선, 양말 따위를 발에 꿰다'의 뜻을 의미하는 '신다'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25) 열다↔닫다, 열다↔막다, 열다↔잠그다, 열다↔끝나다, 열다↔다물다

열다: ① 열매가 맺히다.
② 닫히거나 잠긴 것을 트거나 벗기다.

③ 모임이나 회의 따위를 시작하다.
④ 하루의 영업을 시작하다.
⑤ 사업이나 경영 따위의 운영을 시작하다.
⑥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다.
⑦ 자기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터놓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다.
⑧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에 대하여 터놓거나 이야기를 시작하다.
⑨ 어떤 관계를 맺다.

닫다: ① 열린 문짝, 뚜껑, 서랍 따위를 도로 제자리로 가게 하여 막다.
막다: ① 길, 통로 따위가 통하지 못하게 하다.
잠그다: ① 여닫는 물건을 열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걸거나 하다.
끝나다: ① 일이 다 이루어지다.
다물다: ① 입술이나 그처럼 두 쪽으로 마주 보는 물건을 꼭 맞대다.

예시(25)는 한 어휘의 서로 다른 대상과 의미에 따른 반의어가 한 개 이상인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열다'의 사전적 의미 중 '닫히거나 잠긴 것을 트거나 벗기다'의 뜻을 나타낼 경우 대상이 문, 창문, 서랍, 수도꼭지, 뚜껑, 가방이면 '열린 문짝, 뚜껑, 서랍 따위를 도로 제자리로 가게 하여 막다'의 뜻을 나타내는 '닫다'와 반의어를 형성하고 대상이 마개이면 '길, 통로 따위가 통하지 못하게 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막다'와 반의어를 형성하며 대상이 자물쇠이면 '여닫는 물건을 열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걸거나 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잠그다'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그리고 '열다'가 '모임이나 회의 따위를 시작하다'의 뜻을 나타낼 경우에는 '일이 다 이루어지다'의 뜻을 나타내는 '끝나다'와 반의어를 형성하고 '열다'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에 대하여 터놓거나 이야기를 시작하다'의 뜻을 나타낼 경우에는 '입술이나 그처럼 두 쪽으로 마주 보는 물건을 꼭 맞대다'의 뜻을 나타내는 '다물다'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2.1.3. 동의성

동의성에 의한 반의어란 둘 이상의 어휘가 동일한 의미를 지님으로써 동의성을 갖게 되는데 한 어휘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둘 이상의 어휘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이때 동의성이란 둘 이상의 어휘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언어적 현상이다.[29]

(26) 미정≈미확정≈불확정 → 확정↔미정, 확정↔미확정, 확정↔불확정
확정: ① 잘못을 바로잡음.
② 일을 확실하게 정함.
미정: ① 미시의 한가운데. 오후 두 시이다.
② 아직 정하지 못함.
③ 훌륭한 정치.
④ 화산암의 석기에 들어있는 아주 미세한 결정. 널빤지 모양이나 기둥 모양 따위로 이루어진다.

---

29) 윤평현(2013: 116)과 임지룡(1992: 137)에서는 동의 관계를 절대적 동의 관계와 상대적 동의 관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개념적 및 연상적 의미의 동일성과 모든 맥락에서의 상호 교체 가능성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절대적 동의 관계,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시키거나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상대적 동의 관계라고 분류하였다. 동의어와 유의어를 구분할 경우 동의어는 절대적 동의 관계에 해당되고 유의어는 상대적 동의 관계에 해당된다.

윤평현(2013: 118)에서는 동의어의 유형을 방언의 차이에 의한 동의어, 차용에 의한 동의어, 전문어에 의한 동의어, 문체의 차이에 의한 동의어, 완곡어법에 의한 동의어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고 임지룡(1992: 137)에서는 동의어의 유형을 방언의 차이에 따른 동의어, 문체나 격식의 차이에 따른 동의어, 전문성의 차이에 따른 동의어, 내포의 차이에 따른 동의어, 완곡어법에 따른 동의어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미확정: ① 아직 확정되지 않음.
불확정: ① 일이나 계획 따위가 확실히 결정되어 있지 않음.

예시(26)는 상대적 동의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아직 정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미정', '아직 확정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미확정', '일이나 계획 따위가 확실히 결정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불확정'은 상대적 동의 관계이므로 '일을 확실하게 정함'을 의미하는 '확정'은 '아직 정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미정', '아직 확정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미확정', '일이나 계획 따위가 확실히 결정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불확정'과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27) 보잘것없다≈초라하다 → 성대하다↔보잘것없다, 성대하다↔초라하다
성대하다: ① 행사의 규모 따위가 풍성하고 크다.
보잘것없다: ① 볼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하찮다.
초라하다: ① 겉모양이나 옷차림이 호졸근하고 궁상스럽다.
②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하다.

예시(27)는 상대적 동의성에 의한 등급 반의어의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볼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하찮다'를 의미하는 '보잘것없다'와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하다'를 의미하는 '초라하다'는 상대적 동의 관계이므로 '행사의 규모 따위가 풍성하고 크다'를 의미하는 '성대하다'는 '볼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하찮다'를 의미하는 '보잘것없다'와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하다'를 의미하는 '초라하다'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28) 상승세≈오름세 → 하락세↔상승세, 하락세↔오름세

하락세: ① 물가나 시세 따위가 떨어지는 추세.
상승세: ① 위로 올라가는 기세.
오름세: ① 물가나 시세 따위가 오르는 형세.

예시(28)는 상대적 동의성에 의한 관계 반의어인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세'를 의미하는 '상승세'와 '물가나 시세 따위가 오르는 형세'를 의미하는 '오름세'는 상대적 동의 관계이므로 '물가나 시세 따위가 떨어지는 추세'를 의미하는 '하락세'는 '위로 올라가는 기세'를 의미하는 '상승세'와 '물가나 시세 따위가 떨어지는 추세'를 의미하는 '하락세'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2.2. 불균형성(不均衡性)

반의어의 불균형성(不均衡性) 또는 비대칭성(不對稱性)이란 반의어 대립 쌍이 늘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같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반의어를 구성하는 두 어휘 중 한 어휘는 많이 사용되는 것에 비해 또 다른 어휘는 매우 적은 빈도로 사용되거나 아예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반의어는 중화에 의한 반의어, 유표성에 의한 반의어, 어휘적 빈자리에 의한 반의어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2.2.1. 중화(中和)

중화(中和)에 의한 반의어란 의미상 여러 가지 공통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차이로 인해 반의어가 되었을 때, 이러한 차이가 해소되고

공통적 특징만 남은 경우를 가리킨다. 이때 중화란 특정한 환경에서 대립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30]

(29) ㄱ. 형제자매.
ㄴ.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
ㄷ. 불쌍한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31]

예문(29)은 상보 반의어 중 순수 상보어의 예인데 (29ㄱ)의 '형제'는 '자매'인 여성과 대립되는 남성만 가리키지만, (29ㄴ)와 (29ㄷ)의 '형제'는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지칭하는 포괄적인 상위어가 되어 대립의 중화가 일어났다. 이처럼 순수 상보어는 성별, 나이, 세대의 기준에서 대립의 중화가 일어날 수 있다.

(30) ㄱ. 방이 어느 정도 깨끗합니까?
ㄴ. 방이 어느 정도 더럽습니까?
ㄷ. 이 건물의 안전도를 점검해 보자.
ㄹ. *이 건물의 불안전도를 점검해 보자.
ㅁ. 영수는 창수보다 건강하다.
ㅂ. 영수는 창수보다 허약하다.[32]

---

30) 임지룡(1992: 169)에서는 중화의 환경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술하였다.
첫째, 둘 이상의 요소가 공동으로 한 요소와 맞서게 될 때 중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의사'와 '치과의사'의 대립은 '환자'에서 중화되며 '암양'과 '숫양'의 대립은 '새끼양'에서 중화된다.
둘째, 대립인 한 어휘 항목이 공 어휘적 상위어를 가질 때 중화가 발생한다. 즉, 대립 관계에 놓이는 두 어휘 중 한 어휘가 대립 쌍의 상위어인 공 어휘적 상위어일 경우 중화가 발생한다. 다만 이원 대립 관계에서 독자적인 상위어가 존재할 경우 대립의 중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은 '어버이', '자식'과 같은 상위어가 있기 때문에 대립 쌍은 중화되지 않는다.
31) 예시(29)는 임지룡(1988: 76)을 참조하였다.

예문(30)은 상보 반의어 중 정도 상보어의 예인데 (30ㄱ, ㄴ)에서 '깨끗하다'와 '더럽다'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물음으로 사용될 경우, (30ㄱ)는 '방이 깨끗하다', (30ㄴ)는 '방이 더럽다'라는 전제를 지니게 되지만, 이야기의 들머리에서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에 대하여 아무런 전제도 없는 경우, 곧 대립 개념이 중화된 상태의 물음으로서는 (30ㄱ)만 사용된다. (30ㄷ, ㄹ)에서 '안전도'와 '불안전도'는 '안전하다'와 '불안전하다'를 명사화시킨 것인데, (30ㄷ)의 '안전도'는 '안전하다'와 '불안전하다'의 뜻을 모두 포괄함으로써 중화된 상태를 나타나지만, (30ㄹ)의 '불안전도'는 '불안전하다'의 뜻만 담겨져 있으므로 우리는 물체의 안전한 정도를 '불안전도' 대신 '안전도'로 표현한다. (30ㅁ, ㅂ)에서 '건강하다'와 '허약하다'를 비교 구문에 사용할 때 (30ㅁ)는 비교 대상의 속성에 대하여 어떠한 단정도 부과되지 않은 중화된 상태이지만 (30ㅂ)는 '영수가 허약하다'라는 단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 구문에서는 건강 상태를 '허약하다' 대신 '건강하다'로 표현한다. 이처럼 비교 구문에서 정도 상보어의 중화는 '깨끗하다', '안전하다', '건강하다' 등 긍정적인 평가를 지니는 단어에서 실현된다.

(31) ㄱ. 연필이 어느 정도 깁니까?
ㄴ. 연필이 어느 정도 짧습니까?
ㄷ. 연필의 길이.
ㄹ. *연필의 짧이.
ㅁ. 이 연필은 저 연필보다 길다.
ㅂ. 이 연필은 저 연필보다 짧다.[33]

32) 예문(30)은 임지룡(1988: 84)을 참조하였다.
33) 예문(31)은 임지룡(1992: 170)을 참조하였다.

예문(31)은 등급 반의어 중 척도 반의어의 예인데 (31ㄱ)는 연필의 길고 짧음에 대하여 어떠한 전제도 없는 중립상태의 물음이지만, (31ㄴ)는 '연필이 짧다'라는 사항이 전제된 경우에만 사용된다. (31ㄷ)의 '길이'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단지 연필의 길고 짧음을 말할 뿐이다. 우리는 늘 사물의 길고 짧음을 '길이'라는 명사로 표현하고 (31ㄹ)의 '짧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처럼 '길이'라는 명사화도 '길다'와 '짧다'의 대립이 중화된 상태이다. (31ㅁ)와 (31ㅂ)의 비교 구문에서 '길다'와 '짧다'는 모두 중화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연필은 각각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으며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길다'와 '짧다'는 오로지 길이에 대한 상대적인 방향만 나타내는 것이다. 이처럼 등급 반의어의 중화는 의문문, 명사화, 비교 구문에서 실현된다.

(32) ㄱ. 곡식을 팔다.
ㄴ. 공부 좀 배워 주세요.
ㄷ. 나에게도 기회를 주라.[34]

예문(32)은 관계 반의어 중 역의어의 예인데 (32ㄱ)는 '사다'와 '팔다'가 방향의 대립 기능이 중화되어 '팔다'로써 '사다'를 나타내고 (32ㄴ)는 '배우다'가 중화되어 '가르치다'의 뜻을 나타내며 (32ㄷ)는 명령형 '주라'로써 '다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팔다', '배우다', '주다' 등 행위의 방향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 반의어도 중화가 일어날 수 있다.

34) 예문(32)은 임지룡(1992: 172)을 참조하였다.

2.2.2. 유표성(有標性)

유표성(有標性)에 의한 반의어란 표지(標識)의 유무와 중화의 기준에 따라 반의어의 유표성을 규정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유표성이란 어떤 대립의 양극 사이에 비대칭적, 계층적인 관계를 말한다.[35] 반의어의 유표성에는 형태적 유표성, 분포적 유표성, 의미적 유표성 세 가지 양상이 있다.

형태적 유표성은 형태적인 표지의 존재 유무에 의하여 특정 지어지는 유표성으로서, 대립 쌍에서 표지가 있는 쪽은 유표항(有標記項)이며 표지가 없는 쪽은 무표항(無標記項)이 된다. 예를 들면 '생물↔무생물'과 같이 형태상으로 드러난 표지의 유무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로서 표지가 없는 단순한 '생물'은 무표항으로, 표지가 있는 복잡한 '무생물'은 유표항으로 구분된다. 반의어의 형태적 유표성은 'X↔Y+X'형과 'X↔X+Y'형으로 나눌 수 있다.

(33) ㄱ. 자라다↔모자라다, 덕↔부덕, 규칙↔불규칙, 생물↔무생물,
폭력↔비폭력, 성년↔미성년, 작용↔반작용, 가치↔몰가치,
낙원↔실낙원, 교육자↔피교육자
ㄴ. 기자↔여기자, 미용사↔남자미용사

35) 임지룡(2017: 413)에 따르면 유표성은 어떤 대립의 양극 사이에 비대칭적이며 계층적인 관계를 말한다. 유표성을 이루는 대립 쌍은 더 단순하고 일반적인 쪽과 더 복잡하고 특수한 쪽으로 대립된다는 점에서 비대칭적이며, 범주의 내부 구조는 원형적인 요소와 주변적인 요소가 방사상 구조로 대립된다는 점에서 계층적이다. 이 경우 단순하고 일반적이며 정상적이고 원형적인 요소를 무표항이라고 하고 복잡하고 특수하며 비정상적이고 주변적인 요소를 유표항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표지 유무의 경우 표지가 있는 쪽을 유표항, 표지가 없는 쪽을 무표항, 중화의 경우 중화 위치에 허용되고 분포가 넓은 쪽을 무표항, 그렇지 않은 쪽을 유표항, 복잡성의 경우 단순한 쪽을 무표항, 복잡한 쪽을 유표항, 바탕과 모습의 의미의 경우 배경이고 긍정적인 쪽은 무표항, 두드러지고 부정적인 쪽은 유표항으로 구분하였다.

ㄷ. 많다↔많잖다, 같다↔같잖다, 귀하다↔귀찮다, 적다↔적찮다,
되다↔되잖다, 만만하다↔만만찮다, 대단하다↔대단찮다,
수월하다↔수월찮다, 젊다↔젊잖다, 편하다↔편찮다,
시원하다↔시원찮다

ㄹ. 소↔송아지, 말↔망아지, 개↔강아지[36]

예시(33)는 반의어의 형태적 유표성의 예인데 (33ㄱ)와 (33ㄴ)는 'X↔Y+X'형 형태적 유표성이고 그중 'X'는 무표항이고 'Y+X'는 유표항이다. 유표항을 이루는 형태적 표지 'Y'가 (33ㄱ)에서는 '부-, 불-, 무-, 비-, 반-, 몰-, 실-, 피-' 등 부정 접두사이고 (33ㄴ)에서는 성별을 표시하는 '남', '여'이다.[37] 따라서

36) 예시(33)는 임지룡(1988: 94)을 참조하였다.

37) 김용한(1998: 308)에 따르면 한국어 부정 접두사에는 '불/부(不), 부(否), 몰(沒), 무(無), 미(未), 반(反), 비(非), 무(毋), 물(勿), 미(靡), 막(莫)' 등이 있는데, 흔히 사용하는 부정 접두사는 '불/부(不), 부(否), 몰(沒), 무(無), 미(未), 반(反), 비(非)' 일곱 가지이고 이들로 구성한 부정 접두 형태소 구성 반의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불/부(不): 가분↔불가분, 규칙↔불규칙, 균형↔불균형, 가능↔불가능, 공정↔불공정, 공평↔불공평, 균등↔불균등, 만족↔불만족, 안전↔불안전, 완전↔불완전, 일치↔불일치, 투명↔불투명, 성립↔불성립, 승인↔불승인, 철저↔불철저, 정기↔부정기, 동산↔부동산, 등식↔부등식, 도덕↔부도덕, 등가↔부등가, 작위↔부작위, 조화↔부조화, 주의↔부주의, 불리↔유리, 불법↔합법, 부동↔가동, 불황↔호황, 불운↔행운, 불통↔개통, 불행↔다행, 불비↔구비, 불목↔화목, 부족↔충족, 불납↔납부, 불윤↔윤허, 불만↔만족, 불편↔편리

부(否): 도덕↔부도덕, 정확↔부정확, 자유↔부자유, 부결↔가결, 부표↔가표, 부정↔긍정, 부인↔시인

몰(沒): 가치↔몰가치, 상식↔몰상식, 염치↔몰염치, 인정↔몰인정, 지각↔몰지각, 비판↔몰비판, 몰취미↔다취미

무(無): 생물↔무생물, 염치↔무염치, 의미↔무의미, 의식↔무의식, 질서↔무질서, 절제↔무절제, 저항↔무저항, 작정↔무작정, 제한↔무제한, 기명↔무기명, 대응↔무대응, 득점↔무득점, 반응↔무반응, 반주↔무반주, 무죄↔유죄,

(33ㄱ)에서 '덕', '규칙' 등은 무표항이고 부정 접두사가 붙은 '부덕', '불규칙' 등은 유표항이다. (33ㄴ)에서 '기자'는 '남자기자'와 '여자기자'의 총칭이기도 하지만 보통 '남자기자'를 '기자'라고 하므로 '남자'는 잉여 자질이 된다. 반면 '여기자'는 반드시 성별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여'는 변별적 표지가 된다. 마찬가지로 '미용사'는 '남자미용사'와 '여자미용사'의 총칭이기도 하지만 '보통 여자미용사'를 '미용사'로 부르므로 '여자'는 잉여 자질이 된다. 반면 '남자미용사'에서 '남자'는 변별적 표지가 된다. 하여 '기자', '미용사'는 무표항이고 '여기자', '남자미용사'는 유표항이다. (33ㄷ)와 (33ㄹ)는 'X↔X+Y'형 형태적 유표성이고 그중 'X'는 무표항이고 'X+Y'는 유표항이다. 유표항을 이루

무기↔유기, 무독↔유독, 무능↔유능, 무정↔유정, 무관↔유관, 무명↔유명, 무망↔유망, 유식↔무식, 유용↔무용, 무익↔유익, 무정↔다정, 무의↔고의, 상관↔무관, 무능↔만능, 무량↔한량, 무식↔박식

미(未): 성년↔미성년, 개간지↔미개간지, 성년자↔미성년자, 성숙↔미성숙, 완성↔미완성, 완료↔미완료, 지급↔미지급, 지불↔미지불, 착수↔미착수, 처리↔미처리, 취학↔미취학, 해결↔미해결, 확산↔미확산, 확인↔미확인, 확정↔미확정, 합의↔미합의, 해명↔미해명, 미숙↔성숙, 미비↔완비, 미결↔결정, 미흡↔흡족, 미결↔기결, 미득↔기득, 미정↔기정, 미지↔기지, 미혼↔기혼

반(反): 비례↔반비례, 우주↔반우주, 인력↔반인력, 작용↔반작용, 독재↔반독재, 체제↔반체제, 반비례↔정비례

비(非): 금속↔비금속, 신자↔비신자, 인간↔비인간, 주류↔비주류, 매품↔비매품, 공식↔비공식, 성실↔비성실, 합리↔비합리, 공개↔비공개, 과세↔비과세, 공인↔비공인, 대칭↔비대칭, 무장↔비무장, 상근↔비상근, 자치↔비자치, 정합↔비정합, 존재↔비존재, 협조↔비협조, 공개적↔비공개적, 공식적↔비공식적, 과학적↔비과학적, 논리적↔비논리적, 능률적↔비능률적, 문화적↔비문화적, 상식적↔비상식적, 생산적↔비생산적, 실용적↔비실용적, 위생적↔비위생적, 이성적↔비이성적, 인간적↔비인간적, 인도적↔비인도적, 타협적↔비타협적, 합법적↔비합법적, 현실적↔비현실적, 유정↔비정, 평범↔비범, 평상↔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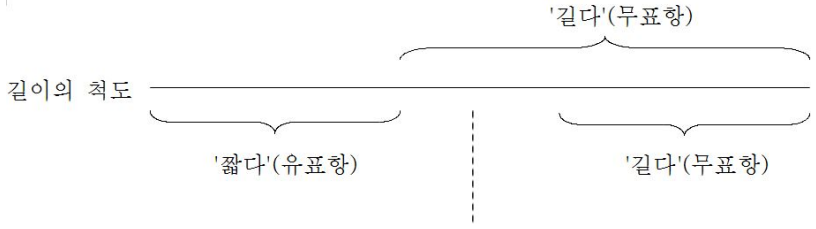
는 형태상의 표지 'Y'가 (33ㄷ)에서는 부정어 '-지 않다'가 서술어에 유착된 것이고 (33ㄹ)에서는 어근에 축소사 '-아지'가 붙은 것이다. 따라서 (33ㄷ)에서 '같다', '귀하다' 등은 무표항이고 '같잖다', '귀찮다' 등은 유표항이다. (33ㄹ)에서 '소', '말' 등은 무표항이고 '송아지', '망아지' 등은 유표항이다.

분포적 유표성은 분포상으로 자유로움의 정도에 의해서 특정 지어지는 유표성으로서, 대립 쌍에서 분포가 자유로운 쪽은 무표항이고 분포가 제약을 받는 쪽은 유표항이 된다. 대립 쌍의 분포적 특징은 중화와 관련된다. 곧 무표항은 대립의 성질을 띠는 동시에 중화가 이루어지는 반면, 유표항은 대립의 성질만 띨 뿐 중화되지 않는다. 이 경우 중화된다는 것은 대립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상위어가 됨을 뜻한다. 예를 들면 '왕↔여왕'과 같이 형태상으로 드러난 표지의 유무 기준과 함께 중화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왕'은 무표항으로, '여왕'은 유표항으로 구분된다. '길다↔짧다'와 같이 중화의 기준만으로 유표성을 규정하는 경우 적극적이고 중화가 가능한 '길다'는 무표항으로, 소극적이고 중화가 불가능한 '짧다'는 유표항으로 구분된다.[38] 상보 반의어의 분포적 유표성은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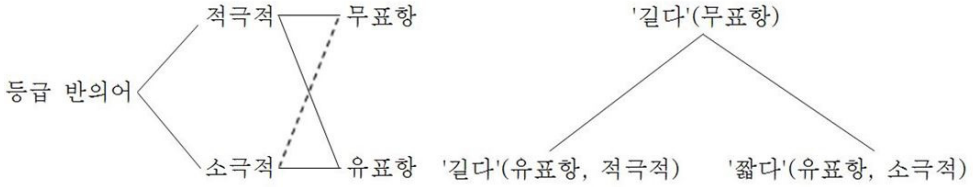
38) 임지룡(1992: 173)에 따르면 등급 반의어에서 분포적 유표성을 규정하는 데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길다', '크다'와 같은 적극적인 항목을 무표항으로, '짧다', '작다'와 같은 소극적인 항목을 유표항으로 보는 것이다. 이 관점은 중화가 가능한 적극적인 항목을 무표항으로, 중화가 불가능한 소극적인 항목을 유표항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원 대립은 무표항과 유표항을 갖는데 이들은 꼭 같은 비중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표항이 유표항에 비해 중화적이거나 적극적이다. [그림Ⅱ-3]은 중화 가능성에 따른 유표성의 구조도이다. 다른 하나는 중화가 실현된 상태의 '길다', '크다' 등을 무표항으로, 대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의 '길다↔짧다', '크다↔작다' 등을 유표항으로 보고 있다. '길다↔짧다'의 대립이 형태론적 관점에서는 '길다'류의 적극적인 항과 '짧다'류의 소극적인 항으로 양분되지만, 의미론적 관점에서는 적극적인 항목이 유표적일 수도 있고 무표적일 수도 있는 반면, 소극적인 항은 항상 유표적이므로 3원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림Ⅱ-4]는 중화 실현성에 따른 유표성의 구조도이다.

별, 세대의 기준에 따라 분포가 넓은 것은 무표항으로, 분포가 제약된 것은 유표항으로 구분되고, 등급 반의어의 분포적 유표성은 의문문, 명사화, 부사화에서 실현되어 분포가 자유로운 것은 무표항으로, 분포가 제약된 것은 유표항으로 구분된다.

(34) ㄱ. 소년↔소녀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ㄴ. 형제↔자매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
ㄷ. 왕↔여왕, 의사↔여의사, 교수↔여교수, 기자↔여기자, 판사↔여판사, 우체부↔여자우체부, 운전수↔여자운전수, 군인↔여군, 시인↔여류시인, 조종사↔여조종사, 국회의원↔여성국회의원, 작가↔여류작가, 화가↔여류화가, 간호원↔남자간호원, 미용사↔남자미용사, 요리사↔남자요리사
그 소아과에는 의사가 세 사람 있다.
그 소아과에는 여의사가 세 사람 있다.



[그림Ⅱ-3] 중화 가능성에 따른 유표성의 구조도



[그림Ⅱ-4] 중화 실현성에 따른 유표성의 구조도

ㄹ. 소↔송아지, 말↔망아지, 개↔강아지
소는 송아지보다 크다.
이 목장에는 소가 많다.
ㅁ. 깊이/*얕이, 높이/*낮이, 길이/*짧이, 넓이/*좁이, 굵기/*가늘이,
두께/*얇이, 키/*작이, 무게/*가벼이
높다랗다/*낮다랗다, 널리/*좁이, 깊이/*얕이, 높이/*낮이, 길이/*짧이,
널찍하다/*좁직하다, 커다랗다/*작다랗다, 깊다랗다/*얕다랗다,
묵직하다/*가볍직하다, 큼직하다/*작직하다, 굵직하다/*가늘직하다,
*무거이/가벼이, *두껍직하다/얄찍하다
연필이 어느 정도 깁니까?
연필이 어느 정도 짧습니까?
연필의 길이가 길다.
연필의 길이가 짧다.
이름을 길이 빛내다.
*이름을 짧이 빛내다.[39]

예시(34)는 반의어의 분포적 유표성의 예인데 (34ㄱ), (34ㄴ), (34ㄷ)는 성별에 의한 분포적 유표성이다. (34ㄱ)에서 '소년↔소녀' 중 '소년'은 남성을 가리키고 '소녀'는 여성을 가리키지만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에서 '소년'은 남성과 여성을 함께 지칭하는 상위어로 중화될 수 있기에 분포가 넓은 '소년'은 무표항이고 분포가 제한된 '소녀'는 유표항이다. 마찬가지로 (34ㄴ)에서 '형제'는 남성을 가리키고 '자매'는 여성을 가리키지만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 중 '형제'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의미할 수 있고 대립이 중화된 경우로서 분포가 넓은 '형제'는 무표항이고 분포가 제한된 '자매'는 유표항이다. 하지만 성별 대립에서 남성이 항상 분포가 넓은 무표항인 것은 아니다. 직업 명칭에서는 중화의 방향이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는데, 성별 표지가 있는 쪽이 유표항이고

39) 예시(34)는 임지룡(1988: 77)을 참조하였다.

표지가 없는 쪽이 무표항이다. (34ㄷ)에서 '그 소아과에는 의사가 세 사람 있다' 중 '의사'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가리킬 수 있지만 '그 소아과에는 여의사가 세 사람 있다' 중 '여의사'는 여성만 가리킨다. 이처럼 '왕↔여왕', '요리사↔남자요리사' 등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 대립을 나타내는 동시에 성별 대립이 중화되어 일반적인 상위어로 쓰일 수 있는 '왕'과 '요리사' 등은 무표항으로, 성별 표지가 있는 '여왕'과 '남자요리사' 등은 유표항으로 구분된다. (34ㄹ)는 세대에 의한 분포적 유표성인데 '소', '말', '개'는 작고 어린 가축을 뜻하는 축소사 '-아지'형과 세대의 기준에 따라 대립된다. 따라서 분포가 넓고 대립이 중화되어 상위어로 사용될 수 있는 '소', '말', '개'는 무표항으로, 분포가 제약된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는 유표항으로 구분된다. (34ㅁ)는 의문문, 명사화, 부사화에 의한 분포적 유표성인데 '연필이 어느 정도 깁니까?'는 대상의 길고 짧음에 대한 편견이나 전제가 없는 중립 상태의 의문문이고 '연필이 어느 정도 짧습니까?'는 연필이 짧다가 전제되어 있는 의문문이므로 분포가 자유로운 '길다'는 무표항으로, 분포가 제약된 '짧다'는 유표항으로 구분된다. '연필의 길이가 길다'와 '연필의 길이가 짧다', '이름을 길이 빛내다'에서 '길다'와 '짧다'는 '길이'로 명사화 혹은 부사화되어 분포가 자유로운 '길다'는 무표항으로, 분포가 제약된 '짧다'는 유표항으로 구분된다. 마찬가지로 '길다↔짧다', '높다↔낮다', '깊다↔얕다', '넓다↔좁다', '두껍다↔얇다', '크다↔작다' 등에서 분포가 자유로운 '길다', '높다' 등은 무표항으로 빈도수가 높고 분포가 제한된 '짧다', '낮다' 등은 유표항으로 빈도수가 낮다.

의미적 유표성은 의미상 더 바탕이 되거나 기준이 되며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는 쪽은 무표항으로, 상대적으로 드러나거나 탈기준이 되며 부정적인 가치를 지니는 쪽은 유표항으로 구분된다. 반의어의 의미적 유표성은 언어의 내적 구조뿐

만 아니라, 문화 및 세상 전반에 걸친 개념화와 관련되어 있다.

(35) ㄱ. 구체적, 적극적, 단수, 앞
추상적, 소극적, 복수, 뒤
ㄴ. 오른쪽, 남성, 삶, 행운
왼쪽, 여성, 죽음, 불행[40]

예시(35)는 반의어의 의미적 유표성의 예인데 (35ㄱ)에서 '구체적'인 것은 '추상적'인 것보다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공간 개념은 비공간 개념에 비하여 구체적이므로 '구체적'인 것은 무표항으로, '추상적'인 것은 유표항으로 구분된다. '적극적'인 개념은 존재와 연관되지만 '소극적'인 개념은 비존재와 연관되므로 '적극적'인 것은 무표항으로, '소극적'인 것은 유표항으로 구분된다. 화자는 집단에서 행동하기보다 개별적으로 행동하고 물질명사에는 '단수'만이 쓰이므로 '단수'는 무표항으로, '복수'는 유표항으로 구분된다. 눈이 위치하는 '앞'은 지각상 자연스러운 방향이고 '뒤'는 부자연스러운 방향이므로 '앞'은 무표항으로, '뒤'는 유표항으로 구분된다. (35ㄴ)에서 '오른쪽', '남성', '삶' 등은 범문화적으로 긍정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무표항으로, '왼쪽', '여성', '죽음' 등은 범문화적으로 부정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유표항으로 구분된다.

2.2.3. 어휘적 빈자리

어휘적 빈자리에 의한 반의어란 반의 관계를 이루는 두 어휘 중 한쪽만 존재하고 다른 한쪽이 결여된 경우를 가리킨다. 이때 어휘적 빈자리 혹은 어휘적 공

40) 예시(35)는 임지룡(1988: 97)을 참조하였다.

백이란 어휘 체계 속에서 개념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어휘화가 되지 않아 어휘로는 어휘장에 존재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41]

(36) ㄱ. 높다↔낮다 → 높이↔∅, 길다↔짧다 → 길이↔∅,
넓다↔좁다 → 넓이↔∅
ㄴ. 군인: 여군↔∅, 사장: 여사장↔∅, 순경: 여순경↔∅,
장군: 여장군↔∅, 기자: 여기자↔∅, 의사: 여의사↔∅,
사원: 여사원↔∅, 사무원: 여사무원↔∅, 직공: 여직공↔∅,
학사: 여학사↔∅, 장부: 여장부↔∅[42]

예시(36)는 중화에 의한 반의어의 어휘적 빈자리의 예인데 (36ㄱ)에서 반의 관계를 이룬 두 단어가 하나의 상위어를 공유할 때 유표적인 것보다 무표적인 것을 상위어로 선택하므로 '높다↔낮다', '길다↔짧다', '넓다↔좁다'의 반의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파생접사 '-이'가 붙어 명사화되어 단어 쌍의 상위어가 된 것은 '높이', '길이', '넓이'이다. 이들은 중화되어 어휘 체계 속에서 이들과 반의 관계를 이루는 어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의어의 어휘적 빈자리가 생긴다. (36ㄴ)에서 '군인', '사장' 등은 대부분 남성이므로 중화되어 무표항으로 남성과 여성을 가리키지만, 여성은 유표항으로 '여군인', '여사장' 등으로 구분된다. '여군인', '여사장' 등과 반의 관계를 이루는 어휘들은 중화되어 어휘 체계 속에서 이들과 반의 관계를 이루는 어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의어의 어휘

41) 김주보(1988: 43)에서는 반의어의 어휘적 빈자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아래와 같은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중화 현상에 의한 어휘적 빈자리이다. 둘째, 언중의 인식 개념 속에서는 명확하게 인식되나 적당한 어휘가 없어서 생긴 어휘적 빈자리이다. 셋째, 언어의 외적인 요소, 즉 금기 요소에 의해 생긴 어휘적 빈자리이다. 넷째, 대립적인 관계에 놓인 한 단어가 다의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생긴 어휘적 빈자리이다.
42) 예시(36)는 이사교(2014b: 201)을 참조하였다.

적 빈자리가 생긴다.

(37) ㄱ. 개↔강아지, 말↔망아지, 닭↔병아리, 소↔송아지,
아침↔저녁, 오전↔오후, 낮↔밤, 황혼↔여명
ㄴ. 오리↔∅, 고양이↔∅, 물고기↔∅,
새벽↔∅,
괜찮다↔∅, 당찮다↔∅, 언짢다↔∅, 오죽잖다↔∅[43]

예시(37)는 어휘 공백에 의한 반의어의 어휘적 빈자리의 예인데 (37ㄱ)는 모두 반의 관계를 이루는 대립 쌍이 명확한 어휘이지만, (37ㄴ)에서 '오리'는 '새끼 오리/작은 오리'와 반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어휘 체계 속에는 '오리'와 반의 관계를 이룰 어휘가 존재하지 않고 '새벽', '괜찮다' 등도 어휘 체계 속에 반의 관계를 이룰 어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의어의 어휘적 빈자리가 생긴다.

(38) 오른손↔왼손, 왼손↔바른손 → 바른손↔∅[44]

예시(38)는 금기에 의한 반의어의 어휘적 빈자리의 예인데 '왼손'과 '오른손'은 명확한 반의 관계를 이룬 반의어이고 '바른손'은 여기로부터 파생한 단어로써 오른쪽에 있는 손, 즉 오른손을 뜻하는데, '바른손'과 반의 관계를 이루는 어휘는 좋지 않은 개념을 갖고 있기에 어휘 체계 속에 이와 반의 관계를 이룰 어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의어의 어휘적 빈자리가 생긴다.

43) 예시(37)는 이사교(2014a: 47)을 참조하였다.
44) 예시(38)는 이사교(2014a: 48)을 참조하였다.

(39) 내↔외 → 내부↔외부, 내인⇏외인 → 내인↔∅, 외인↔∅[45]

예시(39)는 의미 변화에 의한 반의어의 어휘적 빈자리의 예인데 '내'와 '외'는 명확한 반의 관계를 이룬 반의어이고 '안쪽의 부분'을 의미하는 '내부'와 '바깥 부분'을 의미하는 '외부'도 명확한 반의어이지만 '남의 집 부녀자를 통속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하는 '내인'과 '한집안 식구 밖의 사람'을 뜻하는 '외인'은 반의어를 형성할 수 없다. '내인'의 '내'는 '안쪽'이 아닌 '집의 안에'의 뜻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외인'의 '외'는 '바깥 쪽'이 아닌 '집 이외'의 뜻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내인'과 '외인'은 반의 관계를 이룰 수 없고 어휘 체계 속에 이들과 반의 관계를 이룰 어휘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의어의 어휘적 빈자리가 생긴다.

(40) 다↔소 → 다민족↔∅, 강↔약 → 강추위↔∅[46]

예시(40)는 의미 상실에 의한 반의어의 어휘적 빈자리의 예인데 '다↔소'와 '강↔약'은 명확한 반의 관계를 이룬 반의어이고 '다'는 '여러'의 뜻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민족'과 결합할 수 있지만 '소'는 민족과 결합할 때 의미를 상실하여 '민족'과 결합할 수 없고 '강'은 '눈이 오고 매운바람이 부는 심한'의 뜻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추위'와 결합할 수 있지만 '약'은 '추위'와 결합할 때 의미를 상실하여 '추위'와 결합할 수 없다. 하여 '다민족'과 '강추위'는 어휘 체계 속에 이들과 반의 관계를 이룰 어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의어의 어휘적 빈자리가 생긴다.

---

45) 예시(39)는 이사교(2014b: 207)을 참조하였다.
46) 예시(40)는 이사교(2014b: 209)을 참조하였다.

3.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대조 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국어 반의어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을 선정한 다음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를 반의어의 유형에 따라 대조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3.1. 중국어 반의어의 유형과 대조 분석을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

3.1.1. 중국어 반의어의 유형

기존의 연구에서는 중국어 반의어의 유형을 적게는 두 가지에서 많게는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葛本儀(2006: 108)에서는 반의어의 유형을 '남↔여'(男↔女)와 같은 절대 반의어(絕對反義詞)와 '강하다↔약하다'(強↔弱)와 같은 상대 반의어(相對反義詞) 두 가지로 분류하였고 束定芳(2000: 78)에서는 '아버지↔어머니'와 같은 관계 반의어(關係反義詞)를 포함하여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張斌(2009: 160)에서는 반의어의 유형을 '생↔사'(生↔死)와 같은 상보 반의어(互補反義詞), '크다↔작다'(大↔小)와 같은 상대 반의어(相對反義詞), '사다↔팔다'(買↔賣)와 같은 의존 반의어(依存反義詞), '질↔량'(質↔量)과 같은 대칭 반의어(對稱反義詞) 네 가지로 분류하였고 宋振芹(2003: 39)에서는 '남↔여'(男↔女)와 같은 상보 반의어(互補反義詞), 요일, 색채와 같은 다중 반의어(多重反義詞), '덥다↔춥다'(熱↔冷)와 같은 등급 반의어(可分級反義詞), '남편↔아내'(丈夫↔妻子)와 같은 반제 반의어(反題反義詞), '오른쪽↔왼쪽'(右↔

左)과 같은 지향 반의어(指向反義詞)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밖에도 陳青青(2011: 26)에서는 반의어를 관계 반의어(關係反義詞)와 비관계 반의어(非關係反義詞), 肖瑤(2018: 17)에서는 반의어를 성질 반의어(性質類反義詞)와 관계 반의어(關係類反義詞), 符淮青(2004: 139)에서는 반의어를 단음절 반의어(單音節反義詞), 2음절 반의어(雙音節反義詞) 및 다음절 반의어(多音節反義詞), 符淮青(2004: 140)에서는 반의어를 명사 반의어(名詞反義詞), 동사 반의어(動詞反義詞), 형용사 반의어(形容詞反義詞) 및 기타 반의어(其他反義詞), 符淮青(2004: 140)에서는 반의어를 단의어와 단의어가 반의 관계를 가진 경우(單義詞↔單義詞反義詞), 단의어와 다의어가 반의 관계를 가진 경우(單義詞↔多義詞反義詞) 및 다의어와 다의어가 반의 관계를 가진 경우(多義詞↔多義詞反義詞), 符淮青(2004: 142)에서는 반의어를 고정 반의어(語言反義詞)와 상황 반의어(言語反義詞), 李慧敏(2004: 139)에서는 반의어를 긍정형 반의어(肯定型反義詞)와 부정형 반의어(否定型反義詞)로 분류하였다.[47]

---

47) 陳青青(2011: 26)에서는 반의어를 관계 반의어(關係反義詞)와 비관계 반의어(非關係反義詞) 두 가지로 분류하였고 관계 반의어를 다시 모순 관계 반의어(矛盾關係反義詞)와 반대 관계 반의어(反對關係反義詞), 비관계 반의어를 다시 모순 비관계 반의어(矛盾非關係反義詞)와 반대 비관계 반의어(反對非關係反義詞)로 나누었다.

肖瑤(2018: 17)에서는 반의어를 성질 반의어(性質類反義詞)와 관계 반의어(關係類反義詞) 두 가지로 분류하였고 성질 반의어를 다시 모순 성질 반의어(性質類矛盾關係反義詞)와 반대 성질 반의어(性質類反對關係反義詞), 관계 반의어를 다시 모순 관계 반의어(關係類矛盾關係反義詞)와 반대 관계 반의어(關係類反對關係反義詞)로 나누었다.

符淮青(2004: 139)에서는 단어 구조에 따라 반의어를 '바쁘다↔한가하다'(忙↔閑)와 같은 단음절 반의어(單音節反義詞), 2음절 반의어(雙音節反義詞), '무산계급↔자산계급'(無產階級↔資產階級)과 같은 다음절 반의어(多音節反義詞)로 분류하였고 2음절 반의어를 다시 '전진↔후퇴'(前進↔後退)와 같은 두 형태소의 의미가 모두 반대인 경우, '고급↔저급'(高級↔低級)과 같은 하나만 같고 다른 하나가 반대인 경우, '편면↔전면'(片面↔全面)과 같은 하나만 같고 하나가 다르지만 반대가 아닌 경우, '깨끗하다↔더럽다'(乾淨↔骯髒)와 같은 두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본다면 대개 중국어 반의어의 유형 분류에 있어서도 한국어 반의어 유형의 상보 반의어, 등급 반의어, 관계 반의어 세 가지가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보 반의어, 등급 반의어, 관계 반의어 세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반의어를 대조하고자 한다.

3.1.2.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

기존의 연구에서 한국어 교육용 반의어 목록 선정에 관해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혜은(2007: 28)에서는 조남호(2003)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

형태소 모두 반대가 아닌 경우로 나누었다.

符淮青(2004: 140)에서는 품사 종류에 따라 반의어를 '천당↔지옥'(天堂↔地獄)과 같은 명사 반의어(名詞反義詞), '지지하다↔반대하다'(支持↔反對)와 같은 동사 반의어(動詞反義詞), '안전하다↔위험하다'(安全的↔危險的)와 같은 형용사 반의어(形容詞反義詞) 및 '시간이 된다↔시간이 부족하다'(來得及↔來不及)와 같은 기타 반의어(其他反義詞)로 분류하였다.

符淮青(2004: 140)에서는 의미의 복합 관계에 따라 반의어를 '안전하다↔위험하다'(安全↔危險)와 같은 단의어와 단의어가 반의 관계를 가진 경우(單義詞↔單義詞反義詞), '탈퇴하다↔참가하다'(退出↔參加)와 같은 단의어와 다의어가 반의 관계를 가진 경우(單義詞↔多義詞反義詞), '진실↔거짓'(真↔假)과 같은 다의어와 다의어가 반의 관계를 가진 경우(多義詞↔多義詞反義詞)로 나누었다.

符淮青(2004: 142)에서는 화용적 특성에 따라 반의어를 '진실↔거짓'(真↔假)과 같은 고정 반의어(語言反義詞)와 '바람 앞의 버드나무가 되지 말고 바위 위의 소나무가 되리라'에서 '버드나무↔소나무'(楊柳↔青松)와 같은 상황 반의어(言語反義詞)로 분류하였다.

李慧敏(2004: 139)에서는 반의어를 구성하는 단어의 어근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반의어를 '크다↔작다'(大↔小)와 같은 긍정형 반의어(肯定型反義詞)와 '유쾌하다↔불쾌하다'(愉快↔不愉快)와 같은 부정형 반의어(否定型反義詞)로 분류하였다.

고서』에 근거하여 김광해(1990)의 『반대말사전』을 참조하면서 한국어 교육용 반의어를 도합 504쌍 제시하였는데 그중 초급 반의어는 116쌍이고 중급 반의어는 173쌍이며 고급 반의어는 215쌍이다.

강수진(2011: 59)에서는 김광해(2003)의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에 근거하여 낱말 어휘정보처리연구소(2010)의 『우리말 반의어 사전』를 참조하면서 한국어 교육용 반의어를 도합 1476쌍 제시하였는데 그중 초급 반의어는 302쌍이고 중급 반의어는 621쌍이며 고급 반의어는 553쌍이다.

최호정(2013: 28)에서는 경희대학교(2001)의 『한국어』, 고려대학교(2009)의 『재미있는 한국어』, 부산대학교(2008)의 『친절한 한국어』, 서강대학교(2008)의 『서강한국어』, 이화여자대학교(2008)의 『말이 트이는 한국어』를 참조하여 한국어 교육용 반의어를 도합 286쌍 제시하였는데 그중 초급 반의어는 111쌍, 중급 반의어는 107쌍, 고급 반의어는 68쌍이다.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샘터에서는 의미 관계별 검색에서 한국어 교육용 반의어를 도합 1741쌍 제시하였는데 그중 초급 반의어는 399쌍이고 중급 반의어는 637쌍이며 고급 반의어는 705쌍이다.

김광해(1993: 60)에서는 특정한 목적 아래 어휘를 선정하는 방법을 객관적 방법, 주관적 방법, 절충적 방법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객관적 방법이란 어휘 선정의 기준을 전적으로 통계 수치에 두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어휘 자료에서 어휘가 나타난 빈도를 조사하는 것인데, 동일한 자료를 똑같은 어휘소의 단위를 구분하는 방법과 분류 방법으로 분석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이므로 객관적 방법이라고 한다. 주관적 방법이란 어휘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객관적 방법이 가진 결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절충적 방법이란 주관적 방법과 객관적 방법을 종합한 것으로서

종합적 방법 또는 경험적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선정된 어휘 자료를 가지고 주관적 판단에 의해 수정하여 더 합리적으로 목적에 맞는 어휘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박춘설(2012: 73)에서는 학습자를 위한 어휘 선정 원리를 유용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 위계성의 원리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유용성의 원리란 교수·학습 목표의 달성에 유용한 어휘를 지도 대상 어휘로 선정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즉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 사용 범위가 넓은 어휘, 조어력이 높은 어휘, 적용성이 큰 어휘를 선정해야 한다. 효율성의 원리란 교수·학습 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도의 효율성이 큰 어휘를 지도 대상 어휘로 선정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즉 시간이나 노력을 낭비하지 않고 최소를 투자하여 기대한 바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어휘를 선정해야 한다. 위계성의 원리란 학습자의 어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지도 대상 어휘를 선정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즉 어휘의 발달은 개념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한 개념이 다른 개념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지도 어휘를 선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광해(1993: 60)에서 언급한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먼저 절충적 방법을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을 선정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어 교육용 반의어 목록은 나름의 적절함을 갖고 있지만, 연구자들의 다양한 선정 기준에 의한 목록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학습자의 어휘력 확장을 위해 반의어 목록을 선정하기 위하여 김혜은(2007: 28)에서 제시한 고급 반의어 215쌍, 강수진(2011: 59)에서 제시한 고급 반의어 553쌍, 최호정(2013: 28)에서 제시한 고급 반의어 68쌍,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샘터에서 제시한 고급 반의어 705쌍을 모두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

국어 반의어 목록에 포함하였다. 다만 연구자들이 제시한 목록에서 중복된 반의어와 동일한 연구자가 제시한 목록에서 중복된 반의어의 경우에는 합쳐서 한 쌍만 제시하고, 연구자들이 제시한 동일한 단어의 여러 개 반의어를 한 쌍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며, 목록에서는 제시되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검색한 결과 의미상 반의 관계를 이룰 수 없는 반의어를 제외하여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을 도합 998쌍 제시하였으며 이는 <부록 1>과 같다.[48]

위의 기준으로 선정한 반의어를 토대로 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하되, 박춘설(2012: 73)에서 언급한 유용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 위계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을 선정하고자 한다. 유용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 위계성의 원리는 반의어 목록을 구성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반의어는 많으나 수업 시간에 교사가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반의어의 양과 질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을 선정하는 데 있어 반드시 유용성의 원리가 준수되어야 한다. 노력이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기대한 교수·학습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효율성의 원리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지도 대상 반의어를 선정하기 위해 학습자의 어휘 발달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계성의 원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용성, 효율성, 위계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고급 학습자를 위하여 정리한 998쌍의 한국어 반의어를 다시 특성상 중국어 반의어와 차이가 있는 반의어, 즉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기준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

48) 목록에서는 제시되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검색한 결과 의미상 반의 관계를 이룰 수 없는 반의어들로는 음악과 미술, 쌀과 보리, 청주와 막걸리, 손과 발, 지폐와 동전, 육군과 해군 및 공군, 해와 달 등이 있다.

를 일일이 대조하여 중국어 반의어와 차이가 있는 한국어 반의어를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으로 제시하였는데 모두 93쌍이며 이를 정리하면 <표-Ⅱ-1>과 같다.

<표Ⅱ-1>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93쌍)

감추다	들추다, 나타내다, 밝히다, 드러내다	외래	재래
개강	종강	우월감	열등감
개업	폐업, 휴업, 정업	웃돌다	밑돌다
걷히다	끼다, 서리다	위생적	비위생적
공개적	비공개적	이성적	감성적, 감정적, 비이성적, 감상적
관심	무관심	이익	불이익, 손해
구어	문어, 글말	익다	설다, 서투르다
굵다	가늘다, 잘다	인도적	비인도적
굵다랗다	가느다랗다, 잗다랗다	입대	제대
급상승	급강하	잠그다	열다, 끄르다
당기다	밀다, 미루다, 늦추다, 물리다	잦다	드물다, 뜸하다, 뜨다
대가족	핵가족, 소가족	재빠르다	굼뜨다, 느리다
대접하다	부대접하다, 푸대접하다	저승	이승
도덕적	비도덕적	전문적	비전문적, 일반적
도매	소매, 산매	정규	비정규
동거	별거	정기적	부정기적
드물다	흔하다, 잦다, 수두룩하다, 숱하다, 허다하다	정면	후면, 배면, 뒷면
등교	하교, 퇴교	정상	비정상, 이상
딱딱하다	말랑하다, 물렁하다, 무르다, 부드럽다, 유연하다, 연하다	정상적	비정상적
마땅하다	못마땅하다, 마땅찮다	정열적	미온적
맏형	작은형	제한	무제한
말리다	적시다, 축이다	조직적	비조직적
매입하다	매각하다, 매출하다	좁히다	넓히다, 벌리다
맺다	풀다, 끄르다, 끊다	줄어들다	늘어나다, 늘다, 붇다, 불어나다
먼바다	앞바다, 근해	참가	불참, 불참가, 이탈

미루다	앞당기다, 당기다, 맡다, 지다	참석	불참, 불참석
민주적	반민주적, 비민주적	첨가	삭제
본사	지사, 분사	칭찬하다	헐뜯다, 비난하다
부인	시인, 승인	쾌감	불쾌감
분담	전담	탈모	발모
불경기	호경기	특이하다	평범하다, 예사롭다, 범상하다
빠뜨리다	건지다, 챙기다	푼돈	거금, 목돈
상승세	내림세, 하락세, 낙세	풀어지다	맺히다, 굳어지다
생물	무생물	필수	선택
선하다	희미하다, 악하다	한정	무한정
성수기	비수기	헤프다	알뜰하다, 마디다
세련되다	촌스럽다	현실적	비현실적, 이상적, 낭만적
솟다	가라앉다, 꺼지다	협조	비협조
수월하다	수월찮다, 어렵다	호황	불황
시시하다	재미있다, 중요하다, 흥미롭다	확산	미확산, 비확산, 수렴
식상하다	신선하다	효율적	비효율적
신세대	기성세대, 구세대	효자	효녀, 불효자
신자	불신자, 비신자	후진국	전진국, 선진국
싸다	무겁다, 비싸다, 뜨다	흐리다	개다, 맑다, 선명하다
악몽	길몽	흡연자	비흡연자
여인	남성, 남자	흩어지다	모이다, 뭉치다, 꼬이다, 집합하다
완공하다	기공하다		

3.2. 한국어와 중국어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표-Ⅱ-2>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상보 반의어 44쌍을 목록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상보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중심으로 중국어 상보 반의어와 각각 대조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Ⅱ-2>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상보 반의어 목록(44쌍)

개강	종강	인도적	비인도적

개업	폐업, 휴업, 정업	전문적	비전문적, 일반적
공개적	비공개적	정규	비정규
관심	무관심	정기적	부정기적
구어	문어, 글말	정상	비정상, 이상
도덕적	비도덕적	정상적	비정상적
동거	별거	정열적	미온적
민주적	반민주적, 비민주적	제한	무제한
부인	시인, 승인	조직적	비조직적
분담	전담	참가	불참, 불참가, 이탈
불경기	호경기	참석	불참, 불참석
생물	무생물	쾌감	불쾌감
성수기	비수기	푼돈	거금, 목돈
신세대	기성세대, 구세대	필수	선택
신자	불신자, 비신자	한정	무한정
악몽	길몽	현실적	비현실적, 이상적, 낭만적
여인	남성, 남자	협조	비협조
완공하다	기공하다	호황	불황
위생적	비위생적	확산	미확산, 비확산, 수렴
이성적	감성적, 감정적, 비이성적, 감상적	효율적	비효율적
이익	불이익, 손해	효자	효녀, 불효자
익다	설다, 서투르다	흡연자	비흡연자

3.2.1. 상보 반의어 복합성의 대조 분석

(41) 목돈≈거금 → 푼돈↔목돈, 푼돈↔거금

小錢↔巨款

푼돈: ① 많지 아니한 몇 푼의 돈.

② 적은 액수로 나뉜 돈.

小錢：① 數目不大的金錢。

거금: ① 많은 돈.

巨款：① 巨額的貨幣。

목돈: ① 한몫이 될 만한, 비교적 많은 돈.

예시(41)는 복합성 중 동의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

어대사전에서 '한몫이 될 만한, 비교적 많은 돈'을 의미하는 '목돈'과 '많은 돈'을 의미하는 '거금'은 상대적 동의 관계이므로 '많지 아니한 몇 푼의 돈'을 의미하는 한국어 '푼돈'은 '목돈', '거금'과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목돈'은 고유어로써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많은 돈'을 의미하는 '巨款'만 제시되어 '많지 아니한 몇 푼의 돈'을 의미하는 '小錢'과 반의어를 형성한다.

(42) 개업↔폐업, 개업↔휴업, 개업↔정업
開業↔廢業, 開業↔休業, 開業↔停業
개업: ① 영업을 처음 시작함.
開業：① 開創事業。
폐업: ① 직업이나 영업을 그만둠.
② 학업을 중도에서 그만둠.
廢業：① 中止學業。
② 荒廢本業。
③ 傾盡家產。
④ 指當辦而未辦的事業。
개업: ② 영업을 하고 있음.
③ 그날의 영업을 시작함.
開業：② 開始業務活動。
휴업: ① 사업이나 영업, 작업 따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루 또는 한동안 쉼.
休業：① 暫停營業。
정업: ① 업무나 영업 또는 생업을 정지함.
停業：① 商店暫停營業或永久停止開業。
폐업: ③ 영업을 하지 않음.
④ 그날의 영업을 끝냄.[49]

49)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학업을 중도에서 그만둠', '그날의 영업을 끝냄'을 의미하는

閉業

예시(42)는 복합성 중 다의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개업'의 사전적 의미 중 '영업을 하고 있음, 그날의 영업을 시작함'을 의미할 경우에는 '영업을 하지 않음, 그날의 영업을 끝냄'을 의미하는 '폐업', '사업이나 영업, 작업 따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루 또는 한동안 쉼'을 의미하는 '휴업', '업무나 영업 또는 생업을 정지함'을 의미하는 '정업'과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고, '영업을 처음 시작함'을 의미할 경우에는 '직업이나 영업을 그만둠'을 의미하는 '폐업'과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폐업(閉業)'은 비록 한자어이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직업이나 영업을 그만둠'을 의미하는 '廢業'만 제시되어 '영업을 처음 시작함'을 의미하는 '開業'과 반의어를 형성하고, '사업이나 영업, 작업 따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루 또는 한동안 쉼'을 의미하는 '休業', '업무나 영업 또는 생업을 정지함'을 의미하는 '停業'은 '영업을 하고 있음, 그날의 영업을 시작함'을 의미하는 '開業'과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43) 신세대↔기성세대, 신세대↔구세대
新時代↔舊時代
신세대: ① 새로운 세대, 흔히 20대 이하의 젊은 세대를 이른다.
新時代 : ① 嶄新并具有重大意義的時期或階段。
구세대: ① 이전의 세대. 또는 나이 든 낡은 세대.
舊時代 : ① 以前的時期或階段。

'폐업', '그날의 영업을 시작함'을 의미하는 '개업', '업무나 영업 또는 생업을 정지함'을 의미하는 '정업'이 제시되었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신세대: ② 기성의 관습에 반발하여 새로운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개성이 뚜렷하며 자기중심적 사고 및 주장이 강한 세대.

新時代

기성세대: ① 현재 사회를 이끌어 가는 나이가 든 세대.

既成時代

예시(43)는 복합성 중 다의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신세대'의 사전적 의미 중 '새로운 세대, 흔히 20대 이하의 젊은 세대를 이른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이전의 세대. 또는 나이 든 낡은 세대'를 의미하는 '구세대'와 반의어를 형성하고, '기성의 관습에 반발하여 새로운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개성이 뚜렷하며 자기중심적 사고 및 주장이 강한 세대'를 의미할 경우에는 '현재 사회를 이끌어 가는 나이가 든 세대'를 의미하는 '기성세대'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기성세대'는 비록 한자어이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기성의 관습에 반발하여 새로운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개성이 뚜렷하며 자기중심적 사고 및 주장이 강한 세대'를 의미하는 '신세대'도 제시되지 않으며 '이전의 세대. 또는 나이 든 낡은 세대'를 의미하는 '舊時代'만 제시되어 '새로운 세대, 흔히 20대 이하의 젊은 세대를 이른다'를 의미하는 '新時代'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44) 익다↔설다, 익다↔서투르다

熟↔生

익다: ① 열매나 씨가 여물다.

熟 : ① 食物的果實或種子長成。

설다: ① 열매, 밥, 술 따위가 제대로 익지 아니하다.

生 : ①植物果實不成熟。

익다: ② 여러 번 겪어 설지 않다.

③ 자주 경험하여 조금도 서투르지 않다.

설다: ② 익숙하지 못하다.

③ 빈틈이 있고 서투르다.

서투르다: ① 일 따위에 익숙하지 못하여 다루기에 설다.

예시(44)는 복합성 중 다의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익다'의 사전적 의미 중 '열매나 씨가 여물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열매, 밥, 술 따위가 제대로 익지 아니하다'를 의미하는 '설다'와 반의어를 형성하고, '여러 번 겪어 설지 않다, 자주 경험하여 조금도 서투르지 않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빈틈이 있고 서투르다'를 의미하는 '설다', '일 따위에 익숙하지 못하여 다루기에 설다'를 의미하는 '서투르다'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서투르다'는 고유어로써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열매, 밥, 술 따위가 제대로 익지 아니하다'를 의미하는 '生'만 제시되어 '열매나 씨가 여물다'를 의미하는 '熟'과 반의어를 형성한다.

3.2.2. 상보 반의어 불균형성의 대조 분석

(45) 공개적↔비공개적

公開↔非公開, 公開↔未公開, 公開↔不公開

공개적: ①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터놓는 것.

公開：① 將事情的內容暴露于大眾, 把秘密公佈出來。

비공개적: ① 남에게 알리거나 보이지 않는 것.

非公開：① 不將事情的內容暴露于大眾, 不把秘密公佈出來。

未公開：① 未將事情的內容暴露于大眾, 未把秘密公佈出來。

不公開：① 不將事情的內容暴露于大眾, 不把秘密公佈出來。

(46) 도덕적↔비도덕적

道德↔非道德, 道德↔不道德, 道德↔無道德

도덕적: ① 도덕에 관한 것, 도덕의 규범에 맞는 것.

道德：① 合乎道德的。

비도덕적: ① 일반적인 윤리 규범에 맞지 아니한 것.

非道德：① 不合乎道德的。

無道德：① 不合乎道德的。

不道德：① 不合乎道德的。

(47) 정규↔비정규

正規↔非正規, 正規↔不正規, 正規↔無正規

정규: ① 정식으로 된 규정이나 규범.

正規：① 符合正式規定的或正常標準的。

비정규: ① 정규가 아님.

非正規：① 不符合正式規定的或正常標準的。

不正規：① 不符合正式規定的或正常標準的。

無正規：① 不符合正式規定的或正常標準的。

(48) 정상적↔비정상적

正常↔非正常, 正常↔不正常, 正常↔未正常

정상적: ① 상태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것.

正常：① 不特殊, 無缺陷, 合乎一般常規。

비정상적: ① 정상적이 아닌 것.

非正常：① 不合乎一般常規。

不正常：① 不合乎一般常規。

未正常：① 未合乎一般常規。

(49) 제한↔무제한

限制↔無限制, 限制↔不限制, 限制↔非限制

제한: ①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또는 그렇게 정한 한계.

限制：① 不能逾越的一定界限。

무제한: ① 제한이 없음.

無限制：① 無一定界限。

不限制：① 無一定界限。

非限制：① 無一定界限。

(50) 협조↔비협조

協助↔非協助, 協助↔不協助, 協助↔未協助

협조: ① 힘을 합하여 서로 조화를 이룸.

協助：① 協力幫助。

비협조: ① 서로 힘을 모아 돕지 아니함.

非協助：① 不協力幫助。

不協助：① 不協力幫助。

未協助：① 未協力幫助。

예시(45)는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터놓는 것'을 의미하는 '공개적'과 '남에게 알리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비공개적'은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X↔Y+X'형 형태적 유표성이고 그중 'X'인 '공개적'은 무표항이고 'Y+X'인 '비공개적'은 유표항이다. 하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남에게 알리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非公開'뿐만 아닌 '未公開'와 '不公開'까지 제시되어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터놓는 것'을 의미하는 '公開'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예시(46), (47), (48), (49), (50)도 마찬가지로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한국어에서 '도덕적'과 '비도덕적', '정규'와 '비정규', '정상적'과 '비정상적', '제한'과 '무제한', '협조'와 '비협조'는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지만, 중국어에서는 '非道德', '無道德', '不道德'과 '道德', '非正規', '不正規', '無正規'와 '正規', '非正常', '不正常', '未正常'과 '正常', '無限制', '不限制', '非限制'과 '限制', '非協助', '不協助', '未協助'와 '協助'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51) 한정↔무한정

限定↔不限定, 限定↔非限定

한정: ① 수량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함, 또는 그런 한도.

限定：① 規定時間, 空間或動作的範圍。

무한정: ① 한정이 없음.

無限定

不限定：① 不規定時間, 空間或動作的範圍。

非限定：① 不規定時間, 空間或動作的範圍。

(52) 관심↔무관심

關心↔不關心

관심: ①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 또는 그런 마음이나 주의.

關心：① 掛念。

무관심: ① 관심이나 흥미가 없음.

無關心

不關心：① 不掛念。

(53) 생물↔무생물

生物↔非生物

생물: ①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 현상을 유지하여 나가는 물체. 영양・운동・생장・증식을 하며, 동물・식물・미생물로 나뉜다.

生物：① 泛指一切有生命的物體。

무생물: ① 생물이 아닌 물건. 세포로 이루어지지 않은 돌, 물, 흙 따위를 이른다.

無生物

非生物：① 泛指一切無生命特征的物體。

예시(51)는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수량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함, 또는 그런 한도'를 의미하는 '한정'과 '한정이 없음'을 의미하는 '무한정'은 반의어를 형성하는

데 이는 'X↔Y+X'형 형태적 유표성이고 그중 'X'인 '한정'은 무표항이고 'Y+X'인 '무한정'은 유표항이다. 하지만 '무한정'은 비록 한자어이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한정이 없음'을 의미하는 '不限定', '非限定'이 제시되어 '수량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함, 또는 그런 한도'를 의미하는 '限定'과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예시(52), (53)도 마찬가지로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한국어에서 '관심'과 '무관심', '생물'과 '무생물'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지만, 중국어에서는 '不關心'과 '關心', '非生物'과 '生物'이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54) 이성적↔감성적, 이성적↔감정적, 이성적↔비이성적, 이성적↔감상적
理性↔非理性, 理性↔不理性, 理性↔感性
이성적: ① 이성에 따르거나 이성에 근거한 것.
理性：① 思考, 判断, 推理等的能力。
비이성적: ① 이성에 바탕을 두지 아니하고 이성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
非理性：① 无思考, 判断, 推理等的能力。
감성적: ① 감성을 위주로 하거나 감성에 관한 것.
感性：① 易表露情感, 重视人际关系的和谐。
감정적: ① 마음이나 기분에 의한 것.
感情
감상적: ①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쉽게 기뻐하는 것.
感傷
不理性：① 无思考, 判断, 推理等的能力。
感情：① 受外界刺激所产生的情绪。
② 对人或事物关心, 喜爱的心情。
感傷：① 因有所感觸而心傷。

예시(54)는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

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성에 따르거나 이성에 근거한 것'을 의미하는 '이성적'과 '이성에 바탕을 두지 아니하고 이성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비이성적', '감성을 위주로 하거나 감성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감성적', '마음이나 기분에 의한 것'을 의미하는 '감정적',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쉽게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감상적'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X↔Y+X'형 형태적 유표성이고 그중 'X'인 '이성적'은 무표항이고 'Y+X'인 '비이성적', '감정적', '감상적', '감성적'은 유표항이다. 하지만 '감정적', '감상적'은 비록 한자어이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마음이나 기분에 의한 것',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쉽게 기뻐하는 것'의 의미로 제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이성에 바탕을 두지 아니하고 이성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非理性', '감성을 위주로 하거나 감성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感性'뿐만 아닌 '不理性'까지 제시되어 '이성에 따르거나 이성에 근거한 것'을 의미하는 '理性'과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55) 이익↔불이익, 이익↔손해
利益↔不利益, 利益↔非利益, 利益↔損害
이익: 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
利益：① 益處。
불이익: ①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손해가 되는 데가 있음.
不利益：① 害處。
손해: 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밑짐.
損害：① 使受損失。
非利益：① 害處。

(56) 전문적↔비전문적, 전문적↔일반적
專門↔非專門, 專門↔一般, 專門↔不專門
전문적: ①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일을 잘하는 것.

專門 : ① 專一從事某事或研究某門學問。
비전문적: ① 일정한 분야를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것.
非專門 : ① 不專一從事某事或研究某門學問。
일반적: ① 전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一般 : ① 普通, 通常。
不專門 : ① 不專一從事某事或研究某門學問。

(57) 정상↔비정상, 정상↔이상
正常↔非正常, 正常↔異常, 正常↔不正常
정상: ①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
正常 : ① 不特殊, 無缺陷, 合乎一般常規。
비정상: ① 정상이 아님.
非正常 : ① 不合乎一般常規。
이상: ① 정상적인 상태와 다름.
異常 : ① 不同於平常。
不正常 : ① 不合乎一般常規。

(58) 민주적↔반민주적, 민주적↔비민주적
民主↔反民主, 民主↔非民主, 民主↔無民主
민주적: ① 국민이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는 것.
民主 : ① 人民有參與國事或對國事有自由發表意見的權利。
반민주적: ① 민주주의에 반대하거나 반대되는 것.
反民主 : ① 不合乎民主原則。
비민주적: ① 민주주의 정신이나 방법에 알맞지 않은 것.
非民主 : ① 不合乎民主原則。
無民主 : ① 不合乎民主原則。

예시(55)는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이익'과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손해가 되는 데가 있음'을 의미하는 '불이익',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밑짐'을 의미하는 '손해'는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는

데 이는 'X↔Y+X'형 형태적 유표성이고 그중 'X'인 '이익'은 무표항이고 'Y+X'인 '불이익', '손해'는 유표항이다. 하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손해가 되는 데가 있음'을 의미하는 '不利益',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밑짐'을 의미하는 '損害'뿐만 아닌 '非利益'까지 제시되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利益'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예시(56), (57), (58)도 마찬가지로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한국어에서 '일반적'과 '전문적', '비전문적', '정상'과 '비정상', '이상', '민주적'과 '반민주적', '비민주적'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지만, 중국어에서는 '非專門', '一般', '不專門'과 '專門', '非正常', '異常', '不正常'과 '正常', '反民主', '非民主', '無民主'와 '民主'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59) 정기적↔부정기적

定期↔不定期, 定期↔非定期

정기적: ① 기한이나 기간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것.

定期：① 有一定期限的。

부정기적: ① 시기나 기한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

不定期：① 無一定期限的。

非定期：① 無一定期限的。

(60) 위생적↔비위생적

衛生↔非衛生, 衛生↔不衛生

위생적: ① 건강에 유익하도록 조건을 갖춘 것.

衛生：① 乾淨。

비위생적: ① 위생에 좋지 않거나 알맞지 아니한 것.

非衛生：① 不乾淨。

不衛生：① 不乾淨。

(61) 인도적↔비인도적

人道↔非人道, 人道↔不人道

인도적: ①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에 관계되는 것.

人道：① 做人的道理。

비인도적: ① 사람으로서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

非人道：① 違背做人的道理。

不人道：① 違背做人的道理。

(62) 조직적↔비조직적

組織↔非組織, 組織↔無組織

조직적: ① 일이나 행동 따위에 체계가 짜여 있는 것.

組織：① 一群人為達特定目標組成的團體具有一定的秩序。

비조직적: ① 어떤 일이나 행동 따위에 체계나 질서가 없는 것.

非組織：① 為達特定目標組成的團體無秩序。

無組織：① 為達特定目標組成的團體無秩序。

(63) 쾌감↔불쾌감

快感↔不快感, 快感↔無快感

쾌감: ① 상쾌하고 즐거운 느낌.

快感：① 愉快或舒服的感覺。

불쾌감: ① 못마땅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느낌.

不快感：① 不愉快或不舒服的感覺。

無快感：① 無愉快或舒服的感覺。

(64) 효율적↔비효율적

有效率↔非效率, 有效率↔無效率

효율적: ① 들인 노력에 비하여 얻는 결과가 큰 것.

有效率：① 所付出之能力與所獲得之功效的比率大。

비효율적: ① 들인 노력에 비하여 얻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

非效率：① 所付出之能力與所獲得之功效的比率小。

無效率：① 所付出之能力與所獲得之功效的比率小。

(65) 흡연자↔비흡연자

吸煙者↔非吸煙者, 吸煙者↔不吸煙者

흡연자: ① 담배를 피우는 사람.

吸煙者：① 抽煙的人。

비흡연자: 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非吸煙者：① 不抽煙的人。
不吸煙者：① 不抽煙的人。

예시(59)는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한이나 기간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정기적'과 '시기나 기한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 '부정기적'은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X↔Y+X'형 형태적 유표성이고 그중 'X'인 '정기적'은 무표항이고 'Y+X'인 '부정기적'은 유표항이다. 하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시기나 기한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 '不定期'뿐만 아닌 '非定期'까지 제시되어 '기한이나 기간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定期'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예시(60), (61), (62), (63), (64), (65)도 마찬가지로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한국어에서 '위생적'과 '비위생적', '인도적'과 '비인도적', '조직적'과 '비조직적', '쾌감'과 '불쾌감', '효율적'과 '비효율적', '흡연자'와 '비흡연자'는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지만, 중국어에서는 '非衛生', '不衛生'과 '衛生', '非人道', '不人道'와 '人道', '非組織', '無組織'과 '組織', '不快感', '無快感'과 '快感', '非效率', '無效率'과 '有效率', '非吸煙者', '不吸煙者'와 '吸煙者'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66) 참가↔불참, 참가↔불참가, 참가↔이탈
參加↔不參加, 參加↔脫離, 參加↔未參加
참가: ① 모임이나 단체 또는 일에 관계하여 들어감.
參加：① 加入某種組織或活動。
불참가: ① 어떤 자리에 참가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음.[50]

不參加：① 不加入某種組織或活動。

이탈: ① 어떤 범위나 대열 따위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떨어져 나감.

脫離：① 離開。

불참: ① 어떤 자리에 참가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음.

不參

未參加：① 未加入某種組織或活動。

(67) 신자↔불신자, 신자↔비신자

信徒↔非信徒, 信徒↔無信徒

신자: ① 종교를 믿는 사람.

信徒：① 信奉某種宗教的人, 亦指某學說的信仰者。

불신자: 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

不信徒

비신자: ① 종교에서, 신이나 절대자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非信徒：① 不信奉宗教的人。

無信徒：① 不信奉宗教的人。

(68) 참석↔불참, 참석↔불참석

出席↔不出席, 出席↔未出席

참석: ① 모임이나 회의 따위의 자리에 참여함.

出席：① 到場參加。

불참: ① 어떤 자리에 참가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음.

不參

불참석: ① 어떤 자리에 참가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음.[51]

不出席：① 不到場參加。

未出席：① 未到場參加。

---

50)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떤 자리에 참가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불참가'가 제시되었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51)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떤 자리에 참가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불참석'이 제시되었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예시(66)는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모임이나 단체 또는 일에 관계하여 들어감'을 의미하는 '참가'와 '어떤 자리에 참가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불참가', '어떤 범위나 대열 따위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떨어져 나감'을 의미하는 '이탈', '어떤 자리에 참가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불참'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X↔Y+X'형 형태적 유표성이고 그중 'X'인 '참가'는 무표항이고 'Y+X'인 '불참가', '이탈', '불참'은 유표항이다. 하지만 '불참'은 비록 한자어이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어떤 자리에 참가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不參加', '어떤 범위나 대열 따위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떨어져 나감'을 의미하는 '脫離'뿐만 아닌 '未參加'까지 제시되어 '모임이나 단체 또는 일에 관계하여 들어감'을 의미하는 '參加'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예시(67), (68)도 마찬가지로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한국어에서 '신자'와 '불신자', '비신자', '참석'과 '불참', '불참석'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지만, 중국어에서는 '非信徒', '無信徒'와 '信徒', '不出席', '未出席'과 '出席'이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69) 현실적↔비현실적, 현실적↔이상적, 현실적↔낭만적
現實↔非現實, 現實↔不現實, 現實↔理想, 現實↔浪漫
현실적: ① 현재 실제로 존재하거나 실현될 수 있는 것.
現實：① 存在於眼前的事實及狀況。
비현실적: ①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非現實：① 不存在於眼前的事實及狀況。
이상적: ①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것.
理想：① 對未來事物的希望和想象。
낭만적: ①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것.

浪漫：① 富有詩意, 充滿感性氣氛的。
不現實：① 不存在於眼前的事實及狀況。

예시(69)는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현재 실제로 존재하거나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현실적'과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비현실적',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이상적',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낭만적'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X↔Y+X'형 형태적 유표성이고 그중 'X'인 '현실적'은 무표항이고 'Y+X'인 '비현실적', '낭만적', '이상적'은 유표항이다. 하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非現實',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理想',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浪漫'뿐만 아닌 '不現實'까지 제시되어 '현재 실제로 존재하거나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現實'과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70) 확산↔미확산, 확산↔비확산, 확산↔수렴
擴散↔未擴散, 擴散↔非擴散, 擴散↔無擴散, 擴散↔不擴散, 擴散↔收斂
확산: ① 흩어져 널리 퍼짐.
擴散：① 向外擴展分散。
미확산: ① 아직 흩어져 널리 퍼지지 않음.
未擴散：① 未向外擴展分散。
비확산: ① 흩어져 널리 퍼지지 않음.
非擴散：① 不向外擴展分散。
수렴: ① 돈이나 물건 따위를 거두어들임.[52]

52)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거두어들임'을 의미하는 '수렴'이 제시되

收斂：① 聚攏，收集。
無擴散：① 不向外擴展分散。
不擴散：① 不向外擴展分散。

예시(70)는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흩어져 널리 퍼짐'을 의미하는 '확산'과 '아직 흩어져 널리 퍼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미확산', '흩어져 널리 퍼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비확산', '돈이나 물건 따위를 거두어들임'을 의미하는 '수렴'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X↔Y+X'형 형태적 유표성이고 그중 'X'인 '확산'은 무표항이고 'Y+X'인 '미확산', '비확산', '수렴'은 유표항이다. 하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아직 흩어져 널리 퍼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未擴散', '흩어져 널리 퍼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非擴散', '돈이나 물건 따위를 거두어들임'을 의미하는 '收斂'뿐만 아닌 '無擴散', '不擴散'까지 제시되어 '흩어져 널리 퍼짐'을 의미하는 '擴散'과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71) 효자↔효녀, 효자↔불효자
孝子↔孝女, 孝子↔不孝子, 孝子↔逆子
효자: ① 부모를 잘 섬기는 아들.
孝子：① 指對父母孝順的兒子。
효녀: ① 부모를 잘 섬기는 딸.
孝女：① 有孝行的女子。
불효자: ① 어버이를 효성스럽게 잘 섬기지 아니하는 자식.
不孝子：① 沒有善盡孝道的人。
逆子：① 不孝順的兒子。

었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역자: ① 점을 치는 사람.
② 끝이 굽은 가시.
③ 글을 번역한 사람.
④ 역에서 일을 보던 사람.[53]

예시(71)는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모를 잘 섬기는 아들'을 의미하는 '효자'와 '부모를 잘 섬기는 딸'을 의미하는 '효녀', '어버이를 효성스럽게 잘 섬기지 아니하는 자식'을 의미하는 '불효자'는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X↔Y+X'형 형태적 유표성이고 그중 'X'인 '효자'는 무표항이고 'Y+X'인 '효녀', '불효자'는 유표항이다. 하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부모를 잘 섬기는 딸'을 의미하는 '孝女', '어버이를 효성스럽게 잘 섬기지 아니하는 자식'을 의미하는 '不孝子'뿐만 아닌 '逆子'까지 제시되어 '부모를 잘 섬기는 아들'을 의미하는 '孝子'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역자'는 '점을 치는 사람. 끝이 굽은 가시. 글을 번역한 사람. 역에서 일을 보던 사람'을 의미하고 '어버이를 효성스럽게 잘 섬기지 아니하는 아들'을 의미하는 중국어 '逆子'와 의미가 다르다.

(72) 구어↔문어, 구어↔글말
口語↔書面語
구어: ① 글에서만 쓰는 특별한 말이 아닌,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
口語：① 日常口頭交談時使用的語言。
문어: ①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이 아닌, 주로 글에서 쓰는 말.

53)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점을 치는 사람', '끝이 굽은 가시', '역에서 일을 보던 사람'을 의미하는 '역자'가 제시되었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文語
글말: ①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이 아닌, 주로 글에서 쓰는 말
書面語：① 用文字表述的語言。
文語：① 精闢的話。掉文的語言。

예시(72)는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글에서만 쓰는 특별한 말이 아닌,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을 의미하는 '구어'와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이 아닌, 주로 글에서 쓰는 말'을 의미하는 '문어', '글말'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의미적 유표성이고 그중 '구어'는 무표항이고 '문어', '글말'은 유표항이다. 하지만 '문어'는 비록 한자어이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이 아닌, 주로 글에서 쓰는 말'의 의미로 제시되지 않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이 아닌, 주로 글에서 쓰는 말'을 의미하는 '書面語'가 제시되어 '글에서만 쓰는 특별한 말이 아닌,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을 의미하는 '口語'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73) 부인↔시인, 부인↔인정
否認↔認定, 否認↔承認
부인: ①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함.
否認：① 不承認。
시인: ①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함.
是認
인정: ①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
認定：① 認可確定。
承認：① 供認, 招認。
승인: ① 어떤 사실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임.

예시(73)는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부인'과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함'을 의미하는 '시인'은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의미적 유표성이고 그중 '시인', '인정'은 무표항이고 '부인'은 유표항이다. 하지만 '시인'은 비록 한자어이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을 의미하는 '認定'뿐만 아닌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함'을 의미하는 '承認'까지 제시되어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否認'과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승인'은 '어떤 사실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임'을 의미하고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함'을 의미하는 중국어 '承認'과 의미가 다르다.

(74) 분담↔전담
分擔↔總攬
분담: ① 나누어서 맡음.
分擔：① 分別擔負。
전담: ① 어떤 일이나 비용의 전부를 도맡아 하거나 부담함.
全擔
總攬：① 統理一切。
총람: ① 모든 일을 한데 묶어 관할함.

(75) 불경기↔호경기
不景氣↔景氣
불경기: ① 경제 활동이 일반적으로 침체되는 상태. 물가와 임금이 내리고 생산이 위축되며 실업이 늘어난다.
不景氣：① 市場銷售狀況不好。
호경기: ① 모든 기업체의 활동이 정상 이상으로 활발한 상태. 전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늘고, 투자 및 고용의 수준이 높아진다.

好景氣

景氣：① 產業界的活躍狀態。

경기: ① 매매나 거래에 나타나는 호황·불황 따위의 경제 활동 상태.

예시(74)는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나누어서 맡음'을 의미하는 '분담'과 '어떤 일이나 비용의 전부를 도맡아 하거나 부담함'을 의미하는 '전담'은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의미적 유표성이고 그중 '전담'은 무표항이고 '분담'은 유표항이다. 하지만 '전담'은 비록 한자어이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어떤 일이나 비용의 전부를 도맡아 하거나 부담함'을 의미하는 '總攬'이 제시되어 '나누어서 맡음'을 의미하는 '分擔'과 반의어를 형성한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총람'은 '모든 일을 한데 묶어 관할함'을 의미하고 '어떤 일이나 비용의 전부를 도맡아 하거나 부담함'을 의미하는 중국어 '總攬'과 의미가 다르다. 예시(75)도 마찬가지로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한국어에서 '호경기'와 '불경기'는 반의어를 형성하지만, 중국어에서는 '景氣'와 '不景氣'가 반의어를 형성한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경기'는 '매매나 거래에 나타나는 호황·불황 따위의 경제 활동 상태'를 의미하고 '모든 기업체의 활동이 정상 이상으로 활발한 상태. 전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늘고, 투자 및 고용의 수준이 높아진다'를 의미하는 중국어 '景氣'와 의미가 다르다.

(76) 성수기↔비수기

旺季↔淡季

성수기: ①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은 시기.

盛需期

비수기: ①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지 아니한 시기.
非需期
旺季：① 商品銷售旺盛或物產盛產的季節。
淡季：① 交易清淡或東西出產稀少的季節。
왕기: ① 왕성한 기운.
담기: ①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54]

예시(76)는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은 시기'를 의미하는 '성수기'와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지 아니한 시기'를 의미하는 '비수기'는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의미적 유표성이고 그중 '성수기'는 무표항이고 '비수기'는 유표항이다. 하지만 '성수기', '비수기'는 비록 한자어이지만 중국어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은 시기'를 의미하는 '旺季'가 제시되어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지 아니한 시기'를 의미하는 '淡季'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왕기'는 '왕성한 기운'을 의미하고 '담기'는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을 의미하며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은 시기',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지 아니한 시기'를 의미하는 중국어 '旺季', '淡季'와 의미가 다르다.

(77) 여인↔남성, 여인↔남자
女人↔男人, 女人↔男性, 女人↔男子,
여인: ① 어른이 된 여자.
女人：① 成年的女子。

54)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왕성한 기운'을 의미하는 '왕기',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을 의미하는 '담기'가 제시되었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남성: ① 성의 측면에서 남자를 이르는 말.
男性 : ① 男人。
남자: ①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
男子 : ① 男性。
男人 : ① 成年男性。
남인: ① 조선 시대에, 사색당파의 하나. 선조 때에 동인에서 갈라진 당파로, 이산해를 중심으로 한 북인에 대하여 유성룡, 우성전을 중심으로 한 파를 이른다.

예시(77)는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어른이 된 여자'를 의미하는 '여인'과 '성의 측면에서 남자를 이르는 말'을 의미하는 '남성',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남자'는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의미적 유표성이고 그중 '남성', '남자'는 무표항이고 '여인'은 유표항이다. 하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성의 측면에서 남자를 이르는 말'을 의미하는 '男性',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男子'뿐만 아닌 '男人'까지 제시되어 '어른이 된 여자'를 의미하는 '女人'과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남인'은 '조선 시대에, 사색당파의 하나. 선조 때에 동인에서 갈라진 당파로, 이산해를 중심으로 한 북인에 대하여 유성룡, 우성전을 중심으로 한 파를 이른다'를 의미하고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중국어 '男人'과 의미가 다르다.

(78) 완공하다↔기공하다
完工↔起工, 完工↔開工
완공하다: ① 공사를 완성하다.
完工 : ① 竣工, 工事完畢。
기공하다: ① 공사를 착수하다.

起工 : ① 動工, 開工。
開工 : ① 工程開始進行。

예시(78)는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공사를 완성하다'를 의미하는 '완공하다'와 '공사를 착수하다'를 의미하는 '기공하다'는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의미적 유표성이고 그중 '기공하다'는 무표항이고 '완공하다'는 유표항이다. 하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공사를 착수하다'를 의미하는 '起工'뿐만 아닌 '開工'까지 제시되어 '공사를 완성하다'를 의미하는 '完工'과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79) 정열적↔미온적
情熱↔冷淡
정열적: ① 정열에 불타는 것.
情熱 : ① 感情熱烈, 熱情。
미온적: ① 태도가 미적지근한 것.
微溫
冷淡 : ① 冷落, 怠慢, 不親熱。

예시(79)는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열에 불타는 것'을 의미하는 '정열적'과 '태도가 미적지근한 것'을 의미하는 '미온적'은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의미적 유표성이고 그중 '정열적'은 무표항이고 '미온적'은 유표항이다. 하지만 '미온적'은 비록 한자어이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태도가 미적지근한 것'을 의미하는 '冷淡'이 제시되어 '정열에 불타는 것'을 의미하는 '情熱'과 반의어를 형성한다.

(80) 필수↔선택

必修↔選修

필수: ① 반드시 학습하거나 이수하여야 함.

必修 : ① 一定要修習。

선택: ①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음.

選擇 : ① 挑選, 擇取。

選修 : ① 選擇研修。

선수: ① 인재를 골라 벼슬자리를 줌.[55]

② 솜씨가 남보다 뛰어난 사람.

③ 배의 앞부분.

④ 운동 경기에서, 먼저 수비하는 일.

⑤ 남이 하기 전에 앞질러 하는 행동.

⑥ 운동 경기나 기술 따위에서, 기량이 뛰어나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 또는 스포츠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

예시(80)는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반드시 학습하거나 이수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필수'와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음'을 의미하는 '선택'은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의미적 유표성이고 그중 '필수'는 무표항이고 '선택'은 유표항이다. 하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선택해서 연수'를 의미하는 '選修'가 제시되어 '반드시 학습하거나 이수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必修'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선수'는 '인재를 골라 벼슬자리를 줌. 솜씨가 남보다 뛰어난 사람. 배의 앞부분. 운동 경기에서, 먼저 수비하는 일. 남이 하

55)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인재를 골라 벼슬자리를 줌'을 의미하는 '선수'가 제시되었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기 전에 앞질러 하는 행동. 운동 경기나 기술 따위에서, 기량이 뛰어나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 또는 스포츠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선택해서 연수'를 의미하는 중국어 '選修'와 의미가 다르다.

(81) 동거↔별거

同居↔分居, 同居↔別居

동거: ① 한집이나 한방에서 같이 삶.

② 부부가 아닌 남녀가 부부 관계를 가지며 한집에서 삶.

同居 : ① 指夫妻一起生活。

② 指未經履行法定結婚儀式而共同生活。

별거: ① 부부나 한집안 식구가 따로 떨어져 삶.

別居 : ① 指夫妻在婚姻關係存續期間內停止共同生活。

分居 : ① 一家人分開生活, 指保留夫妻關係而不共同生活。

분거: ① 이곳저곳에 나뉘어서 살아감.

(82) 악몽↔길몽

惡夢↔吉夢, 惡夢↔美夢

악몽: ① 불길하고 무서운 꿈.

惡夢 : ① 可怕或不吉祥的夢。

길몽: ① 좋은 징조의 꿈.

吉夢 : ① 吉祥的夢。

美夢 : ① 一個令人感到心情愉快的夢。

② 比喻美好但不能實現的幻想。

미몽: ① 무엇에 홀린 듯 똑똑하지 못하고 얼떨떨한 정신 상태.

예시(81)는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한집이나 한방에서 같이 삶, 부부가 아닌 남녀가 부부 관계를 가지며 한집에서 삶'을 의미하는 '동거'와 '부부나 한집안 식구가 따로 떨어져 삶'을 의미하는 '별거'는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의미적 유표성이고

그중 '동거'는 무표항이고 '별거'는 유표항이다. 하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부부나 한집안 식구가 따로 떨어져 삶'을 의미하는 '別居'뿐만 아닌 '分居'까지 제시되어 '한집이나 한방에서 같이 삶, 부부가 아닌 남녀가 부부 관계를 가지며 한집에서 삶'을 의미하는 '同居'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분거'는 '이곳저곳에 나뉘어서 살아감'을 의미하고 '부부나 한집안 식구가 따로 떨어져 삶'을 의미하는 중국어 '分居'와 의미가 다르다. 예시(82)도 마찬가지로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한국어에서 '길몽'과 '악몽'은 반의어를 형성하지만, 중국어에서는 '吉夢', '美夢'과 '惡夢'이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미몽'은 '무엇에 홀린 듯 똑똑하지 못하고 얼떨떨한 정신 상태'를 의미하고 '좋은 징조의 꿈'을 의미하는 중국어 '美夢'과 의미가 다르다.

(83) 호황↔불황
景氣↔不景氣
호황: ① 모든 기업체의 활동이 정상 이상으로 활발한 상태. 전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늘고, 투자 및 고용의 수준이 높아진다.
好況
불황: ① 경제 활동이 일반적으로 침체되는 상태. 물가와 임금이 내리고 생산이 위축되며 실업이 늘어난다.
不況
景氣：① 產業界的活躍狀態。
不景氣：① 市場銷售狀況不好。

예시(83)는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모든 기업체의 활동이 정상 이상으로 활발한 상태. 전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늘고, 투자 및 고용의 수준이 높아진다'를 의미하는 '

호황'과 '경제 활동이 일반적으로 침체되는 상태. 물가와 임금이 내리고 생산이 위축되며 실업이 늘어난다'를 의미하는 '불황'은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의미적 유표성이고 그중 '호황'은 무표항이고 '불황'은 유표항이다. 하지만 '호황', '불황'은 비록 한자어이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모든 기업체의 활동이 정상 이상으로 활발한 상태. 전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늘고, 투자 및 고용의 수준이 높아진다'를 의미하는 '景氣'가 제시되어 '경제 활동이 일반적으로 침체되는 상태. 물가와 임금이 내리고 생산이 위축되며 실업이 늘어난다'를 의미하는 '不景氣'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84) 개강↔종강

개강: ① 강의나 강습 따위를 시작함.

開講 : ① 開始演講, 講課或開始說書。

종강: ① 한 학기의 강의가 끝나거나 강의를 끝마침. 또는 한 학기의 마지막 강의.

終講

예시(84)는 불균형성 중 어휘적 빈자리에 의한 상보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강의나 강습 따위를 시작함'을 의미하는 '개강'과 '한 학기의 강의가 끝나거나 강의를 끝마침. 또는 한 학기의 마지막 강의'를 의미하는 '종강'은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종강'은 비록 한자어이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한 학기의 강의가 끝나거나 강의를 끝마침. 또는 한 학기의 마지막 강의'를 의미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강의나 강습 따위를 시작함'을 의미하는 '開講'만 제시되었다.

3.3. 한국어와 중국어 등급 반의어의 대조 분석

<표-Ⅱ-3>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등급 반의어 19쌍을 목록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등급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중심으로 중국어 등급 반의어와 각각 대조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Ⅱ-3>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등급 반의어 목록(19쌍)

굵다	가늘다, 잘다	싸다	무겁다, 비싸다, 뜨다
굵다랗다	가느다랗다, 잔다랗다	잦다	드물다, 뜸하다, 뜨다
드물다	흔하다, 잦다, 수두룩하다, 숱하다, 허다하다	재빠르다	굼뜨다, 느리다
딱딱하다	말랑하다, 물렁하다, 무르다, 부드럽다, 유연하다, 연하다,	좁히다	넓히다, 벌리다
마땅하다	못마땅하다, 마땅찮다	줄어들다	늘어나다, 늘다, 붇다, 불어나다
선하다	희미하다, 악하다	칭찬하다	헐뜯다, 비난하다
세련되다	촌스럽다	특이하다	평범하다, 예사롭다, 범상하다
수월하다	수월찮다, 어렵다	헤프다	알뜰하다, 마디다
시시하다	재미있다, 중요하다, 흥미롭다	흐리다	개다, 맑다, 선명하다
식상하다	신선하다		

3.3.1. 등급 반의어 복합성의 대조 분석

(85) 말랑하다≈물렁하다≈부드럽다≈유연하다≈연하다≈무르다 →
딱딱하다↔말랑하다, 딱딱하다↔물렁하다, 딱딱하다↔부드럽다,
딱딱하다↔유연하다, 딱딱하다↔연하다, 딱딱하다↔무르다
堅硬↔柔和, 堅硬↔柔軟, 堅硬↔鬆軟
딱딱하다: ① 몹시 굳고 단단하다.

② 태도, 말씨, 분위기 따위가 부드러운 맛이 없이 엄격하다.

堅硬 : ① 堅實強硬。

부드럽다: ① 닿거나 스치는 느낌이 거칠거나 뻣뻣하지 아니하다.

柔和 : ① 柔軟, 溫和。

유연하다: ① 부드럽고 연하다.

柔軟 : ① 軟和, 不堅硬。

연하다: ① 재질이 무르고 부드럽다.

鬆軟 : ① 鬆而軟。

무르다: ① 굳은 것이 물렁거리게 되다.

말랑하다: ① 야들야들하게 보드랍고 무르다.

물렁하다: ① 이들이들하게 부드럽고 무르다.

예시(85)는 복합성 중 동의성에 의한 등급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야들야들하게 보드랍고 무르다'를 의미하는 '말랑하다'와 '이들이들하게 부드럽고 무르다'를 의미하는 '물렁하다', '닿거나 스치는 느낌이 거칠거나 뻣뻣하지 아니하다'를 의미하는 '부드럽다', '부드럽고 연하다'를 의미하는 '유연하다', '재질이 무르고 부드럽다'를 의미하는 '연하다'와 '굳은 것이 물렁거리게 되다'를 의미하는 '무르다'는 상대적 동의 관계이므로 '몹시 굳고 단단하다'을 의미하는 한국어 '딱딱하다'는 '말랑하다', '물렁하다', '부드럽다', '유연하다', '연하다', '무르다'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말랑하다', '물렁하다', '무르다'는 고유어로써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부드럽고 연하다'를 의미하는 '柔軟', '닿거나 스치는 느낌이 거칠거나 뻣뻣하지 아니하다'를 의미하는 '柔和', '재질이 무르고 부드럽다'를 의미하는 '鬆軟'만 제시되어 '몹시 굳고 단단하다'를 의미하는 '堅硬'과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86) 수월찮다≈어렵다 → 수월하다↔수월찮다, 수월하다↔어렵다

容易↔困難

수월하다: ① 까다롭거나 힘들지 않아 하기가 쉽다.

② 말이나 태도 따위가 아주 예사롭다.[56]

容易：① 不費什麼力或沒什麼困難。

어렵다: ① 하기가 까다로워 힘에 겹다.

困難：① 事情復發或阻礙多, 不容易完成。

수월찮다: ① 까다롭거나 힘들어서 하기가 쉽지 아니하다.

(87) 굼뜨다≈느리다 → 재빠르다↔굼뜨다, 재빠르다↔느리다

迅速↔遲緩

재빠르다: ① 동작 따위가 재고 빠르다.

迅速：① 速度很快。

느리다: ① 어떤 동작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

遲緩：① 遲鈍緩慢。

굼뜨다: ① 동작, 진행 과정 따위가 답답할 만큼 매우 느리다.

(88) 넓히다≈벌리다 → 좁히다↔넓히다, 좁히다↔벌리다

縮小↔擴大

좁히다: ① 면이나 바닥 따위의 면적을 작게 하다.

② 너비를 작게 하다.

③ 내용이나 범위 따위를 작게 하다.

縮小：① 使在規模、數量、範圍或數目上減少。

넓히다: ① 면이나 바닥 따위의 면적을 크게 하다.

② 너비를 크게 하다.

③ 내용이나 범위 따위를 널리 미치게 하다.

擴大：① 使範圍、規模等增大。

벌리다: ① 둘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다.

(89) 헐뜯다≈비난하다 → 칭찬하다↔헐뜯다, 칭찬하다↔비난하다

稱讚↔非難

---

56)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말이나 태도 따위가 아주 예사롭다'를 의미하는 '수월하다'가 제시되었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칭찬하다: ①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다.
稱讚：① 誇奬, 表揚。
비난하다: ①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다.
非難：① 指摘, 責備。
헐뜯다: ① 남을 해치려고 헐거나 해쳐서 말하다.

예시(86)는 복합성 중 동의성에 의한 등급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까다롭거나 힘들어서 하기가 쉽지 아니하다'를 의미하는 '수월찮다'와 '하기가 까다로워 힘에 겹다'를 의미하는 '어렵다'는 상대적 동의 관계이므로 '까다롭거나 힘들지 않아 하기가 쉽다'를 의미하는 한국어 '수월하다'는 '수월찮다', '어렵다'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수월찮다'는 고유어로써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하기가 까다로워 힘에 겹다'를 의미하는 '困難'만 제시되어 '까다롭거나 힘들지 않아 하기가 쉽다'를 의미하는 '容易'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예시(87), (88), (89)도 마찬가지로 복합성 중 동의성에 의한 등급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한국어에서 '재빠르다'와 '느리다', '굼뜨다', '좁히다'와 '넓히다', '벌리다', '칭찬하다'와 '비난하다', '헐뜯다'는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지만, 중국어에서는 '遲緩'과 '迅速', '擴大'와 '縮小', '非難'과 '稱讚'이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90) 늘어나다≈늘다≈붇다≈불어나다 → 줄어들다↔늘어나다, 줄어들다↔늘다, 줄어들다↔붇다, 줄어들다↔불어나다
減少↔增多, 減少↔增加
줄어들다: ① 부피나 분량 따위가 본디보다 작아지거나 짧아지거나 적어지다.
減少：① 少於原來的。
늘어나다: ① 부피나 분량 따위가 본디보다 커지거나 길어지거나 많아지다.
增多：① 增添, 加多。

늘다: ① 물체의 길이나 넓이, 부피 따위가 본디보다 커지다.
② 수나 분량 따위가 본디보다 많아지다.
增加 : ① 增添, 加多。
불어나다: ① 수량 따위가 본디보다 커지거나 많아지다.
붇다: ①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②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

예시(90)는 복합성 중 동의성에 의한 등급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피나 분량 따위가 본디보다 커지거나 길어지거나 많아지다'를 의미하는 '늘어나다', '물체의 길이나 넓이, 부피 따위가 본디보다 커지다, 수나 분량 따위가 본디보다 많아지다'를 의미하는 '늘다', '수량 따위가 본디보다 커지거나 많아지다'를 의미하는 '불어나다',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를 의미하는 '붇다'는 상대적 동의 관계이므로 '부피나 분량 따위가 본디보다 작아지거나 짧아지거나 적어지다'를 의미하는 한국어 '줄어들다'는 '늘어나다', '늘다', '불어나다', '붇다'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불어나다', '붇다'는 고유어로써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부피나 분량 따위가 본디보다 커지거나 길어지거나 많아지다'를 의미하는 '增多', '물체의 길이나 넓이, 부피 따위가 본디보다 커지다, 수나 분량 따위가 본디보다 많아지다'를 의미하는 '增加'만 제시되어 '부피나 분량 따위가 본디보다 작아지거나 짧아지거나 적어지다'를 의미하는 '減少'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91) 굵다↔가늘다, 굵다↔잘다
粗↔細
굵다: ① 물체의 지름이 보통의 경우를 넘어 길다.

② 소리의 울림이 크다.

③ 사이가 넓고 성기다.

粗 : ① 長條東西直徑大的。

② 聲音低而大。

가늘다: ① 물체의 지름이 보통의 경우에 미치지 못하고 짧다.

② 소리의 울림이 보통에 미치지 못하고 약하다.

③ 사이가 좁고 촘촘하다.

細 : ① 長條東西直徑小的。

② 聲音小。

굵다: ④ 밤, 대추, 알 따위가 보통의 것보다 부피가 크다.

⑤ 생각, 행동 따위의 폭이 넓고 크다.

잘다: ① 알곡이나 과일, 모래 따위의 둥근 물건이나 글씨 따위의 크기가 작다.

② 생각이나 성질이 대담하지 못하고 좀스럽다.

(92) 굵다랗다↔가느다랗다, 굵다랗다↔잔다랗다

粗大↔細小

굵다랗다: ① 길쭉한 물건의 둘레가 꽤 크다.

② 빗방울 따위의 부피가 꽤 크다.

③ 글씨의 획이 뚜렷하게 꽤 크다.

④ 목소리가 저음으로 우렁우렁 울리는 힘이 꽤 크다.[57]

粗大 : ① 又粗又大。

② 直徑大的。

③ 聲音大。

가느다랗다: ① 아주 가늘다.

細小 : ① 很小, 細微。

굵다랗다: ⑤ 밤, 대추, 알 따위가 보통의 것보다 꽤 크다.

잔다랗다: ① 꽤 잘다.

---

57)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목소리가 저음으로 우렁우렁 울리는 힘이 꽤 크다'를 의미하는 '굵다랗다'가 제시되었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예시(91)는 복합성 중 다의성에 의한 등급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굵다'의 사전적 의미 중 '물체의 지름이 보통의 경우를 넘어 길다, 소리의 울림이 크다, 사이가 넓고 성기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물체의 지름이 보통의 경우에 미치지 못하고 짧다, 소리의 울림이 보통에 미치지 못하고 약하다, 사이가 좁고 촘촘하다'를 의미하는 '가늘다'와 반의어를 형성하고, '밤, 대추, 알 따위가 보통의 것보다 부피가 크다, 생각, 행동 따위의 폭이 넓고 크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알곡이나 과일, 모래 따위의 둥근 물건이나 글씨 따위의 크기가 작다, 생각이나 성질이 대담하지 못하고 좀스럽다'를 의미하는 '잘다'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잘다'는 고유어로써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물체의 지름이 보통의 경우에 미치지 못하고 짧다, 소리의 울림이 보통에 미치지 못하고 약하다'를 의미하는 '細'만 제시되어 '물체의 지름이 보통의 경우를 넘어 길다, 소리의 울림이 크다'를 의미하는 '粗'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예시(92)도 마찬가지로 복합성 중 다의성에 의한 등급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한국어에서 '굵다랗다'는 '가느다랗다', '잔다랗다'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지만, 중국어에서는 '細小'와 '粗大'가 반의어를 형성한다.

(93) 드물다↔수두룩하다, 드물다↔흔하다, 드물다↔숱하다, 드물다↔허다하다, 드물다↔잦다
少見↔有的是, 少見↔常見, 少見↔繁多, 少見↔許多
드물다: ① 흔하지 아니하다.
少見：① 事物新奇罕見。
수두룩하다: ① 매우 많고 흔하다.
有的是：① 很多。
흔하다: ① 보통보다 더 자주 있거나 일어나서 쉽게 접할 수 있다.
常見：① 在正常實踐或事態發展中發生的。

숱하다: ① 아주 많다.
繁多 : ① 種類多。
허다하다: ① 수효가 매우 많다.
許多 : ① 很多。
드물다: ②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일이 잦지 아니하다.
잦다: ① 잇따라 자주 있다.

예시(93)는 복합성 중 다의성에 의한 등급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드물다'의 사전적 의미 중 '흔하지 아니하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매우 많고 흔하다'를 의미하는 '수두룩하다', '보통보다 더 자주 있거나 일어나서 쉽게 접할 수 있다'를 의미하는 '흔하다', '아주 많다'를 의미하는 '숱하다', '수효가 매우 많다'를 의미하는 '허다하다'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일이 잦지 아니하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잇따라 자주 있다'를 의미하는 '잦다'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잦다'는 고유어로써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수효가 매우 많다'를 의미하는 '許多', '아주 많다'를 의미하는 '繁多', '보통보다 더 자주 있거나 일어나서 쉽게 접할 수 있다'를 의미하는 '常見', '매우 많고 흔하다'를 의미하는 '有的是'만 제시되어 '흔하지 아니하다'를 의미하는 '少見'과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94) 선하다↔악하다, 선하다↔희미하다
善良↔邪惡
선하다: ①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데가 있다.
善良 : ① 心地端正純潔, 沒有惡意邪念。
악하다: ①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 나쁘다.
邪惡 : ① 奸邪兇惡。
선하다: ② 잊히지 않고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는 듯하다.

희미하다: ① 분명하지 못하고 어렴풋하다.
稀微：①隱約。

예시(94)는 복합성 중 다의성에 의한 등급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선하다'의 사전적 의미 중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데가 있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 나쁘다'를 의미하는 '악하다'와 반의어를 형성하고, '잊히지 않고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는 듯하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분명하지 못하고 어렴풋하다'를 의미하는 '희미하다'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잊히지 않고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는 듯하다'를 의미하는 '선하다'는 고유어로써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데가 있다'를 의미하는 '善良'만 제시되어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 나쁘다'를 의미하는 '邪惡'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95) 세련되다↔촌스럽다
세련되다: ① 모습 따위가 말쑥하고 품위가 있다.
洗練
촌스럽다: ① 어울린 맛과 세련됨이 없이 어수룩한 데가 있다.
土氣：① 指式樣, 風格等趕不上潮流, 不時髦。
세련되다: ② 서투르거나 어색한 데가 없이 능숙하게 잘 다듬어져 있다.
洗練：① 形容語言, 文字, 技藝等, 運用得十分簡練俐落。

예시(95)는 복합성 중 다의성에 의한 등급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세련되다'의 사전적 의미 중 '모습 따위가 말쑥하고 품위가 있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어울린 맛과 세련됨이 없이 어수룩한 데가 있다'

를 의미하는 '촌스럽다'와 반의어를 형성하고, '서투르거나 어색한 데가 없이 능숙하게 잘 다듬어져 있다'라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모습 따위가 말쑥하고 품위가 있다'를 의미하는 '세련되다'는 비록 한자어이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서투르거나 어색한 데가 없이 능숙하게 잘 다듬어져 있다'를 의미하는 '洗練'만 제시되어 '어울린 맛과 세련됨이 없이 어수룩한 데가 있다'를 의미하는 '土氣'와 반의어를 형성할 수 없다.

(96) 시시하다↔중요하다, 시시하다↔재미있다, 시시하다↔흥미롭다
시시하다: ① 신통한 데가 없고 하찮다.
중요하다: ① 귀중하고 요긴하다.
重要：① 重大而緊要。
재미있다: ① 아기자기하게 즐겁고 유쾌한 기분이나 느낌이 있다.
有趣：① 有趣味, 能引起好奇或歡樂。
흥미롭다: ① 흥을 느끼는 재미가 있다.
興趣：① 欣悅而樂于從事。
시시하다: ② 좀스럽고 쩨쩨하다.
小氣：① 器量狹小, 吝嗇, 不大方。

예시(96)는 복합성 중 다의성에 의한 등급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시시하다'의 사전적 의미 중 '신통한 데가 없고 하찮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귀중하고 요긴하다'를 의미하는 '중요하다', '아기자기하게 즐겁고 유쾌한 기분이나 느낌이 있다'를 의미하는 '재미있다', '흥을 느끼는 재미가 있다'를 의미하는 '흥미롭다'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고, '좀스럽고 쩨쩨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신통한 데가 없고 하찮다'을 의미하는 '시시하다'는 고유어로써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좀스럽고 쩨쩨하다'를 의미하는 '小氣'만 제시되어 '귀중하고 요긴하다'를 의미하는 '重要', '아기

자기하게 즐겁고 유쾌한 기분이나 느낌이 있다'를 의미하는 '有趣', '흥을 느끼는 재미가 있다'를 의미하는 '興趣'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할 수 없다.

(97) 식상하다↔신선하다
식상하다: ① 일이나 사물이 되풀이되어 질린 상태이다.
食傷
신선하다: ① 새롭고 산뜻하다.
新鮮 : ① 新穎, 嶄新。
식상하다: ② 어떤 음식을 자꾸 먹어 물리다.
食傷
체하다: ①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아니하고 배 속에 답답하게 처져 있다.
食傷: ① 傷食, 比喩食過量而郁積不化。

예시(97)는 복합성 중 다의성에 의한 등급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식상하다'의 사전적 의미 중 '일이나 사물이 되풀이되어 질린 상태이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새롭고 산뜻하다'를 의미하는 '신선하다'와 반의어를 형성하고, '어떤 음식을 자꾸 먹어 물리다'라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일이나 사물이 되풀이되어 질린 상태이다, 어떤 음식을 자꾸 먹어 물리다'를 의미하는 '식상하다'는 비록 한자어이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아니하고 배 속에 답답하게 처져 있다'라는 '체하다'의 의미로 제시되어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아니하고 배 속에 답답하게 처져 있다'를 의미하는 '食傷'은 '새롭고 산뜻하다'를 의미하는 '신선하다'와 반의어를 형성할 수 없다.

(98) 싸다↔비싸다, 싸다↔뜨다
賤↔貴

싸다: ① 물건값이나 사람 또는 물건을 쓰는 데 드는 비용이 보통보다 낮다.
賤：價格低。
비싸다: ① 물건값이나 사람 또는 물건을 쓰는 데 드는 비용이 보통보다 높다.
貴：價格高。
싸다: ② 저지른 일 따위에 비추어서 받는 벌이 마땅하거나 오히려 적다.
便宜：使某人得到寬恕。
비싸다: ② 어떤 일에 대한 대가가 보통을 넘는 상태에 있다.
싸다: ③ 걸음이 재빠르다.
④ 들은 말 따위를 진중하게 간직하지 아니하고 잘 떠벌리다.
⑤ 비탈진 정도가 급하다.
뜨다: ① 행동 따위가 느리고 더디다.
② 입이 무겁거나 하여 말수가 적다.
③ 비탈진 정도가 둔하다.[58]

예시(98)는 복합성 중 다의성에 의한 등급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싸다'의 사전적 의미 중 '물건값이나 사람 또는 물건을 쓰는 데 드는 비용이 보통보다 낮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물건값이나 사람 또는 물건을 쓰는 데 드는 비용이 보통보다 높다'를 의미하는 '비싸다'와 반의어를 형성하고 '저지른 일 따위에 비추어서 받는 벌이 마땅하거나 오히려 적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어떤 일에 대한 대가가 보통을 넘는 상태에 있다'를 의미하는 '비싸다'와 반의어를 형성하며 '걸음이 재빠르다, 들은 말 따위를 진중하게 간직하지 아니하고 잘 떠벌리다, 비탈진 정도가 급하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행동

58)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비탈진 정도가 급하다'를 의미하는 '싸다', '입이 무겁거나 하여 말수가 적다', '비탈진 정도가 둔하다'를 의미하는 '뜨다'가 제시되었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위가 느리고 더디다, 입이 무겁거나 하여 말수가 적다, 비탈진 정도가 둔하다'를 의미하는 '뜨다'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뜨다'는 고유어로써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물건값이나 사람 또는 물건을 쓰는 데 드는 비용이 보통보다 높다'를 의미하는 '貴'만 제시되어 '물건값이나 사람 또는 물건을 쓰는 데 드는 비용이 보통보다 낮다'를 의미하는 '賤'과 반의어를 형성한다.

(99) 잦다↔드물다, 잦다↔뜨다, 잦다↔뜸하다
잦다: ① 여러 차례로 거듭되는 간격이 매우 짧다.
드물다: 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일이 잦지 아니하다.
뜨다: ① 시간적으로 동안이 오래다.
잦다: ② 잇따라 자주 있다.
뜸하다: ① 자주 있던 왕래나 소식 따위가 한동안 없다.
(100) 헤프다↔알뜰하다, 헤프다↔마디다
헤프다: ① 쓰는 물건이 쉽게 닳거나 빨리 없어지는 듯하다.
마디다: ① 쉽게 닳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다.[59]
헤프다: ② 물건이나 돈 따위를 아끼지 아니하고 함부로 쓰는 버릇이 있다.
알뜰하다: ① 일이나 살림을 정성스럽고 규모 있게 하여 빈틈이 없다.

예시(99)는 복합성 중 다의성에 의한 등급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잦다'의 사전적 의미 중 '여러 차례로 거듭되는 간격이 매우 짧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일이 잦지 아니하다'를 의미하는 '드물다', '시간적으로 동안이 오래다'를 의미하는 '뜨다'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고 '잇따라 자주 있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자주 있던 왕래나 소식

59)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쉽게 닳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다'를 의미하는 '마디다'가 제시되었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위가 한동안 없다'를 의미하는 '뜸하다'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잦다', '드물다', '뜨다', '뜸하다'는 고유어로써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예시(100)도 마찬가지로 복합성 중 다의성에 의한 등급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한국어에서 '헤프다'는 '마디다', '알뜰하다'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지만, 헤프다', '마디다', '알뜰하다'는 고유어로써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01) 특이하다↔예사롭다, 특이하다↔범상하다, 특이하다↔평범하다
特異↔凡常, 特異↔平凡
특이하다: ① 보통 것이나 보통 상태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다르다.
特異 : ① 特殊, 不同一般。
예사롭다: ① 흔히 있을 만하다.
例事
범상하다: ① 중요하게 여길 만하지 아니하고 예사롭다.
凡常 : ① 普通, 一般。
특이하다: ② 보통보다 훨씬 뛰어나다.
特異 : ② 明顯好於一般的。
평범하다: ①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이다.
平凡 : ① 平常, 不出色。

예시(101)는 복합성 중 다의성에 의한 등급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특이하다'의 사전적 의미 중 '보통 것이나 보통 상태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다르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흔히 있을 만하다'를 의미하는 '예사롭다', '중요하게 여길 만하지 아니하고 예사롭다'를 의미하는 '범상하다'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고, '보통보다 훨씬 뛰어나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이다'를 의미하는 '평범하다'와 반의어를 형성

한다. 하지만 '예사롭다'는 비록 한자어이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길 만하지 아니하고 예사롭다'를 의미하는 '凡常',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이다'을 의미하는 '平凡'만 제시되어 '보통 것이나 보통 상태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다르다'를 의미하는 '特異', '보통보다 훨씬 뛰어나다'를 의미하는 '特異'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102) 흐리다↔맑다, 흐리다↔선명하다
陰↔晴, 浊↔清
흐리다: ① 하늘에 구름이나 안개 따위가 끼어 햇빛이 밝지 못하다.
陰 : ① 雲層較厚, 遮住陽光。
맑다: ① 구름이나 안개가 끼지 아니하여 햇빛이 밝다.
晴 : ① 天空中無雲或雲很少。
흐리다: ② 잡것이 섞여 깨끗하지 못하다.
浊 : ① 不清, 不乾淨。
맑다: ② 잡스럽고 탁한 것이 섞이지 아니하다.
清 : ① 純淨透明, 沒有混雜的東西。
흐리다: ③ 기억력이나 판단력 따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선명하다: ① 산뜻하고 뚜렷하여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아니하다.
鮮明 : ① 輪廓清楚的。

예시(102)는 복합성 중 다의성에 의한 등급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흐리다'의 사전적 의미 중 '하늘에 구름이나 안개 따위가 끼어 햇빛이 밝지 못하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구름이나 안개가 끼지 아니하여 햇빛이 밝다'를 의미하는 '맑다'와 반의어를 형성하고 '잡것이 섞여 깨끗하지 못하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잡스럽고 탁한 것이 섞이지 아니하다'를 의미하는 '맑다'와 반의어를 형성하며 '기억력이나 판단력 따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를 의미할 경우에는 '산뜻하고 뚜렷하여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아니하다'를 의미하는 '선명하다'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기억력이나 판단력 따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를 의미하는 '흐리다'는 고유어로써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을 의미하는 '하늘에 구름이나 안개 따위가 끼어 햇빛이 밝지 못하다'를 의미하는 '陰', '잡것이 섞여 깨끗하지 못하다'를 의미하는 '浊'만 제시되어 '구름이나 안개가 끼지 아니하여 햇빛이 밝다'를 의미하는 '晴', '잡스럽고 탁한 것이 섞이지 아니하다'를 의미하는 '清'과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3.3.2. 등급 반의어 불균형성의 대조 분석

(103) 마땅하다↔못마땅하다, 마땅하다↔마땅찮다
满意↔不满意
마땅하다: ① 흡족하게 마음에 들다.
满意：① 符合心意。
못마땅하다: ① 마음에 들지 않아 좋지 않다.
마땅찮다: ① 흡족하게 마음에 들지 아니하다.
不满意：① 不符合心意。

예시(103)는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에 의한 등급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흡족하게 마음에 들다'를 의미하는 '마땅하다'와 '마음에 들지 않아 좋지 않다'를 의미하는 '못마땅하다', '흡족하게 마음에 들지 아니하다'를 의미하는 '마땅찮다'는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X↔Y+X'형 형태적 유표성일 경우 'X'인 '마땅하다'는 무표항이고 'Y+X'인 '못마땅하다'는 유표항이며 'X↔X+Y'형 형태적 유표성일 경우 'X'인 '마땅하다'는 무표항이고 'X+Y'인 '마땅찮다'는 유표항이다. 하지만 '못마땅하다', '마땅찮다'는 고

유어로써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흡족하게 마음에 들지 아니하다'를 의미하는 '不滿意'가 제시되어 '흡족하게 마음에 들다'를 의미하는 '滿意'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3.4. 한국어와 중국어 관계 반의어의 대조 분석

<표-Ⅱ-4>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계 반의어 30쌍을 목록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관계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중심으로 중국어 관계 반의어와 각각 대조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Ⅱ-4>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계 반의어 목록(30쌍)

감추다	들추다, 나타내다, 밝히다, 드러내다	빠뜨리다	건지다, 챙기다
걷히다	끼다, 서리다	상승세	내림세, 하락세, 낙세
급상승	급강하	솟다	가라앉다, 꺼지다
당기다	밀다, 미루다, 늦추다, 물리다	외래	재래
대가족	핵가족, 소가족	우월감	열등감
대접하다	부대접하다, 푸대접하다	웃돌다	밑돌다
도매	소매, 산매	입대	제대
등교	하교, 퇴교	잠그다	열다, 끄르다
맏형	작은형	저승	이승
말리다	적시다, 축이다	정면	후면, 배면, 뒷면
매입하다	매각하다, 매출하다	첨가	삭제
맺다	풀다, 끄르다, 끊다	탈모	발모
먼바다	앞바다, 근해	풀어지다	맺히다, 굳어지다
미루다	앞당기다, 당기다, 맡다, 지다	후진국	전진국, 선진국
본사	지사, 분사	흩어지다	모이다, 뭉치다, 꼬이다, 집합하다

3.4.1. 관계 반의어 복합성의 대조 분석

(104) 모이다≈뭉치다≈꼬이다≈집합하다 → 흩어지다↔모이다, 흩어지다↔뭉치다, 흩어지다↔꼬이다, 흩어지다↔집합하다

分散↔聚集, 分散↔團結, 分散↔集合

흩어지다: ① 한데 모였던 것이 따로따로 떨어지거나 사방으로 퍼지다.

分散：① 分離散開。

모이다: ① 여러 사람이 한곳에 오게 되거나 한 단체에 들게 되다.

聚集： ① 集合。

뭉치다: ① 한데 굳게 단결하다.

團結：① 指分散物聚攏成團, 聚合。

집합하다: ① 사람들이 한곳으로 모이다.

集合：① 分散的人或事物聚集到一起, 使聚集。

꼬이다: ① 사람이 한곳에 많이 모이다.

(105) 서리다≈끼다 → 걷히다↔서리다, 걷히다↔끼다

消散↔密佈

걷히다: ① 구름이나 안개 따위가 흩어져 없어지다.

② 비가 그치고 맑게 개다.

消散：① 消失, 離散, 消除。

끼다: ① 안개나 연기 따위가 퍼져서 서리다.

密佈：① 佈滿。

서리다: ① 수증기가 찬 기운을 받아 물방울을 지어 엉기다.

(106) 적시다≈축이다 → 말리다↔적시다, 말리다↔축이다

晾乾↔沾濕

말리다: ① 물기를 다 날려서 없애다.

② 입이나 목구멍에 물가를 적게 하여 갈증이 나게 하다.

③ 살이 빠져 야위게 하다.

④ 강이나 우물 따위의 물을 없애다.

⑤ 돈이나 물건 따위를 다 써 없애다.

⑥ 감정이나 열정 따위를 없애다.

晾乾：① 暴露而蒸發水分。

적시다: ① 물 따위의 액체를 묻혀 젖게 하다.

沾濕：① 浸濕, 淋濕。

축이다: ① 물 따위에 적시어 축축하게 하다.

(107) 열다≈끄르다 → 잠그다↔열다, 잠그다↔끄르다

鎖上↔打開

잠그다: ① 여닫는 물건을 열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걸거나 하다.

②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

③ 물, 가스 따위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차단하다.

④ 옷을 입고 단추를 끼우다.

鎖上：① 用鎖關閉。

열다: ① 닫히거나 잠긴 것을 트거나 벗기다.

打開：① 改變關閉狀態。

끄르다: ① 잠긴 것이나 채워져 있는 것을 열다.

예시(104)는 복합성 중 동의성에 의한 관계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여러 사람이 한곳에 오게 되거나 한 단체에 들게 되다'를 의미하는 '모이다', '한데 굳게 단결하다'를 의미하는 '뭉치다', '사람들이 한곳으로 모이다'를 의미하는 '집합하다', '사람이 한곳에 많이 모이다'를 의미하는 '꼬이다'는 상대적 동의 관계이므로 '한데 모였던 것이 따로따로 떨어지거나 사방으로 퍼지다'를 의미하는 한국어 '흩어지다'는 '모이다', '뭉치다', '집합하다', '꼬이다'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꼬이다'는 고유어로써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곳에 오게 되거나 한 단체에 들게 되다'를 의미하는 '聚集', '한데 굳게 단결하다'를 의미하는 '團結', '사람들이 한곳으로 모이다'를 의미하는 '集合'만 제시되어 '한데 모였던 것이 따로따로 떨어지거나 사방으로 퍼지다'를 의미하는 '分散'과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예시(105), (106), (107)도 마찬가지로 복합성 중 동의성에 의한 관계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한국어에서 '걷히다'와 '끼다', '서리다', '말리다'와

'적시다', '축이다', '잠그다'와 '열다', '끄르다'는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지만, 중국어에서는 '密佈'와 '消散', '沾濕'와 '晾乾', '打開'와 '鎖上'이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108) 핵가족≈소가족 → 대가족↔핵가족, 대가족↔소가족
大家庭↔小家庭
대가족: ① 식구 수가 많은 가족.
② 직계나 방계의 친족 및 노비 따위로 이루어진 가족. 가장권에 의하여 통제되며, 전근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가족 형태이다.
大家庭：① 由直係親屬一起生活組成的家庭。
소가족: ① 식구 수가 적은 가족.
② 한 쌍의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60]
小家庭：① 一般指夫妻或父母及未生子女所組成的家庭。
핵가족: ① 한 쌍의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
核家庭

(109) 매각하다≈매출하다 → 매입하다↔매각하다, 매입하다↔매출하다
買進↔售出
매입하다: ① 물건 따위를 사들이다.
買進：① 為密佈股份或商品的空額的買進行為或過程。
매출하다: ① 물건 따위를 내다 팔다.
售出：① 賣出。
매각하다: ① 물건을 팔아 버리다.
賣卻

(110) 분사≈지사 → 본사↔분사, 본사↔지사
總公司↔分公司

60)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식구 수가 적은 가족', '한 쌍의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하는 '소가족'이 제시되었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본사: ① 주가 되는 회사를 지사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② 말하는 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이르는 말.
總公司 : ① 指具有獨立法人地位的企業總機構。
분사: ① 본사에서 갈리어 그 아래에 속하여 있는 하부 기관이나 사업체.
分公司 : ① 隸屬於總公司之下, 主要功能在執行總公司的決策, 實際負責生產運輸和時長開拓任務的單位。
지사: ① 본사에서 갈려 나가, 본사의 관할 아래 일정한 지역에서 본사의 일을 대신 맡아 하는 곳.
支社

예시(108)는 복합성 중 동의성에 의한 관계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한 쌍의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하는 '소가족'과 '한 쌍의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하는 '핵가족'은 상대적 동의 관계이므로 '직계나 방계의 친족 및 노비 따위로 이루어진 가족. 가장권에 의하여 통제되며, 전근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가족 형태이다'를 의미하는 한국어 '대가족'은 '소가족', '핵가족'과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핵가족'은 비록 한자어이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한 쌍의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하는 '小家庭'만 제시되어 '직계나 방계의 친족 및 노비 따위로 이루어진 가족. 가장권에 의하여 통제되며, 전근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가족 형태이다'를 의미하는 '大家庭'과 반의어를 형성한다. 예시(109), (110)도 마찬가지로 복합성 중 동의성에 의한 관계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한국어에서 '매입하다'와 '매출하다', '매각하다', '본사'와 '분사', '지사'는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지만, 중국어에서는 '售出'와 '買進', '分公司'와 '總公司'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111) 감추다↔나타내다, 감추다↔들추다, 감추다↔드러내다, 감추다↔밝히다
감추다: ① 어떤 사물이나 현상 따위가 없어지거나 사라지다.
나타내다: ① 보이지 아니하던 어떤 대상이 모습을 드러내다.
감추다: ② 남이 보거나 찾아내지 못하도록 가리거나 숨기다.
들추다: ① 무엇을 찾으려고 자꾸 뒤지다.
드러내다: ①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다.
감추다: ③ 어떤 사실이나 감정 따위를 남이 모르게 하다.
들추다: ② 숨은 일, 지난 일, 잊은 일 따위를 끄집어내어 드러나게 하다.
나타내다: ② 내면적인 심리 현상을 얼굴, 몸, 행동 따위로 드러내다.
드러내다: ②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보이거나 밝히다.
밝히다: ①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따위를 드러내 알리다.

예시(111)는 복합성 중 다의성에 의한 관계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감추다'의 사전적 의미 중 '어떤 사물이나 현상 따위가 없어지거나 사라지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보이지 아니하던 어떤 대상이 모습을 드러내다'를 의미하는 '나타내다'와 반의어를 형성하고 '남이 보거나 찾아내지 못하도록 가리거나 숨기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무엇을 찾으려고 자꾸 뒤지다'를 의미하는 '들추다',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다'를 의미하는 '드러내다'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며 '어떤 사실이나 감정 따위를 남이 모르게 하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숨은 일, 지난 일, 잊은 일 따위를 끄집어내어 드러나게 하다'를 의미하는 '들추다', '내면적인 심리 현상을 얼굴, 몸, 행동 따위로 드러내다'를 의미하는 '나타내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보이거나 밝히다'를 의미하는 '드러내다',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따위를 드러내 알리다'를 의미하는 '밝히다'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감추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들추다', '밝히다'는 고유어로써 중

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12) 당기다↔밀다, 당기다↔미루다, 당기다↔늦추다, 당기다↔물리다

拉↔推, 提前↔推遲, 提前↔推延

당기다: ① 물건 따위를 힘을 주어 자기 쪽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까이 오게 하다.

拉：① 牽, 扯, 拽。

밀다: ①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반대쪽에서 힘을 가하다.

推：① 手抵物體向外或向前用力使物移動。

당기다: ② 정한 시간이나 기일을 앞으로 옮기거나 줄이다.

提前：① 把預定的時間向前挪移。

미루다: ① 정한 시간이나 기일을 나중으로 넘기거나 늘이다.

推遲：① 把預定的時間往後延。

늦추다: ① 정해진 때보다 지나게 하다.

推延：① 推拖延遲。

물리다: ① 정해진 시기를 뒤로 늦추다.

(113) 맺다↔풀다, 맺다↔끊다, 맺다↔끄르다

結↔斷, 系↔解

맺다: ① 관계나 인연 따위를 이루거나 만들다.

結：① 聚, 合。

끊다: ① 관계를 이어지지 않게 하다.

斷：①不繼續, 禁絕。

맺다: ② 끄나풀, 실, 노끈 따위를 얽어 매듭을 만들다.

系：① 聯結, 栓。

풀다: ① 묶이거나 감기거나 얽히거나 합쳐진 것 따위를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되게 하다.

解：① 把束縛著, 系著的東西打開。

끄르다: ① 맺은 것이나 맨 것을 풀다.

(114) 미루다↔앞당기다, 미루다↔당기다, 미루다↔지다, 미루다↔맡다

推遲↔提前, 推遲↔提早, 推卸↔承擔

미루다: ① 정한 시간이나 기일을 나중으로 넘기거나 늘이다.

推遲：① 把預定的時間往後移。

당기다: ① 정한 시간이나 기일을 앞으로 옮기거나 줄이다.

提前： ① 把預定的時間向前挪移。

앞당기다: ① 이미 정해진 시간이나 약속을 당겨서 미리 하다.

提早：① 將預定的時間挪前。

미루다: ② 일을 남에게 넘기다.

推卸：① 指要滑頭, 施展詭計逃避責任。

맡다: ①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하다.

承擔：① 負擔或擔當。

지다: ① 책임이나 의무를 맡다.

(115) 솟다↔가라앉다, 솟다↔꺼지다

升起↔下沉

솟다: ① 연기와 같은 물질이나 비행기와 같은 물체가 아래에서 위로, 또는 속에서 겉으로 세차게 움직이다.

升起： ① 向上升。

가라앉다: ① 안개나 연기 따위가 낮게 드리우다.

下沉：① 從天空向地平線降低。

솟다: ② 건물과 같은 구조물이나 산과 같은 지형물이 바닥에서 위로 나온 상태가 되다.

꺼지다: ① 물체의 바닥 따위가 내려앉아 빠지다.

예시(112)는 복합성 중 다의성에 의한 관계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당기다'의 사전적 의미 중 '물건 따위를 힘을 주어 자기 쪽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까이 오게 하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반대쪽에서 힘을 가하다'를 의미하는 '밀다'와 반의어를 형성하고, '정한 시간이나 기일을 앞으로 옮기거나 줄이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정한 시간이나 기일을 나중으로 넘기거나 늘이다'를 의미하는 '미루다', '정해진

때보다 지나게 하다'를 의미하는 '늦추다', '정해진 시기를 뒤로 늦추다'를 의미하는 '물리다'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물리다'는 고유어로써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정해진 때보다 지나게 하다'를 의미하는 '推延', '정한 시간이나 기일을 나중으로 넘기거나 늘이다'를 의미하는 '推遲'만 제시되어 '정한 시간이나 기일을 앞으로 옮기거나 줄이다'를 의미하는 '提前'과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반대쪽에서 힘을 가하다'를 의미하는 '推'는 '물건 따위를 힘을 주어 자기 쪽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까이 오게 하다'를 의미하는 '拉'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예시(113), (114), (115)도 마찬가지로 복합성 중 다의성에 의한 관계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한국어에서 '맺다'와 '끊다', '풀다', '끄르다', '미루다'와 '당기다', '앞당기다', '맡다', '지다', '솟다'와 '가라앉다', '꺼지다'는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지만, 중국어에서는 '解'와 '系', '斷'과 '結', '承擔'과 '推卸', '提前'과 '推遲', '提早'과 '推遲', '下沉'과 '升起'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116) 빠뜨리다↔건지다, 빠뜨리다↔챙기다

陷↔撈

빠뜨리다: ① 물이나 허방이나 또는 어떤 깊숙한 곳에 빠지게 하다.

陷：① 掉進, 墜入, 沉下。

건지다: ① 물속에 들어 있거나 떠 있는 것을 집어내거나 끌어내다.

撈：① 從水或其他液體裡面取東西。

빠뜨리다: ② 부주의로 물건을 흘리어 잃어버리다.

落：① 丟下, 遺漏。

챙기다: ① 필요한 물건을 찾아서 갖추어 놓거나 무엇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살피다.

빠뜨리다: ③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하다.

陷入：① 謂落在不利的境地。

건지다: ②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다. 또는 그리되게 하다.

예시(116)는 복합성 중 다의성에 의한 관계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빠뜨리다'의 사전적 의미 중 '물이나 허방이나 또는 어떤 깊숙한 곳에 빠지게 하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물속에 들어 있거나 떠 있는 것을 집어내거나 끌어내다'를 의미하는 '건지다'와 반의어를 형성하고, '부주의로 물건을 흘리어 잃어버리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필요한 물건을 찾아서 갖추어 놓거나 무엇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살피다'를 의미하는 '챙기다'와 반의어를 형성하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하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다. 또는 그리되게 하다'를 의미하는 '건지다'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챙기다',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다. 또는 그리되게 하다'를 의미하는 '건지다'는 고유어로써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물속에 들어 있거나 떠 있는 것을 집어내거나 끌어내다'를 의미하는 '撈'만 제시되어 '물이나 허방이나 또는 어떤 깊숙한 곳에 빠지게 하다'를 의미하는 '陷'과 반의어를 형성한다.

(117) 풀어지다↔맺히다, 풀어지다↔굳어지다
解開↔系
풀어지다: ① 묶이거나 얽힌 것이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되다.
解開 : ① 打開打結的部分。
맺히다: ① 끄나풀, 실, 노끈 따위가 얽혀 매듭이 만들어지다.
系 : ① 聯結, 栓。
풀어지다: ② 긴장된 상태가 부드럽게 되다.
굳어지다: ① 표정이나 태도 따위가 긴장으로 딱딱하게 되다.
풀어지다: ③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이 해결되어 없어지다.

맺히다: ② 마음속에 잊히지 않는 응어리가 되어 남아 있다.
풀어지다: ④ 뭉친 것이나 단단한 것 따위가 엉길 힘이 없이 느슨하게 되다.
맺히다: ③ 살 속에 피가 뭉치다.
굳어지다: ② 누르는 자국이 나지 아니할 만큼 단단하게 되다.
③ 근육이나 뼈마디가 점점 뻣뻣하게 되다.

예시(117)는 복합성 중 다의성에 의한 관계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풀어지다'의 사전적 의미 중 '묶이거나 얽힌 것이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되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끄나풀, 실, 노끈 따위가 얽혀 매듭이 만들어지다'를 의미하는 '맺히다'와 반의어를 형성하고, '긴장된 상태가 부드럽게 되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표정이나 태도 따위가 긴장으로 딱딱하게 되다'를 의미하는 '굳어지다'와 반의어를 형성하며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이 해결되어 없어지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마음속에 잊히지 않는 응어리가 되어 남아 있다'를 의미하는 '맺히다'와 반의어를 형성하고 '뭉친 것이나 단단한 것 따위가 엉길 힘이 없이 느슨하게 되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살 속에 피가 뭉치다'를 의미하는 '맺히다', '누르는 자국이 나지 아니할 만큼 단단하게 되다, 근육이나 뼈마디가 점점 뻣뻣하게 되다'를 의미하는 '굳어지다'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굳어지다', '마음속에 잊히지 않는 응어리가 되어 남아 있다, 살 속에 피가 뭉치다'를 의미하는 '맺히다'는 고유어로써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끄나풀, 실, 노끈 따위가 얽혀 매듭이 만들어지다'를 의미하는 '系'만 제시되어 '묶이거나 얽힌 것이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되다'를 의미하는 '解開'과 반의어를 형성한다.

3.4.2. 관계 반의어 불균형성의 대조 분석

(118) 대접하다↔부대접하다, 대접하다↔푸대접하다
接待↔不接待, 接待↔非接待, 接待↔未接待
대접하다: ① 음식을 차려 접대하다.
接待：① 迎接招待。
부대접하다: ①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대접을 하다.[61]
不接待：① 不迎接招待。
푸대접하다: ①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대접을 하다.
非接待：① 不迎接招待。
未接待：① 未迎接招待。

예시(118)는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에 의한 관계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음식을 차려 접대하다'를 의미하는 '대접하다'와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대접을 하다'를 의미하는 '부대접하다',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대접을 하다'를 의미하는 '푸대접하다'는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X↔Y+X'형 형태적 유표성이고 그중 'X'인 '대접하다'는 무표항이고 'Y+X'인 '푸대접하다', '부대접하다'는 유표항이다. 하지만 '푸대접하다'는 비록 한자어이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대접을 하다'를 의미하는 '不接待'뿐만 아닌 '非接待', '未接待'까지 제시되어 '음식을 차려 접대하다'를 의미하는 '接待'과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119) 급상승↔급강하

61)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대접을 하다'를 의미하는 '부대접하다'가 제시되었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急速上升↔急速下降

급상승: ① 기온이나 가격, 비율 따위가 갑자기 올라감.

② 비행기 따위가 위를 향하여 갑자기 빠른 속도로 올라감.

急速上升：① 迅速升高，向上攀升。

급강하: ① 기온이나 가격, 비율 따위가 갑자기 내려감.

② 비행기 따위가 아래를 향하여 갑자기 빠른 속도로 내려감.

急速降下

急速下降：① 迅速降下，向低處移動。

(120) 우월감↔열등감

優越感↔自卑感

우월감: ①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생각이나 느낌.

優越感：① 心理上自覺超過他人。

열등감: ①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

劣等感

自卑感：① 個人對自己所具備的條件，言行等感到不滿的心理感受。

예시(119)는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 의한 관계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온이나 가격, 비율 따위가 갑자기 올라감, 비행기 따위가 위를 향하여 갑자기 빠른 속도로 올라감'을 의미하는 '급상승'과 '기온이나 가격, 비율 따위가 갑자기 내려감, 비행기 따위가 아래를 향하여 갑자기 빠른 속도로 내려감'을 의미하는 '급강하'는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의미적 유표성이고 그중 '급상승'은 무표항이고 '급강하'는 유표항이다. 하지만 '급강하'는 비록 한자어이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기온이나 가격, 비율 따위가 갑자기 내려감, 비행기 따위가 아래를 향하여 갑자기 빠른 속도로 내려감'을 의미하는 '急速下降'이 제시되어 '기온이나 가격, 비율 따위가 갑자기 올라감, 비행기 따위가 위를 향하여 갑자기 빠른 속도로 올라감'을 의미하는

'急速上升'과 반의어를 형성한다. 예시(120)도 마찬가지로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 의한 관계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한국어에서 '우월감'과 '열등감'은 반의어를 형성하지만, 중국어에서는 '自卑感'과 '優越感'이 반의어를 형성한다.

(121) 도매↔소매, 도매↔산매
批發↔零賣, 批發↔散售
도매: ① 물건을 낱개로 팔지 않고 모개로 팖.
都賣
소매: ① 물건을 생산자나 도매상에게서 사들여 직접 소비자에게 팖.
小賣
산매: ① 물건을 생산자나 도매상에서 사들여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
散賣
批發：① 商品成批出售。
散售：① 直接賣給買主。
② 整套貨品拆散賣單件或整包, 整箱貨品分成小量出售。
零賣：① 直接賣給買主。
② 整套貨品拆散賣單件或整包, 整箱貨品分成小量出售。
小賣：① 飲食業指分量少, 不成桌的菜。
영매: ① 집이나 땅 따위를 아주 팔아 버림.[62]

(122) 외래↔재래
外來↔固有
외래: ① 밖에서 옴. 또는 다른 나라에서 옴.
外來：① 在外邊來的, 非固有的。
재래: ① 예전부터 있어 전하여 내려옴.

62)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물건을 생산자나 도매상에서 사들여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을 의미하는 '산매', '집이나 땅 따위를 아주 팔아 버림'을 의미하는 '영매'가 제시되었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在來

固有：① 原有, 本來就有的。

고유: ①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유한 것.

(123) 입대↔제대

入伍↔退伍

입대: ① 군대에 들어가 군인이 됨.

入伍：① 進入軍營, 開始服兵役。

제대: ① 규정된 기한이 차거나 질병 또는 집안 사정으로 현역에서 해제하는 일.

除伍

退伍：① 服兵役年限屆滿後退出營伍。

퇴대: ① 물러가서 명령을 기다림.[63]

(124) 탈모↔발모

脫發↔生發

탈모: ① 털이 빠짐. 또는 그 털.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

脫發：① 因病理原因造成的頭髮大量脫落現象。

발모: ① 몸에 털이 남. 흔히 머리털이 나는 것을 이른다.

發發

生發：① 新增頭髮。

생모: ① 태아 때부터 온몸에 나 있는 털. 가늘고 부드러우며 짧고 엉덩이, 팔에 특히 많다.[64]

예시(121)는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 의한 관계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물건을 낱개로 팔지 않고 모개로 팖'을 의미하는 '도

63)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물러가서 명령을 기다림'을 의미하는 '퇴대'가 제시되었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64)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태아 때부터 온몸에 나 있는 털. 가늘고 부드러우며 짧고 엉덩이, 팔에 특히 많다'를 의미하는 '생모'가 제시되었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매'와 '물건을 생산자나 도매상에게서 사들여 직접 소비자에게 팖'을 의미하는 '소매', '물건을 생산자나 도매상에서 사들여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을 의미하는 '산매'는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의미적 유표성이고 그중 '도매'는 무표항이고 '소매', '산매'는 유표항이다. 하지만 '도매'는 비록 한자어이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물건을 생산자나 도매상에게서 사들여 직접 소비자에게 팖'을 의미하는 '零賣', '散售'가 제시되어 '물건을 낱개로 팔지 않고 모개로 팖'을 의미하는 '批發'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물건을 생산자나 도매상에게서 사들여 직접 소비자에게 팖'을 의미하는 '소매'는 중국어 '小賣'와 의미가 다르고 '집이나 땅 따위를 아주 팔아 버림'을 의미하는 '영매'는 '물건을 생산자나 도매상에서 사들여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을 의미하는 중국어 '零賣'와 의미가 다르다. 예시(122), (123), (124)도 마찬가지로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 의한 관계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한국어에서 '재래'와 '외래', '입대'와 '제대', '발모'와 '탈모'는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지만, 중국어에서는 '固有'와 '外來', 退伍'와 '入伍', '生發'와 '脫發'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유한 것'을 의미하는 '고유'는 '예전부터 있어 전하여 내려옴'을 의미하는 중국어 '固有'와 의미가 다르고 '물러가서 명령을 기다림'을 의미하는 '퇴대'는 '규정된 기한이 차거나 질병 또는 집안 사정으로 현역에서 해제하는 일'을 의미하는 중국어 '退伍'와 의미가 다르며 '태아 때부터 온몸에 나 있는 털. 가늘고 부드러우며 짧고 엉덩이, 팔에 특히 많다'를 의미하는 '생모'는 '머리털이 나는 것을 이른다'를 의미하는 중국어 '生發'와 의미가 다르다.

(125) 등교↔하교, 등교↔퇴교

上學↔放學

등교: ① 학생이 학교에 감.

登校

퇴교: ① 학교에서 그날의 공부나 일을 끝내고 돌아감.

② 다니던 학교를 그만둠.

③ 학교에서 학생에게 내리는 징계 처분의 하나.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로, 학생을 학적에서 지움으로써 학생이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다.

退校

하교: ① 공부를 끝내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옴.

下校

退校 : ① 退學。

上學 : ① 學生到學校學習。

상학: ① 학교에서 그날의 공부를 시작함.[65]

放學 : ① 學生下課回家。

방학: ①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쉬는 일. 또는 그 기간. 주로 학교에서 학기나 학년이 끝난 뒤 또는 더위, 추위가 심할 때 실시한다.

예시(125)는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 의한 관계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학생이 학교에 감'을 의미하는 '등교'와 '학교에서 그날의 공부나 일을 끝내고 돌아감'을 의미하는 '퇴교', '공부를 끝내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옴'을 의미하는 '하교'는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의미적 유표성이고 그중 '등교'는 무표항이고 '퇴교', '하교'는 유표항이다. 하지만 '등교', '하교'는 비록 한자어이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학생이 학교에 감'을 의미하는 '上學'가 제시되어 '공부를 끝내고 학교에서 집으로

65)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학교에서 그날의 공부나 일을 끝내고 돌아감'을 의미하는 '퇴교', '학교에서 그날의 공부를 시작함'을 의미하는 '상학'이 제시되었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돌아옴'을 의미하는 '放學'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학교에서 그날의 공부나 일을 끝내고 돌아감. 다니던 학교를 그만둠. 학교에서 학생에게 내리는 징계 처분의 하나.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로, 학생을 학적에서 지움으로써 학생이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다'를 의미하는 '퇴교'는 중국어 '退校'와 의미가 다르고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쉬는 일. 또는 그 기간. 주로 학교에서 학기나 학년이 끝난 뒤 또는 더위, 추위가 심할 때 실시한다'를 의미하는 '방학'은 '공부를 끝내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옴'을 의미하는 중국어 '放學'과 의미가 다르다.

(126) 먼바다↔앞바다, 먼바다↔근해
遠海↔近海
먼바다: ① 거리로 따졌을 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遠海：① 離岸很遠的海域。
앞바다: ① 거리로 따졌을 때, 육지에 가까이 있는 바다.
前海
근해: ① 거리로 따졌을 때, 육지에 가까이 있는 바다.
近海：① 離陸地較近的海域。

예시(126)는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 의한 관계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거리로 따졌을 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를 의미하는 '먼바다'와 '거리로 따졌을 때, 육지에 가까이 있는 바다'를 의미하는 '앞바다', '근해'는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의미적 유표성이고 그중 '먼바다'는 무표항이고 '앞바다', '근해'는 유표항이다. 하지만 '앞바다'는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거리로 따졌을 때, 육지에 가까이 있는 바다'를 의미하는 '近海'만 제시되어 '거리로 따졌을 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를 의미하는 '遠海'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127) 상승세↔내림세, 상승세↔하락세, 상승세↔낙세
上升勢↔下降勢
상승세: ① 위로 올라가는 기세.
上升勢：① 升高的趨勢。
내림세: ① 물가나 시세 따위가 떨어지거나 낮아지는 형세.
하락세: ① 물가나 시세 따위가 떨어지는 추세.
下落勢
낙세: ① 물가 따위가 떨어지는 기세.
落勢
下降勢：① 降下的趨勢。

예시(127)는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 의한 관계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세'를 의미하는 '상승세'와 '물가나 시세 따위가 떨어지거나 낮아지는 형세'를 의미하는 '내림세', '물가나 시세 따위가 떨어지는 추세'를 의미하는 '하락세', '물가 따위가 떨어지는 기세'를 의미하는 '낙세'는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의미적 유표성이고 그중 '상승세'는 무표항이고 '내림세', '하락세', '낙세'는 유표항이다. 하지만 '하락세', '내림세', '낙세'는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물가나 시세 따위가 떨어지는 추세'를 의미하는 '下降勢'가 제시되어 '위로 올라가는 기세'를 의미하는 '上升勢'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128) 웃돌다↔밑돌다
超出↔不及
웃돌다: ① 어떤 정도를 넘어서다.

밑돌다: ① 어떤 기준이 되는 수량에 미치지 못하다.
超出 : ① 多出, 越過。
不及 : ① 不滿, 不足。

예시(128)는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 의한 관계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어떤 정도를 넘어서다'를 의미하는 '웃돌다'와 '어떤 기준이 되는 수량에 미치지 못하다'를 의미하는 '밑돌다'는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의미적 유표성이고 그중 '웃돌다'는 무표항이고 '밑돌다'는 유표항이다. 하지만 '웃돌다', '밑돌다'는 고유어로써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어떤 기준이 되는 수량에 미치지 못하다'를 의미하는 '不及'이 제시되어 '어떤 정도를 넘어서다'를 의미하는 '超出'과 반의어를 형성한다.

(129) 저승↔이승
陰間↔陽間
저승: ①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서 산다고 하는 세상.
이승: ① 지금 살고 있는 세상.
陰間 : ① 人時候靈魂所進入的地方。
陽間 : ① 人間, 人世。
음간: ① 부정한 성관계를 함.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 따위를 이른다.
② 남모르게 숨어서 부정한 짓을 행함.
③ 음증에 속하는 전간.
양간: ① 양의 간. 한방에서 간장병의 약으로 쓴다.
② 두 쪽의 사이.
③ 소의 양과 간.
④ 양증에 속하는 간질. 일반적으로 건장한 사람에게 잘 발생하고 발작이 급격하게 일어난다.
⑤ 혈을 길러 간을 부드럽게 하는 치료법.[66]

예시(129)는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 의한 관계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서 산다고 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저승'과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이승'은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의미적 유표성이고 그중 '이승'은 무표항이고 '저승'은 유표항이다. 하지만 '이승', '저승'은 고유어로써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서 산다고 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陰間'이 제시되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陽間'과 반의어를 형성한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정한 성관계를 함.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 따위를 이른다. 남모르게 숨어서 부정한 짓을 행함. 음증에 속하는 전간'을 의미하는 '음간'과 '양의 간. 한방에서 간장병의 약으로 쓴다. 두 쪽의 사이. 소의 양과 간. 양증에 속하는 간질. 일반적으로 건장한 사람에게 잘 발생하고 발작이 급격하게 일어난다. 혈을 길러 간을 부드럽게 하는 치료법'을 의미하는 '양간'은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서 산다고 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중국어 '陰間',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중국어 '陽間'과 의미가 다르다.

(130) 정면↔배면, 정면↔후면, 정면↔뒷면
正面↔背面, 正面↔後面, 正面↔反面
정면: ① 사물에서, 앞쪽으로 향한 면.

---

66)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부정한 성관계를 함.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 따위를 이른다', '남모르게 숨어서 부정한 짓을 행함', '음증에 속하는 전간'을 의미하는 '음간', '양의 간. 한방에서 간장병의 약으로 쓴다', '두 쪽의 사이', '소의 양과 간', '양증에 속하는 간질. 일반적으로 건장한 사람에게 잘 발생하고 발작이 급격하게 일어난다', '혈을 길러 간을 부드럽게 하는 치료법'을 의미하는 '양간'이 제시되었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② 똑바로 마주 보이는 면.

③ 에두르지 아니하고 직접 마주 대함.

正面 : ① 主要的一面。

② 東西主要使用的一面。

③ 好的, 積極的一面。

④ 面對面, 直接。

배면: ① 위치상으로 등 쪽의 면.

背面 : ① 與正面相反的一面。

후면: ① 향하고 있는 방향의 반대되는 쪽의 면.

後面 : ① 在後方或背面的空間或位置。

뒷면: ① 물체의 뒤쪽 면.

反面 : ① 物體的背面, 與正面相反的一面。

② 壞的, 消極的一面。

③ 事情, 問題的另一個方面。

반면: ① 어디를 갔다가 돌아와서 부모님을 뵘.

② 뒤에 오는 말이 앞의 내용과 상반됨을 나타내는 말.

③ 한 면의 절반. 양쪽 면의 한 면. 얼굴의 좌우 어느 한쪽.

④ 장기, 바둑, 레코드 따위의 판의 겉면. 바둑에서 덤을 셈하지 아니한 상태. 반상의 형세나 국면.[67]

예시(130)는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 의한 관계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물에서, 앞쪽으로 향한 면, 똑바로 마주 보이는 면'을 의미하는 '정면'과 '위치상으로 등 쪽의 면'을 의미하는 '배면', '향하고 있는 방향의 반대되는 쪽의 면'을 의미하는 '후면', '물체의 뒤쪽 면'을 의미하

67)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디를 갔다가 돌아와서 부모님을 뵘', '한 면의 절반. 양쪽 면의 한 면. 얼굴의 좌우 어느 한쪽', '장기, 바둑, 레코드 따위의 판의 겉면. 바둑에서 덤을 셈하지 아니한 상태. 반상의 형세나 국면'을 의미하는 '반면'이 제시되었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는 '뒷면'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의미적 유표성이고 그중 '정면'은 무표항이고 '배면', '후면', '뒷면'은 유표항이다. 하지만 '뒷면'은 고유어로써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위치상으로 등 쪽의 면'을 의미하는 '背面', '향하고 있는 방향의 반대되는 쪽의 면'을 의미하는 '後面'뿐만 아닌 '물체의 뒤쪽 면'을 의미하는 '反面'까지 제시되어 '사물에서, 앞쪽으로 향한 면, 똑바로 마주 보이는 면'을 의미하는 '正面'과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어디를 갔다가 돌아와서 부모님을 뵘. 뒤에 오는 말이 앞의 내용과 상반됨을 나타내는 말. 한 면의 절반. 양쪽 면의 한 면. 얼굴의 좌우 어느 한쪽. 장기, 바둑, 레코드 따위의 판의 겉면. 바둑에서 덤을 셈하지 아니한 상태. 반상의 형세나 국면'을 의미하는 '반면'은 '물체의 뒤쪽 면'을 의미하는 중국어 '反面'과 의미가 다르다.

(131) 첨가↔삭제

添加↔刪除, 添加↔無添加, 添加↔不添加

첨가: ① 이미 있는 것에 덧붙이거나 보탬.

添加：① 添入, 增加。

삭제: ① 깎아 없애거나 지워 버림.

削除：① 刪除。

無添加：① 不添入, 不增加。

不添加：① 不添入, 不增加。

예시(131)는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 의한 관계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미 있는 것에 덧붙이거나 보탬'을 의미하는 '첨가'와 '깎아 없애거나 지워 버림'을 의미하는 '삭제'는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의미적 유표성이고 그중 '첨가'는 무표항이고 '삭제'는 유표항이다. 하지만 중

국어 사전 漢典에는 '깎아 없애거나 지워 버림'을 의미하는 '削除'뿐만 아닌 '이미 있는 것에 덧붙이거나 보태지 않음'을 의미하는 '無添加', '不添加'까지 제시되어 '이미 있는 것에 덧붙이거나 보탬'을 의미하는 '添加'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132) 후진국↔선진국, 후진국↔전진국
發展中國家↔發達國家
후진국: ① 산업, 경제, 문화 따위의 발전 수준이 기준보다 뒤떨어진 나라.
後進國
선진국: ① 다른 나라보다 정치·경제·문화 따위의 발달이 앞선 나라.
先進國
전진국: ① 다른 나라보다 정치·경제·문화 따위의 발달이 앞선 나라.[68]
前進國
發展中國家：① 指經濟上較落後的第三世界國家。
發達國家：① 比較富有或收入普遍高的國家。

예시(132)는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 의한 관계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산업, 경제, 문화 따위의 발전 수준이 기준보다 뒤떨어진 나라'를 의미하는 '후진국'과 '다른 나라보다 정치·경제·문화 따위의 발달이 앞선 나라'를 의미하는 '선진국', '전진국'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의미적 유표성이고 그중 '전진국', '선진국'은 무표항이고 '후진국'은 유표항이다. 하지만 '전진국', '선진국', '후진국'은 비록 한자어이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다른 나라보다 정치·경제·문화 따위의 발달이

68)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정치·경제·문화 따위의 발달이 앞선 나라'를 의미하는 '전진국'이 제시되었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앞선 나라'를 의미하는 '發達國家'가 제시되어 '산업, 경제, 문화 따위의 발전 수준이 기준보다 뒤떨어진 나라'를 의미하는 '發展中國家'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133) 맏형↔작은형
맏형: ① 둘 이상의 형 가운데 맏이인 형을 이르는 말.
大兄 : ① 長兄。
작은형: ① 둘 이상의 형 가운데 맏형이 아닌 형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小兄
小兄 : ① 排行最小的哥哥。

예시(133)는 불균형성 중 어휘적 빈자리에 의한 관계 반의어의 대조 분석 예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둘 이상의 형 가운데 맏이인 형을 이르는 말'을 의미하는 '맏형'과 '둘 이상의 형 가운데 맏형이 아닌 형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을 의미하는 '작은형'은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둘 이상의 형 가운데 맏형이 아닌 형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을 의미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고 '둘 이상의 형 가운데 맏이인 형을 이르는 말'을 의미하는 '大兄'만 제시되었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둘 이상의 형 가운데 맏형이 아닌 형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을 의미하는 '작은형'은 중국어 '小兄'과 의미가 다르다.

4. 중국 내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실태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내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실태에 관해 살펴보기 위하여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 대해 분석한 후 반의어 교육에 대한 중국 현지 교사의 인식과 반의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 분석

유쌍옥(2016: 196)에서는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의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에 따르면, 총 119개 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총 15가지의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다.[69] 본 연구에서는 고급 학습자들의 한국어 반의어 교육 실태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고급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 『韓國語3』, 『韓國語4』, 『高級韓國語1』, 『高級韓國語2』,

69) 유쌍옥(2016: 204)에서는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와 중국에서 번역된 한국어 교재를 <표Ⅱ-5>와 같이 제시하였는데 교재의 사용 수량과 한국어학과의 개설 수량과 다른 이유가 같은 학교에서 2가지 이상의 교재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표Ⅱ-5>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와 중국에서 번역된 한국어 교재

교재 명	사용 대학교의 수	비율
『한국어』	20	15.2%
『기초/고급한국어』	16	12.1%
『표준한국어』	16	12.1%
『대학한국어』	10	7.6%
『초급/중급한국어교정』	3	2.3%
『한국어정독교정』	3	2.3%
『중한교류표준한국어』	2	1.5%
『신편한국어』	2	1.5%
『초/중/고급한국어』	1	0.8%
『초급/중급한국어』	1	0.8%
『신편고급한국어』	1	0.8%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75	57%
『한국어교정』	32	24.2%
『연세한국어』	17	12.9%
『서울대한국어』	5	3.8%
『신표준한국어』	3	2.3%
중국에서 번역된 한국어 교재	57	43%

『韓國語教程5』, 『韓國語教程6』을 선정하여 교재에서 제시한 반의어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70] 고급 학습자들의 반의어 교육 내용 분석을 위해 선정한 한국어 교재를 정리하면 <표Ⅱ-6>과 같고 고급 학습자들의 반의어 교육 내용 분석 결과는 <표Ⅱ-7>과 같다.

<표Ⅱ-6> 고급 학습자들의 반의어 교육 내용 분석을 위해 선정한 한국어 교재

교재 분류	교재 이름	저자	출판사	출판 연도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韓國語3』	李先漢主編	民族出版社	2008
	『韓國語4』	李先漢主編	民族出版社	2008
	『高級韓國語1』	馬今善主編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2009
	『高級韓國語2』	沈賢淑主編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2009
중국에서 번역된 한국어 교재	『韓國語教程5』	延世大學韓國語學堂	世界圖書出版公司	2007
	『韓國語教程6』	延世大學韓國語學堂	世界圖書出版公司	2007

<표Ⅱ-7> 고급 학습자들의 반의어 교육 내용 분석 결과

70) 유쌍옥(2016: 204)에서 제시한 <표Ⅱ-5>에 따르면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 중 중국에서 출판된 교재를 사용하는 대학교는 57%이고 중국에서 번역된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는 대학교는 4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한국어』이고 다음으로는 『기초/고급한국어』와 『표준한국어』인데, 『기초/고급한국어』와 『표준한국어』의 사용 비율이 같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한 가지 교재만 선정하여 『한국어』와 『기초/고급한국어』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에서 번역된 한국어 교재에서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한국어교정』이며 다음으로는 『연세한국어』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국어교정』과 『연세한국어』는 모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편찬하였고 『연세한국어』는 『한국어교정』의 개정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 비율이 더 높은 『한국어교정』만을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선정한 한국어 교재	반의어 교육 내용 분석 결과
『韓國語3』	출근↔퇴근, 개회↔폐회, 날씬하다↔뚱뚱하다, 채우다↔비우다, 오르다↔내리다, 대기업↔중소기업, 필요하다↔불필요하다, 상승↔하강, 뭉치다↔흩어지다, 최소화↔최대화, 암컷↔수컷, 출국↔입국, 최고↔최저, 총각↔처녀, 출석↔결석, 주의↔부주의, 희극↔비극, 교만하다↔겸손하다, 무의미하다↔유의미하다, 표층↔심층, 확실하다↔불확실하다, 자유↔부자유, 정비례↔반비례, 직접적↔간접적, 긍정적↔부정적, 부주의↔주의, 유쾌하다↔불쾌하다, 동쪽↔서쪽, 무명↔유명, 방비↔무방비, 유선↔무선, 불행↔행복, 살리다↔죽이다, 소유↔무소유, 유정↔무정, 인정↔몰인정, 유력하다↔무력하다, 조건↔무조건
『韓國語4』	가까이하다↔멀리하다, 강화하다↔약화하다, 결혼↔이혼, 낙관↔비관, 내적↔외적, 다가오다↔다가가다, 마땅하다↔못마땅하다, 명시적↔암시적, 자음↔모음, 무심히↔유심히, 정당하다↔부당하다, 도덕↔부도덕, 부정하다↔긍정하다, 불량품↔우량품, 불만↔만족, 완전하다↔불완전하다, 불쾌하다↔유쾌하다, 늦어지다↔빨라지다, 사전↔사후, 상경↔하경, 상대적↔절대적, 선천적↔후천적, 소녀↔소년, 소규모↔대규모, 신랑↔신부, 아줌마↔아저씨, 어둡다↔밝다, 내려오다↔올라오다, 인상되다↔인하되다, 일치↔불일치, 최대↔최소, 평등↔불평등, 축소↔확대
『高級韓國語1』	추남↔추녀, 작다↔크다, 필요하다↔불필요하다, 좌↔우, 입다↔벗다, 게으르다↔부지런하다, 마땅하다↔마땅찮다, 대기업↔중소기업, 웃다↔울다, 싸다↔비싸다, 달다↔쓰다, 있다↔없다, 오다↔가다, 성공하다↔실패하다, 출근↔퇴근, 상승↔하강, 최대화↔최소화, 고가↔저가, 사립↔국립, 사립↔공립, 수축하다↔팽창하다, 민감하다↔둔하다, 동↔서, 주↔객, 선하다↔악하다, 앉다↔서다, 생↔사,

	선진국↔후진국, 단일민족↔다민족, 정열적↔미온적, 남성↔여성, 도시↔시골, 어렵다↔용이하다, 분담↔전담, 처녀↔처남, 겸손하다↔오만하다, 유↔무, 제수반↔함수반, 멀다↔가깝다, 흡족하다↔미흡하다, 규칙적↔불규칙적, 생산하다↔소비하다, 늙다↔젊다, 증대하다↔감소하다
『高級韓國語2』	깨끗하다↔더럽다, 왕↔왕비, 앞마당↔뒷마당, 추위↔더위, 부지런하다↔게으르다, 평범하다↔비범하다, 기쁨↔슬픔, 다녀오다↔다녀가다, 강하다↔약하다, 어머니↔아버지, 입다↔벗다, 거칠다↔부드럽다, 행복↔불행, 웃음↔울음, 불리하다↔유리하다, 이승↔저승, 첫차↔막차, 선배↔후배, 무의미하다↔유의미하다, 환하다↔어둡다, 형님↔동생, 친가↔외가, 명예스럽다↔불명예스럽다, 유정↔무정, 수월하다↔수월찮다, 오른쪽↔왼쪽, 내막↔외막, 넘어가다↔넘어오다, 외곽↔내곽, 못나다↔잘나다, 깔끔하다↔지저분하다, 솟다↔가라앉다, 관심↔무관심, 선생님↔학생, 고요하다↔번잡하다, 빠르다↔늦다, 미루다↔당기다, 크다↔작다, 언니↔오빠, 접다↔펴다, 발신인↔수신인, 낙↔고, 아들↔딸, 아줌마↔아저씨
『韓國語教程5』	올리다↔내리다, 마땅하다↔못마땅하다, 신랑↔신부, 슬프다↔기쁘다, 결혼↔이혼, 스승↔제자, 합격↔불합격, 부귀↔빈천, 남자↔여자, 젖다↔마르다, 할아버지↔할머니, 밉다↔곱다, 부모↔자녀, 합리적↔비합리적, 옳다↔그르다, 밤↔낮, 삶↔죽음, 이승↔저승, 어머니↔아버지, 유식하다↔무식하다, 손윗사람↔손아랫사람, 음성↔양성, 낮추다↔높이다, 입다↔벗다, 무형↔유형, 남↔북, 무겁다↔가볍다, 달다↔쓰다, 중수↔경수, 강하다↔약하다, 단순하다↔복잡하다, 자연스럽다↔부자연스럽다, 걱정↔안심, 내수↔외수
『韓國語教程6』	부친↔모친, 정답↔오답, 부모↔자식, 손자↔손녀, 장↔단, 할머니↔손녀, 밝다↔어둡다, 좋다↔나쁘다, 남성↔여성, 아버지↔어머니, 할아버지↔할머니, 효자↔효녀,

	유리하다↔불리하다, 평범하다↔비범하다, 합리↔불합리, 수축↔팽창, 수축↔이완, 단순하다↔복잡하다, 무심↔유심, 깨끗하다↔더럽다, 결혼↔이혼, 절대적↔상대적, 살다↔죽다, 주관↔객관, 유한↔무한, 합리적↔불합리적, 동쪽↔서쪽, 남쪽↔북쪽, 유명하다↔무명하다, 오른쪽↔왼쪽, 맑다↔흐리다, 이익↔불이익, 진보↔퇴보,

<표Ⅱ-7>과 같이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기존에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급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든 중국에서 번역된 한국어 교재든 교재에서 반의어 부분이 모두 어느 정도 제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는 아예 제시되지 않고 있었다.

둘째, 기존의 교재에서는 중국어 반의어와 차이가 있는 한국어 반의어, 즉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韓國語3』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가 아예 제시되지 않았고 『韓國語4』에서는 '마땅하다↔못마땅하다' 1쌍만 제시되었다. 또한 『高級韓國語1』에서는 '마땅하다↔마땅찮다', '싸다↔비싸다', '선진국↔후진국', '정열적↔미온적', '분담↔전담' 5쌍이 제시되었고『高級韓國語2』에서는 '이승↔저승', '수월하다↔수월찮다', '솟다↔가라앉다', '관심↔무관심', '미루다↔당기다' 5쌍이 제시되었으며 『韓國語教程5』에서는 '마땅하다↔못마땅하다', '이승↔저승', '젖다↔마르다' 3쌍이 제시되었고 『韓國語教程6』에서는 '효자↔효녀', '맑다↔흐리다', '이익↔불이익' 3쌍이 제시되었다.

셋째, 기존의 교재에서는 대부분 반의어의 불균형성, 즉 형태적 유표성과 의

미적 유표성만 제시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반의어의 복합성, 즉 다의성과 동의성에 관한 내용은 거의 구현되지 않았다.

넷째, 반의어 유형 사이의 차이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반의어의 유형 분류가 제시되지 않고 품사 분류만 제시되어 있어 상보 반의어, 등급 반의어, 관계 반의어 세 가지 유형 반의어의 서로 다른 특징이 구분되지 않는다.

다섯째, 기존의 교재에서는 반의어를 제시하는 데 있어 문형 제시나 예문 제시가 거의 없고 오로지 단어 차원에서만 간단하게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교재를 통해서 서로 다른 유형 반의어의 특징, 즉 상보 반의어, 등급 반의어, 관계 반의어의 특징과 반의어의 특성, 즉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비롯한 중국어 반의어와 차이가 있는 한국어 반의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반의어의 일반적인 유형을 제시하여 상보 반의어, 등급 반의어, 관계 반의어 세 가지 유형 반의어의 특징을 각각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순한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을 제시하고 교육하는 것보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을 제시하면서 중국어 반의어와 차이가 있는 한국어 반의어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어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 두 가지 특성을 충분히 이해시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어 반의어와 차이가 있는 한국어 반의어를 교육하는 데 있어 다양한 문장과 연습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4.2. 반의어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본 연구에서는 반의어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총 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조사 결과는 <표Ⅱ-8>과 같다.

<표Ⅱ-8> 반의어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양상 조사 결과

조사 문항	대답 분포	
1. 한국어 학습자에게 반의어를 가르쳐주신 적이 있습니까?	가르친 적이 있다. (80%)	가르친 적이 없다. (20%)
2. 한국어 학습자에게 반의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하다. (80%)	불필요하다. (20%)
3. 한국어 학습자에게 반의어를 어떤 방법으로 가르쳤습니까?	어휘 목록의 단어를 가르칠 때 그 단어의 반의어까지 가르쳐주었다. (80%)	문장을 읽으면서 반의어가 있는 어휘가 나왔을 때 바로 가르쳐주었다. (20%)
4. 한국어 반의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점을 안다. (60%)	다른 점을 모른다. (40%)
5. 앞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반의어를 어떻게 가르쳐주고 싶습니까?	중국어 반의어와 한국어 반의어를 차이점을 밝히면서 유형별로 가르쳐주고 싶다. (80%)	한국어 반의어 목록을 제시하면서 가르쳐주고 싶다. (20%)

<표Ⅱ-8>과 같이 반의어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질문 1 '한국어 학습자에게 반의어를 가르쳐주신 적이 있습니까?'와 질문 2 '한국어 학습

자에게 반의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의 대답 중 80%의 교사가 학습자에게 반의어를 가르쳐준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한국어 학습자에게 반의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충분히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질문 3 '한국어 학습자에게 반의어를 어떤 방법으로 가르쳤습니까?'의 대답 중 80%의 교사는 어휘 목록의 단어를 가르칠 때 그 단어의 반의어까지 가르쳐주었다고 하였으며 20%의 교사는 문장을 읽으면서 반의어가 있는 어휘가 나왔을 때 바로 가르쳐주었다고 하였다. 반의어가 교재에 제시되었을 경우에만 학생들에게 반의어 교육을 한다는 이러한 교사들의 응답은 현재 한국어 현장에서의 반의어 교육이 미흡한 점이 많으며 교육 방식 또한 매우 단편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질문 4 '한국어 반의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의 대답 중 60%의 교사가 한국어 반의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다른 점을 안다고 밝혔으며 40%의 교사는 차이점을 모른다고 하였는데 이는 교사가 반의어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질문 5 '앞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반의어를 어떻게 가르쳐주고 싶습니까?'의 대답 중 80%의 교사는 중국어 반의어와 한국어 반의어를 차이점을 밝히면서 유형별로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였으며 20%의 교사는 한국어 반의어 목록을 제시하면서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였는데 이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앞으로 반의어 교육을 함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교사들이 나름대로 반의어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으며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반의어 교육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 반의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본 연구에서는 반의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총 8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조사 결과는 <표Ⅱ-9>와 같다.

<표Ⅱ-9> 반의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양상 조사 결과

조사 문항	대답 분포		
94.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반의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배운 적이 있다. (46.91%)	배운 적이 없다. (46.91%)	기억나지 않는다. (6.17%)
95.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반의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배울 필요가 있다. (91.36%)	배울 필요가 없다. (6.17%)	잘 모른다. (2.47%)
96. 한국어 반의어를 어떤 방법으로 배웠습니까?	교재에서 제시되었다. (7.41%)	교사가 수업 시간에 강의하였다. (8.64%)	사전을 통해 자습하였다. (83.95%)
97. 한국어 반의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점이 있다. (83.95%)	다른 점이 없다. (7.41%)	잘 모른다. (8.64%)
98. 앞으로 한국어 반의어를 어떻게 배우고 싶습니까?	중국어 반의어와 한국어 반의어를 대조하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37.04%)	한국어 반의어 목록, 사전을 통해 배우고 싶다. (34.57%)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배우고 싶다. (28.40%)

<표Ⅱ-9>와 같이 반의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질문 94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반의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의 대답 중 46.91%의

학습자가 한국어 반의어를 배운 적이 없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절반 정도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반의어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질문 95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반의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의 대답 중 91.36%의 학습자가 한국어 반의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반의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질문 96 '한국어 반의어를 어떤 방법으로 배웠습니까?'의 대답 중 83.95%의 학습자가 사전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였다고 답하였으며 7.41%의 학습자들만이 반의어가 교재에 제시되어 있었다고 하였으며 8.64%의 학습자들만이 수업시간에 교사를 통하여 반의어와 관련된 학습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이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반의어 교육을 중시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통해 반의어를 학습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질문 97 '한국어 반의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의 대답 중 83.95%의 학습자가 중국어 반의어와 한국어 반의어의 차이점을 밝혔는데 대부분 반의어의 불균형성에 기초한 견해였고 극소수의 학습자들만이 반의어의 복합성에 대한 중국어 반의어와 한국어 반의어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중국어 반의어와 한국어 반의어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며, 한국어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명확하게 학습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질문 98 '앞으로 한국어 반의어를 어떻게 배우고 싶습니까?'의 대답 중 37.04%의 학습자는 중국어 반의어와 한국어 반의어를 대조하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하였으며 34.57%의 학습자는 한국어 반의어 목록, 사전을 통해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28.40%의 학습자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배우고 싶다고 답하였다. 이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반의어 교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

어 목록을 제시하고 중국어 반의어와 차이가 있는 한국어 반의어를 교수하는 것은 물론 반의어 유형 및 특성까지 설명하여 체계적으로 반의어 교육을 진행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반의어에 대한 교육을 간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습자들이 한국어 반의어를 학습하면서 반의어의 유형 및 특성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의어 사용 양상 및 사용 양상 차이의 원인 분석

신승용 외(2011: 26)에 따르면 제2 언어 학습자의 오류는 학습자의 중간 언어 체계를 보여주는 증거인데 그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나타난다. 첫째, 교사에게 오류는 학습자가 목표 언어에 얼마나 나아갔는지와 앞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제시해준다. 둘째, 연구자에게 오류는 언어가 어떻게 학습되는지 또는 습득되는지, 그리고 학습자가 언어 습득에서 어떤 전략과 과정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밝혀준다. 셋째, 학습자에게 오류는 목표 언어에 대한 가설을 스스로 시험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 언어를 분석하고 학습자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반의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반의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김은혜(2012: 2)에서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는 한국어 어휘를 사용하는 거시적 맥락을 통해 어휘의 유형을 학습하여 문화적인 요소와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언어 기능 활동과 의도적인 어휘 학습을 통해 어휘가 가진 세부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을 어휘의 가치를 의식하고 어감을 갖추며 한국어 어휘의 의미를 깊이 있게 학습시키기 위해 사전적 의미에 해당되는 지시적 의미까지 습득시킬 뿐만 아니라 문맥 속에 담긴 함축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까지 파악하여 어휘를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이 반의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와 사후 점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의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사용 양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1. 조사 방법 및 절차

1.1. 조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고 한국어 능력 시험 고급을 통과한 중국인 학습자를 조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특정 기관의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해당 기관의 교수법과 교재의 영향으로 특정 문법 항목에 대해 우수하거나 열등한 결과가 보일 수 있으므로 기관별로 교수법과 교재 등 요소에 따른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중국 지역별 비교적 대표적인 4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고 반의어를 이미 학습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을 조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조사에 참여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모두 81명이며, 학습자 집단의 세부 정보는 <표Ⅲ-1>과 같다.[71] 또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조 집단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 남자 10명, 여자 37명 총 47명을 조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변인과 비슷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를 모두 대학생 혹은 대학

71) 본 조사에서는 지역별로 중국 상해시 상해외국어대학교(SISU) 한국어 고급 학습자 20명, 산동성 산동대학교(SDU) 한국어 고급 학습자 21명, 길림성 연변대학교(YBU) 한국어 고급 학습자 20명, 요녕성 대련외국어대학교(DLUFL) 한국어 고급 학습자 20명 총 81명을 조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원생으로 선정하였다.[72]

<표Ⅲ-1> 조사 참여자 정보

소속 / 성별	SISU	SDU	YBU	DLUFL	합계
남	2	3	4	3	12
여	18	18	16	17	69
합계	20	21	20	20	81

1.2. 조사 도구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조사 도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표Ⅲ-2>와 같다.

<표Ⅲ-2> 조사 도구

설문지 구성	설문지 유형	문항 유형	측정 목표	문항수
첫 번째 부분	문법성 판단 테스트	선다형	반의어 불균형성 중 유표성과 어휘적 빈자리에 의한 반의어 사용 양상	57
두 번째 부분			반의어 복합성 중 동의성에 의한 반의어 사용 양상	14
세 번째 부분			반의어 복합성 중 다의성에 의한 반의어 사용 양상	22
네 번째 부분	학습자 인식 조사	완성형	학습자 경험, 학습 필요성, 학습 방법 등	5
다섯 번째 부분	사후 점검 인터뷰	문답형	답안을 선택한 이유	

72)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CL', 한국어 모어 화자를 'KN'으로 통칭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조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설문지는 크게 인적 사항, 사용 양상 및 학습자의 인식 조사로 구성되었는데 인적 사항에 대한 조사는 조사 참여자의 성별, 나이, 소속, 한국어 능력, 한국어 학습 시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사용 양상에 대한 조사는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사용하였으며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한국어 반의어의 불균형성 중 유표성과 어휘적 빈자리에 의한 반의어 사용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만든 57개 문항의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이고 두 번째 부분은 한국어 반의어의 복합성 중 동의성에 의한 반의어 사용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만든 14개 문항의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이며 세 번째 부분은 한국어 반의어의 복합성 중 다의성에 의한 반의어 사용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만든 22개 문항의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이다. 네 번째 부분은 반의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에 대한 조사인데 이는 한국어를 학습한 경험, 필요성, 학습 방법,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차이점 등 조사 내용을 포함한 5개 문항의 완성형 테스트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학습자의 인식 조사를 포함한 98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반의어 사용 양상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고,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는 학습자의 인식 조사를 제외한 93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반의어 사용 양상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들에 대한 사후 점검 인터뷰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의어 사용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지는 반의어 사용의 정확도를 측정할 수는 있지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답안을 선택한 이유와 이들의 반의어 사용 양상의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고찰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설문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

에 참여한 조사 참여자들 가운데서 서로 다른 유형의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 사용 양상에 있어 정확도가 낮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18명과 한국어 모어 화자 18명 총 36명을 대상으로 답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문답형 테스트를 통하여 사후 점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의어 사용 양상 및 사용 양상의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분석하였다.

1.2.1.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

김영주 외(2012: 356)에 따르면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언어에 대한 직관으로 주어진 문장의 문법성을 판단함으로써, 원어민과 동일한 상태의 언어 처리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암묵적인 문법 지식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실험방법이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 도구는 크게 지필형과 청취형이 있고 지필형은 다시 4지 선다형, 진위 판단형과 리커트 척도형으로 구분된다. 김호정(2018: 424)에 따르면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다른 평가 도구와 달리 학습자의 문법 지식을 측정하는데 문법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황종(2007: 78)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 연구를 하면서 한국어 한자어 및 부정 접두 한자 반의어에 관한 설문 조사 중 단어를 문항으로 제시하고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사용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부정 접두 한자 반의어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였다. 마릉연(2016: 238)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말뭉치 기반 한국어 동사 유의어 교육 내용 연구를 하면서 한국어 동사 유의어에 관한 설문 조사 중 문장을 문항으로 제시하고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사용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동사 유의어의 사용 양상을 고찰

하였다. 강수진(2011: 157)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반의어 교육 연구를 하면서 교사들의 반의어 교육 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 중 단어를 문항으로 제시하고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사용하여 교사들의 한국어 다의어 반의어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의어 사용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사용하고자 한다. 문항 개발에 있어 앞서 제시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을 대상으로 각각 한 문제씩 제시하였고 선택 문항으로는 정답과 쉽게 혼동하여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문항, 조사 참여자가 원하는 답안이 문항에 없는 경우 답안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기타' 문항을 추가하여 연구자 직관으로 문항들을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첫 번째 부분은 반의어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에 의한 반의어 사용 양상을 고찰하기 위한 단어 문항 29개, 반의어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 의한 반의어 사용 양상을 고찰하기 위한 단어 문항 26개, 반의어 불균형성 중 어휘적 빈자리에 의한 반의어 사용 양상을 고찰하기 위한 단어 문항 2개, 두 번째 부분은 반의어 복합성 중 동의성에 의한 반의어 사용 양상을 고찰하기 위한 문장 문항 14개, 세 번째 부분은 반의어의 복합성 중 다의성에 의한 반의어 사용 양상을 고찰하기 위한 단어 문항 22개, 총 93개 문항으로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구성하였는데 구체적인 문항 예시는 <표Ⅲ-3>과 같다.

<표Ⅲ-3>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 예시

설문지 구성	설문지 문항 유형	측정 목표	목표 문형	문항 예시
첫	선다형	반의어 불균형성	공개적↔비	1. 공개적 (　　)

번째 부분	문법성 판단 테스트	중 형태적 유표성에 의한 반의어 사용 양상	공개적	A. 비공개적 B. 미공개적 C. 불공개적 D. 기타_____
		반의어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 의한 반의어 사용 양상	외래↔재래	47. 외래 ( ) A. 내래 B. 재래 C. 고유 D. 기타_____
		반의어 불균형성 중 어휘적 빈자리에 의한 반의어 사용 양상	개강↔종강	56. 개강 ( ) A. 폐강 B. 휴강 C. 종강 D. 기타_____
두 번째 부분		반의어 복합성 중 동의성에 의한 반의어 사용 양상	대가족↔핵가족 대가족↔소가족	66. 우리는 사 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이다. ( ) A. 핵가족 B. 소가족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_
세 번째 부분		반의어 복합성 중 다의성에 의한 반의어 사용 양상	개업↔폐업 개업↔휴업	73. 개업 ( ) A. 폐업 B. 휴업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_

본 연구에서는 앞서 검토한 반의어의 유형 및 특성을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의어 사용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아래 <표Ⅲ-4>와 같이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Ⅲ-4> 설문지 구성

설문지 문항 유형	용법			테스트 문항 번호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	상 보 반의어	불균형성	형태적 유표성	1-27
			의미적 유표성	30-41
			어휘 공백에 의한 어휘적 빈자리	56
		복합성	동의성	58

			다의성	72-74
	등 급 반의어	불균형성	형태적 유표성	28
		복합성	동의성	59-64
			다의성	75-86
	관 계 반의어	불균형성	형태적 유표성	29
			의미적 유표성	42-55
			어휘 공백에 의한 어휘적 빈자리	57
		복합성	동의성	65-71
			다의성	87-93

1.2.2. 사후 점검 인터뷰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의어 사용 양상을 고찰하는 데 사용한 설문지는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의어 사용의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답안을 선택한 이유와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의어 사용 양상의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문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문 조사에 참여한 대상들 가운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18명과 한국어 모어 화자 18명 총 36명을 대상으로 답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사후 점검 인터뷰를 진행하여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의어 사용 양상의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분석하였다.

1.3. 조사 절차

본 연구는 2019년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31명과 한국어 모어 화자 17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진행하였고 2020년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81명과 한국어 모어 화자 47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진행한 다음 2020년 3월 14일부터 3월 24일까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18명과 한국어 모어 화자 18명을 대상으로 사후 점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절차는 <표Ⅲ-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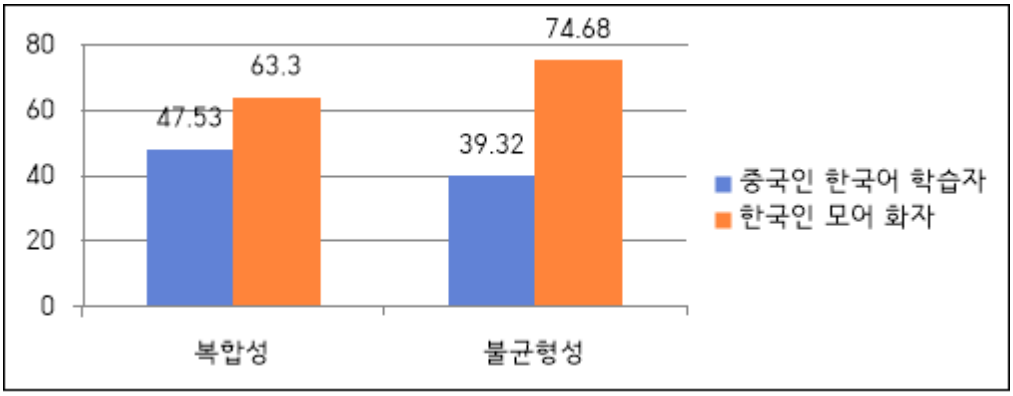
<표Ⅲ-5> 조사 절차

조사 절차	예비 조사	본 조사	사후 점검 인터뷰
조사 기간	2019년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20년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2020년 3월 14일부터 3월 24일까지
조사 대상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31명 한국어 모어 화자 17명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81명 한국어 모어 화자 47명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18명 한국어 모어 화자 18명

2. 조사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의어 사용 양상 조사 결과를 먼저 반의어의 유형에 따라 상보 반의어, 등급 반의어, 관계 반의어 세 가지로 세분한 다음 다시 반의어의 특성에 따라 복합성, 불균형성 두 가지로 세분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의어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2.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상보 반의어 사용 양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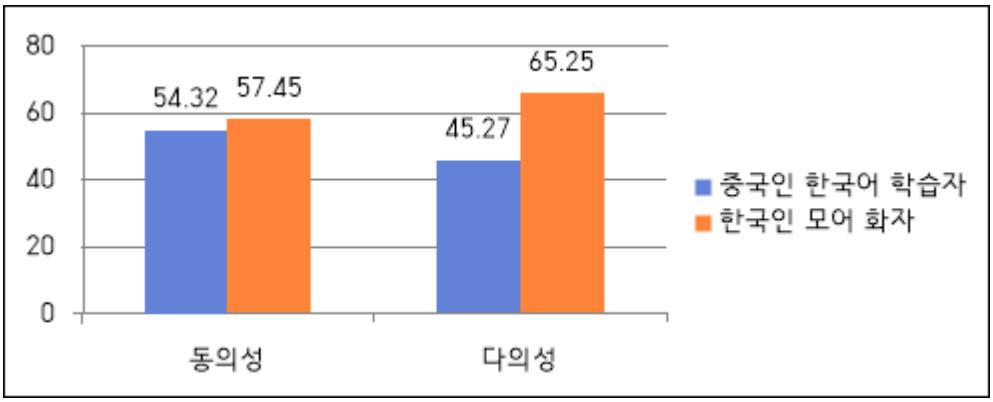


[그림Ⅲ-1] 상보 반의어 복합성, 불균형성의 집단별 정확도

[그림Ⅲ-1]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상보 반의어 복합성과 불균형성의 집단별 정확도인데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상보 반의어 복합성의 정확도는 47.53%밖에 되지 않으며 불균형성의 정확도는 이보다 더 낮은 39.32%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상보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이해하는 데 비교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보 반의어의 복합성보다 불균형성의 사용을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상보 반의어 복합성의 정확도는 63.3%이고 불균형성의 정확도는 74.68%인데 이는 상보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이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도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시해준다. 사후 점검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상보 반의어 정확도가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해 낮은 원인은 주로 중국어 상보 반의어의 간섭에서 기인한 차이 때문이고 이밖에 한국어 상보 반의어의 복잡성, 한국어 상보 반의어의 교육 부재 및 학습자 요인에서 기인한 차이도 정확도가 높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상보 반의어는 동의성, 다의성, 형태적 유표성, 의미적 유표성, 어휘적 빈자리 등 복잡한 특성 때문에 한국어

모어 화자들도 판단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다.

2.1.1. 상보 반의어 복합성의 사용 양상 분석



[그림Ⅲ-2] 상보 반의어 복합성의 집단별 정확도

[그림Ⅲ-2]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상보 반의어 복합성의 집단별 정확도인데 [그림Ⅲ-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상보 반의어 동의성의 정확도는 54.32%밖에 되지 않으며 다의성의 정확도는 이보다 더 낮은 45.27%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상보 반의어의 동의성과 다의성을 이해하는 데 비교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보 반의어의 동의성보다 다의성의 사용을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상보 반의어 동의성의 정확도는 57.45%이고 다의성의 정확도는 65.25%인데 이는 상보 반의어의 동의성과 다의성을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이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도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Ⅲ-6> 상보 반의어 복합성 중 동의성의 사용 양상

측정 목표	문항 번호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 내용	정답	집단별 정확도(%)	
				CL(%)	KN(%)
상보 반의어의 동의성	58	그런 푼돈으로 아무것도 살 수 없다. ( )	목돈 거금	54.32%	57.45%

<표Ⅲ-6>은 상보 반의어 복합성 중 동의성의 사용 양상인데 문항 58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도는 54.32%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확도는 57.45%이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후 점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인터뷰 내용 및 상보 반의어 복합성 중 동의성의 사용 양상 분석 결과는 <표Ⅲ-7>과 같다.

<표Ⅲ-7> 상보 반의어 복합성 중 동의성의 사용 양상 분석

문항 예시	58. 그런 푼돈으로 아무것도 살 수 없다. ( ) A. 목돈 B. 거금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인터뷰 1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예전에 교재에서 목돈이라는 단어를 배운 적이 있기에 답안은 A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 인터뷰 1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푼돈은 아주 적은 돈이라는 뜻인데 내가 직접 모은 적은 돈의 느낌이 강하고 목돈 또한 내가 열심히 저금해서 돈을 많이 모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거금은 뭔가 내가 열심히 모았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에 A가 답이다.

<표Ⅲ-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교재에서 '목돈'만 제시되고 '거금'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교육 자료에서 상보 반의어의 교육 내용 제시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답안을 선택한 이유로 '거금'은 뭔가 내가 열심히 모았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한몫이 될 만한, 비교적 많은 돈'을 의미하는 '목돈'과 '많은 돈'을 의미하는 '거금'의 상대적 동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Ⅲ-8> 상보 반의어 복합성 중 다의성의 사용 양상

측정 목표	문항 번호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 내용	정답	집단별 정확도(%)	
				CL(%)	KN(%)
상보 반의어의 다의성	72	개업 ( )	폐업 휴업	44.44%	59.57%
	73	신세대 ( )	기성세대 구세대	41.98%	72.34%
	74	익다 ( )	서투르다 설다	49.38%	63.83%

<표Ⅲ-8>은 상보 반의어 복합성 중 다의성의 사용 양상인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문항 73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확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문항 72이다. 문항 73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도는 41.98%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확도는 72.34%이며 문항 72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도는 44.44%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확도는 59.57%이다. 이에 근거하여 사후 점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인터뷰 내용 및 상보 반의어 복합성 중 다의성의 사용 양상 분석 결과는 <표Ⅲ-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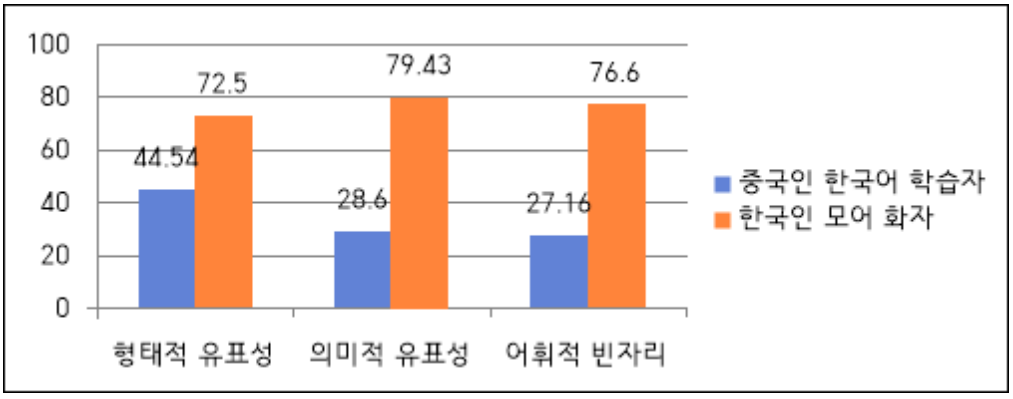
<표Ⅲ-9> 상보 반의어 복합성 중 다의성의 사용 양상 분석

문항 예시	73. 신세대 ( ) A. 기성세대 B. 구세대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인터뷰 2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한국어 교재에서 구세대라는 단어를 배운 적이 있기에 답안은

	B라고 생각한다.
한국어 모어 화자 인터뷰 2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한자로 따지면 구세대도 답이 되긴 하겠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성세대를 선택했다.
문항 예시	72. 개업 (　) A. 폐업　B. 휴업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_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인터뷰 3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폐업은 영원히 개업하지 못하는 뜻도 있어서 휴업은 더 낫습니다.
한국어 모어 화자 인터뷰 3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개업은 앞으로 쭉 장사를 시작한다는 뜻이고 폐업은 앞으로 쭉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에 폐업을 답으로 선택했다.

<표Ⅲ-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답안을 선택한 이유가 교재에서 '구세대'만 제시되고 '기성세대'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개업'과 '폐업'이 반의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교육 자료에서 상보 반의어의 교육 내용 제시 부족과 상보 반의어의 복합성 중 다의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답안을 선택한 이유가 '구세대'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개업'이 '폐업'과만 반의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세대, 흔히 20대 이하의 젊은 세대를 이른다', '기성의 관습에 반발하여 새로운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개성이 뚜렷하며 자기중심적 사고 및 주장이 강한 세대'를 의미하는 '신세대'와 '영업을 하고 있음, 그날의 영업을 시작함', '영업을 처음 시작함'을 의미하는 '개업'의 다의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1.2. 상보 반의어 불균형성의 사용 양상 분석



[그림Ⅲ-3] 상보 반의어 불균형성의 집단별 정확도

[그림Ⅲ-3]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상보 반의어 불균형성의 집단별 정확도인데 [그림Ⅲ-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상보 반의어 형태적 유표성의 정확도는 44.54%밖에 되지 않고 의미적 유표성의 정확도는 이보다 더 낮은 28.6%밖에 되지 않으며 어휘적 빈자리의 정확도는 이와 비슷한 27.16%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상보 반의어의 형태적 유표성, 의미적 유표성과 어휘적 빈자리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보 반의어의 형태적 유표성보다 의미적 유표성과 어휘적 빈자리의 사용을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상보 반의어 형태적 유표성의 정확도는 72.5%이고 의미적 유표성의 정확도는 79.43%이며 어휘적 빈자리의 정확도는 76.6%인데 이는 상보 반의어의 형태적 유표성, 의미적 유표성 및 어휘적 빈자리를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이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도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Ⅲ-10> 상보 반의어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

측정 목표	문항	선다형 문법성	정답	집단별 정확도(%)

	번호	판단 테스트 내용		CL(%)	KN(%)
상보 반의어의 형태적 유표성	1	공개적 ( )	비공개적	54.32%	93.62%
	2	관심 ( )	무관심	50.62%	97.87%
	3	도덕적 ( )	비도덕적	46.91%	51.06%
	4	민주적 ( )	반민주적 비민주적	48.15%	53.19%
	5	생물 ( )	무생물	17.28%	82.98%
	6	신자 ( )	불신자 비신자	60.49%	61.70%
	7	위생적 ( )	비위생적	37.04%	100%
	8	이성적 ( )	비이성적 감성적	62.96%	78.72%
	9	이익 ( )	불이익 손해	22.22%	42.55%
	10	인도적 ( )	비인도적	55.56%	97.87%
	11	전문적 ( )	비전문적 일반적	44.44%	57.45%
	12	정규 ( )	비정규	46.91%	97.87%
	13	정기적 ( )	부정기적	17.28%	19.15%
	14	정상 ( )	비정상 이상	37.04%	51.06%
	15	정상적 ( )	비정상적	56.79%	100%
	16	제한 ( )	무제한	69.14%	89.36%
	17	조직적 ( )	비조직적	22.22%	95.74%
	18	참가 ( )	불참 불참가	66.67%	68.09%
	19	참석 ( )	불참 불참석	59.26%	63.83%
	20	쾌감 ( )	불쾌감	58.02%	82.98%
	21	한정 ( )	무한정	48.15%	72.34%
	22	현실적 ( )	비현실적 이상적	27.16%	40.43%
	23	협조 ( )	비협조	35.80%	76.60%
	24	확산 ( )	비확산 미확산	24.69%	36.17%
	25	효율적 ( )	비효율적	38.27%	93.62%
	26	효자 ( )	효녀	50.62%	59.57%

			불효자		
	27	흡연자 (　)	비흡연자	44.44%	93.62%

<표Ⅲ-10>은 상보 반의어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인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문항 5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확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문항 13이다. 문항 5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도는 17.28%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확도는 82.98%이며 문항 13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도는 17.28%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확도는 19.15%이다. 이에 근거하여 사후 점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인터뷰 내용 및 상보 반의어 복합성 중 다의성의 사용 양상 분석 결과는 <표Ⅲ-11>과 같다.

<표Ⅲ-11> 상보 반의어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 분석

문항 예시	5. 생물 (　) **A. 무생물**　B. 비생물　C. 미생물　D. 기타_____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인터뷰 4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非生物'이 바로 '비생물'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 인터뷰 4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미생물은 작다는 뜻이라 생물의 반의어로 보기는 어렵다. 생물의 반의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살아있지 않음'인 듯하다. 비생물이라는 과학 교과에서 특수하게 생물이 아닌 자연 환경 등을 뜻하는 말로 쓰이므로, 살아있지 않은 무언가를 일반적으로 총칭하는 말로 '무생물'을 골랐다.
문항 예시	13. 정기적 (　) A. 무정기적　**B. 부정기적**　C. 비정기적　D. 기타_____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인터뷰 5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중국어 '不定期'는 한국어 '비정기적'이라고 배웠다.
한국어 모어 화자 인터뷰 5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무정기적이나 부정기적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

<표Ⅲ-1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답안을 선택한 이유가 중국어는 '非生物'이고 한국어는 '비정기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한국어 '무생물'이 중국어 '非生物'이고 한국어 '부정기적'이 중국어 '不定期'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중국어 상보 반의어의 간섭과 상보 반의어의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무정기적'이나 '부정기적'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국어에서 '기한이나 기간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정기적'의 반의어가 '시기나 기한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 '부정기적'이므로 이는 상보 반의어의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Ⅲ-12> 상보 반의어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

측정 목표	문항 번호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 내용	정답	집단별 정확도(%)	
				CL(%)	KN(%)
상보 반의어의 의미적 유표성	30	구어 (　)	문어 글말	30.86%	57.45%
	31	동거 (　)	별거	32.10%	82.98%
	32	부인 (　)	시인 인정	27.16%	70.21%
	33	분담 (　)	전담	22.22%	95.74%
	34	불경기 (　)	호경기	23.46%	82.98%
	35	성수기 (　)	비수기	55.56%	100%
	36	악몽 (　)	길몽	14.81%	93.62%
	37	여인 (　)	남성 남자	18.52%	36.17%
	38	완공하다 (　)	기공하다	20.99%	82.98%
	39	정열적 (　)	미온적	14.81%	65.96%
	40	필수 (　)	선택	30.86%	89.36%
	41	호황 (　)	불황	51.85%	95.74%

<표Ⅲ-12>는 상보 반의어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인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문항 39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확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문항 37이다. 문항 39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도는 14.81%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확도는 65.96%이며 문항 37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도는 18.52%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확도는 36.17%이다. 이에 근거하여 사후 점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인터뷰 내용 및 상보 반의어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 분석 결과는 <표Ⅲ-13>과 같다.

<표Ⅲ-13> 상보 반의어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 분석

문항 예시	39. 정열적 (　　) A. 냉담적　**B. 미온적**　C. 무열적　D. 기타_____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인터뷰 6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답안을 잘 모르겠고 이런 종류의 반의어를 접촉한 적이 없어 어떤 방식으로 배워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한국어 모어 화자 인터뷰 6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정열적의 반대말은 냉소적, 냉담적, 무관심 등의 단어들이 적절해 보이고 미온적, 무열적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다.
문항 예시	37. 여인 (　　) A. 남인　**B. 남성**　**C. 남자**　D. 기타_____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인터뷰 7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형식적으로 일치한 남인이 답안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 인터뷰 7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남인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고, 남성과 남자 중에 선택해야 하는데 남성-여성, 남자-여자와 같은 짝을 이루고 여인의 경우에는, 짝을 이루는 반대말이 없이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다. 남성이 여성을 지칭할 때 여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것 같고, 여성이 남성을 지칭할 때는 남자라고 부를 것 같다.

<표Ⅲ-1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답안을 선택한 이유가 학습 방법을 잘 모르는 것과 '여인'과 '남인'이 형식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학습 동기 부족과 중국어 '女人'과 '男人'의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학습 방법과 중국어 상보 반의어의 직역에서 기인한 것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가 답안을 선택한 이유가 '미온적'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고 여성이 남성을 지칭할 때는 '남자'라고 부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국어에는 '냉담적'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고 '남성', '남자'의 의미를 찾아보면 모두 '여인'의 반의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상보 반의어의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Ⅲ-14> 상보 반의어 불균형성 중 어휘 공백에 의한 어휘적 빈자리의 사용 양상

측정 목표	문항 번호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 내용	정답	집단별 정확도(%)	
				CL(%)	KN(%)
상보 반의어의 어휘적 빈자리	56	개강 (　　)	종강	27.16%	76.60%

<표Ⅲ-14>는 상보 반의어 불균형성 중 어휘 공백에 의한 어휘적 빈자리의 사용 양상인데 문항 56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도는 27.16%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확도는 76.60%이다. 이에 근거하여 사후 점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인터뷰 내용 및 상보 반의어 불균형성 중 어휘적 빈자리의 사용 양상 분석 결과는 <표Ⅲ-1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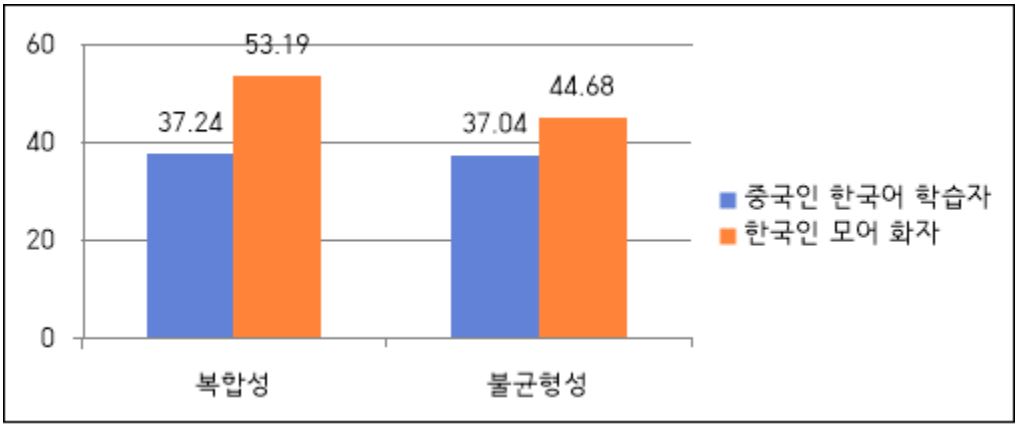
<표Ⅲ-15> 상보 반의어 불균형성 중 어휘 공백에 의한 어휘적 빈자리의 사용 양상 분석

문항 예시	56. 개강 (　　)

	A. 폐강 B. 휴강 **C. 종강** D. 기타_____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인터뷰 8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답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반의어에 큰 관심이 없다.
한국어 모어 화자 인터뷰 8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개강은 '학기가 시작됨'이라는 의미일 때 '학기가 끝남(학기를 마침)'의 의미로는 '종강'이 답안이고 개강'은 '강의가 열림'이라는 의미일 때 반의어는 '폐강'이다.

<표Ⅲ-1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답안을 선택한 이유가 답안을 모를 뿐만 아니라 반의어에 관심이 없다고 하였는데 중국어에는 '한 학기의 강의가 끝나거나 강의를 끝마침. 또는 한 학기의 마지막 강의'를 의미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상보 반의어의 불균형성 중 어휘적 빈자리와 학습자의 내적 원인, 즉 학습 동기 및 노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답안을 선택한 이유가 '개강'의 다의성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개강'은 '강의나 강습 따위를 시작함'의 의미밖에 없으므로 이는 상보 반의어의 복합성 중 다의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2.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등급 반의어 사용 양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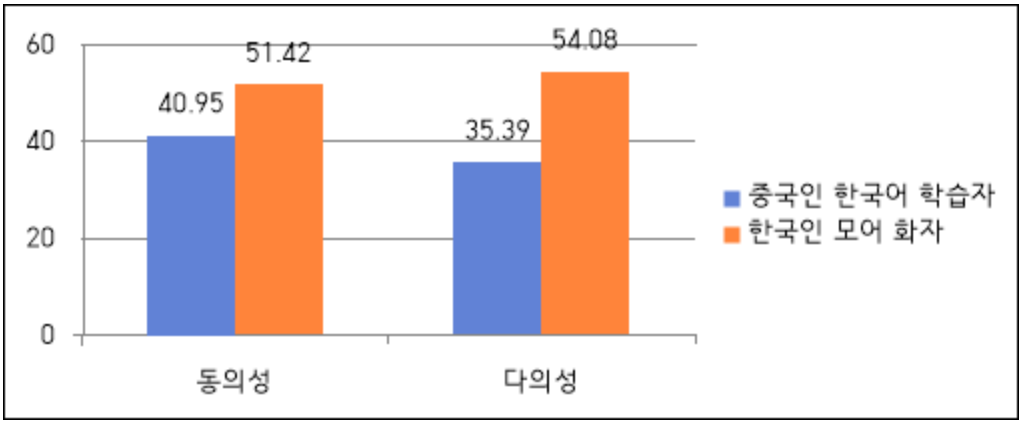


[그림Ⅲ-4] 등급 반의어 복합성, 불균형성의 집단별 정확도

[그림Ⅲ-4]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등급 반의어 복합성과 불균형성의 집단별 정확도인데 [그림Ⅲ-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등급 반의어 복합성의 정확도는 37.24%밖에 되지 않고 불균형성의 정확도는 이와 비슷한 37.04%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등급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이해하는 데 비교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등급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의 사용을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등급 반의어 복합성의 정확도는 53.19%이고 불균형성의 정확도는 44.68%이다. 이를 통해 등급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이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도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후 점검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등급 반의어 정확도가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해 낮은 원인은 주로 한국어 등급 반의어의 복잡성에서 기인한 차이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 중국어 등급 반의어의 간섭, 한국어 등급 반의어의 교육 부재 및 학습자 요인에서 기인한 차이도 정확도가 높지 못한 원인으로 생각될 수 있다. 등

급 반의어의 경우에는 동의성, 다의성, 형태적 유표성 등 복잡한 특성 때문에 한국어 모어 화자들도 판단하고 인식함에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2.1. 등급 반의어 복합성의 사용 양상 분석



[그림Ⅲ-5] 등급 반의어 복합성의 집단별 정확도

[그림Ⅲ-5]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등급 반의어 복합성의 집단별 정확도인데 [그림Ⅲ-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등급 반의어 동의성의 정확도는 40.95%밖에 되지 않고 다의성의 정확도는 이보다 더 낮은 35.39%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등급 반의어의 동의성과 다의성을 이해하는 데 비교적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등급 반의어의 동의성보다 다의성의 사용을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등급 반의어 동의성의 정확도는 51.42%이고 다의성의 정확도는 54.08%이다. 이를 통해 등급 반의어의 동의성과 다의성을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

이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도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Ⅲ-16> 등급 반의어 복합성 중 동의성의 사용 양상

측정 목표	문항 번호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 내용	정답	집단별 정확도(%)	
				CL(%)	KN(%)
등급 반의어의 동의성	59	떡을 냉장고에 얼렸더니 돌처럼 딱딱해져서 먹을 수가 없다. ( )	물렁하다 무르다	44.44%	46.81%
	60	이 도서실은 정리가 잘되어서 자료 찾기가 수월하다. ( )	수월찮다 어렵다	41.98%	44.68%
	61	달아나는 것이 너무 재빨라서 잡을 수가 없다. ( )	굼뜨다 느리다	51.85%	72.34%
	62	줄 간격을 좁히다. ( )	벌리다 넓히다	30.86%	61.70%
	63	근래 들어, 수출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 )	붇다 불어나다	28.40%	31.91%
	64	선생님은 아이가 한 선행을 침이 마르게 칭찬하였다. ( )	헐뜯다 비난하다	48.15%	51.06%

<표Ⅲ-16>은 등급 반의어 복합성 중 동의성의 사용 양상인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문항 63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확도가 가장 낮은 문항도 문항 63이다. 문항 63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도는 28.40%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확도는 31.91%이다. 이에 근거하여 사후 점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인터뷰 내용 및 등급 반의어 복합성 중 동의성의 사용 양상 분석 결과는 <표Ⅲ-17>과 같다.

<표Ⅲ-17> 등급 반의어 복합성 중 동의성의 사용 양상 분석

문항 예시	63. 근래 들어, 수출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 ) A. 붇다 B. 불어나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_
중국인 한국어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학습자 인터뷰 9	불어나다 이 단어만 들어본 적이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 인터뷰 9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D. 늘어나는. 왜냐하면 '붇다'는 사람의 외모에 대해 말할 때 주로 쓰고, '불어나다'는 강이나 하천의 수위에 대해 주로 쓴다.

<표Ⅲ-1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답안을 선택한 이유가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답변을 통해 학습자가 정확한 반의어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 답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반의어 '붇다', '불어나다'와 '줄어들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추측 전략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측 전략은 학습 전략, 의사소통 전략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답안을 선택한 이유가 '붇다'와 '불어나다'의 일반적 용법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한국어에서 '수량 따위가 본디보다 커지거나 많아지다'를 의미하는 '불어나다'와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를 의미하는 '붇다'는 상대적 동의 관계이므로 '줄어들다'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는 데 이는 등급 반의어의 복합성 중 동의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Ⅲ-18> 등급 반의어 복합성 중 다의성의 사용 양상

측정 목표	문항 번호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 내용	정답	집단별 정확도(%)	
				CL(%)	KN(%)
등급 반의어의 다의성	75	굵다 (　)	잘다 가늘다	41.98%	42.55%
	76	굵다랗다 (　)	가느다랗다 잔다랗다	39.51%	44.68%
	77	드물다 (　)	잦다 수두룩하다	43.21%	57.45%
	78	선하다 (　)	악하다	40.74%	42.55%

			희미하다		
	79	세련되다 (　)	촌스럽다	33.33%	82.98%
	80	시시하다 (　)	재미있다 중요하다	28.40%	46.81%
	81	식상하다 (　)	신선하다	32.10%	97.87%
	82	싸다 (　)	비싸다 뜨다	22.22%	29.79%
	83	잦다 (　)	드물다 뜸하다	46.91%	72.34%
	84	특이하다 (　)	예사롭다 평범하다	24.69%	42.55%
	85	헤프다 (　)	마디다 알뜰하다	17.28%	25.53%
	86	흐리다 (　)	맑다 선명하다	54.32%	63.83%

<표Ⅲ-18>은 등급 반의어 복합성 중 다의성의 사용 양상인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문항 85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확도가 가장 낮은 문항도 문항 85이다. 문항 85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도는 17.28%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확도는 25.53%이다. 이에 근거하여 사후 점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인터뷰 내용 및 등급 반의어 복합성 중 다의성의 사용 양상 분석 결과는 <표Ⅲ-1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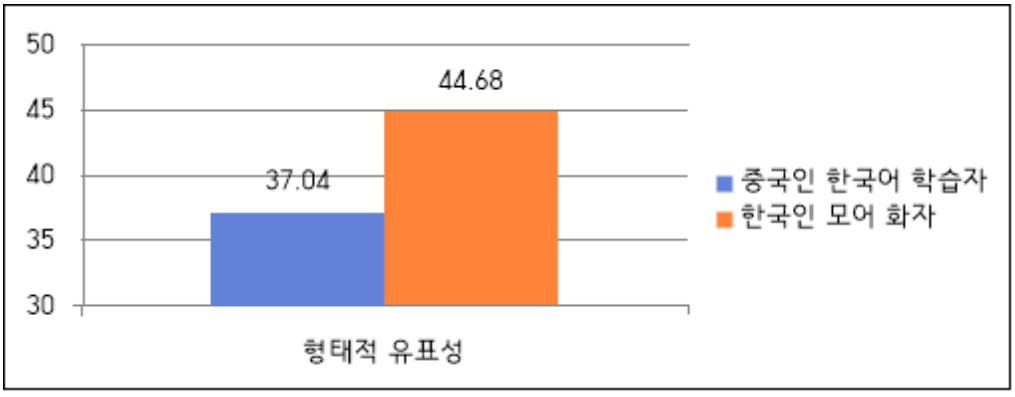
<표Ⅲ-19> 등급 반의어 복합성 중 다의성의 사용 양상 분석

문항 예시	85. 헤프다 (　) A. 마디다　B. 알뜰하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인터뷰 10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마디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헤프다'는 '花钱大手大脚'라는 뜻이 있기에 알뜰하다가 답안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 인터뷰 10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마디다라는 표현은 들어본 적 없다. 헤프다는 돈을 헤프게

	쓴다는 의미가 있어서 돈을 절약하는 알뜰하다가 적절하다고 생각.

<표Ⅲ-1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답안을 선택한 이유가 '마디다'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였다. 이는 등급 반의어의 복합성 중 다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가 답안을 선택한 이유도 '마디다'라는 표현은 들어본 적 없어서라고 하였다. 이러한 답변을 통해 생각해 볼 때, '헤프다'의 사전적 의미 중 '쓰는 물건이 쉽게 닳거나 빨리 없어지는 듯하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쉽게 닳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다'를 의미하는 '마디다'와 반의어를 형성하고, '물건이나 돈 따위를 아끼지 아니하고 함부로 쓰는 버릇이 있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일이나 살림을 정성스럽고 규모 있게 하여 빈틈이 없다'를 의미하는 '알뜰하다'와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등급 반의어의 복합성 중 다의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2.2.2. 등급 반의어 불균형성의 사용 양상 분석



[그림Ⅲ-6] 등급 반의어 불균형성의 집단별 정확도

[그림Ⅲ-6]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등급 반의어 불균형성의 집단별 정확도인데 [그림Ⅲ-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등급 반의어 형태적 유표성의 정확도는 37.04%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등급 반의어의 형태적 유표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등급 반의어 형태적 유표성의 정확도는 44.68%인데 이는 등급 반의어의 형태적 유표성을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이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도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Ⅲ-20> 등급 반의어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

측정 목표	문항 번호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 내용	정답	집단별 정확도(%)	
				CL(%)	KN(%)
등급 반의어의 형태적 유표성	28	마땅하다 (　)	못마땅하다 마땅찮다	37.04%	44.68%

<표Ⅲ-20>은 등급 반의어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인데 문항 28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도는 37.04%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확도는 44.68%이다. 이에 근거하여 사후 점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인터뷰 내용 및 등급 반의어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 분석 결과는 <표Ⅲ-2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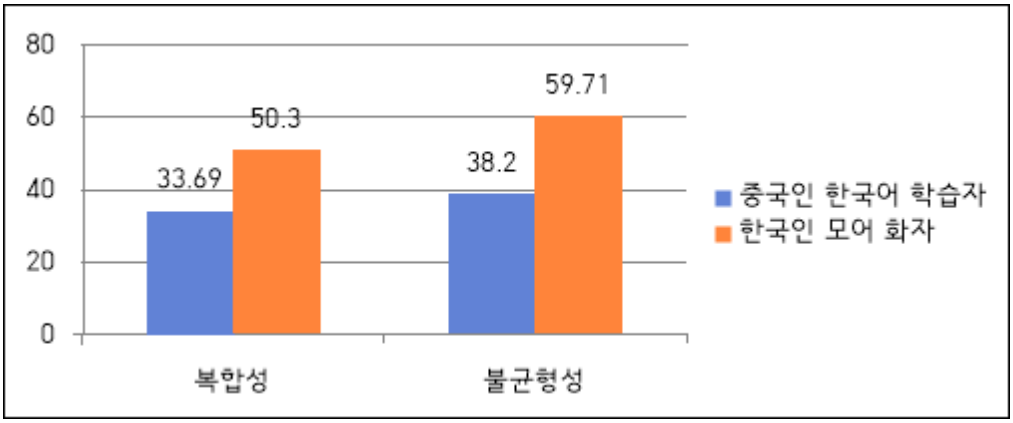
<표Ⅲ-21> 등급 반의어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 분석

문항 예시	28. 마땅하다 (　)

	A. 못마땅하다 B. 마땅찮다 C. 불마땅하다 D. 기타____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인터뷰 11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마땅찮다와 불마땅하다 둘 다 괜찮은 것 같다.
한국어 모어 화자 인터뷰 11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마땅찮다보다 못마땅하다를 더 많이 사용한다.

<표Ⅲ-2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답안을 선택한 이유가 '마땅찮다'와 '불마땅하다' 둘 다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중국어 '不滿意'의 영향을 받아 '불마땅하다'를 선택한 것이므로 중국어 등급 반의어의 직역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에는 답안을 선택한 이유가 '못마땅하다'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때 '흡족하게 마음에 들다'를 의미하는 '마땅하다'와 '마음에 들지 않아 좋지 않다'를 의미하는 '못마땅하다', '흡족하게 마음에 들지 아니하다'를 의미하는 '마땅찮다'는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고 'X↔Y+X'형 형태적 유표성일 경우 'X'인 '마땅하다'는 무표항이고 'Y+X'인 '못마땅하다'는 유표항이며 'X↔X+Y'형 형태적 유표성일 경우 'X'인 '마땅하다'는 무표항이고 'X+Y'인 '마땅찮다'는 유표항이다. 따라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에는 등급 반의어의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2.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관계 반의어 사용 양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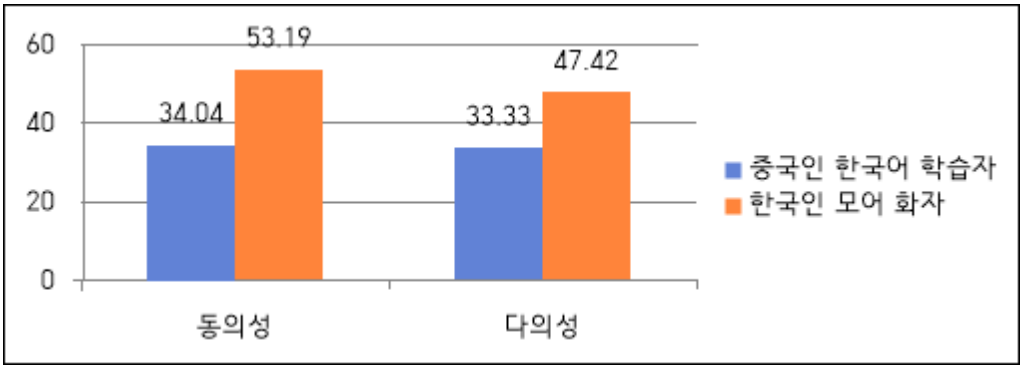


[그림Ⅲ-7] 관계 반의어 복합성, 불균형성의 집단별 정확도

[그림Ⅲ-7]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관계 반의어 복합성과 불균형성의 집단별 정확도인데 [그림Ⅲ-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관계 반의어 복합성의 정확도는 33.69%밖에 되지 않고 불균형성의 정확도는 이보다 조금 높은 38.02%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관계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비교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계 반의어의 불균형성보다 복합성의 사용을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에는 관계 반의어 복합성의 정확도는 50.3%이고 불균형성의 정확도는 59.71%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관계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은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도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후 점검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관계 반의어 정확도가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해 낮은 원인은 주로 중국어 관계 반의어의 간섭과 한국어 관계 반의어의 복잡성에서 기인한 차이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밖에 한국어 관계 반의어의 교육 부재 및 학습자 요인에서 기인한 차이도 정확도가

높지 못한 것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관계 반의어의 경우에는 동의성, 다의성, 형태적 유표성, 의미적 유표성, 어휘적 빈자리 등 복잡한 특성 때문에 한국어 모어 화자들도 판단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3.1. 관계 반의어 복합성의 사용 양상 분석



[그림Ⅲ-8] 관계 반의어 복합성의 집단별 정확도

[그림Ⅲ-8]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관계 반의어 복합성의 집단별 정확도인데 [그림Ⅲ-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관계 반의어 동의성의 정확도는 34.04%밖에 되지 않고 다의성의 정확도는 이와 비슷한 33.33%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관계 반의어의 동의성과 다의성을 이해하는 데 비교적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계 반의어의 동의성과 다의성의 사용을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에는 관계 반의어 동의성의 정확도는 53.19%이고 다의성의 정확도는 47.42%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 반의어의 동의성과 다의성을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이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도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Ⅲ-22> 관계 반의어 복합성 중 동의성의 사용 양상

측정 목표	문항 번호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 내용	정답	집단별 정확도(%)	
				CL(%)	KN(%)
관계 반의어의 동의성	65	안개가 걷히다. (　)	서리다 끼다	40.74%	46.81%
	66	우리는 사 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이다. (　)	핵가족 소가족	37.04%	57.45%
	67	시간이 없어서 다리미로 젖은 옷을 말렸다. (　)	축이다 적시다	33.33%	40.43%
	68	토지를 매입하다. (　)	매각하다 매출하다	32.10%	78.72%
	69	파견 근무를 마치고 다시 본사로 들어오라는 연락이 왔다. (　)	지사 분사	37.04%	61.70%
	70	그는 자물쇠로 책상 서랍을 잠갔다. (　)	끄르다 열다	30.86%	44.68%
	71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　)	모이다 꼬이다	27.16%	42.55%

<표Ⅲ-22>는 관계 반의어 복합성 중 동의성의 사용 양상인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문항 71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확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문항 67이다. 문항 71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도는 27.16%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확도는 42.55%이며 문항 67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도는 33.33%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확도는 40.43%이다. 이에 근거하여 사후 점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인터뷰 내용 및 관계 반의어 복합성 중 동의성의 사용 양상 분석 결과는 <표Ⅲ-23>과 같다.

<표Ⅲ-23> 관계 반의어 복합성 중 동의성의 사용 양상 분석

문항 예시	71.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　　) A. 꼬이다　B. 모이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_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인터뷰 12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선생님께서 모이다만 가르쳐주셨다.
한국어 모어 화자 인터뷰 12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사람들이 흩어지다의 반대는 사람들이 모이다. 흩어지다와 모이다는 다른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데, 꼬이다는 파리가 꼬이다 같이 부정적인 느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의어라고 하기 어려움.
문항 예시	67. 간이 없어서 다리미로 젖은 옷을 말렸다. (　　) A. 축이다　B. 적시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_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인터뷰 13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물로 물건을 축축하게 만드는 적시다가 답안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 인터뷰 13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옷을 말리다의 반대는 옷을 적시다. 축이다는 목을 축이다와 같이 사람에 쓰인다.

<표Ⅲ-2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답안을 선택한 이유가 '모이다'만 배운 것과 '적시다' 밖에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교사가 관계 반의어의 교육 내용 제시 부족과 관계 반의어의 복합성 중 동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에는 답안을 선택한 이유가 '꼬이다'와 '축이다'의 용법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때 '여러 사람이 한곳에 오게 되거나 한 단체에 들게 되다'를 의미하는 '모이다'와 '사람이 한곳에 많이 모이다'를 의미하는 '꼬이다'는 상대적 동의 관계이고 '물 따위의 액체를 묻혀 젖게 하다'를 의미하는 '적시다'와 '물 따위에 적시어 축축하게 하다'를 의미하는 '축이다'도 상대적 동의 관계이다. 이들은 각각 '흩어지다', '말리다'와 반의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에 관계 반의어의 복합성 중 동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Ⅲ-24> 관계 반의어 복합성 중 다의성의 사용 양상

측정 목표	문항 번호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 내용	정답	집단별 정확도(%)	
				CL(%)	KN(%)
관계 반의어의 다의성	87	감추다 (　)	들추다 나타내다	40.74%	53.19%
	88	당기다 (　)	밀다 물리다	34.57%	46.81%
	89	맺다 (　)	끊다 끄르다	18.52%	27.66%
	90	미루다 (　)	앞당기다 맡다	24.69%	34.04%
	91	빠뜨리다 (　)	챙기다 건지다	37.04%	57.45%
	92	솟다 (　)	가라앉다 꺼지다	40.74%	55.32%
	93	풀어지다 (　)	맺히다 굳어지다	37.04%	57.45%

<표Ⅲ-24>는 관계 반의어 복합성 중 다의성의 사용 양상인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문항 89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확도가 가장 낮은 문항도 문항 89이다. 문항 89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도는 18.52%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확도는 27.66%이다. 이에 근거하여 사후 점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인터뷰 내용 및 관계 반의어 복합성 중 다의성의 사용 양상 분석 결과는 <표Ⅲ-2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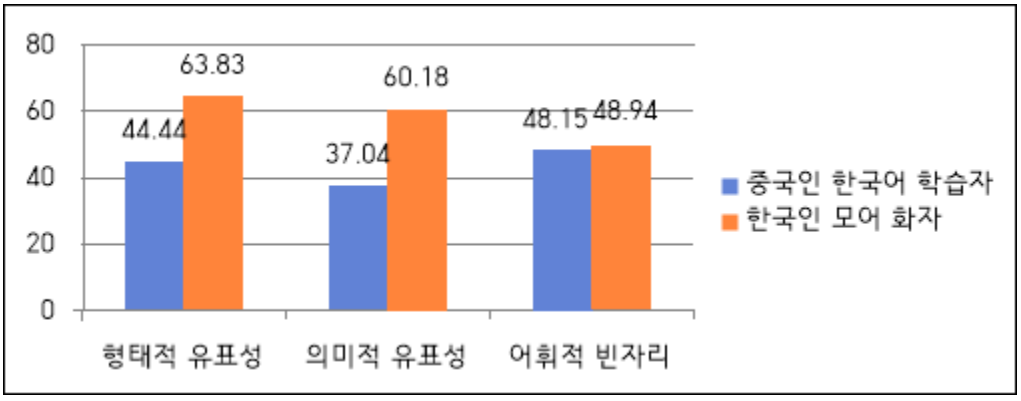
<표Ⅲ-25> 관계 반의어 복합성 중 다의성의 사용 양상 분석

문항 예시	89. 맺다 (　) A. 끊다　B. 끄르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인터뷰 14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맺은 것이나 맨 것을 풀다를 뜻하는 끄르다가 정답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 인터뷰 14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인연을 맺다-끊다. 끄르다는 무슨 뜻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른들이 많이 쓰는 말인 것 같고, 끄르다의 반대는 아마 '묶다'인 것 같다.

<표Ⅲ-2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답안을 선택한 이유가 '끄르다'의 의미밖에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관계 반의어의 복합성 중 다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에는 '끄르다' 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맺다'는 사전적 의미 중 '관계나 인연 따위를 이루거나 만들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관계를 이어지지 않게 하다'를 의미하는 '끊다'와 반의어를 형성하고, '끄나풀, 실, 노끈 따위를 얽어 매듭을 만들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맺은 것이나 맨 것을 풀다'를 의미하는 '끄르다'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따라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에는 관계 반의어의 복합성 중 다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3.2. 관계 반의어 불균형성의 사용 양상 분석



[그림Ⅲ-9] 관계 반의어 불균형성의 집단별 정확도

[그림Ⅲ-9]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관계 반의어 불균형성의 집단별 정확도인데 [그림Ⅲ-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관계 반의어 형태적 유표성의 정확도는 44.44%밖에 되지 않고 의미적 유표성의 정확도는 이보다 더 낮은 37.04%밖에 되지 않으며 어휘적 빈자리의 정확도는 이와 높은 48.15%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관계 반의어의 형태적 유표성, 의미적 유표성과 어휘적 빈자리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계 반의어의 형태적 유표성, 어휘적 빈자리보다 의미적 유표성의 사용을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관계 반의어 형태적 유표성의 정확도는 63.83%이고 의미적 유표성의 정확도는 60.18%이며 어휘적 빈자리의 정확도는 48.94%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 반의어의 형태적 유표성, 의미적 유표성 및 어휘적 빈자리를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이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도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Ⅲ-26> 관계 반의어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

측정 목표	문항	선다형 문법성	정답	집단별 정확도(%)

	번호	판단 테스트 내용		CL(%)	KN(%)
관계 반의어의 형태적 유표성	29	대접하다 (　　)	부대접하다 푸대접하다	44.44%	63.83%

<표Ⅲ-26>은 관계 반의어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인데 문항 29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도는 44.44%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확도는 63.83%이다. 이에 근거하여 사후 점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인터뷰 내용 및 관계 반의어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 분석 결과는 <표Ⅲ-27>과 같다.

<표Ⅲ-27> 관계 반의어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 분석

문항 예시	29. 대접하다 (　　) **A. 부대접하다　B. 푸대접하다**　C. 비대접하다　D. 기타____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인터뷰 15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중국어에는 '不待见'이라는 말이 있어서 답안이 부대접하다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 인터뷰 15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A, C는 없는 말이므로 푸대접하다가 답안이다.

<표Ⅲ-2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답안을 선택한 이유가 중국어에는 '不待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한국어에는 '부대접하다'뿐만 아닌 '푸대접하다'도 있으므로 이는 중국어 반의어의 직역과 관계 반의어의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답안을 선택한 이유가 '부대접하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한국어에서 '음식을 차려 접대하다'를 의미하는 '대접하다'가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대접을 하다'를 의미하는 '부대접하다', '정성을 들이

지 않고 아무렇게나 대접을 하다'를 의미하는 '푸대접하다'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따라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에는 관계 반의어의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Ⅲ-28> 관계 반의어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

측정 목표	문항 번호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 내용	정답	집단별 정확도(%)	
				CL(%)	KN(%)
관계 반의어의 의미적 유표성	42	급상승 ( )	급강하	23.46%	25.53%
	43	도매 ( )	소매 산매	50.62%	53.19%
	44	등교 ( )	하교 퇴교	19.75%	42.55%
	45	먼바다 ( )	앞바다 근해	39.51%	63.83%
	46	상승세 ( )	내림세 하락세	43.21%	55.32%
	47	외래 ( )	재래	24.69%	25.53%
	48	우월감 ( )	열등감	37.04%	100%
	49	웃돌다 ( )	밑돌다	61.73%	95.74%
	50	입대 ( )	제대	41.98%	97.87%
	51	저승 ( )	이승	66.67%	100%
	52	정면 ( )	후면 배면	19.75%	59.57%
	53	첨가 ( )	삭제	32.10%	4.26%
	54	탈모 ( )	발모	45.68%	82.98%
	55	후진국 ( )	선진국 전진국	12.35%	36.17%

<표Ⅲ-28>은 관계 반의어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인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문항 55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확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문항 47이다. 문항 55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도는 12.35%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확도는 36.17%이며 문항 47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도는 24.69%이며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확도는 25.53%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여 사후 점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인터뷰 내용 및 관계 반의어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 분석 결과는 <표Ⅲ-29>와 같다.

<표Ⅲ-29> 관계 반의어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의 사용 양상 분석

문항 예시	55. 후진국 (　　) **A. 전진국**　B. 발달국　**C. 선진국**　D. 기타_____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인터뷰 16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중국어 發達國와 비슷한 발달국이 답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 인터뷰 16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A, B는 없는 말임. 선진국의 반대로 좀 부드러운 표현인 개발도상국도 됨. 그래도 완전 반의어 관계는 후진국과 선진국이다.
문항 예시	47. 외래 (　　) A. 내래　**B. 재래**　C. 고유　D. 기타_____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인터뷰 17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외래어'와 대응하는 단어는 '고유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 인터뷰 17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외래어의 반대말이 고유어, 외래식물의 반대말이 고유식물이라 알고 있다.

<표Ⅲ-2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답안을 선택한 이유가 중국어 '發達國'와 비슷하고 '외래어'와 대응하는 단어는 '고유어'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국어에서 '후진국'의 반의어는 '전진국', '선진국'이지만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중국식 표현 '發達國家'와 '發展中國家'로 '전진국', '선진국'과 '후진국'을 표현하고 외래어와 고유어를 통해 추

측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중국식 표현과 학습 전략과 의사소통 전략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전진국'은 없는 말이며 '외래식물'의 반의어가 '고유식물'이기 때문에 답안을 선택하였다고 답하였다. 한국어에서 '산업, 경제, 문화 따위의 발전 수준이 기준보다 뒤떨어진 나라'를 의미하는 '후진국'과 '다른 나라보다 정치・경제・문화 따위의 발달이 앞선 나라'를 의미하는 '선진국', '전진국'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고 '외래'의 반의어는 '예전부터 있어 전하여 내려옴'을 의미하는 '재래'이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어 모어 화자는 관계 반의어의 복합성 중 동의성과 관계 반의어의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Ⅲ-30> 관계 반의어 불균형성 중 어휘 공백에 의한 어휘적 빈자리의 사용 양상

측정 목표	문항 번호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 내용	정답	집단별 정확도(%)	
				CL(%)	KN(%)
관계 반의어의 어휘적 빈자리	57	맏형 (　　)	작은형	48.15%	48.94%

<표Ⅲ-30>은 관계 반의어 불균형성 중 어휘 공백에 의한 어휘적 빈자리의 사용 양상인데 문항 57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도는 48.15%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확도는 48.94%이다. 이에 근거하여 사후 점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인터뷰 내용 및 관계 반의어 불균형성 중 어휘 공백에 의한 어휘적 빈자리의 사용 양상 분석 결과는 <표Ⅲ-31>과 같다.

<표Ⅲ-31> 관계 반의어 불균형성 중 어휘 공백에 의한 어휘적 빈자리의 사용 양상 분석

문항 예시	57. 맏형 (　　)

	A. 막형 B. 큰형 **C. 작은형** D. 기타_____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인터뷰 18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막내'중에 '막'이라는 접두사 바로 '작다'의 뜻이고 막형과 작은 형은 다 제일 어린 형의 뜻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 인터뷰 18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맏형(첫째)의 반대는 가장 어린 막내. 형이 2명만 있으란 법은 없기 때문에 C를 반의어로 보기 어렵다. A는 없는 말이고, B는 맏형의 유의어이다.

<표Ⅲ-3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답안을 선택한 이유가 '막형'과 '작은 형'은 모두 가장 어린 형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국어에는 '막형'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고 '작은형'은 '둘 이상의 형 가운데 맏형이 아닌 형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을 의미한다. '둘 이상의 형 가운데 맏이인 형을 이르는 말'을 의미하는 '맏형'과 반의어를 형성하고 중국어에는 '둘 이상의 형 가운데 맏형이 아닌 형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을 의미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습자의 위와 같은 답변의 양상은 관계 반의어의 불균형성 중 어휘적 빈자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답안을 선택한 이유가 '맏형'의 반의어는 '막내'기 때문에 '작은형'과 반의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맏형'과 '작은형', '맏이'와 '막내'를 혼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관계 반의어의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의어 사용 양상 차이의 원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의어 유형과 특성의 사용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용 양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중국어 반의어의 간섭에서 기인한 차이, 한국어 반의어의 복합성, 불균형성 등 복잡성에서 기인한 차이,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부재에서 기인한 차이, 학습자 요인에서 기인한 차이 네 가지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1. 중국어 반의어의 간섭에서 기인한 차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모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를 혼동하여 쉽게 부정적 전이가 발생한다. 중국어 반의어의 간섭에서 기인한 차이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중국어 반의어의 형태적 간섭에서 기인한 차이이다. 한국어 '무생물'과 중국어 '非生物'이 바로 그 예시인데 한국어에서 '생물'의 반의어는 '무생물'이지만 중국어에서 '生物'의 반의어는 표현 형태가 다른 '非生物'이다.

둘째, 중국어 반의어의 의미적 간섭에서 기인한 차이이다. 한국어 '식상하다'와 중국어 '食傷'이 바로 그 예시인데 한국어에서 '일이나 사물이 되풀이되어 질린 상태이다'를 의미하는 '식상하다'의 반의어는 '신선하다'이지만 중국어에서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아니하고 배 속에 답답하게 처져 있다'를 의미하는 '食傷'은 의미 범위가 달라 '신선하다'와 반의어를 형성할 수 없다.

셋째, 중국어 반의어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기인한 차이이다. 한국어 '열등감'과 중국어 '自卑感'이 바로 그 예시인데 한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 하에서 '우월감'의 반의어는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

는 감정'을 의미하는 '열등감'으로 표현되지만 중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 하에서 '優越感'의 반의어는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을 의미하는 '自卑感'으로 표현되어 쓰임이 서로 다르다.

넷째, 중국어 반의어의 직역에서 기인한 차이이다. 중국어 '男人'이 바로 그 예시인데 한국어에서 '여인'의 반의어는 '남성', '남자'이지만 중국어에서 '女人'의 반의어는 '男人', '男性', '男子'이므로 '男人'을 직역하여 '여인'의 반의어인 '남인'으로 표현하는데 한국어에서 '남인'은 '조선 시대에, 사색당파의 하나. 선조 때에 동인에서 갈라진 당파로, 이산해를 중심으로 한 북인에 대하여 유성룡, 우성전을 중심으로 한 파를 이른다'를 의미한다.

다섯째, 중국식 표현에서 기인한 차이이다. 한국어 '선진국', '전진국'과 중국어 '發達國家'가 바로 그 예시인데 한국어에서 '후진국'의 반의어는 '전진국', '선진국'이지만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중국식 표현 '發達國家'와 '發展中國家'으로 '전진국', '선진국'과 '후진국'을 표현한다.

3.2. 한국어 반의어의 복합성, 불균형성 등 복잡성에서 기인한 차이

한국어 반의어의 특성, 즉 복합성과 불균형성은 한국어 모어 화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반의어에 관한 제한된 지식으로 세운 가설을 바탕으로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많은 오류가 나타난다. 한국어 반의어의 복합성, 불균형성 등 복잡성에서 기인한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어 반의어의 복합성 중 동의성에서 기인한 차이이다. 한국어 '목돈'과 '거금'이 바로 그 예시인데 한국어에서 '한몫이 될 만한, 비교적 많은 돈'

을 의미하는 '목돈'과 '많은 돈'을 의미하는 '거금'은 상대적 동의 관계이므로 '많지 아니한 몇 푼의 돈'을 의미하는 '푼돈'과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지만 중국어에는 '목돈'이란 표현은 존재하지 않고 '많은 돈'을 의미하는 '巨款'만 제시되어 '많지 아니한 몇 푼의 돈'을 의미하는 '小錢'과 반의어를 형성한다.

둘째, 한국어 반의어의 복합성 중 다의성에서 기인한 차이이다. 한국어 '구세대'와 '기성세대'가 바로 그 예시인데 한국어에서 '새로운 세대, 흔히 20대 이하의 젊은 세대를 이른다'를 의미하는 '신세대'는 '이전의 세대. 또는 나이 든 낡은 세대'를 의미하는 '구세대'와 반의어를 형성하고, '기성의 관습에 반발하여 새로운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개성이 뚜렷하며 자기중심적 사고 및 주장이 강한 세대'를 의미하는 '신세대'는 '현재 사회를 이끌어 가는 나이가 든 세대'를 의미하는 '기성세대'와 반의어를 형성하지만 중국어에는 '기성세대'란 표현은 존재하지 않고 '기성의 관습에 반발하여 새로운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개성이 뚜렷하며 자기중심적 사고 및 주장이 강한 세대'를 의미하는 '신세대'도 제시되지 않으며 '이전의 세대. 또는 나이 든 낡은 세대'를 의미하는 '舊時代'만 제시되어 '새로운 세대, 흔히 20대 이하의 젊은 세대를 이른다'를 의미하는 '新時代'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셋째, 한국어 반의어의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에서 기인한 차이이다. 한국어 '부대접하다'와 '푸대접하다'가 바로 그 예시인데 한국어에서 '대접하다'의 반의어는 '부대접하다', '푸대접하다'이지만 중국어에서 '接待'의 반의어는 형태적 유표성이 다른 '不接待', '非接待', '未接待'이다.

넷째, 한국어 반의어의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서 기인한 차이이다. 한국어 '재래'가 바로 그 예시인데 한국어에서 '외래'의 반의어는 '예전부터 있어 전하여 내려옴'을 의미하는 '재래'이지만 중국어에서 '外來'의 반의어는 의미

적 유표성이 다른 '예전부터 있어 전하여 내려옴'을 의미하는 '固有'이다.

다섯째, 한국어 반의어의 불균형성 중 어휘적 빈자리에서 기인한 차이이다. 한국어 '작은형'이 바로 그 예시인데 한국어에서 '둘 이상의 형 가운데 맏이인 형을 이르는 말'을 의미하는 '맏형'의 반의어는 '둘 이상의 형 가운데 맏형이 아닌 형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을 의미하는 '작은형'이지만 중국어에서는 '둘 이상의 형 가운데 맏형이 아닌 형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을 의미하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고 '둘 이상의 형 가운데 맏이인 형을 이르는 말'을 의미하는 '大兄'만 나타난다.

3.3.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부재에서 기인한 차이

앞서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반의어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반의어 교육 내용에 관한 제시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부재에서 기인한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교사가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내용 제시 부족에서 기인한 차이이다. 한국어 '꼬이다'와 '흩어지다'가 바로 그 예시인데 '사람이 한곳에 많이 모이다'를 의미하는 '꼬이다'는 '한데 모였던 것이 따로따로 떨어지거나 사방으로 퍼지다'를 의미하는 '흩어지다'와 반의어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꼬이다'와 '흩어지다'가 반의어라는 것이 교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 자료에서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내용 제시 부족에서 기인한 차이이다. 한국어 '축이다'와 '말리다'가 바로 그 예시인데 '물 따위에 적시어 축축

하게 하다'를 의미하는 '축이다'는 '물기를 다 날려서 없애다'를 의미하는 한국어 '말리다'와 반의어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축이다'와 '말리다'가 반의어라는 것이 교육 자료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학습자 요인에서 기인한 차이

앞서 한국어 반의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반의어에 관한 학습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 요인에서 기인한 차이는 아래와 같은 경우로 세분화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의 내적 원인, 즉 학습 동기 및 노력 부족에서 기인한 차이이다. 한국어 '개강'과 '종강'이 바로 그 예시인데 한국어에서 '강의나 강습 따위를 시작함'을 의미하는 '개강'의 반의어는 '한 학기의 강의가 끝나거나 강의를 끝마침. 또는 한 학기의 마지막 강의'를 의미하는 '종강'이지만 중국어에는 '종강'이라는 표현이 제시되지 않고 '한 학기의 강의가 끝나거나 강의를 끝마침. 또는 한 학기의 마지막 강의'를 의미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강의나 강습 따위를 시작함'을 의미하는 '開講'만 제시되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반의어 '개강'과 '종강'을 학습해야 하는 목적, 원인,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반의어를 학습하지 않았다.

둘째, 학습 전략과 의사소통 전략, 즉 추측 전략, 풀어쓰기 전략 및 신조어 전략에서 기인한 차이이다. 한국어 '붇다'와 '불어나다'가 바로 그 예시인데 한국어에서 '수량 따위가 본디보다 커지거나 많아지다'를 의미하는 '불어나다'와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를 의미하는 '붇다'는 상대적 동의 관계이므로 '줄어들다'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지만 중국어에는 '붇다', '불어나다'라는 표현이 제시되지 않고 '增多', '增加'가 '減少'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반의어 '붇다', '불어나다'와 '줄어들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추측 전략을 사용하여 반의어를 판단하였다.

셋째, 학습 방법에서 기인한 차이이다. 한국어 '정열적'과 '미온적'이 바로 그 예시인데 한국어에서 '정열적'의 반의어는 '태도가 미적지근한 것'을 의미하는 '미온적'이지만 중국어에서 '미온적'이라는 표현이 제시되지 않고 '태도가 미적지근한 것'을 의미하는 '冷淡'이 '情熱'과 반의어를 형성한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어 반의어와 차이가 있는 한국어 반의어 '정열적'과 '미온적'에 관한 구체적인 학습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반의어를 학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의어 사용 양상이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정리하면 <표Ⅲ-32>와 같다.

<표Ⅲ-3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의어 사용 양상 차이의 원인

중국어 반의어의 간섭에서 기인한 차이	중국어 반의어의 형태적 간섭에서 기인한 차이
	중국어 반의어의 의미적 간섭에서 기인한 차이
	중국어 반의어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기인한 차이
	중국어 반의어의 직역에서 기인한 차이
	중국식 표현에서 기인한 차이
한국어 반의어의 복합성, 불균형성 등 복잡성에서 기인한 차이	한국어 반의어의 복합성 중 동의성에서 기인한 차이
	한국어 반의어의 복합성 중 다의성에서 기인한 차이
	한국어 반의어의 불균형성 중 형태적 유표성에서 기인한 차이
	한국어 반의어의 불균형성 중 의미적 유표성에서 기인한 차이
	한국어 반의어의 불균형성 중 어휘적 빈자리에서 기인한 차이
한국어 반의어의	교사가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내용 제시 부족에서 기인한 차이

교육 부재에서 기인한 차이	교육 자료에서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내용 제시 부족에서 기인한 차이
학습자 요인에서 기인한 차이	학습자의 내적 원인, 즉 학습 동기 및 노력 부족에서 기인한 차이
	학습 전략과 의사소통 전략, 즉 추측 전략, 풀어쓰기 전략 및 신조어 전략에서 기인한 차이
	학습 방법에서 기인한 차이

Ⅳ.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의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

신승용 외(2011: 56)에 따르면 오류 분석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공부할 때 무엇을 배우는지를 밝히는 이론적인 목표이고 또 하나는 학습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방법을 밝히는 교육적인 목표이다. 다시 말해 오류 분석은 교육 내용의 고안과 교육 방안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Ⅱ장의 언어학적 이론 전제와 Ⅲ장의 반의어 사용 양상 차이의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목표와 내용을 고안하고 교수·학습 방안을 구축하고자 한다.

1. 한국어 반의어의 교수·학습 목표

민현식(2008: 279)에 따르면 언어 교육과정에서의 목적은 교육과정에 대한 철학과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개괄적, 일반적 수준을 명시하는 추상적, 장기적 도달점을 제시하는 한편, 목표는 목적을 구체화하여 구체적, 계량적, 명시적 도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교수·학습의 목적이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면 교수·학습의 목표는 구체적인 행동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행동 중심의 목표일수록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유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본관(2011: 36)에서는 어휘 교육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어휘 능력, 어휘 사용 능력, 어휘력 등으로 지칭되는 어휘와 관련된 능력의 신장이라고 언급하였고

어휘에 대한 질적·양적인 지식, 이해와 표현 양 측면에서의 어휘 활용 능력, 어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 함양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Ⅲ장의 분석을 통해 중국인 고급 학습자는 한국어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사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가 한국어 상보 반의어, 등급 반의어, 관계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중국어 반의어와 차이가 있는 한국어 반의어를 정확하게 사용함으로써 어휘력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의 교수·학습 목표를 <표Ⅳ-1>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표Ⅳ-1>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의 교수·학습 목적과 목표

목적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상보 반의어, 등급 반의어, 관계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중국어 반의어와 차이가 있는 한국어 반의어를 정확하게 사용함으로써 어휘력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까지 향상시킨다.
목표	첫째, 한국어 상보 반의어, 등급 반의어, 관계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파악한다. 둘째,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을 이해한다. 셋째, 중국어 반의어와 차이가 있는 한국어 반의어를 제시한다. 넷째, 중국어 반의어의 간섭에서 기인한 차이, 한국어 반의어의 복합성, 불균형성 등 복잡성에서 기인한 차이,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부재에서 기인한 차이, 학습자 요인에서 기인한 차이를 줄인다.

2.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내용

본 연구에서는 Ⅱ장에서 제시한 한국어 세 가지 유형의 반의어의 특징,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 및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대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내용을 설계하고자 한다. 먼저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중심으로 반의어의 유형에 따라 상보 반의어의 교육 내용, 등급 반의어의 교육 내용, 관계 반의어의 교육 내용을 제시한 다음 반의어 유형 차이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상보 반의어의 교육 내용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상보 반의어 목록(44쌍)에 근거하여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상보 반의어의 교육 내용을 <표Ⅳ-2>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Ⅳ-2>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상보 반의어의 교육 내용

상보 반의어	개념	상보 반의어는 반의 관계에 있는 어떤 개념적 영역을 상호 배타적인 두 부분으로 철저히 양분하는 반의어를 말한다. 곧 반의 관계의 두 구획에서 한 쪽에 속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쪽에 속해야 한다.
	특성	(1) 복합성 ① 동의성 돈↔목돈, 푼돈↔거금 小錢↔巨款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한몫이 될 만한, 비교적 많은 돈'을 의미하는 '목돈'과 '많은 돈'을 의미하는 '거금'은 상대적 동의 관계이므로 '많지 아니한 몇 푼의 돈'을 의미하는 한국어 '푼돈'은 '목돈', '거금'과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목돈'은 고유어로써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많은 돈'을 의미하는 '巨款'만 제시되어 '많지 아

니한 몇 푼의 돈'을 의미하는 '小錢'과 반의어를 형성한다.

푼돈↔목돈, 거금

② 다의성

개업↔폐업, 개업↔휴업, 개업↔정업

開業↔廢業, 開業↔休業, 開業↔停業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개업'의 사전적 의미 중 '영업을 하고 있음, 그날의 영업을 시작함'을 의미할 경우에는 '영업을 하지 않음, 그날의 영업을 끝냄'을 의미하는 '폐업', '사업이나 영업, 작업 따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루 또는 한동안 쉼'을 의미하는 '휴업', '업무나 영업 또는 생업을 정지함'을 의미하는 '정업'과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고, '영업을 처음 시작함'을 의미할 경우에는 '직업이나 영업을 그만둠'을 의미하는 '폐업'과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폐업(閉業)'은 비록 한자어이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직업이나 영업을 그만둠'을 의미하는 '廢業'만 제시되어 '영업을 처음 시작함'을 의미하는 '開業'과 반의어를 형성하고, '사업이나 영업, 작업 따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루 또는 한동안 쉼'을 의미하는 '休業', '업무나 영업 또는 생업을 정지함'을 의미하는 '停業'은 '영업을 하고 있음, 그날의 영업을 시작함'을 의미하는 '開業'과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개업↔폐업, 휴업, 정업	신세대↔기성세대, 구세대	익다↔설다, 서투르다

(2) 불균형성

① 형태적 유표성

공개적↔비공개적

公開↔非公開, 公開↔未公開, 公開↔不公開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터놓는 것'을 의미하는 '공개적'과 '남에게 알리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비공개적'은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X↔Y+X'형 형태적 유표성이고 그중 'X'인 '공개적'은 무표항이고 'Y+X'인 '비공개적'은 유표항이다. 하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남에게 알리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非公開'뿐만 아닌 '未公開'와 '不公開'까지 제시되어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터놓는 것'

		을 의미하는 '公開'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공개적↔비공개적	관심↔무관심	도덕적↔비도덕적
민주적↔반민주적, 비민주적	생물↔무생물	신자↔불신자, 비신자
위생적↔비위생적	이성적↔감성적, 감정적, 비이성적, 감상적	이익↔불이익, 손해
인도적↔비인도적	전문적↔비전문적, 일반적	정규↔비정규
정기적↔부정기적	정상↔비정상, 이상	정상적↔비정상적
제한↔무제한	조직적↔비조직적	참가↔불참, 불참가, 이탈
참석↔불참, 불참석	쾌감↔불쾌감	한정↔무한정
현실적↔비현실적, 이상적, 낭만적	협조↔비협조	확산↔미확산, 비확산, 수렴
효율적↔비효율적	효자↔효녀, 불효자	흡연자↔비흡연자

② 의미적 유표성

구어↔문어, 구어↔글말

口語↔書面語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글에서만 쓰는 특별한 말이 아닌,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을 의미하는 '구어'와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이 아닌, 주로 글에서 쓰는 말'을 의미하는 '문어', '글말'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의미적 유표성이고 그중 '구어'는 무표항이고 '문어', '글말'은 유표항이다. 하지만 '문어'는 비록 한자어이지만 중국어사전 漢典에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이 아닌, 주로 글에서 쓰는 말'의 의미로 제시되지 않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이 아닌, 주로 글에서 쓰는 말'을 의미하는 '書面語'가 제시되어 '글에서만 쓰는 특별한 말이 아닌,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을 의미하는 '口語'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구어↔문어, 글말	동거↔별거	부인↔시인, 인정
분담↔전담	불경기↔호경기	성수기↔비수기
악몽↔길몽	여인↔남성, 남자	완공하다↔기공하다
정열적↔미온적	필수↔선택	호황↔불황

③ 어휘적 빈자리

개강↔종강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강의나 강습 따위를 시작함'을 의미하는 '개강'

		과 '한 학기의 강의가 끝나거나 강의를 끝마침. 또는 한 학기의 마지막 강의'를 의미하는 '종강'은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종강'은 비록 한자어이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한 학기의 강의가 끝나거나 강의를 끝마침. 또는 한 학기의 마지막 강의'를 의미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강의나 강습 따위를 시작함'을 의미하는 '開講'만 제시되었다.
		개강↔종강

2.2. 등급 반의어의 교육 내용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등급 반의어 목록(19쌍)에 근거하여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등급 반의어의 교육 내용을 <표Ⅳ-3>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Ⅳ-3>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등급 반의어의 교육 내용

등급 반의어	개념	등급 반의어는 극과 극의 두 대립적 축을 상정하여 반의 관계를 이루는 두 어휘 사이에 등급의 정도가 존재할 수 있는 반의어를 말한다. 즉 두 어휘 사이에 중립 지역이 존재하므로 한쪽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다른 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특성	(1) 복합성 ① 동의성 딱딱하다↔말랑하다, 딱딱하다↔물렁하다, 딱딱하다↔부드럽다, 딱딱하다↔유연하다, 딱딱하다↔연하다, 딱딱하다↔무르다 堅硬↔柔和, 堅硬↔柔軟, 堅硬↔鬆軟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야들야들하게 보드랍고 무르다'를 의미하는 '말랑하다'와 '이들이들하게 부드럽고 무르다'를 의미하는 '물렁하다', '닿거나 스치는 느낌이 거칠거나 뻣뻣하지 아니하다'를 의미하는 '부드럽다', '부드럽고 연하다'를 의미하는 '유연하다', '재질이 무르고 부드럽다'를 의미하는 '연하다'와 '굳은 것이 물렁거리게 되다'를 의미하

<table>
<tr><td></td><td></td><td>는 '무르다'는 상대적 동의 관계이므로 '몹시 굳고 단단하다'을 의미하는 한국어 '딱딱하다'는 '말랑하다', '물렁하다', '부드럽다', '유연하다', '연하다', '무르다'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말랑하다', '물렁하다', '무르다'는 고유어로써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부드럽고 연하다'를 의미하는 '柔軟', '닿거나 스치는 느낌이 거칠거나 뻣뻣하지 아니하다'를 의미하는 '柔和', '재질이 무르고 부드럽다'를 의미하는 '鬆軟'만 제시되어 '몹시 굳고 단단하다'를 의미하는 '堅硬'과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table>
<tr><td>딱딱하다↔말랑하다, 물렁하다, 부드럽다, 유연하다, 연하다, 무르다</td><td>수월하다↔수월찮다, 어렵다</td><td>재빠르다↔굼뜨다, 느리다</td></tr>
<tr><td>좁히다↔넓히다, 벌리다</td><td>줄어들다↔늘어나다, 늘다, 붇다, 불어나다</td><td>칭찬하다↔헐뜯다, 비난하다</td></tr>
</table>
② 다의성
굵다↔가늘다, 굵다↔잘다
粗↔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굵다'의 사전적 의미 중 '물체의 지름이 보통의 경우를 넘어 길다, 소리의 울림이 크다, 사이가 넓고 성기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물체의 지름이 보통의 경우에 미치지 못하고 짧다, 소리의 울림이 보통에 미치지 못하고 약하다, 사이가 좁고 촘촘하다'를 의미하는 '가늘다'와 반의어를 형성하고, '밤, 대추, 알 따위가 보통의 것보다 부피가 크다, 생각, 행동 따위의 폭이 넓고 크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알곡이나 과일, 모래 따위의 둥근 물건이나 글씨 따위의 크기가 작다, 생각이나 성질이 대담하지 못하고 좀스럽다'를 의미하는 '잘다'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잘다'는 고유어로써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물체의 지름이 보통의 경우에 미치지 못하고 짧다, 소리의 울림이 보통에 미치지 못하고 약하다'를 의미하는 '細'만 제시되어 '물체의 지름이 보통의 경우를 넘어 길다, 소리의 울림이 크다'를 의미하는 '粗'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table>
<tr><td>굵다↔가늘다, 잘다</td><td>굵다랗다↔가느다랗</td><td>드물다↔수두룩하다, 흔</td></tr>
</table></td></tr>
</table>

			다, 잔다랗다	하다, 숱하다, 허다하다, 잦다
		선하다↔악하다, 희미하다	세련되다↔촌스럽다	시시하다↔중요하다, 재미있다, 흥미롭다
		식상하다↔신선하다	싸다↔비싸다, 뜨다	잦다↔드물다, 뜨다, 뜸하다
		특이하다↔예사롭다, 범상하다, 평범하다	헤프다↔알뜰하다, 마디다	흐리다↔맑다, 선명하다
		(2) 불균형성 ① 형태적 유표성 마땅하다↔못마땅하다, 마땅하다↔마땅찮다 滿意↔不滿意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흡족하게 마음에 들다'를 의미하는 '마땅하다'와 '마음에 들지 않아 좋지 않다'를 의미하는 '못마땅하다', '흡족하게 마음에 들지 아니하다'를 의미하는 '마땅찮다'는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X↔Y+X'형 형태적 유표성일 경우 'X'인 '마땅하다'는 무표항이고 'Y+X'인 '못마땅하다'는 유표항이며 'X↔X+Y'형 형태적 유표성일 경우 'X'인 '마땅하다'는 무표항이고 'X+Y'인 '마땅찮다'는 유표항이다. 하지만 '못마땅하다', '마땅찮다'는 고유어로써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흡족하게 마음에 들지 아니하다'를 의미하는 '不滿意'가 제시되어 '흡족하게 마음에 들다'를 의미하는 '滿意'와 반의어를 형성한다.		
		마땅하다↔못마땅하다, 마땅찮다		

2.3. 관계 반의어의 교육 내용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계 반의어 목록(30쌍)에 근거하여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계 반의어의 교육 내용을 <표Ⅳ-4>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Ⅳ-4>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계 반의어의 교육 내용

<table>
<tr><td rowspan="7">관계 반의어</td><td>개념</td><td colspan="3">관계 반의어는 두 어휘가 상대적 관계에 있고 의미상 대칭을 이루며 상호 의존적으로 대립되고 대립 쌍을 이루고 있는 어휘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반의어를 말한다.</td></tr>
<tr><td rowspan="6">특성</td><td colspan="3">(1) 복합성
① 동의성
대가족↔핵가족, 대가족↔소가족
大家庭↔小家庭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한 쌍의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하는 '소가족'과 '한 쌍의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하는 '핵가족'은 상대적 동의 관계이므로 '직계나 방계의 친족 및 노비 따위로 이루어진 가족. 가장권에 의하여 통제되며, 전근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가족 형태이다'를 의미하는 한국어 '대가족'은 '소가족', '핵가족'과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핵가족'은 비록 한자어이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한 쌍의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하는 '小家庭'만 제시되어 '직계나 방계의 친족 및 노비 따위로 이루어진 가족. 가장권에 의하여 통제되며, 전근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가족 형태이다'를 의미하는 '大家庭'과 반의어를 형성한다.</td></tr>
<tr><td>걷히다↔서리다, 끼다</td><td>대가족↔핵가족, 소가족</td><td>말리다↔적시다, 축이다</td></tr>
<tr><td>매입하다↔매각하다, 매출하다</td><td>본사↔분사, 지사</td><td>잠그다↔열다, 끄르다</td></tr>
<tr><td>흩어지다↔모이다, 뭉치다, 꼬이다, 집합하다</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② 다의성
감추다↔나타내다, 감추다↔들추다, 감추다↔드러내다,
감추다↔밝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감추다'의 사전적 의미 중 '어떤 사물이나 현상 따위가 없어지거나 사라지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보이지 아니하던 어떤 대상이 모습을 드러내다'를 의미하는 '나타내다'와 반의어를 형성하고 '남이 보거나 찾아내지 못하도록 가리거나 숨기다'를 의미할</td></tr>
</table>

<table>
<tr><td></td><td></td><td>경우에는 '무엇을 찾으려고 자꾸 뒤지다'를 의미하는 '들추다',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다'를 의미하는 '드러내다'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며 '어떤 사실이나 감정 따위를 남이 모르게 하다'를 의미할 경우에는 '숨은 일, 지난 일, 잊은 일 따위를 끄집어내어 드러나게 하다'를 의미하는 '들추다', '내면적인 심리 현상을 얼굴, 몸, 행동 따위로 드러내다'를 의미하는 '나타내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보이거나 밝히다'를 의미하는 '드러내다',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따위를 드러내 알리다'를 의미하는 '밝히다'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감추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들추다', '밝히다'는 고유어로써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td></tr>
<tr><td></td><td></td><td><table><tr><td>감추다↔나타내다, 들추다, 드러내다, 밝히다</td><td>당기다↔밀다, 미루다, 늦추다, 물리다</td><td>맺다↔풀다, 끊다, 끄르다</td></tr><tr><td>미루다↔앞당기다, 당기다, 지다, 맡다</td><td>빠뜨리다↔건지다, 챙기다</td><td>솟다↔가라앉다, 꺼지다</td></tr><tr><td>풀어지다↔맺히다, 굳어지다</td><td></td><td></td></tr></table></td></tr>
<tr><td></td><td></td><td>(2) 불균형성
① 형태적 유표성
대접하다↔부대접하다, 대접하다↔푸대접하다
接待↔不接待, 接待↔非接待, 接待↔未接待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음식을 차려 접대하다'를 의미하는 '대접하다'와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대접을 하다'를 의미하는 '부대접하다',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대접을 하다'를 의미하는 '푸대접하다'는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X↔Y+X'형 형태적 유표성이고 그중 'X'인 '대접하다'는 무표항이고 'Y+X'인 '푸대접하다', '부대접하다'는 유표항이다. 하지만 '푸대접하다'는 비록 한자어이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대접을 하다'를 의미하는 '不接待'뿐만 아닌 '非接待', '未接待'까지 제시되어 '음식을 차려 접대하다'를 의미하는 '接待'과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td></tr>
<tr><td></td><td></td><td>대접하다↔부대접하다, 대접하다↔푸대접하다</td></tr>
</table>

② 의미적 유표성

도매↔소매, 도매↔산매

批發↔零賣, 批發↔散售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물건을 낱개로 팔지 않고 모개로 팖'을 의미하는 '도매'와 '물건을 생산자나 도매상에게서 사들여 직접 소비자에게 팖'을 의미하는 '소매', '물건을 생산자나 도매상에서 사들여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을 의미하는 '산매'는 각각 반의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의미적 유표성이고 그중 '도매'는 무표항이고 '소매', '산매'는 유표항이다. 하지만 '도매'는 비록 한자어이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제시되지 않고 '물건을 생산자나 도매상에게서 사들여 직접 소비자에게 팖'을 의미하는 '零賣', '散售'가 제시되어 '물건을 낱개로 팔지 않고 모개로 팖'을 의미하는 '批發'와 각각 반의어를 형성한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물건을 생산자나 도매상에게서 사들여 직접 소비자에게 팖'을 의미하는 '소매'는 중국어 '小賣'와 의미가 다르고 '집이나 땅 따위를 아주 팔아 버림'을 의미하는 '영매'는 '물건을 생산자나 도매상에서 사들여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을 의미하는 중국어 '零賣'와 의미가 다르다.

급상승↔급강하	도매↔소매, 산매	등교↔하교, 퇴교
먼바다↔앞바다, 근해	상승세↔내림세, 하락세, 낙세	외래↔재래
우월감↔열등감	웃돌다↔밑돌다	입대↔제대
저승↔이승	정면↔배면, 후면, 뒷면	첨가↔삭제
탈모↔발모	후진국↔선진국, 전진국	

③ 어휘적 빈자리

맏형↔작은형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둘 이상의 형 가운데 맏이인 형을 이르는 말'을 의미하는 '맏형'과 '둘 이상의 형 가운데 맏형이 아닌 형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을 의미하는 '작은형'은 반의어를 형성한다. 하지만 중국어 사전 漢典에는 '둘 이상의 형 가운데 맏형이 아닌 형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을 의미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고 '둘 이상의 형 가운데 맏이인 형을 이르는 말'을 의미하는 '大兄'만 제시되었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둘 이상의 형 가운데 맏형이 아닌 형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을 의미하는 '작은형'은 중국어 '小兄'과 의미가 다르다.
		맏형↔작은형

2.4. 반의어 유형 차이의 교육 내용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한국어 반의어의 여러 가지 특징에 근거하여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유형 차이의 교육 내용을 <표Ⅳ-5>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Ⅳ-5>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유형 차이의 교육 내용

상보 반의어	유형	상보 반의어에는 순수 상보어와 정도 상보어가 있다.
	특징	(1) 순수 상보어 ① 순수 상보어는 한 어휘의 긍정과 다른 어휘의 부정 사이에 상호함의 관계가 성립된다. 즉 반의 관계인 두 어휘에서 한쪽의 긍정은 다른 쪽의 부정을 함의하고, 한쪽의 부정 또한 다른 쪽의 긍정을 함의한다. ② 순수 상보어는 반의 관계인 두 어휘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일어난다. ③ 순수 상보어는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고 비교 표현에도 사용할 수 없다. ④ 순수 상보어는 판단 대상과 관계없이 평가 기준이 항상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절대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2) 정도 상보어 ① 정도 상보어는 순수 상보어와 마찬가지로 한 어휘의 긍정과 다른 어휘의 부정 사이에 상호함의 관계가 성립된다. 즉 반의 관계인 두 어휘에서 한쪽의 긍정은 다른 쪽의 부정을 함의하고, 한쪽의 부정 또한 다른 쪽의 긍정을 함의한다. ② 정도 상보어는 순수 상보어와 마찬가지로 반의 관계인 두 어휘를 동시

		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일어난다. ③ 정도 상보어는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비교 표현에도 사용할 수 있다. ④ 정도 상보어는 순수 상보어와 모두 중립 지역을 갖지 않지만, 의미 영역을 분할하는 데 있어서 양의 차이가 있다. 즉 순수 상보어는 의미 영역을 똑같게 나누지만, 정도 상보어는 비대칭적이다.
등급 반의어	유형	등급 반의어에는 척도 반의어, 평가 반의어, 정감 반의어가 있다.
	특징	(1) 등급 반의어 ① 등급 반의어는 한 어휘의 긍정과 다른 어휘의 부정 사이에 일방 함의 관계가 성립된다. 즉 한쪽의 긍정은 다른 쪽의 부정을 함의하지만, 한쪽의 부정은 다른 쪽의 긍정을 함의하지 않는다. ② 등급 반의어는 대립 쌍의 양극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 지역이 존재한다. 하여 등급 반의어는 두 어휘를 동시에 부정해도 성립된다. ③ 등급 반의어는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비교 표현에도 사용할 수 있다. ④ 등급 반의어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양극을 지향할수록 대립의 강도가 강화된다. ⑤ 등급 반의어는 평가의 기준이 상대적이다. 즉 '무게, 속도, 길이' 등 가변적인 속성의 정도에 적용되는 기준은 대상이나 장면에 따라 다르다. ⑥ 등급 반의어는 두 어휘 가운데서 한 어휘가 더 기본적이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있다.
관계 반의어	유형	관계 반의어에는 역의어, 역행어, 대척어, 대응어가 있다.
	특징	(1) 관계 반의어 ① 반의 관계를 이루는 한 어휘가 포함된 문장의 진술은 상대 반의어를 포함한 문장의 진술과 서로 관련을 맺게 된다. ② 관계 반의어는 정도 부사로 수식하는 표현이나 비교 표현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다.

3. 한국어 반의어의 교수·학습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을 활용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의 필요성을 서술한 다음 발견, 제시, 생성 세 단계로 나누어 의식 고양 과제, 입력 처리, 의미 협상으로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3.1.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의 필요성

롱(Long, 1988, 1991)에서는 처음으로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Focus on Form; FonF)을 제시하였다. 하미령(2013: 11)에 따르면 이는 특정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한 언어 사용과 해당 문맥 내의 문법 형태에 대한 교수·학습을 결합하는 접근법이다. 즉,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은 언어 학습에서 언어 형태, 의미 기능에 모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유창성과 정확성을 모두 중시하는 교수법이다.[73]

도티와 윌리엄스(Doughty & Williams, 1998)에서는 의사소통을 방해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형태에 대한 집중이 미리 교수자에 의해 결정되어 선행적인지 그렇지 않고 후행적인지, 특정 문법 요소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 그렇지 않고 문법 전반인지에 따라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을 분류하였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14: 972)에서는 이를 <표Ⅳ-6>과 같이 정리하였다.

---

73) 한국어에서 'Focus on Form'에 대한 명칭이 다양한데 민찬규(2002: 70)에서는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을 '형태 초점 의사소통 접근 방법'이라고 하였고 민현식(2008: 270)에서는 '문법 기반 기능 통합 교수법'이라고 하였으며 김영규(2010: 235)에서는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이라고 하였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14: 971)에서는 '형태 초점 교수법'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이란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표Ⅳ-6>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의 유형

	의사소통에 방해 없음 ↔ 의사소통에 방해 있음						
입력 홍수	X						
과제 필수적 언어	X						
입력 강화		X					
의미 협상		X					
고쳐 말하기			X				
출력 강화			X				
상호작용 강화				X			
딕토글로스					X		
의식 고양 과제					X		
입력 처리						X	
정원 길 따라가기							X

윌리엄스와 에번스(Williams & Evans, 1988)에서는 처음으로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에 적합한 문법 항목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우형식(2012: 110)에서는 이를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학습자의 모국어와 애매하게 다른 것이다. 둘째, 불규칙적이면서 드물게 사용되어 현저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셋째,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넷째, 학습자들이 잘못 분석하거나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머(Harmer, 2007)에서는 처음으로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제시하였는데 성지연(2012: 24)에서는 이를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게임이나 노래 같은 활동에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폭넓은 인생 경험이 있다. 셋째, 성인 학습자들의 이전 과거 경험에 의해서 또는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습 과정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넷째, 성인은 지루하거나 어려운 내용을 학습할 때도 자기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섯째,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도 많다. 여섯째, 성인은 청소년보다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습 초기에 가졌던 동기를 잘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인 학습자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에서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 내용은 상보 반의어, 등급 반의어, 관계 반의어의 특성 즉,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중 불균형성은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형태가 다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형태 중심 교수법이 필요하며 복합성은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의미가 다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기에 의미 중심 교수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에서는 특정 의사소통 상황에 적절한 언어 사용과 해당 문맥 내의 문법 형태에 대한 교수·학습을 결합하고 언어 형태, 의미 기능에 모두 초점을 맞추어 유창성과 정확성을 모두 중시하는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이 필요하다.

둘째,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는 특성상 애매하게 다른 부분이 비교적 많고, 불규칙적이지만 현저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성공적인 의사소통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학습자들이 쉽게 오해하거나 틀리게 분석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어 반의어의 이러한 특성은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에 적합한 문법 항목의 선정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므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에서는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어 습득에서의 학습자 변인은 지적 능력, 태도, 성격, 학습 선호 성향, 학습 시작 연령 등을 말한다. 그중 연령 요소는 다른 학습자 변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장 큰 변수가 되는 요인이다. 성인 학습자들은 추론 능력이 더 우수하여 주어진 문법 정보를 통해서 문법 체계를 세우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지루하거나 어려운 내용을 학습할 때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통제력이 더 우수

하여 지적이고 학문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언어를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다. 현재 중국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학습자들은 대부분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기 때문에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을 활용한 체계적인 한국어 반의어 교육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수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의 한국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3.2.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의 적용

3.2.1. 발견 단계: 의식 고양 과제 적용

의식 고양 과제는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의 한 가지 유형으로서 소그룹 내에서 협동적으로 목표 언어 문장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하면서 언어의 규칙을 찾아내게 유도하는 접근 방법이다. 즉, 한 문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작용 활동으로 언어 형식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도티와 윌리엄스(Doughty & Williams, 1998)에서는 처음으로 의식 고양 과제의 특징을 제시하였는데 박혜경(2015: 128)에서는 이를 <표Ⅳ-7>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Ⅳ-7>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 중 의식 고양 과제의 특징

학습자의 관여	학습자의 집중	방법(연역적)	메타언어 사용	기능과의 통합	입출력		지식 제공	
					입력	출력	교사의 지식 제공	학습자의 지식 제공
+	+	±	+	-	+	-	+	+

<표Ⅳ-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의식 고양 과제는 목표 문법 항목에 대한 학

습자의 주의 집중과 관여를 중요시한다. 또한 메타언어의 사용이 가능하며 출력이 아닌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수행 능력이 아닌 이해 능력을 목표로 함을 보여주며 말하기, 읽기 등 기능과 통합하지 않고 문법 항목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의 발견 단계에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의 의식 고양 과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식 고양 과제는 여러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 중 명시적 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한국어 반의어는 중국어 반의어와 복합성과 불균형성의 차이가 현저하므로 암시적인 교수법만으로는 체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한국어 반의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에는 명시성이 강한 의식 고양 과제를 사용한다면 그 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의식 고양 과제는 독립적이지 않고 짝이나 소그룹 활동으로 진행된다. 교사가 주입식의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교수하는 것이 아닌 학습자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규칙을 발견하고 분석하며 소그룹 내에서 활동을 진행한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과제이다.

셋째, 의식 고양 과제는 수행 능력이 아닌 목표 문법 항목에 대한 이해 능력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의 발견 단계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의식 고양 과제를 통해 한국어 반의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식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식 고양 과제는 학습자가 언어 자료에서 한국어 반의어의 특성인 복합성과 불균형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학습자들이 한국어 반의어의 올바른 사용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오류를 범할 경우에도 자기 수정을 시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의식 고양 과제의 적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가 중국어 반의어와 차이가 있는 한국어 반의어 목록을 제시한다.

둘째. 교사가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차이에 대해 질문한다.

셋째, 학습자들이 교사의 질문에 근거하여 스스로 반의어를 쓰면서 규칙을 탐구한다.

넷째. 학습자들이 소그룹 내에서 답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규칙을 정리한다.

다섯째, 학습자들이 소그룹 별로 정리한 내용을 발표한다.

여섯째, 교사가 발표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3.2.2. 제시 단계: 입력 처리 적용

입력 처리는 학습자들이 입력으로부터 수용을 이끌어오는 과정 중에 어떤 자료는 처리가 되고, 어떤 자료는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밝히고 그 선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밝히는 접근 방법이다. 즉, 문법 규칙을 설명한 후 다양한 입력 훈련을 제시하는 것이다. 밴파턴(VanPatten, 2002)에서는 입력 처리의 특징을 제시하였는데 이원우(2010: 15)에서는 이를 <표Ⅳ-8>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Ⅳ-8>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 중 입력 처리의 특징

1. 학습자들은 언어 형태 혹은 문법 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2. 학습자들은 그들이 배우고 있는 목표 형태와 이해 과정에서 목표 형태 처리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처리 전략에 관한 명시적 정보를 제공받는다.

3. 학습자들로 하여금 입력의 목표 형태를 처리하고 형태·의미 연결을 하도록 하는 이해 연습(구조화된 입력 활동)을 제공받는다.
4. 학습자들은 구조화된 입력 활동을 하는 동안에 형태나 구조를 처리하도록 요구된다. 구조화된 입력 활동에서의 입력은 학습자들이 더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특정한 방법으로 다루고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다.

<표Ⅳ-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입력 처리는 입력이 처리되는 동안에 형태와 의미를 연결 짓도록 학습자를 도와주고 교사가 교수 단계에서 목표 문법 규칙을 발화하지 않으며 학습자들이 잘못된 처리 전략 구조를 바꾸는 구조화된 입력 활동을 통해 목표 형태에 주의를 기울여 입력을 처리하고 정확하게 습득하도록 촉진시키는 것이 그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에서 제시 단계에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 중 입력 처리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력 처리는 학습자들이 배우고 있는 목표 형태와 이해 과정에서 목표 형태 처리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처리 전략에 관해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한국어 반의어는 중국어 반의어와 복합성과 불균형성의 차이가 현저하므로 암시적인 교수법만으로는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한국어 반의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수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에 있어서는 명시성이 강한 입력 처리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입력 처리는 학습자들에게 입력의 목표 형태를 처리하고 형태·의미 연결을 하도록 하는 이해 연습, 즉 구조화된 입력 활동을 시킨다. 본 연구에서의 제시 단계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가르쳐 형태·의미를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입력 처리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 중 제시 단계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입력 처리의 적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가 중국어 반의어와 차이가 있는 한국어 반의어의 특성, 즉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설명한다.

둘째. 학습자들이 교사가 설명한 내용에 근거하여 형태와 의미를 연결하여 정확하게 입력 처리한다.

셋째. 교사가 지시적 활동을 시켜 반의어를 정확하게 적도록 요구한다.

넷째, 교사가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반의어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하며 언어 처리 과정을 어떻게 수정해 나가야 하는지를 명시적으로 지적한다.

3.2.3. 생성 단계: 의미 협상 적용

의미 협상은 출력 표현에 대해 동료에게 피드백을 하여 의미 협상 과정으로 터득하는 접근 방법이다. 학습자가 상대방과 의사소통 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의미를 협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언어 형태까지 협상한다. 즉, 언어 형식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의미 협상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언어 자질을 알게 하는 것이다. 스미스(Smith, 2003)에서는 의미 협상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한정희(2017: 5)와 장미정(2010: 8)에서는 이를 <표Ⅳ-9>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Ⅳ-9>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 중 의미 협상 모델

촉발 단계	해결 단계
촉발	신호 → 응답 → 응답에 대한 반응
촉발어: 청자에게	신호어: 청자가 화자의 발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알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화자의 발화.	리는 신호.
	반응어: 이해되지 않은 입력에 대해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자가 조정한 발화.
	역반응어: 청자가 조정된 발화를 듣고 난 후의 반응으로 이해 정도를 표현한 발화.

<표Ⅳ-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의미 협상의 촉발 단계에서는 의사소통 장애를 일으키는 촉발어가 작용을 일으키고 해결 단계에서는 장애를 해결한다. 발화된 신호어, 반응어, 역반응어가 작용을 일으키는데 촉발어에 신호어가 따라오지 않으면 의미 협상은 일어나지 않으며 반응어는 의사소통 장애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후에 역반응어는 경우에 따라 나타날 수 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에서 생성 단계에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 중 의미 협상을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차례 의미 협상에서 의사소통 장애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미 협상은 확장된다. 의미 협상의 확장이 발생하면 신호어, 반응어, 역반응어는 다음에 따라오는 의미 협상의 촉발어로서 기능하게 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에서 이렇게 잇따른 의미 협상은 대화자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는데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수업 열정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생성 단계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반의어의 특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학습자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한국어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의미 협상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 중 생성 단계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의미 협상의 적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앞서 설명한 한국어 반의어 특성에 근거하여 중국어 반의어와

차이가 있는 한국어 반의어 목록을 제시한다.

둘째, 학습자들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한국어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에 근거하여 답안을 토론하면서 의견을 나눈다.

셋째, 교사가 피드백을 제공한다.

Ⅴ. 결론

한국어 반의어는 비록 어휘에 속하지만, 특성이 복잡하고 서로 다른 유형의 반의어 사이에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 또한,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는 부분적으로 같은 한자어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 속에 내포되어있는 의미나 특성이 다르다. 이와 같은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의 특성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 반의어를 학습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의어의 정의, 성립 조건, 유형 및 특성을 살펴본 후,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대조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대조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을 선정하였으며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반의어 사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반의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구축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반의어의 정의, 성립 조건으로부터 반의어의 유형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대조 분석을 진행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차이점을 밝혔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의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 대한 분석, 중국 현지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의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 대학교의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반의어에 대한 교육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반의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

국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고급 학습자 81명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인 학습자와 비교하기 위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 47명에게도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Ⅱ장의 이론을 토대로 조사 도구 및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고급 단계에 이르러서도 한국어 반의어를 사용함에 있어 정확도가 비교적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며 중국어 반의어와 구별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 조사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사후 점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의어 사용 양상이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 반의어의 간섭에서 기인한 차이, 한국어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 등 복잡성에서 기인한 차이,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부재에서 기인한 차이, 학습자 요인에서 기인한 차이라는 네 가지 원인을 밝힐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이론과 Ⅲ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의 교수·학습 목표를 비롯한 효과적인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고자 하는 교수·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어 유형별 반의어 및 유형별 반의어 차이의 교육 내용을 설계하였다. 반의어의 복합성과 불균형성이 형태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이 모두 포함되는 것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모두 성인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의 교수·학습 방법은 형태와 의미에 모두 중점을 두고 유창성과 정확성을 모두 추구하는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발견 단계에서는 의식 고양 과제, 제시 단계에

서는 입력 처리, 생성 단계에서는 의미 협상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반의어의 특성 즉 복합성과 불균형성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대조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을 선정하였으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의어 사용 양상 및 사용 양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의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 초급, 중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과 교육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한계라 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한국어 교재, 사전 및 자료

李先漢主編(2008). 韓國語3. 民族出版社.

李先漢主編(2008). 韓國語4. 民族出版社.

馬今善主編(2009). 高級韓國語1.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沈賢淑主編(2009). 高級韓國語2.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延世大學韓國語學堂(2007). 韓國語教程5. 世界圖書出版公司.

延世大學韓國語學堂(2007). 韓國語教程6. 世界圖書出版公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샘터.

김광해(1990). 반대말사전. 서울: 국학자료원.

낱말 어휘정보처리연구소(2010). 우리말 반의어 사전. 서울: 낱말 어휘정보처리연구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14). 한국어 교육학 사전. 서울: 하우.

2. 국내 논저

강사민(1980). 국어반의어고.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수진(2010). 반의어의 의미 유형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_____(201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반의어 교육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구본관(2011). 어휘 교육의 목표와 의의.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27-59쪽.

구본관 외(2014). 어휘 교육론.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서울: 집문당.

_____(200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서울: 박이정.

김서형(2013). 맥락적 반의 관계 어휘의 한국어 교육 방안-목록 선정 및 제시 원리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53, 이중언어학회, 1-24쪽.

김영규(2010). FonF 연구의 최근 동향이 한국어 교육에 시사하는 점. 한국어교육, 21-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33-359쪽.

김영주 외(2012). 한국어 문법성 판단 테스트 개발 연구. 국어교육, 137, 한국어교육학회, 353-380쪽.

김용한(1998). 한자 어소의 의미기능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김은혜(2012). 연상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의미 교육 연구-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201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교육론. 서울: 역락.

김종택(1992). 국어 어휘론. 서울: 탑출판사.

김주보(1988). 국어 의미대립어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연(2011). 중급 학습자를 위한 반의어 어휘 교육 방안.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은(2007).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반의어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호정(2018).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 지식 측정을 위한 문법성 판단 테스트 개발의 쟁점과 과제. 국어교육연구, 4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417-455쪽.

남기심(1974). 반대어고. 국어학, 2, 국어학회, 133-139쪽.

도재학(2011). 현대 국어 다의어의 대립적 의미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마릉연(2016).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말뭉치 기반 한국어 동사 유의어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민찬규(2002). 형태 초점 의사소통 접근 방법: 교수법적 특징과 영어교육에서의 적용 방안. 외국어교육, 9-1, 한국외국어교육학회, 69-88쪽.

민현식(2008).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 기반 언어 기능의 통합 교육과정 구조화 방법론 연구. 국어교육연구, 2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61-334쪽.

민현식 외(2019). 국어 의미 교육론. 파주: 태학사.

박선희(1984). 현대국어의 상대어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정무(1981). 국어 의미대립의 유형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춘설(2012). 중국 조선족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혜경(2015). 영어권 계승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맞춤법 교육 방안 연구-의식 고양 과제를 활용하여. 한국어교육, 26-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7-144쪽.

박홍길(2002). 낱말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서기선(2007). 상대어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열호(1983). 국어 반의어 지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지연(2012). 형태 초점 교수를 통한 한국어 내포문 교육 연구-관형사절과 명사절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승용 외(2011). 중간언어와 오류 분석. 서울: 박이정.

신희삼(200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교육 방안 연구. 국어문학, 39, 국어문학회, 142-164쪽.

심재기(1975). 반의어의 존재 양상. 국어학, 3, 국어학회, 135-149쪽.

왕난난(2017). 한·중 자기반의어의 의미 양상과 해석. 담화와 인지, 24-2, 담화·인지언어학회, 53-72쪽.

우형식(2012).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형태 초점 접근법을 적용하는 문제. 한어문교육, 26,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99-128쪽.

유쌍옥(2016). 중국의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과 개발 방향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1, 한중인문학회, 189-213쪽.

윤평현(2008). 국어의미론. 서울: 역락.

_____(2013). 국어의미론 강의. 서울: 역락.

이경숙(2007). 관용표현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반의 현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광호(2009). 의미분석론. 서울: 역락.

이사교(2014a). 한국어 한자어 반의어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2014b). 한·중 반의어 연상 비교 연구. 어문논총, 25,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43-172쪽.

이석주(1975). 반의어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승명(1973). 상대어론Ⅰ. 어문론총, 8, 한국문학언어학회, 87-93쪽.

_____(1977). 국어 어휘의 의미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원우(2010). 입력 처리 활동을 활용한 문법 교수가 한국어 문법 학습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지룡(1988). 국어 대립어의 의미 상관체계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1989). 대립어의 의미습득에 대하여. 배달말교육, 7-1, 배달말교육학회, 153-179쪽.

_____(1992). 국어 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_____(2017). 인지의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장미정(2010). 수준별 짝 구성에 따른 의미협상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문규(2014). 대립성의 의미적 확장을 통한 한국어 반의 표현 교육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_____(2017). 중·근세 국어의 반의어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수태(1997). 국어 반의어의 의미 구조. 서울: 박이정.

정인수(1985). 국어 반의어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_____(1991). 국어 형용사 반의어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19, 한민족어문학회, 165-185쪽.

조남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주설(2019). 한·중 반의어의 다의 구조 대조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진탁(2017). 한국어 초급 단계를 위한 반의어 제시 방안 연구-동사·형용사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미옥(2019).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 방안 연구-동사·형용사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유정(2013).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반의어 교수 모형 설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재홍(1987). 현대국어 어휘의 의미 대립 유형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중식 · 장태원(2010). 한 · 중 부정식 반의어 대조 연구. 언어과학연구, 53, 언어과학회, 239-258쪽.

최호정(2013). 한국어 반의어 교육방법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추엔웨이(2013). 반의 관계의 문장 실현 양상 대조 연구-한국어, 중국어의 반의 관계 구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풍정정(2016). 한국어와 중국어 위치 관계어의 의미 대조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하미령(2013). 명시적 FonF와 암시적 FonF가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학습과 사용 오류에 미치는 영향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재영 외(2010). 한국어 어휘 교육. 파주: 태학사.

한정희(2017). 과제 복잡성과 수준별 짝구성이 중학생 영어학습자의 의미협상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웅(1983). 언어학 개론. 서울: 샘문화사.

홍사만(2008). 국어 의미 분석론. 서울: 한국문화사.

황종(200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 연구-부정접두 한자반의어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국외 논저

陳青青(2011). 反義關係的分類及其邏輯基礎. 河北北方學院學報(社會科學版), 27(3), 26-30.

符淮青(2004). 現代漢語詞彙. 北京大學出版社.

葛本儀(2006). 漢語詞彙研究.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李慧敏(2004). 反義詞判別標準簡論. 伊犁教育學院學報, 17(2), 138-140.

束定芳(2000). 現代語義學. 上海外語教育出版社.

宋振芹(2003). 反義詞分類的語義學研究. 南京郵電學院學報(社會科學版), 5(1), 39-43.

肖瑤(2018). 漢語反義詞的邏輯基礎, 語義生成和語形限制. 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張斌(2009). 簡明現代漢語. 復旦大學出版社.

Doughty C. & Williams, J.(1998). Pedagogical choices in focus in form, In(Eds.) Doughty C. & Williams, J. *Focus on Form in Classroom Second Language Acquis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rmer, J.(2007). *The practice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Essex: Pearson Education Limited.

Long. M. H.(1988). Focus on form: A design feature in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Paper presented at the European-American Symposium on Needed Research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Bellagio: Rockefeller Center.

Long. M. H.(1991). Focus on form: A design feature in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In K. de Bot, R. Ginsberg & C. Kramsch(Eds.). *Foreign Language Research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Amsterdam: John Benjamins.

Lyons, J.(1977). *Semantics I.*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mith, B.(2003). Computer-medicated negotiated interaction: An expanded model. The Modern Language Journal, 87-1, 38-57.

VanPatten, B.(2002). Processing instruction: an update. Language Learning, 52-4, 755-803.

Williams, J. & Evans, J.(1998). What kind of focus and on which forms? In(Eds.) Doughty C. & Williams, J. *Focus on Form in Classroom Second Language Acquis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부록 1>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목록(998쌍)

가난	풍요, 부	세련되다	촌스럽다
가능	불가능, 불능	세우다	파괴하다, 앉히다, 쓰러뜨리다, 무너뜨리다, 넘어뜨리다
가동	미가동	소극적	적극적
가두다	석방하다, 놓아주다	소비	저축, 생산, 제조, 저금, 예금, 제작
가라앉다	떠오르다, 솟다, 뜨다, 솟아오르다	소비하다	생산하다, 제작하다, 예금하다, 저축하다, 저금하다, 제조하다
가라앉히다	띄우다	소식	대식, 다식
가르다	모으다, 합치다, 합하다	소심하다	대범하다
가뭄	장마, 홍수	소아	성인
가상	실제, 현실, 실재	소인	대인
가속	감속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가열	냉각	소홀히	철저히
가입하다	탈퇴하다	손등	손바닥
가장자리	가운데, 중심, 중앙	손쉽다	어렵다, 힘들다
가중	경감	손실	이득, 이익, 수익
가해자	피해자	손해	이익
간섭	방관, 불간섭	솟다	가라앉다, 꺼지다
간소하다	복잡하다, 화려하다	솟아오르다	꺼지다
간접	직접	쇠퇴	번성
간접적	직접적	수다스럽다	과묵하다
간편하다	복잡하다, 불편하다	수동	자동
감다	풀다	수신자	발신자
감량	증량	수월하다	수월찮다, 어렵다
감상적	논리적, 이성적	수익금	손실금
감성	이성, 지성	수입	지출, 수출
감소	증가, 증대	수입품	수출품, 국산품
감소세	증가세	수직	수평
감소하다	증가하다, 늘다, 늘어나다	수컷	암컷
감원	증원	수평선	지평선, 수직선
감추다	들추다, 나타내다, 밝히다, 드러내다	수혈	채혈
감하다	가하다, 더하다	수화기	송화기
값싸다	값비싸다, 비싸다	숙녀	신사

강국	약국	순간적	영구적, 항구적
강남	강북	순식간	영원
강대국	약소국	순응	반항, 불응
강력하다	약하다	숨기다	밝히다, 찾다, 드러내다, 찾아내다, 고백하다, 들추어내다, 털어놓다
강세	약세	스승	제자
강자	약자	습득	분실
강점	약점	승	패
강화	약화	승리	패배
갚다	빌리다, 꾸다	승리하다	지다, 패배하다, 패하다, 패망하다
개강	종강	승자	패자
개관	폐관	시시하다	재미있다, 중요하다, 흥미롭다
개막	폐막	시외버스	시내버스
개막식	폐막식	시집가다	장가가다, 장가들다
개방	폐쇄	식상하다	신선하다
개방적	폐쇄적	식히다	달구다, 데우다, 익히다, 끓이다
개방하다	폐쇄하다	신세대	기성세대, 구세대
개별적	집단적, 종합적	신속하다	늦다, 느리다, 완만하다
개시	마감, 종료	신임	불신, 불신임
개업	폐업, 정업	신자	불신자, 비신자
개장	폐장	신중하다	경솔하다, 가볍다
개체	전체,집단	신중히	경솔히
개통	불통	신하	왕, 임금
거꾸로	바로	실명	가명
거두다	벌이다	실업률	취업률
거만	겸손	실외	실내
거부하다	승인하다, 응하다, 응낙하다	실재	가상, 허구
거북하다	편하다	실직	취직
거시적	미시적	실질적	명목적, 형식적
거액	소액	실천	이론
거절하다	수용하다, 승낙하다, 허락하다, 허용하다, 응낙하다, 응하다, 받아들이다	실천적	관념적, 이론적
거칠다	부드럽다, 보드랍다, 온순하다, 얌전하다, 곱다	싸다	비싸다, 뜨다

건기	우기	쌍방	일방
건설	파괴	썰물	밀물
건설하다	파괴하다, 부수다, 허물다, 헐다	쓰러지다	서다, 일어서다
건전	불건전	쓴맛	단맛
건조하다	습하다, 촉촉하다	아랫사람	윗사람
걷다	치다, 드리우다	아비	어미
걷히다	끼다, 서리다	악	선
걸작	졸작, 범작	악마	천사
검소	사치	악몽	길몽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근면하다	악순환	선순환
격식	비격식	악용	선용
결말	발단	안도	걱정
결산	미결산, 예산	안심하다	걱정하다
결석	출석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위험하다, 위급하다, 위독하다
결재	미결재	안정	불안정, 불안
경공업	중공업	안정감	불안감
경시	중시	안쪽	바깥쪽
고	저, 낙	알아보다	몰라보다
고가	저가, 헐값	앞당기다	늦추다, 미루다
고가품	저가품	앞일	뒷일
고기압	저기압	앞장서다	뒤따르다, 뒤처지다, 처지다
고령자	연소자	앞지르다	뒤처지다
고상하다	저속하다	애국자	매국노, 매국적
고소득	저소득	애정	미움, 증오
고온	저온	야간	주간
고요하다	시끄럽다, 요란하다, 떠들썩하다, 번잡하다, 복잡하다	야당	여당
고조	저조	약해지다	강해지다
고학력	저학력	약혼하다	파혼하다
고향	타향, 객지	양	군, 질, 음
고혈압	저혈압	양력	음력
곤란하다	쉽다, 순조롭다, 부유하다, 순탄하다	어기다	지키다
곧다	굽다, 휘다	어둑어둑하다	밝다, 환하다
골짜기	능선	어렴풋이	뚜렷이
공개	비밀, 비공개	어리석다	슬기롭다, 현명하다, 영리하다, 똑똑하다
공개적	비공개적	어지럽히다	정리하다, 치우다

공개하다	감추다, 숨기다, 비공개하다	어지르다	정리하다, 치우다
공격	방어, 수비	엄격하다	인자하다
공격하다	방어하다, 수비하다	여류	남성
공교육	사교육	여리다	강하다
공급	수요	여성상	남성상
공세	수세	여성적	남성적
공식	비공식	여인	남성, 남자
공식적	비공식적	연결	분리, 단절, 절단
공유	독점, 독차지, 사유	연상	연하
공익	사익	연약하다	튼튼하다, 강인하다
공정	불공정	연연하다	초연하다
공정성	불공정성	연초	연말
공주	왕자	열	행
공중	육상, 해상	열성	우성
공중위생	개인위생	엷다	짙다, 진하다
공통점	상이점, 차이점	예리하다	뭉뚝하다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예민하다	무디다
공해	무공해	예선	결승, 결선
과거	미래	예습하다	복습하다
과다	과소	오름세	내림세
과대평가	과소평가	오해	이해
과부	홀아비	온수	냉수
괴로움	즐거움	온순하다	거칠다, 포악하다
괴로워하다	즐거워하다	올려다보다	내려다보다
교내	교외	올리다	내리다
구두	서면	완공하다	기공하다
구매자	판매자	완료	미완료, 시작, 착수
구분하다	모으다, 종합하다, 합치다	완만하다	급하다, 급격하다
구속	자유, 석방	완성	미완성
구속하다	석방하다, 놓아주다, 방치하다	완성하다	미완성하다, 시작하다
구어	문어, 글말	완전	불완전, 결여
구인	구직	왕비	왕
구입	판매	왜소하다	거대하다
구입하다	판매하다, 팔다	외래	재래
구형	신형	외유내강	외강내유
국내선	국제선	외향적	내향적
국립학교	사립학교	용감하다	비겁하다, 비굴하다
국비	사비	용기	겁
국산	외국산, 외제	용이하다	난해하다

굳히다	녹이다	우뇌	좌뇌
굴러가다	굴러오다	우발적	계획적
굵다랗다	가느다랗다, 잔다랗다	우세	열세
권리	의무	우월감	열등감
귀납적	연역적	우위	열위
귀하다	흔하다, 천하다, 비천하다, 귀찮다	우파	좌파
규정	자유	우호적	적대적
균형	불균형	운전자	탑승자
그녀	그	울리다	웃기다
그르다	옳다	울음소리	웃음소리
극대화	극소화	웃돌다	밑돌다
극히	별로	원고	피고
근시안	원시안	원수	은인
금속	비금속	원심력	구심력
금지	허가, 허락, 허용	원인	결과
금하다	허가하다, 허락하다, 허용하다	위법	적법,합법
급등	급락	위생적	비위생적
급등하다	급락하다	유난스럽다	평범하다
급상승	급강하	유능하다	무능하다
급성	만성	유동	고정
급히	천천히	유동적	고정적
긍정	부정	유식하다	무식하다
기다	날다	유연하다	딱딱하다, 뻣뻣하다
기립	착석	유용	무용
기어가다	기어오다	유익	무익
기억하다	잊다, 까먹다	유지하다	그만두다, 그치다, 끊다, 중지하다, 중단하다
기원전	기원후	유해	무해
기점	종점	윤리적	비윤리적
기혼	미혼	응답하다	질문하다
길어지다	짧아지다	응하다	불응하다
길하다	흉하다, 불길하다	의	불의
깔끔하다	더럽다, 지저분하다, 불결하다	의식	무의식
깔다	개다	의식적	무의식적
깨다	자다	의심	믿음, 확신, 신뢰
꼬리	머리	이기심	이타심
꼴찌	일등, 수석	이끌다	따르다, 쫓다, 쫓아가다, 좇다
꽂다	빼다, 뽑다	이따금	자주, 흔히

꾸중	칭찬	이론적	실천적
끊다	걸다, 잇다	이롭다	해롭다
끌려가다	끌려오다	이룩하다	실패하다
끌어내다	끌어들이다	이륙	착륙
끌어올리다	끌어내리다	이면	표면
나아지다	나빠지다, 악화되다	이별하다	상봉하다, 만나다
나약하다	굳세다, 튼튼하다	이상	현실, 이하, 정상
나지막하다	높지막하다	이성	동성, 감성
낙관	비관	이성적	감성적, 감정적, 비이성적, 감상적
낙방	합격	이익	불이익, 손해
낙천적	염세적	이주민	토착민
난방	냉방	이행	불이행
난자	정자	익다	설다, 서투르다
날카롭다	둔하다, 둔탁하다, 무디다	인공	자연, 천연
남	나, 자기, 자신, 친척, 여	인공적	자연적, 천연적
남극	북극	인도적	비인도적
남부	북부	인상	인하
남아	여아	인정하다	부인하다
남편	마누라, 아내, 처	인출	예치
남한	북한	일몰	일출, 해돋이
낭독	묵독	일반인	귀족, 특권층
낮추다	높이다	일반적	부분적, 전문적, 예외적
낯익다	낯설다	일시적	영구적, 항구적
내과	외과	일어서다	앉다, 눕다, 넘어지다, 쓰러지다
내다보다	들여다보다	일일이	적당히, 대강
내려서다	올라서다	일찌감치	느지감치
내리막길	오르막길	일치	불일치
내면	외면, 외양	일치하다	불일치하다
내부	외부, 거죽, 겉	임대	임차
내뿜다	들이마시다	임대료	임차료
내쉬다	들이쉬다	임명	면직, 파직, 해임
내적	외적	임신하다	출산하다
내후년	재작년	임용	해임
냉기	온기	입대	제대
냉동	해동	입력	산출, 출력
냉동하다	해동하다, 녹이다	입실	퇴실
넉넉하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궁하다	입양	파양

넘기다	맡다	입장하다	퇴장하다
넘어뜨리다	세우다, 일으키다	잇다	끊다, 자르다
노른자	흰자	자국	타국
노처녀	노총각	자립	의존
녹다	굳다, 얼다	자발적	수동적, 피동적, 강제적
녹이다	얼리다, 굳히다, 냉동하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논	밭	자살	타살
놈	년	자세하다	간단하다
놓다	붙들다, 붙잡다, 움켜잡다, 움켜쥐다	자손	조상
놓아주다	잡다	자연적	인공적, 인위적
눈감다	눈뜨다	자율	타율
느슨하다	팽팽하다	자율성	타율성
능동적	수동적, 피동적	자율적	타율적
능숙하다	서투르다, 미숙하다, 불숙하다	자정	정오
늦가을	초가을	자치	비자치
늦겨울	초겨울	작은딸	작은아들, 큰딸
늦봄	초봄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큰아버지
늦여름	초여름	잘나다	못생기다, 못나다
다량	소량	잘다	굵다
다르다	동일하다, 유사하다	잠그다	열다, 끄르다
다물다	벌리다	잠기다	열리다
다정	비정, 무정	장기	단기
다정하다	비정하다, 박정하다, 냉정하다, 차갑다, 무정하다	장모	장인
단기간	장기간	잦다	드물다, 뜸하다, 뜨다
단단하다	약하다, 무르다, 물렁하다	재미있다	심심하다, 시시하다, 지루하다
단독	공동, 단체, 집단	재빠르다	굼뜨다, 느리다
단시간	장시간	잽싸다	느리다
단일	복합	저승	이승
단조롭다	다채롭다	저항	굴복
단축	연장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단편	장편	적합	부적합
달라붙다	떨어지다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달리	같이, 똑같이	전	일부
달리하다	같이하다	전기	후기
답	문제, 질문, 물음, 질의	전망	회상, 회고
당기다	밀다, 미루다, 늦추다,	전문적	비전문적, 일반적

	물리다		
당선	낙선	전반	후반
당하다	면하다	전반부	후반부
대가족	핵가족, 소가족	전자	후자
대강	자세히, 하나하나, 일일이, 꼼꼼히	절대	상대
대규모	소규모	절망적	낙관적, 희망적
대낮	심야, 한밤중	절약	낭비, 허비
대내적	대외적	절약하다	낭비하다, 허비하다
대다	떼다	절제	무절제, 부절제
대다수, 다수	소수	정규	비정규
대륙	섬, 도서	정규직	비정규직
대북	대남	정기적	부정기적
대외	대내	정당하다	부당하다
대장	소장	정면	후면, 배면, 뒷면
대접하다	부대접하다, 푸대접하다	정문	후문
대폭	소폭	정상	비정상, 이상
대형	소형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더디다	빠르다	정열적	미온적
더러워지다	깨끗해지다	정지하다	진행하다, 움직이다
덜다	더하다	정직하다	교활하다
덜하다	더하다	정착하다	떠돌다, 떠돌아다니다
덩어리	가루	제작	소모, 소비
도달하다	떠나다, 출발하다	제조	소모, 소비
도덕	부도덕	제한	무제한
도덕적	비도덕적	조건	무조건
도매	소매, 산매	조그마하다	크다
도매상	소매상	조직적	비조직적
독립	의존, 의지	족하다	부족하다
독립적	의존적	존경하다	무시하다, 깔보다, 멸시하다, 얕보다,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독립하다	의존하다, 기대다, 의지하다, 부속되다	존중하다	무시하다
독특하다	평범하다, 범상하다	좁히다	넓히다, 벌리다
독하다	약하다, 순하다	종료	개시, 시작
돌려주다	빼앗다	종합	개별, 구분
동거	별거	종합적	개별적, 분석적
동그라미표	가새표	종합하다	분석하다, 구분하다, 나누다
동부	서부	주관	객관
동양인	서양인	주관적	객관적

동의	이의, 반대	주류	비주류
동적	정적	주의	부주의
동질	이질	주체	객체
동질성	이질성	죽다	살다, 살아나다
동화	이화, 분화	줄어들다	늘어나다, 늘다, 붇다, 불어나다
뒷모습	앞모습	중단	계속, 지속, 유지
뒷문	앞문	중단하다	지속하다, 계속하다, 유지하다
뒷산	앞산	중소기업	대기업
드러나다	사라지다	중심지	변두리
드물다	흔하다, 잦다, 수두룩하다, 숱하다, 허다하다	중앙	지방
득점	실점	중증	경증
들어맞다	어긋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줄다, 줄어들다
들어서다	나서다, 나가다	증진	감퇴
들여놓다	내놓다	지배	피지배
들여다보이다	내다보이다	지상	지하
들이다	내다	지속	중단, 중지
들이밀다	내밀다	지속적	간헐적, 일시적
들추다	감추다, 숨기다	지속하다	중단하다, 중지하다, 그치다, 그만두다
등교	하교, 퇴교	지옥	천국, 천당
등장	퇴장, 잠적	지저분하다	깔금하다, 개끗하다, 청결하다
등장하다	사라지다, 퇴장하다, 잠적하다	직전	직후
따님	아드님	직접선거	간접선거
따로따로	같이, 함께	진급	유급, 강등, 낙제
딱딱하다	말랑하다, 물렁하다, 부드럽다, 유연하다, 연하다, 무르다	진리	가설
때리다	맞다	진보	보수, 퇴보
떠나가다	떠나오다, 돌아오다	진실	거짓, 허구, 허위
떠내려가다	떠내려오다	진행	정지
떠들썩하다	고요하다, 조용하다	진화	퇴화
또렷하다	아리송하다	질기다	연하다
뚜렷하다	흐릿하다, 희미하다, 어슴푸레하다	질문	대답, 답변
뚫다	막다	질의	응답

뚫리다	막히다	질적	양적
뛰어오다	뛰어가다	집단	개인, 단독
뛰쳐나가다	뛰쳐나오다	집어넣다	꺼내다, 내놓다, 뽑다, 빼다
뜨다	가라앉다, 지다, 감다	짤막하다	길쭉하다
뜯어내다	붙이다	쫓다	이끌다, 쫓기다
띄어쓰기	붙여쓰기	차다	풀다, 비다, 뜨겁다, 벗다, 덥다
마감	개시, 시작	착용	미착용, 벗다
마땅하다	못마땅하다, 마땅찮다	찬성	반대
마무리	시작, 애벌, 초벌	참가	불참, 불참가, 이탈
막바지	초입	참가자	불참자
만족	불만족, 불만	참석	불참, 불참석
만족스럽다	불만스럽다, 불만족스럽다	참신하다	구태의연하다
맏이	막내	찹쌀	멥쌀
맏형	작은형	창조하다	모방하다, 답습하다
말기	초창기, 초기	채권자	채무자
말리다	적시다, 축이다	처가	시가
맞이하다	바래다, 보내다	처녀	총각
매끄럽다	꺼칠꺼칠하다	천장	바닥
매입하다	매각하다, 매출하다	천재	바보, 천치, 둔재, 백치
맺다	풀다, 끄르다, 끊다	철새	텃새
머리말	맺음말, 결론	철수	진출
머무르다	떠나다	철저	소홀
먼바다	앞바다, 근해	철저하다	소홀하다
멍청하다	똑똑하다	첨가	삭제
명예	불명예	첫차	막차
명확하다	희미하다, 막연하다, 불명확하다	체내	체외
모레	그제, 그저께	초과	미달, 미만
모방	창조	초면	구면
모친	부친	초반	종반
모호하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초순	하순
몰락	번성,번영	최고령	최연소
몰려가다	몰려오다	최대한	최소한
못되다	착하다, 잘되다	최소	최대
못생기다	잘생기다, 잘나다	최악	최고, 최선
무	유	최저	최고
무관심	관심	최초	최종, 최후
무너뜨리다	세우다, 건설하다	추가	삭감, 삭제
무뚝뚝하다	상냥하다	추가하다	삭감하다, 삭제하다
무료	유료	추상적	구체적

무르익다	설익다	축소	확장, 확대
무상	유상	축소하다	확장하다, 확대하다
무선	유선	출국	입국, 귀국
무식	유식	출금	입금
무언	유언	출마	불출마
무차별적	차별적	출발점	목표, 도착점
무한	유한	출석하다	결석하다
무형	유형	출혈	지혈
무효	유효	충실	불충실
묻다	파다, 파내다	충전	방전
물러나다	나가다, 나아가다	충족	결핍, 부족
물려받다	물려주다	취업	실업
물질	정신	취임	퇴임, 사퇴
미남	추남, 미녀	치욕	영광
미녀	추녀, 미남	친정	시집, 시댁
미덕	악덕	침착하다	급하다, 경솔하다, 덤벙거리다
미루다	앞당기다, 당기다, 맡다, 지다	칭찬하다	헐뜯다, 비난하다
미움	사랑, 애정	캄캄하다	밝다, 환하다
미정	기정	쾌감	불쾌감
미지	기지	큰딸	큰아들, 작은딸
미흡하다	흡족하다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민감하다	둔감하다	타다	주다
민주	반민주, 독재	탁월하다	열등하다
민주적	반민주적, 비민주적	탁하다	맑다
민첩하다	느리다, 둔하다	탄생하다	죽다, 사망하다
밀려오다	밀려가다	탈락	입선, 통과, 합격
밑바닥	꼭대기	탈모	발모
바깥일	집안일	탈퇴	가입
박다	뽑다, 빼다	토하다	삼키다, 먹다
반대하다	동의하다, 찬성하다	통과하다	탈락하다
반말	높임말, 존댓말	통합	분리, 분할
반하다	따르다	퇴원	입원
받들다	경시하다, 얕잡다	퇴원하다	입원하다
발굴	매몰	퇴장	등장, 입장
발등	발바닥	투명하다	불투명하다
배타	의타	트이다	닫히다, 막히다
백색	흑색	특수	보편, 일반, 보통
뱉다	삼키다, 마시다, 먹다	특수성	보편성
번번이	가끔	특이하다	평범하다, 예사롭다, 범상하다

벌금	상금	파괴하다	건설하다, 만들다, 세우다, 건축하다
벗기다	입히다, 씌우다	파내다	묻다,파묻다
베다	심다	파다	묻다, 메우다
별도	함께	패하다	승리하다, 승하다, 이기다
별명	본명	팽창	수축
보관	폐기	퍼지다	모이다
보수적	진보적	펴다	쪼그리다, 접다, 움츠리다, 웅크리다
보잘것없다	성대하다, 굉장하다	편파적	중립적
복수	단수	평등	불평등, 차별
복잡하다	단순하다, 간략하다	평면	입체
본사	지사, 분사	평상시	비상시
본인	타인	평지	산지
부당	정당	평화적	폭력적
부드럽다	사납다, 억세다, 매섭다, 딱딱하다, 거칠다	포함	제외
부분적	전체적	포함하다	제외하다, 배제하다
부유층	빈민층, 빈곤층	폭등	급락, 폭락
부인	시인, 승인	폭로	은폐
부정적	긍정적	폭염	혹한
부하	상사	표류	정착
분노	희열	표준어	방언, 사투리
분담	전담	푸다	넣다, 담다
분리	연결, 통합, 밀착	푸대접	환대, 후대, 대접
분명하다	애매하다, 희미하다, 모호하다, 흐리다, 불분명하다	푼돈	거금, 목돈
분산	집중	풀리다	엉키다, 감기다
불경기	호경기	풀어지다	맺히다, 굳어지다
불량	선량, 우량	풍년	흉년
불량품	우량품	풍부하다	부족하다, 궁하다
불러내다	불러들이다	풍성하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풍요	가난, 모자람, 부족, 빈곤
불성실	성실	풍요롭다	가난하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빈곤하다
불신	믿음	풍족하다	가난하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빈곤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피하다	맞서다
불참	참가, 참석	피해	가해
불친절하다	친절하다	필수	선택
불투명	투명	필연적	우연적

불편	편리	필자	독자
불평등하다	평등하다	하나하나	적당히, 대강
불필요하다	필요하다	하락	상승
불행	행복, 다행	하락세	상승세, 오름세
불화	친화, 화목	하인	주인
붙들다	놓다, 놓아주다	하차	승차
붙잡다	놓다, 놓아주다, 놓치다	하찮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붙잡히다	놓치다	한가롭다	바쁘다, 분주하다
비관적	낙관적	한가하다	분주하다, 바쁘다
비극	희극	한산하다	번잡하다, 복잡하다, 분주하다, 바쁘다
비극적	희극적	한적하다	번잡하다, 복잡하다
비난	칭찬, 찬사	한정	무한정
비례	반비례	합격하다	낙제하다, 불합격하다, 탈락하다
비정상적	정상적	합당하다	부당하다, 불합당하다
비좁다	넓다	합리	불합리, 비합리
빈곤	부유	합리적	비합리적, 불합리적
빠뜨리다	건지다, 챙기다	합법	불법, 비법
뾰족하다	뭉툭하다	합법적	비합법적, 불법적
사교육비	공교육비	합성	분해
사립	공립, 국립	합창	독창
사망	출생, 탄생, 생존	합하다	분리하다, 나누다, 가르다
사망하다	태어나다, 탄생하다, 생존하다, 출생하다	해고	임용, 채용
사복	교복, 제복	해답	문제, 의문
사소하다	중요하다, 중대하다	해안	내륙
사후	사전, 생전	해직	임용, 채용
산성	알칼리성, 염기성	햅쌀	묵은쌀
삶	죽음	행운	불운, 비운, 액운
삼복더위	엄동설한	허락	금지, 거절
삼키다	뱉다, 토하다	허락하다	금지하다, 거절하다
상	벌, 하	허술하다	빈틈없다, 완벽하다
상관	무관	허용	금지, 거절
상당하다	근소하다, 적다	험악하다	평탄하다
상대적	절대적	헤프다	알뜰하다, 마디다
상대편	자기편	현실	이상, 가상, 공상, 꿈
상류	하류	현실성	비현실성
상반기	하반기	현실적	비현실적, 이상적, 낭만적
상반신	하반신	협조	비협조
상봉	이별, 작별	형수	제수, 형
상승세	내림세, 하락세, 낙세	형식	실질, 내용, 실체

상실	획득	형제	자매
상이하다	같다, 동일하다, 상동하다	호전	악화
상체	하체	호평	악평, 혹평
상쾌하다	불쾌하다	호황	불황
상향	하향	홀로	같이, 함께
생	사	화려하다	초라하다, 수수하다, 소박하다, 간소하다
생물	무생물	화자	청자
생방송	녹화방송	확산	미확산, 비확산, 수렴
생산	소비, 소모	확신하다	불신하다, 의심하다
생산량	소비량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애매하다
생산성	비생산성	확정	미정, 미확정, 불확정
생산자	소비자	환하다	어둡다, 캄캄하다, 어둑어둑하다, 깜깜하다
생산적	비생산적, 소모적, 소비적	회원국	비회원국
생산지	소비지	효	불효
생성	소멸	효율	비효율
생소하다	낯익다, 익숙하다	효율적	비효율적
서구	동양	효자	효녀, 불효자
서늘하다	덥다	후대	선대
서먹하다	친근하다	후손	조상, 선조
서민	귀족	후임	전임
서서히	급격히, 빨리, 급속히	후진	전진, 선진
서양식	동양식	후진국	선진국, 전진국
선불	후불	후하다	박하다
선의	악의	휴식	근로, 노동
선천적	후천적	흐리다	개다, 맑다, 선명하다
선하다	희미하다, 악하다	흐릿하다	뚜렷하다, 맑다
선행	후행, 악행	흑자	적자
설상가상	금상첨화	흔하다	희귀하다, 귀하다, 드물다, 진귀하다
성급하다	느긋하다	흡연	금연
성기다	빽빽하다, 조밀하다	흡연자	비흡연자
성년	미성년	흥분하다	가라앉다, 진정하다
성대하다	보잘것없다, 초라하다	흩어지다	모이다, 뭉치다, 꼬이다, 집합하다
성수기	비수기	희미하다	뚜렷하다, 분명하다
성실하다	불성실하다	힘겹다	쉽다

<부록 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설문지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 과정 전정입니다. 본 설문 조사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반의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고, 연구 목적 이외의 기타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귀한 자료를 제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별: 나이: 소속: _____대학교 한국어 능력: TOPIK __급 한국어 학습 시간: __년 __개월 위챗:

Ⅰ. 아래 단어의 반의어를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답안이 한 개 이상일 수 있고 해당 답안이 없는 경우, 기타를 선택하고 답안을 작성해주십시오.

1. 공개적 ( )
   A. 비공개적 B. 미공개적 C. 불공개적 D. 기타____
2. 관심 ( )
   A. 무관심 B. 불관심 C. 미관심 D. 기타____
3. 도덕적 ( )
   A. 비도덕적 B. 부도덕적 C. 무도덕적 D. 기타____
4. 민주적 ( )
   A. 반민주적 B. 비민주적 C. 무민주적 D. 기타____
5. 생물 ( )
   A. 무생물 B. 비생물 C. 미생물 D. 기타____
6. 신자 ( )
   A. 불신자 B. 비신자 C. 무신자 D. 기타____
7. 위생적 ( )
   A. 불위생적 B. 비위생적 C. 무위생적 D. 기타____
8. 이성적 ( )
   A. 불이성적 B. 비이성적 C. 감성적 D. 기타____
9. 이익 ( )
   A. 비이익 B. 불이익 C. 손해 D. 기타____
10. 인도적 ( )

A. 무인도적　B. 비인도적　C. 불인도적　D. 기타____

11. 전문적 (　)

A. 불전문적　B. 비전문적　C. 일반적　D. 기타____

12. 정규 (　)

A. 불정규　B. 비정규　C. 무정규　D. 기타____

13. 정기적 (　)

A. 무정기적　B. 부정기적　C. 비정기적　D. 기타____

14. 정상 (　)

A. 불정상　B. 비정상　C. 이상　D. 기타____

15. 정상적 (　)

A. 미정상적　B. 불정상적　C. 비정상적　D. 기타____

16. 제한 (　)

A. 불제한　B. 비제한　C. 무제한　D. 기타____

17. 조직적 (　)

A. 무조직적　B. 불조직적　C. 비조직적　D. 기타____

18. 참가 (　)

A. 불참　B. 미참가　C. 불참가　D. 기타____

19. 참석 (　)

A. 불참　B. 미참석　C. 불참석　D. 기타____

20. 쾌감 (　)

A. 무쾌감　B. 비쾌감　C. 불쾌감　D. 기타____

21. 한정 (　)

A. 불한정　B. 비한정　C. 무한정　D. 기타____

22. 현실적 (　)

A. 이상적　B. 불현실적　C. 비현실적　D. 기타____

23. 협조 (　)

A. 미협조　B. 불협조　C. 비협조　D. 기타____

24. 확산 (　)

A. 미확산　B. 불확산　C. 비확산　D. 기타____

25. 효율적 (　)

A. 비효율적　B. 무효율적　C. 불효율적　D. 기타____

26. 효자 (　)

A. 효녀　B. 불효자　C. 역자　D. 기타____

27. 흡연자 (　)

A. 비흡연자　B. 불흡연자　C. 미흡연자　D. 기타____

28. 마땅하다 (　)

A. 못마땅하다　B. 마땅찮다　C. 불마땅하다　D. 기타____

29. 대접하다 (　)

A. 부대접하다　B. 푸대접하다　C. 비대접하다　D. 기타____

30. 구어 ( )
A. 문어 B. 글말 C. 서면어 D. 기타____
31. 동거 ( )
A. 별거 B. 분거 C. 공거 D. 기타____
32. 부인 ( )
A. 시인 B. 인정 C. 승인 D. 기타____
33. 분담 ( )
A. 총람 B. 전담 C. 총담 D. 기타____
34. 불경기 ( )
A. 호경기 B. 경기 C. 참경기 D. 기타____
35. 성수기 ( )
A. 불수기 B. 비수기 C. 담기 D. 기타____
36. 악몽 ( )
A. 길몽 B. 미몽 C. 선몽 D. 기타____
37. 여인 ( )
A. 남인 B. 남성 C. 남자 D. 기타____
38. 완공하다 ( )
A. 개공하다 B. 기공하다 C. 시공하다 D. 기타____
39. 정열적 ( )
A. 냉담적 B. 미온적 C. 무열적 D. 기타____
40. 필수 ( )
A. 비필수 B. 선택 C. 선수 D. 기타____
41. 호황 ( )
A. 악황 B. 불황 C. 불호황 D. 기타____
42. 급상승 ( )
A. 급강하 B. 급하강 C. 급낙하 D. 기타____
43. 도매 ( )
A. 소매 B. 산매 C. 영매 D. 기타____
44. 등교 ( )
A. 하교 B. 퇴교 C. 방학 D. 기타____
45. 먼바다 ( )
A. 앞바다 B. 근해 C. 근바다 D. 기타____
46. 상승세 ( )
A. 내림세 B. 하락세 C. 하강세 D. 기타____
47. 외래 ( )
A. 내래 B. 재래 C. 고유 D. 기타____
48. 우월감 ( )
A. 자비감 B. 열등감 C. 평범감 D. 기타____
49. 웃돌다 ( )

A. 아랫돌다　B. 미돌다　C. 밑돌다　D. 기타____

50. 입대 (　)

A. 퇴대　B. 제대　C. 출대　D. 기타____

51. 저승 (　)

A. 그승　B. 고승　C. 이승　D. 기타____

52. 정면 (　)

A. 반면　B. 후면　C. 배면　D. 기타____

53. 첨가 (　)

A. 무첨가　B. 불첨가　C. 삭제　D. 기타____

54. 탈모 (　)

A. 생모　B. 장모　C. 발모　D. 기타____

55. 후진국 (　)

A. 전진국　B. 발달국　C. 선진국　D. 기타____

56. 개강 (　)

A. 폐강　B. 휴강　C. 종강　D. 기타____

57. 맏형 (　)

A. 막형　B. 큰형　C. 작은형　D. 기타____

Ⅱ. 다음 문장을 읽고 밑줄 그은 단어의 반의어를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해당 답안이 없는 경우, 기타를 선택하고 답안을 작성해주십시오.

58. 그런 푼돈으로 아무것도 살 수 없다. (　)

A. 목돈　B. 거금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59. 떡을 냉장고에 얼렸더니 돌처럼 딱딱해져서 먹을 수가 없다. (　)

A. 물렁하다　B. 무르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60. 이 도서실은 정리가 잘되어서 자료 찾기가 수월하다. (　)

A. 수월찮다　B. 어렵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61. 달아나는 것이 너무 재빨라서 잡을 수가 없다. (　)

A. 굼뜨다　B. 느리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62. 줄 간격을 좁히다. (　)

A. 벌리다　B. 넓히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63. 근래 들어, 수출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　)

A. 붇다　B. 불어나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64. 선생님은 아이가 한 선행을 침이 마르게 칭찬하였다. (　)

A. 헐뜯다　B. 비난하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65. 안개가 걷히다. (　)

A. 서리다　B. 끼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66. 우리는 사 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이다. (　)

A. 핵가족　B. 소가족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67. 시간이 없어서 다리미로 젖은 옷을 말렸다. ( )
A. 축이다 B. 적시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68. 토지를 매입하다. ( )
A. 매각하다 B. 매출하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69. 파견 근무를 마치고 다시 본사로 들어오라는 연락이 왔다. ( )
A. 지사 B. 분사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70. 그는 자물쇠로 책상 서랍을 잠갔다. ( )
A. 끄르다 B. 열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71.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 )
A. 꼬이다 B. 모이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Ⅲ. 아래 단어의 반의어가 될 수 있는 답안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해당 답안이 없는 경우, 기타를 선택하고 답안을 작성해주십시오.

72. 개업 ( )
A. 폐업 B. 휴업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73. 신세대 ( )
A. 기성세대 B. 구세대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74. 익다 ( )
A. 서투르다 B. 설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75. 굵다 ( )
A. 잘다 B. 가늘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76. 굵다랗다 ( )
A. 가느다랗다 B. 잔다랗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77. 드물다 ( )
A. 잦다 B. 수두룩하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78. 선하다 ( )
A. 악하다 B. 희미하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79. 세련되다 ( )
A. 유치하다 B. 촌스럽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80. 시시하다 ( )
A. 재미있다 B. 중요하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81. 식상하다 ( )
A. 싱싱하다 B. 신선하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82. 싸다 ( )
A. 비싸다 B. 뜨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83. 잦다 ( )
A. 드물다 B. 뜸하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84. 특이하다 ( )

A. 예사롭다　　B. 평범하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85. 헤프다 (　)

A. 마디다　　B. 알뜰하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86. 흐리다 (　)

A. 맑다　　B. 선명하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87. 감추다 (　)

A. 들추다　　B. 나타내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88. 당기다 (　)

A. 밀다　　B. 물리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89. 맺다 (　)

A. 끊다　　B. 끄르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90. 미루다 (　)

A. 앞당기다　　B. 맡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91. 빠뜨리다 (　)

A. 챙기다　　B. 건지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92. 솟다 (　)

A. 가라앉다　　B. 꺼지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93. 풀어지다 (　)

A. 맺히다　　B. 굳어지다　　C. 둘 다 가능　　D. 기타____

Ⅳ. 반의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94.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반의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95.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반의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96. 한국어 반의어를 어떤 방법으로 배웠습니까?

97. 한국어 반의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98. 앞으로 한국어 반의어를 어떻게 배우고 싶습니까?

<부록 3> 중국 내 한국어 반의어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1. 한국어 학습자에게 반의어를 가르쳐주신 적이 있습니까?

2. 한국어 학습자에게 반의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3. 한국어 학습자에게 반의어를 어떤 방법으로 가르쳤습니까?

4. 한국어 반의어와 중국어 반의어의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5. 앞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반의어를 어떻게 가르쳐주고 싶습니까?

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 of Korean Antonyms for Chinese Learners

ZHAN ZHE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antonyms help greatly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by helping to expand vocabulary. However, even at the advanced level, Chinese Korean learners can not correctly use Korean antonyms because they do not properly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mplexity and imbalance of Korean and Chinese antonym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provide teaching contents and learning methods that can improve the accuracy of Chinese learners' use of Korean antony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definition of antonyms, conditions of establishment, types, characteristics, and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Chinese antonyms in order to select a list of Korean antonyms for Chinese learners. Based on the list of Korean

antonyms created in this way, this study analyzed the pattern of Chinese learners' use of Korean antonyms, and based on this, established the teaching contents and learning methods of Korean antonyms for Chinese learners.

In Chapter Ⅱ, this study reviewed the definition, establishment conditions, types, characteristics of the antonyms revealed by the previous research, then compared and analyzed the Korean and Chinese antonyms based on the complexities and imbalances of the antonyms. This study tried to uncover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antonyms. Based on these differences, this study selected a list of Korean antonyms for advanced Chinese learners, and examined the teaching status of Korean antonyms in China including the Korean textbooks used in China, the recognition of teachers, and the perception of learners.

In Chapter Ⅲ,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examine how Chinese learners use Korean antonyms. Based on the theory in Chapter Ⅱ,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5 parts. This study found 81 Chinese advanced learners and 47 Korean native speakers to do the research. Through the survey, this study found that even when Chinese learners reach an advanced level, the accuracy in using Korean antonyms is relatively low because of the complexity and imbalance of Korean antonyms. It was found that they suffered from relatively large difficulties in synonymity, polymorphism, morphological representation, semantic representation, and vocabulary vacancy. In addition, through the post-examination interview,

this study attempted to elaborate on the causes of differences in the usage patterns of Chinese learners and Korean native speakers.

In chapter Ⅳ, based on the results reviewed in chapter Ⅲ, an attempt was made to construct effective teaching contents and learning methods of Korean antonyms for Chinese learners. Based on the teaching and learning goals of Korean antonyms for Chinese learners and the usage of Korean antonyms for Chinese learners, it describes systematic teaching contents, and utilizes Focus on Form Instruction for effective learning methods such as consciousness-raising task, input processing, and semantic negotiation.

Chapter Ⅴ summarized the contents discussed above and describe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Until now, studies on antonyms in Korean education have been concentrated on comparative studies of Chinese characters with anomalous prefixes, but this study contrasted and analyzes Korean and Chinese antonyms, focusing on the complexities and imbalances which ar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antonyms. Then it selected a list of Korean antonyms for Chinese advanced learners, and analyzed the causes of differences in usage patterns of antonyms between Chinese learners and Korean native speake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stablished the teaching contents and learning methods of Korean antonyms for Chinese learners by paying attention to the complexities and imbalances of antonyms that were relatively unnotic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antonyms, Chinese learners, complexities, imbalances, contrast analysis, Focus on Form Instruction

* **Student number**: 2018-29090